

中央語文學會

제43회 온라인 학술발표대회

아동·청소년과 텍스트

- ◆ 일시: 2020년 8월 19일 (수)
- ◆ 진행: 실시간 화상 회의 및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 ◆ 주최: 중앙어문학회

中央語文學會

(<http://www.cakoll.or.kr>)

중앙어문학회 제43회 온라인 학술발표대회

아동·청소년과 텍스트

◎ 전체 일정

14:30~15:00 실시간 화상 회의실 입장

15:00~15:10 개회사 및 축사

15:10~16:40 기획주제 발표

16:40~17:00 종합토론 및 연구윤리 교육

◎ 일 시 2020년 8월 19일 (수) 14:30~17:00

◎ 기획주제 실시간 화상 회의실

◎ 자유주제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대회 진행 방법

기획주제 실시간 화상 회의
자유주제 중앙어문학회 홈페이지 업로드

기획 주제 발표

사회: 임현열

15:10~15:40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발표 노정은 (한성대) ▷토론 장미정 (고려대)

15:40~16:10 식민지 어린이를 위한 헤테로토피아 -현덕의 어린이 소설을 중심으로

▶발표 한승우 (중앙대) ▷토론 김강원 (고려대)

16:10~16:40 1920년대 초 개성 아동지 '샛별' 연구

▶발표 장정희 (서울대), 서희경 (숭실대) ▷토론 정선희 (고려대)

16:40~17:00 종합토론 및 연구윤리교육 엄홍준(계명대, 연구윤리위원장)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 국어학

언어 현상으로서의 인터넷 밈 연구

▶발표 박광길 (강원대) ▷토론 최유숙 (중앙대)

용언의 상적 특성과 시제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연구

▶발표 김병건 (건국대) ▷토론 조용준 (건국대)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와 문체적 특성 연구

▶발표 고혜원 (중앙대) ▷토론 권정현 (한성대)

유동분류사 구문에서의 격 교체 현상에 대한 고찰

▶발표 엄홍준 (계명대) ▷토론 최 윤 (전남대)

◎ 현대문학

오학영 희곡 텍스트의 모순성 연구 - 텍스트 내적 구조와 실존주의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발표 민선희, 박종수 (중앙대) ▷토론 이승현 (경북대)

구소련 고려인 시에 대한 고찰 -〈先鋒〉에 수록된 시를 중심으로-

▶발표 김낙현 (중앙대) ▷토론 안상원 (부산외대)

간힘과 떠돌, 소통의 서사 미학 -송영문학론-

▶발표 손혜숙 (한남대) ▷토론 이민정 (나사렛대)

작가 인식을 통한 최인호 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발표 김선옥 (한성대) ▷토론 임형모 (한성대)

◎ 고전문학

일제강점기 기녀 관련 사당의 역할과 의미 - 義妓 論介와 貞女 春香을 중심으로

▶발표 문순희 (연세대) ▷토론 김지혜 (한성대)

<전우치전> 속 약자적 인물의 결함과 그 의미

▶발표 송미경 (항공대) ▷토론 김선현 (숙명여대)

재지사족 所作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의 표현 양상과 그 의미

▶발표 조은별 (한성대) ▷토론 윤지아 (고려대)

공정성 평가에 따른 고전 해석의 확장 가능성 연구

▶발표 김세림 (한양대) ▷토론 김형석 (수원대)

◎ 한국어교육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인식 조사-외국인 학습자들 대상으로-

▶발표 이종현 (강원대) ▷토론 조운정 (중앙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과 전략

▶발표 신선혜 (중앙대) ▷토론 손진희 (강원대)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박사 유학생의 학술논문 수업 설계

▶발표 민정호 (동국대) ▷토론 이수미 (성균관대)

한국문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고찰

▶발표 유현정 (성균관대) ▷토론 박정은 (경희대)

▣ 기획주제 발표

아동·청소년과 텍스트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식민지 어린이를 위한 헤테로토피아 -현덕의 어린이 소설을 중심으로
초 개성 아동지 '샛별' 연구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노정은(한성대)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통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도입국 자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자녀는 5,148명, 중학생은 2,131명, 고등학생은 1,220명이며,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자녀는 198명으로 총 8,697명이다. 중도입국 자녀는 2013년 4,922명, 2014년 5,602명, 2015년 6,261명, 2016년 7,418명, 2017년 7,792명, 2018년 8,320명, 2019년 8,69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도입국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정의하는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한국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를 말한다. 중도입국 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내출생 자녀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는데 국내출생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중도입국 자녀들의 입국 시기를 살펴보면 취학 전에 입국을 하기도 하고, 취학 후에는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에 입국이 이루어진다. 취학 후에 입국하는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입국 후에 공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언어적, 인지적,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고는 국내출생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는 놓여 있는 환경이 상이하다고 보고,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고, 향후 어떤 연구들이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중도입국 자녀와 한국어교육

2.1 중도입국 자녀의 특징

중도입국 자녀는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한국어 학습자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학령기 학습자라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경우는 보통 성인학습자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중도입국 자녀는 성인 한국어 학습자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학령기이기 때문에 인지적 사고가 역동적으로 발달해 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인지적 사고 능력이 완성단계에 있는 시기이므로 언어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언어적 요소에 집중하여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학습자들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만 나누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초급 학습자와 고등학교 수준의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교육 목표와 고등학교 수준의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목표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학령기 학습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태어난 국내출생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와도 또 다른 차이점을 지닌다. 국내출생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출생 직후부터 한국 사회에 살면서 한국어에 노출되면서 한국어를 익혀나가게 된다.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자녀들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어를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어를 습득해 나갈 수 있게 되고, 학령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구어 의사소통능력은 크게 어려움 없이 구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¹⁾.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과 학업 상황에서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이 있는데 국내출생 학습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능력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입국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진입하는 시점에서의 이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의 출발선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한국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들의 한국행은 중도입국 자녀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경우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태로 한국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동기가 약한 경우가 많다.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거나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이것을 극복해 나갈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학령기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래 학습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제결혼가정이든 그렇지 않든 이 시기 학생들은 또래 학습자가 자신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러한 또래 학습자와의 관계 맺기에 실패하게 될 경우 학교 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학업 성취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래 학습자와의 관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는 시기이다. 이에 이들 대상의 교육 내용에 진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2.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흐름

한국 사회에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대 중반의 시기부터였다. 이후 정부는 매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해 왔으며,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2010년에 이르러 교육 대상자에 중도입국 자녀가 추가되어 교육 대상자가 국내 출생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대상자가 유형화되어 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는 맞춤형 특성 파악, 유형별 특성 파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전 시기에는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해 왔으나 중도입국 자녀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의 대상자를 세분화, 유형화한 것이다.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국내 출생 자녀와 달리 한국어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국

1)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자녀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능력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 또는 학습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나, 취학 전에는 보통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사회에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취학 전에 예비과정을 통해 학교 생활 적응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이들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 및 교재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초기에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한편, 2009년에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개발한 교재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이들 교재는 모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재는 아니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에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하기에 이른다.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의 고시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정비하게 되었고,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표준한국어』교재가 각급 학교별로 개발되었다. 초등 수준 교재 2권, 중학교용 2권, 고등학교용 2권으로 개발되었고, 이후 익힘책 개발, 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2012년에 개발된 교육과정은 2017년에 개정 교육과정으로 한번의 개정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한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습의 대상자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한국어인 생활한국어와 학습한국어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개정 교육과정 고시 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재가 2019년에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보급 교재는 의사소통한국어 교재와 학습도구 한국어 교재가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되었다.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과 함께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의 교육이 다문화 거점 학교 및 공립 대안학교 운영도 이루어졌는데 다문화 거점 학교란 다문화 배경 학생이 1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를 다문화 거점 학교로 지정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곳이다. 이전에는 각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배경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경우 이들만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우가 많아 다문화 거점학교 운영을 통해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인천 한누리 학교 설립과 같은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며,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다문화학생이 적은 학교는 방과후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다문화 배경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한국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차원의 멘토링제를 통해 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데 무게를 두었다.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또래 학습자 멘토링, 이중언어 강사 멘토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멘토링을 실시하여 이들의 학력 강화 및 정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도입국 자녀를 비롯한 국내출생 다문화 배경 학생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단-보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준별 한국어 능력 진단 및 보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 후에는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원적 학급 복귀 및 추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정서 및 심리 지원을 위해 상담도 강화하였는데 ‘다문화 거점 Wee 센터’를 지정해 이들을 위한 전문 상담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지난 10년간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관련 연구 논문 분석

3.1. 분석 대상 논문

본고에서는 지난 10년 간 한국어교육 관점에서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어떠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논문은 논문검색사이트에서 ‘중도입국’, ‘한국어’로 검색된 총 127편의 논문 중 중복된 논문과 한국어교육과 거리가 먼 논문을 제외한 76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연도별 분석, 주제별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경향성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2. 분석 결과

(1) 연도별 분석

연도별 분석을 살펴보면 중도입국 자녀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은 2011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가 중도입국 자녀를 한국어교육 대상자에 추가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개정교육과정이 나온 2017년부터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에는 다소 떨어진 듯하나, 2020년 8월 기준 11편의 연구 논문이 논문검색사이트에서 검색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연구가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표1> 연도별 논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2	6	6	5	9	9	17	13	9	76

2011-2014년에 해당하는 초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원 정책, 한국어교육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적응 실태에 대한 연구, 교재 분석 연구 등이 있었다. 연구 초기이기 때문에 중도입국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후 2013, 2014년부터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정서 및 동기에 관한 연구 등도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모 교육, 어휘 교육, 쓰기 교육, 읽기 교육 차원에서의 연구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중도입국 한국어’로 검색하였으나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적응, 진로, 한국어, 문화, 청소년, 정서, 동기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구들이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과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부족하나 이는 한국어능력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적응, 문화 적응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학령기 시기에 놓여 있는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이 함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인 학습자와는 다르게 이들은 또래 학습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서 표현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동기 측면의 연구도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주제별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2) 주제별 분석

① 한국어교육의 방향성 및 정책에 대한 연구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조옥이 외(2011)에서는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교육에서 지향할 점으로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며, 중고등학교 교과목에 대한 학습 지원이 요구, 이들을 위한 상담 및 적응과 관련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중열(2011)에서는 중도입국 자녀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과 주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것을 감안할 때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이들의 한국어교육 지원, 또래 관계 및 정체성 함양, 편입학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Rainbow School'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후 테레사편(2017)에서는 다문화 중점 학교에서 체계화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있으며, 전문성 있는 교원의 부재로 인해 역량을 갖춘 교원의 양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투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김민수(2019)도 유사한 맥락인데 KSL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그에 대한 교원의 지위 개선보장,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의 보완,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내국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의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② 교육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송기철(2013)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잠재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교 중심의 사회통합 교과과정의 수립, 전문보조교사 양성, 이중언어교육 확대실시, 내국인의 인식변화 도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맹재숙 외(2017)에서는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자녀들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오성배 외(2018)에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필요한 대학생 멘토링, 한국어 교유과정, 예비학교의 성과과 한계점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성과가 좋았으나 멘토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치가 달라졌으며, 멘토 활동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면담 결과 한국어 구사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학습 한국어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특히 학습한국어의 지도 내용, 지도 방법, 지도상 어려움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예비학교운영 역시 잘 진행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담당교사의 잦은 교체, 역량을 갖춘 교사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③ 교재 분석 연구

중도입국 학생 대상의 한국어 교재 분석의 초기 연구는 오영훈 외a(2012)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새날학교와 아시아공동체학교의 한국어교재를 살펴보았는데 어휘와 주제, 문화 영역에서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재의 필요성, 한국어교육의 목표 및 내용,

방법, 평가의 체계화 필요, 세분화된 교재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오영훈 외 b(2012)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재를 만들되 학습자의 요구조사 실시가 필요하며, 중도입국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여 성인 대상의 교재와는 차별화되는 교육 목표, 학습 내용, 학습활동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레이보우스쿨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교재를 분석한 이춘양 외(2018)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차별적인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레인보우 스쿨의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광희정(2019)에서는 한국어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 요구 상황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예를 보여주었다. 교재 분석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중도입국 학습자의 요구 조사를 통해 이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재로 개발하되, 일반목적의 한국어 교재와는 차별되는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교육과정 분석에 대한 연구

KSL 교육과정이 2012년에 고시된 이래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들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백목원(2014)에서는 중도입국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을 위해서는 과제 기반의 언어 접근법이 필요하며 내용 교과 학습을 도와줄 고급 단계의 교재 개발과 학습 용어 사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보호 모형’ 이외의 새로운 형태의 학교 모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로는 홍종명(2015)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경우 용어의 혼재와 개념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며, 통합 교수 모형의 구축, 교육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의 개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홍종명(2015)의 연구가 KSL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라면 오영훈 외(2015)에서는 다문화 대안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한누리학교, 새날학교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는데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의 필요, 한국어교육의 강화 필요, 이중언어교육 강화, 심리 상담 실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김연희(2018)에서는 중도입국 학생을 위해서 의사소통 교육과 함께 언어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학교 교육과정에 언어문화 교육의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KSL 교육과정이 표준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중도입국 자녀들에게 적용될 때에는 학습자의 특성, 지역 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재구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상세화에 대한 연구가 향후 과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⑤ 한국어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한글 자모 교육 방안, 언어 재료 연구, 어휘 교육, 쓰기 교육, 읽기 교육 차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승왕(2016)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 방안에 대해 제시하면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글 교육의 범주를 자모 교육과 한글 문화교육으로 나누고,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신영권(2014)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 재료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학교 생활에서 사

용되는 언어에 어휘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장면, 지식, 문화, 대화의 문장을 활용해 언어 재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소현(2016)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의 학습 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수학교과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 텍스트를 바탕으로 수학 교과 학습에서 요구되는 학습 어휘를 선정하였다. 아쉬운 것은 학습 어휘 선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어휘 교육의 방안의 제시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강란숙 외(2017)에서는 쓰기 수업에서의 시각자료 활용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시각적 자료를 모델 텍스트에 활용하면서 학습자들이 단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쓰기 동기 부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정은 외(2019)에서는 읽기 자료가 학습자의 수준보다 높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들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에 기반한 맞춤형 수준별 자료가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모 교육, 어휘 선정, 쓰기 교육, 읽기 교육 등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아동 대상의 한국어 교수법, 청소년 대상의 한국어 교수법, 내용 교과를 대상으로 한 내용 교과에 대한 교수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후속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⑥ 심리, 사회 적응, 학교 생활 적응, 실태에 대한 연구

심리를 비롯한 사회 적응,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적응 및 실태에 관한 연구는 총 20편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매년 연구가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적응 및 실태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초기의 적응, 실태 분석은 일반적인 적응 양상을 설문조사에 기대어 실시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2015년부터 질적 연구 차원에서 학교 생활 부적응이 나타나게 된 현상을 기술하거나 대안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 수행, 학교 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가 수행되었다.

적응 및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는데 2010년대 후반분에 진행된 실태 분석 연구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대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초기에 이루어진 적응 실태 연구와는 또다른 차이점을 지닌다.

<표2> 적응 및 실태 관련 논문

번호	연구자(연도)	논문제목
1	양계민 외(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2	김민정 외(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인 교육의 과제
3	류방란 외(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기회와 적응 실태
4	강대중(2013)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 생활 분석
5	좌동훈(2014)	중도입국 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6	이유신 외(2014)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 생활 부적응
7	김정민 외(2015)*	중도입국 청년의 다문화 대안학교 학습경험 의미 탐색

8	윤경희 외(2015)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행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9	고남정 외(2016)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10	남부현 외(2016)*	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11	남혜경 외(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멘토링 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12	이춘양 외(2017)*	한국어교사의 중도입국 학생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13	이남주 외(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14	남부현 외(2017)*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15	선봉규(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및 과제-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 동포 자료를 중심으로
16	김소형 외(2018)**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레인보우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17	조형숙(2018)**	부산지역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지원방안 탐색
18	김효정 외(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연구
19	이혜란 외(2018)**	담누화 예비학교의 실행 양상 분석 연구-경남 김해A 중학교의 운영을 중심으로
20	최유진(2019)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현황 및 과제

⑦ 정서, 심리, 동기 등에 대한 연구

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정서적 특성은 이들의 한국어 능력 및 학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광승주 외(2013)에서는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 표현과 이야기 구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난화를 활용하는 것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미술치료를 통한 정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왕금미 외(2016)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미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확인하고, 자신을 인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타인과 교류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홍종명(2014)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 동기를 연구하였는데 연령대가 높은 집단의 학습 동기가 연령대가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동기는 U자형 곡선을 그리며 하강 후 상승 곡면에서는 동기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학습 동기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게 나와 기존의 통념을 깨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특징적이다. 동기에 대해 연구한 권미경 외(2017)에서는 동기를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로 나누어 학습동기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한 결과 통합적 동기가 높을수록 성취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에 통합적 동기가 강화될 수 있는 가족,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 향상, 정체성 형성 등과 관련된 상담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소형(2019)에서는 자기결정성 동기가 한국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중도입국 청소년은 진학, 취업등의 정착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며, 숙제, 공부, 토론 발표 등에 대해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결정성이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기가 강한 학생일수록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이 높고, 학업 성취가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동기가 강한 학생들에 대한 사례 연구, 학업 성취가 높은 학습자들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학교 생활 및 교과 학습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학습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어떤 관점에서 동기와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⑧ 한국어능력 습득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는데 변인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화정체감이 문법능력, 화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학습자 변인, 다문화 가정의 사용 언어, 한국어능력 및 정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의사소통 장애 요인, 학교 적응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중도입국 자녀들의 한국어능력 향상 및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표3> 변인 관련 연구

번호	연구자(연도)	논문제목
1	김영주 외(2012)	국내이주배경 청년의 한국어 습득 예측 변인 연구-북한 이탈청년과 중도입국 청년을 중심으로
2	김아름 외(2013)	중국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어습득과 학습자 변인 연구
3	편윤희(2015)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분류 제안
4	오승환 외(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5	김석준(2015)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	박혜랑 외(2016)	다문화가정의 사용언어가 자녀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7	조은희 외(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8	이지민(2017)	중도입국 학생의 의사소통 장애 요인 사례 연구
9	권보근 외(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연구

⑨ 진로와 관련된 연구

2010년대 중반 이후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서덕희 외(2017)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성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노승인은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교육에 대한 정책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유진이 외(2019)에서는 청소년의 진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험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4. 향후 과제 및 결론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 정책, 교육 지원, 교 개 및 교육과정 분석, 한국어 교육 방안, 적응 및 실태 연구, 정서 관련 연구, 변인 연구, 진 로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대어 후속 연구로 다 음과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을 강화하는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중도입국 아동 대상의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
-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업한국어의 범위 설정 및 교수 방법에 대한 연구
- 수준별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한 읽기 자료 개작 방안에 대한 연구
-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특화된 한국어 교수자에 대한 재교육 연구
-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한국어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
- 중도입국 자녀들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대한 질적 연구
- 중도입국 자녀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 향상에 대한 사례 연구
- 중도입국 자녀들의 이중언어능력 발달 및 이중언어 사용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상세화 연구

중도입국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함께 꾸준히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는 학령기 학습자라는 점, 성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과는 다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아동 대상과 청소년 대상의 교육이 다르다는 점, 인 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또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교과 학 습 성취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임을 고려해 이들의 요구도에 맞는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중(2013). 중도입국 학생의 학교 생활 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6(2). 한국실과교육학회. 215-234.
- 강란숙 외(2017).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 쓰기 수업에서 시각자료 활용기반 유도 작문 교수-학습에 관한 시론적 연구. 다문화와 평화 11(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62-193.
- 강수정(2018).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향후 과제. 한글 322. 한글학회. 895-937.
- 강수정(2019).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제언. 다문화와 평화 13(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39-163.
- 고남정 외(2016).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71-289.
- 곽승주 외(2013).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 및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 美術治療研究 20(5). 한국미술치료학회. 991-1012.
- 곽희정(2019).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구성 및 체제. 역사와교육 28. 역사와교육학회. 83-110.
- 김미강(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한국어 숙달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 중언어학 70. 이중언어학회 29-57.
- 김민수(2019).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 발전 방안. 문화와융합 41(3). 한국문화융합학회. 1025-1054.
- 권미경 외(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관한 질적 연구. 새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학회. 147-181.
- 권보근 외(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적응 요인 연구: 다문화 예비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51-73.
- 김민정 외(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인교육의 과제.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a 15(4). 한국성인교육학회. 113-147.
- 김석준(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亞細亞研究 58(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6-41.
- 김소형 외(2018).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교육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레인보우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3(2).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31-66.
- 김소형(2019). 중도입국청소년 자기결정성 동기가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4(1).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41-65.
- 김아름 외(2013). 중국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어 습득과 학습자 변인 연구. 새국어교육 94. 한국국어교육학회. 469-498.
- 김연희(2018).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언어문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48. 한말연구학회. 31-56.
- 김영주 외(2012). 국내이주배경 청년의 한국어 습득 예측 변인 연구-북한이탈 청년과 중도입국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64.
- 김정민 외(2015). 중도입국 청년의 다문화 대안학교 학습경험 의미 탐색. International

-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1). 한국성인교육학회. 157-184.
- 김중열(2011). 2011년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정책. 육아정책포럼 23. 육아정책연구소. 36-43.
- 김효정 외(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연구. 다문화와 인간 7(12).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59-103.
- 남부현 외(2016). 초등학교 다문화 특별학급 담임교사의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45-172.
- 남부현 외(2017).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경험연구. 지역과문화 4(1). 한국지역문화학회. 63-90.
- 남부현 외(2018).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조선족 부모의 경험과 인식. 한국청소년연구 29(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34.
- 남혜경 외(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멘토링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문화교류연구 5(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47-65.
- 노승인(2018).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및 개선 방향-중도입국한 후기청소년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比較法學 29.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48-65.
- 노정은 외(2019). 중도 입국 자녀 대상의 한국어 읽기 자료 개발 방안 연구-교과서 기반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 자료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0(3). 한국리터러시학회. 621-662.
- 류방란 외(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9-50.
- 맹재숙 외(2017). 중도입국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교육 계획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교육연구 9(2). 글로벌교육연구학회. 35-60.
- 먼리리 외(2015). 이중언어강사의 역할, 만족도 및 문제점에 대한 탐색: 서울다문화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8(3). 한국다문화교육학회. 39-59.
- 박혜량 외(2016). 다문화가정의 사용언어가 자녀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教育學研究 54. 한국교육학회. 165-194.
- 배상률(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19.
- 백목원(2014). 한국어 교육과정 및 표준 교과서 개선을 위한 사례 연구: 중도입국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국어교육연구 56. 국어교육학회. 39-76.
- 송기철(2013).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 한국어교육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8(1).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53-76.
- 송영호 외(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이중언어적응, 사회정체성과 우울. 다문화와 평화 13(1).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77-96.
- 서덕희 외(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성향과 그 생태학적 조건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3(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17-247.
- 서은숙(2016). 중도입국(이민) 청소년 다문화교육. 倫理研究 106. 한국윤리학회. 275-304.
- 선봉규(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현황 및 과제: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 동포 자료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2). 아시아문화학술원. 803-829.
- 손영애(2017). 학교 안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위상- 다문화 사회와 국어교육의 과제. 새국어교육 11권. 한국국어교육학회. 7-37.
- 신영권(2014). 중도입국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언어재료 연구. 한국어교육 25(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5-205.

- 신은주(2013).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1).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67-78.
- 양계민 외(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한국청소년학회. 195-224.
- 오성배 외(2018).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6(1).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71-92.
- 오승환 외(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학교사회복지 32.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385-412.
- 오영훈 외a(2012).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교재 분석 연구: 새날학교와 아시아공동체 학교의 한국어교재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409-433.
- 오영훈 외b(2012).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초급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다문화교육 3(2).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51-73.
- 오영훈 외(2015). 다문화대안학교 특성화 교과과정 분석 연구: 인천한누리학교와 새날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9(3).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1-23.
- 왕금미 외(2016).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참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017-1039.
- 유진이 외(2019).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계획 경험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4(1).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67-105.
- 윤경희 외(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성 예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찰학논총 10(1).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147-178.
- 윤새은임 외(2017). 중도입국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 2(1).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57-93.
- 이남주 외(2017).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생활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다문화교육 연구 10(1).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41-170.
- 이명희 외(2017). 다문화예비학교의 역할과 개선과제 - 한국어 강사의 교육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3(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409-432.
- 이소현(2016).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수학 학습과 연계한 한국어 학습 어휘 선정 연구-초등학교 4-6학년 수학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언어와 언어학 7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459-496.
- 이승왕(2016).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의 한글 자모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60.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59-194.
- 이유신 외(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63-282.
- 이지민(2017). 중도입국 학생의 의사소통 장애 요인 사례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29. 국어교과교육학회. 111-143.
- 이춘양 외(2017). 한국어교사의 중도입국 학생 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6(4).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1-39.
- 이춘양 외(2018).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재분석: 레인보우스쿨 교재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1).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551-564.
- 이혜란 외(2018). 다문화 예비학교의 실행 양상 분석 연구-경남 김해 A중학교의 운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54. 우리말학회. 281-306.

- 이효인(2015).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전남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307-331.
- 전경숙 외(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연구논총 19(1). 경기연구원. 441-473.
- 정세진 외(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 영향요인 연구-개인, 가족, 다문화배경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3-50.
- 조옥이 외(2011).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문화교육의 방안과 내용. 외국언론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17-238.
- 조은희 외(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3(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499-516.
- 조인제(2019). 우리나라 다문화학교에 대한 제도적 분석: 다문화 예비학교(한국어학급) 및 특별학급, 다문화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771-792.
- 조태린(2013).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국어가 갖는 의미: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人文科學研究 41.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3-129.
- 조형숙(2018). 부산지역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지원방안 탐색. 호남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4). 한국산학기술학회. 412-422.
- 좌동훈(2014). 중도입국 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한국청소년학회. 97-126.
- 최유진(2019).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현황 및 과제. 인문사회 21 10(4).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119-1134.
- 최은희 외(2018). 중도입국 학교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디지털융복합연구 16(8).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7-39.
- 테레사편(2017).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9).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891-913.
- 편윤희(2015).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분류 제안. 한국어교육연구 3. 한국어교육연구학회. 113-137.
- 한명숙(2017). 국제결혼가정 초등학생의 이중언어능력 함양 방안. 청람어문교육 64. 청람어문교육학회. 303-333.
- 홍종명(2014).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 語文論集 60. 중앙어문학회. 421-446.
- 홍종명(2015).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비판적 고찰. 국제어문 64. 국제어문학회. 273-295.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토론문

장미정(고려대)

이 연구는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어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매년 중도입국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연구의 제목은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교육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논의보다는 지난 10년간 중도입국 자녀 대상의 한국어교육의 연구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이므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 제목을 '연구 동향 분석 및 향후 과제' 정도로 제시하면서 제목과 내용을 보다 밀접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 번째,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과 관련 연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 적응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 진로 관련 연구, 정서 관련 연구 등 인접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께서 마지막부분에 과제 부분을 제언을 해 주고 있으나 향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연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연구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기존의 성인 대상의 한국어교육과는 다르며, 국제결혼가정 국내 출생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과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자 할 때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교수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연구자께서 생각하시는 한국어 교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중도입국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 또는 가장 시급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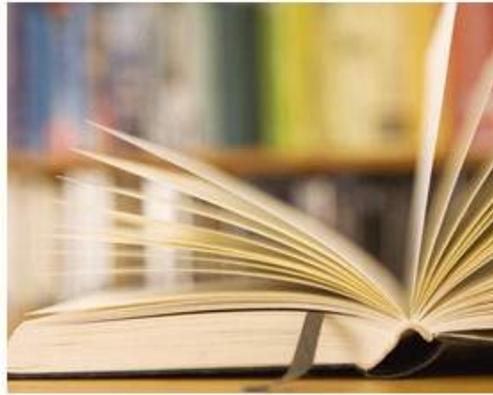
식민지 어린이를 위한 헤테로토피아
-현덕의 어린이 소설을 중심으로-

한승우(중앙대)

중앙어문학회 43회 온라인 학술대회 발표문

현덕의 소설을 통해 본
식민지 어린이를 위한 헤테로토피아

발표자 : 중앙대학교 한승우



차례

1. 어린이를 위한 공간 헤테로토피아
2. 아버지가 없는 식민지의 어린이들
3. 어린이의 연대와 희망의 서사
4. 나오며

1. 어린이를 위한 공간 헤테로토피아

현덕은 193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남생이」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 1927년 19살의 나이로 <조선일보> 독자 공모에 동화 「달에서 떨어진 토끼」가 뽑힌 바 있었고, 193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고무신」이 가작으로 선정된 바도 있었다. 애초부터 현덕의 창작 원류는 '동화'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어린이를 위한 공간 헤테로토피아

현덕의 월북 이전의 작품들은 대부분 1938년~1939년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조선일보>의 부록이던 <소년조선일보>에는 거의 매회 동화 작품을 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소년조선일보>의 기획자였던 윤석중의 권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년 주인공의 단편 「남생이」를 읽은 나의 간곡한 권유"(윤석중, 『어린이와 한 평생』, 범양사, 1985, 168쪽)가 있었다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 시기의 작품에서 현덕은 '노마' 라는 이름의 아이를 반복해서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친구들인 여자 아이 '영이', 키가 작은 '똥똥이', 부잣집 아이로 알미운 짓을 도맡아 하는 '기동이' 도 늘 노마와 함께 등장한다. 노마와 아이들은 현덕의 작품 안에서 같은 모습과 품성을 지닌 일관성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그들만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노마의 세계와 <소년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노마의 세계는 아주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어린이를 위한 공간 헤테로토피아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일탈'과 '탈출'의 공간으로 보았다. 아이들이 몰래 숨어드는 다락방, 그들만의 상상이 구현되는 인디언 텐트,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부모님의 커다란 침대와 같은 장소들은 어른의 질서 체계에서 아이들을 분리시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스스로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기능한다. 이처럼 현실 안에 존재하지만, 유토피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헤테로토피아다.

<조선일보>가 강력한 식민 통치 체제 안에서 어른들의 약육강식의 법칙을 반영하던 것에 비해, <소년조선일보>는 어린이를 위해 따로 분할된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하면서 어린이들을 어엿한 근대인으로 키워내는 안전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기획되어 있었다. 이 공간에서 만큼은 조선의 어린이들도 피식민지에서 생산된 열등한 아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어린이' 라는 어엿한 이름의 근대적 망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현덕은 <조선일보>와 <소년조선일보>의 이러한 매체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두 공간을 구별해 가며 노마와 아이들의 세계를 그려나간다.

2. 아버지가 없는 식민지의 어린이들

소설 「남생이」는 냉혹한 어른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마름에게 소작할 땅을 빼앗기고 선창에서 소금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된 노마의 아버지는 장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힘이 좋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된 노동이 뼈에 사무치고, 결국 큰 병을 얻어 방 구석에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는 형편이 된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 어머니는 선창의 들병이로 나가 외간 사내들에게 웃음을 팔고, 선창의 사내들 중 '털보'는 가끔 노마의 집에까지 찾아들곤 하였다. 털보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안방을 내어주고, 노마도 군밤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핑계로 집에서 내쫓긴다. 그러던 어느 날 노마는 선창에서 사내들과 어울리는 어머니를 목격하고,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작고 쓸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버지는 오래된 속병을 낫게 해 준다는 남생이를 영이 할머니로부터 받아 들고, "시들어가는 자신의 가지"를 남생이의 생명력으로 연장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요강에 피를 가득 쏟아놓고 생을 마감하고, 남생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2. 아버지가 없는 식민지의 어린이들

노마는 곰보처럼 양버들나무에 오르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곰보는 어른들과 함께 선창에서 해를 보낸 덕분에 어른들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다. 노마도 곰보처럼 양버들나무에 오르기만 한다면, 선창으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양버들나무에 오르기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고, 아버지를 부양할 수도 있고, 어머니에게도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르고 또 올라도 노마는 곰보가 오르는 그 위치까지는 가 닿지 못했다. 끝없이 노력한 끝에 노마가 양버들나무에 오르게 된 그 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버린다.

어머니는 소리를 내서 울고 있지만, 노마는 그것이 "거짓부렁"인 것을 알고 있다. 남들이 흥을 본다면 어머니는 노마에게 울기를 재촉하지만, 노마는 아버지의 부재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울지 못한다. "아버지는 영 죽었다"며 속으로 되뇌어보지만, 어머니처럼 소리만 높여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아버지 없는 식민지의 아이들

노마는 「남생이」에서 아찔하게 높이 솟아 있는 양버들나무를 기어오르면서 곰보처럼 되기를 소망한다. 노마가 계속해서 양버들나무 꼭대기에 기어오르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용기와 몸에 새겨지는 커다란 고통 등을 견딜 수 있어야만 공동체로부터 어른이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시 부족의 제의처럼, 노마는 높은 양버들나무 위를 오르는 고통과 용기를 통해 선창이라는 어른들의 세계에 소속 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이는 아버지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른의 세계로 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마에게 아버지는 한 없이 무력하고 가여운 존재이므로 극복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넘어서야 할 존재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버젓이 안방에 들어 앉아 어머니를 독자지 하고 있는 '털보' 인 것이 더 마땅하다. 털보는 아버지가 패배하고 돌아온 어른들의 냉혹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아버지를 힘 없이 물러나게 할 정도의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2. 아버지 없는 식민지의 아이들

아버지가 다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남생이' 는 아버지의 남근이며,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남생이도 사라지면서 그 모든 바람은 물거품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리에 털보를 들이면서 노마를 영이 할머니네로 보내버린다. 결국 털보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차지하고 말았다.

가족 이데올로기로 보았을 때, 선창이라는 무서운 세계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무력한 '조국'을 상징하며, 털보는 어머니를 빼앗아간 '가짜 아버지' 일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버들가지를 오르며 선창으로 나갈 어른이 되기를 갈망하던 노마는 실상 아버지의 세계로 나아가 어른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실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어린이 노마는 넘어서야 할 온전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가짜 아버지의 상징인 털보는 친아버지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버렸다. 아무래도 아직 노마에게는 거칠고 냉혹한 선창에서 온 털보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다. 결국 노마의 성장은 '멈춤'의 상태에 머무른 채 소설은 끝이 난다.

3. 아이들의 연대와 희망의 서사

<조선일보>에 발표된 「남생이」와는 달리, <소년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노마는 훨씬 어리고 천진하다. 동화 안에서 노마와 친구들은 아이다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소년조선일보> 속 노마와 친구들 역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기동이 밖에 없는데, 부자이고 힘 있는 아버지를 둔 기동이는 그 권위를 업고 아이들을 호령하려 들고, 약을 울리는 알미운 아이로 등장한다. 노마와 친구들은 그런 기동이 때문에 속이 상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항하거나, 같이 놀고 싶은 기동이의 마음을 이용하는 꾀를 내고, 기동이의 장난감을 부러워하는 대신 주변의 볼품 없는 것들 어엿한 장난감으로 만들어 자존심을 지킨다.

노마와 친구들은 어른들의 방식인 폭력과 응징 대신, 화합을 통해 기동이를 끌어 안는다. 하나가 되어 뛰 어다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장난을 치면서 점점 서로를 닮아간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 있는 가난한 노마도, 부자 아버지를 둔 기동이도, 여자 아이 영이도, 한 살 어려 키가 작은 똘똘이도 차별 없이 모두 꼭 같은 동무가 된다.

3. 아이들의 연대와 희망의 서사

이상에서 살펴본 현덕의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무기력 하다. 이는 사업을 하면서 가산을 탕진해버린 작가의 아버지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겠으나 (현덕, 「자서소전(自叙小傳)」, 『신인단편결집』, 조선일보사 출판부, 1938, 2쪽),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제에게 모든 권위를 빼앗겨버린 당시 조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부재한 가난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위태롭게 존재하고, 넘어서야 할 아버지가 없어서 쉽게 성장하지도 못한다. 이는 이광수를 비롯한 계몽주의자들이 낡은 과거를 등지고 새로운 서양식 교육받은 '소년' 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면모를 지닌 것이다.

현덕은 동화를 통해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서로를 돕고, 우정을 다니지면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제안한다. 「남생이」에서 노마가 기를 쓰고 어른들의 세계 속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과는 달리, <소년조선일보>에 연재된 동화 속 노마는 힘 없는 친구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더욱 강인해 진다. 이러한 '연대 의식'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자신과 같은 나약한 어른들에게 보내고 싶었던 현덕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5. 나오며

현덕은 <조선일보>에 실린 「남생이」에서는 약육강식의 현실 논리 속에서 윤리를 상실해버린 당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역할을 노마에게 맡겼고, <소년조선일보>의 동화에서는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용기와 연대를 통해 현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노마와 친구들을 통해 전달했다.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삶의 지향점을 잊지 말고 함께 연대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어른들의 세계를 대변하는 <조선일보>와 어린이의 세계를 대변하던 <소년조선일보>는 서로 미묘한 긴장감 안에서 '아버지'와 '아이'처럼 마주 서 있다. 이 두 매체는 모두 강력한 식민 통치 체제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공간을 열어두고 있었다. 이러한 두 매체적 특징을 가장 잘 이용했던 것이 작가 현덕이었다.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덕의 소설을 통해 본 식민지 어린이를 위한 헤테로토피아> 토론문

김강원(고려대)

우리 아동문학에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할 작가인 현덕에 대해 다룬 선생님의 발표문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아동문학에서는 특히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모든 세계관들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주인공 '노마'에 집중해서 작가의 주제 의식을 추론해간 선생님의 생각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완결된 논문의 형식이 아닌 관계로 논의의 자세한 사항들을 미처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려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조선일보>와 <소년조선일보>라는 두 개의 매체의 특징에 주목하고, 여기에 실린 현덕의 작품 속 세계관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조선일보>는 윤리와 질서가 파괴된 어른들의 냉혹한 세계를, <소년조선일보>는 아이들이 용기와 우정을 깨닫고 서서히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세계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라는 용어도 쓰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에 실린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조선일보에는 「남생이」 외에도 여러 편의 작품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2. 현덕의 작품에서 특히 '아버지가 부재한 아이들'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식민지 근대 소설에 있어 '아버지'와 '소년'의 상징성은 단어 그대로만 이해할 수만은 없는 복잡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남선과 이광수가 그들의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육을 받아 계몽한 '소년'의 이미지는 사실 그들이 추구했던 어엿한 근대인으로서의 이상형이 투영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현덕의 작품 속 '노마'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 언급되고는 있지만 조금 막연한 감이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아동문학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선생님의 발표문이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을 발전시켜서 보다 완성된 논의의 형태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20년대 초 개성 아동지 『셋별』 연구*

장정희*.서희경**

1. 서론

『셋별』은 1923년 11월 개성에서 창간된 박흥근 주간의 아동 잡지이다. 한국 아동문학사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 잡지에는 색동회의 주요 멤버였던 고한승·마해송의 초기 작품이 실려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해송은 그의 첫 동화집 『해송동화집』(동성사, 1934)에서 동화 「어머님의 선물」,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 「다시 건져서」 3편의 수록 지면을 『셋별』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한승도 그의 첫 동화 동극집 『무지개』(1927)에서 동화 「바위의 슬픔」, 「분꽃 이약이」, 동화극 「집업는 나비」 3편의 수록 지면을 『셋별』이라고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동화와 더불어 아동극을 함께 발표한 사실이며, 마해송은 따로 아동극 2편에 ‘송도소녀가극단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덧붙여 부기해 두고 있다. 작품의 발표 시점은 모두 1923,4년이다. 당시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아동 문예운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셋별』이 192,30년대 초창기 한국 아동문학과 아동예술의 의미 있는 무대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방정환이 『어린이』(1923.3.)를 창간하고 <색동회>(1923.5.1.)를 창립하여 동화 개척 운동 이끌던 때와 겹친다. 고한승·마해송 두 사람은 방정환이 주간하던 『어린이』의 주요 필자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과 경성을 잇는 『셋별』과 『어린이』의 연결 지점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다.

『셋별』은 개성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결부하여 우리나라 초창기 소년운동사와 아동문학사 조망에서 주목되는 아동 잡지이다.¹⁾

그러나 아쉽게도 그 동안 『셋별』은 그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에 따라 『셋별』은 한국 아동문학사 서술의 서두를 차지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서지 고찰이나 편집 체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조명되기 어려웠다.

본 연구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윤석중문고에서 확인한 『셋별』지 3개 호의 존재는 ‘발견’ 그 자체로서 초창기 한국 아동문학사 연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한다. 발굴 『셋별』의 권호 사항은 2권 2호(1924.2), 2권 3호(1924.3), 2권 5호(1924.5)이다. 이 가운데 2권 5호는 ‘어린이날 기념호’로 발행되어 더욱 의미를 더한다. 새롭게 발굴된 자료 가운데, 윤석중이 투고하여 입상작으로 실린 동요 「봄이 오니까」(1924.5.)가 있다. 이는 그가 『신소년』에

*이 논문은 올 초 중앙어문학회 학술대회 때 발표할 예정이었던 논문으로 코로나 사태로 학회가 장기 연장됨으로 인해 그 후 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수록한 결과임을 밝혀 둡니다. 학술대회 때 토론문을 통해 제기되는 사항과 추가적인 과제는 후속 논문으로 계속 보완해 갈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저자: 장정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포스닥연구원, magowood@hanmail.net

교신저자: 서희경,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수료, chachillia@hanmail.net

1)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1860~1945년-』, 민족문화사, 1992.

「봄」(1924.5.)을 발표한 것과 같은 시기이다. 『새별』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윤석중문고>에서 확인된 것은, 역시 윤석중 본인이 초기 작품을 발표한 잡지라는 이유로 생전에 소장하고 있다가 사후 <윤석중문고>가 설치될 때 함께 옮겨지게 된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처음 소개하는 『새별』 3개 호는 우선 분량 면에서 이 잡지의 전체성을 규명하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세부를 조명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1923,4년 개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어린이운동과 『새별』을 무대로 전개되었던 초창기 한국 아동문학사의 일각이 본 연구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새별』지의 존재를 학계에 발굴 소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발행 사항과 편집 체제, 수록된 전반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나아가 1920년대 초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에서 『새별』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방정환과의 교유 관계 및 『어린이』와 영향 관계 등을 곁들여 짚어볼 것이다.

2. 발행 현황 및 편집 체제의 특징

1) 『새별』의 창간과 전체 발행 현황

이번에 발굴된 『새별』의 판권에 의하면, 당시 『새별』은 편집인 박홍근(朴弘根), 발행인 미국인 안지선(安至善), 인쇄인 임한영(林漢泳) 체제로 운영되었다. 발행소는 새별사, 인쇄소는 송경인쇄소(松京印刷所), 총판매소는 개성 지역에 두고 경성과 대구 두 곳에 발매소를 두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성 총판매소는 문화관(文化館)이고, 경성 발매소는 동양서원(東洋書院), 대구 발매소는 무영당(茂英堂). 값은 10전.

본 연구는 이번에 새로 발굴된 『새별』 3개호와 근대 매체의 기록 사항을 비교 재구성한 결과, 이 아동 잡지가 1924년 11월에 창간호를 내고 1924년 10월호까지 약 10개 호 가량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창간호의 정확한 ‘발행 일자’는 알 수 없고, ‘11월 1일자’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번에 확인한 제2권 제2호의 발행 일자는 ‘1924년 2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권 3호와 2권 5호는 각각 ‘1924년 3월 10일’ ‘1924년 5월 10일’로 점차 발행일이 늦춰지고 있다.

동아일보 1923년 11월 21일자에는 “금집(동화) ○○○, 정포은선생(전설), ○○(전설) 가을바위(동요) 당초뱃(동요) 해는 진다(동화) 순봉이와 ○그(소설) 등은 모다 어엿브고 재미잇서 어린이의 조흔 선물이 되겠더라”²⁾고 『새별』 창간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새별』은 창간호부터 동요와 동화, 소설을 위주로 한 문예 중심의 아동 잡지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새별』이 통권 10호 가량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근대 신문 매체를 통해 확인한 바, 1924년 『새별』 8월호와 9월호의 발행 소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1924년 『새별』 7월호 발행 보도 후 10월호 발행이 보도되고 있다. 8,9월호까지 발행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본 연구는 두 개호의 발행을 확정하기가 어려웠다. 『새별』은 1924년 10월호를 끝으로 종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와중에 잡지의 발행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부정기적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새별』의 종간을 전후한 신문 매체의 보도 내용이다.

2) 동아일보 1923년 11월 21일자.

셋별社 新面目

개성의 유일한 소년잡지

명년 정월부터 다시 난다.

개성에 유일한 소년소녀잡지(少年少女雜誌) 셋별은 그간 세상의 만혼 어린이의 환영을 받으면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만혼 유익을 끼치어 왔습은 그 잡지 주간인 박홍근(朴弘根) 씨의 로력이 만렘섯다. 그러나 잡지가 차차 널리 퍼지고 따라서 사무가 점점 복잡하여 가며 경영 방침이 이를 조차 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우에 이르렀습으로 도저히 박씨 혼자서 일을 볼 수가 업게 되야 이제 새로히 개성 유지 량석룡(梁錫龍)씨와 우영희(禹永熙)씨등 수인이 협력하여 사무를 분담하게 되었슴며 따라서 견고한 재단(財團)과 새로운 편집 방침으로 활동을 개시하리라는데 마해송(馬海松) 씨도 편집을 도읍기로 되 었고 장차 괄목할 만한 활약을 하기 위하여 십일, 십이양월(11, 12양월)은 립시 휴간(臨時休刊)을 하고 래년 정월호부터 새 면목으로 세상에 나타나리라더라.(개성)³⁾

『셋별』을 발행함에 있어, “잡지 주간인 박홍근(朴弘根) 씨의 로력”이 많았지만 잡지가 널리 퍼짐에 따라 “사무가 점점 복잡하여” 갔다는 것, 더 이상은 “박씨 혼자서 일을 볼 수가 업게” 되었다는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셋별』의 창간에서부터 편집까지 박홍근 주간의 개인적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셋별』은 1924년 10월호를 발행한 이후 경영상의 변화를 갖는다. 그것은 곧 위의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경영 방침”을 “협력하여 사무를 분담” “견고한 재단과 새로운 편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셋별사는 마해송이 “편집”에 참여하는 등 앞으로 『셋별』의 “괄목할 만한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셋별』이 속간호를 내고 계속 잡지 발행을 이어갔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셋별』 續刊遲延

개성(開城)에서 발행하는 소년소녀잡지 『셋별』은 그동안 내용 조직을 견고히 하고 경영 방침을 일신하게 하여 새로운 면목을 씌우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 후 그 사에서는 일일 일월 일일에 속간호 『續刊號』를 발행하고자 동인 일동이 노력중이더니 인쇄 기타의 신경영 준비 상 아즉도 정돈되지 못한 곳이 잇서 예정보다 늦게 십오일 경에나 발행하게 된다고(개성) ⁴⁾

『셋별』의 속간호 발행 소식은 더 이상 신문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 경영에서 협력 체제로 운영 방식이 변화되면서 이 잡지의 창간 주역이었던 ‘박홍근’이 계속 잡지 편집을 주관했는지도 미지수이다. 박홍근은 1927년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동화구연을 하였으며 (1927.5.1.),⁵⁾ <개성소년동맹 창립대회>(1927.8.20.) 때 연사로 참여했다.⁶⁾ 개성 지역 어린이 문화운동사에서 박홍근은 그 지도자로서 위치를 갖고 활동했다. 살펴보면, 박홍근은 1927년 5월 무렵 ‘동광사’ 사우(社友)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⁷⁾

이후 박홍근의 활동은 조선중앙일보 1936년 3월 4일자 기사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금의로 환향을 한 禹崔朴孫 四氏歡迎」⁸⁾ 기사와 함께 박홍근이 “과거 10여 성상” 미국에서 고향한 사

3) 『조선일보』 1924년 11월 17일자.

4) 1925년 1월 8일자 『셋별 續刊號. 來十五日로 發行遲延』

5) 『開城兒童日 六日에 舉行 축하식과 古형렬로』, 매일신보 1927년 5월 9일자

6) 『개성소년동맹 창립대회』, 중외일보 1927년 8월 24일자.

7) 『동광』 13호(1927.5.1.)에 “東光社友 芳名”의 명단 중에 “(五圓) 四月 二十五日 까지의 分(尊稱은 略함)” 아래 개성 지역 “박홍근” 인쇄되어 있다.

실을 담고 있다.

『셋별』 창간과 박흥근 주간, 셋별사를 후원한 개성의 유지들, 개성소년회 운동과 이를 다시 변화시킨 개성소년연맹 등, 오늘날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한국 초창기 소년운동과 아동문예 운동의 재조명은 향후의 남은 과제이다.

2) 『셋별』 편집체제의 특징

1923년 11월 창간된 개성의 아동지 『셋별』은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진주소년회 및 천도교소년회 등 식민 치하 조선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소년운동의 영향 속에서 출현한 개성 지역 어린이 운동과 아동문예운동의 결실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테두리에서 『셋별』은 우리나라 초창기 아동문학 작품 발표의 무대가 됨은 물론, 어린이운동과 아동예술이 삼위가 되어 어우러진 편집 정경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면모는 ‘문예 중심의 편집’과 ‘장르 의식의 형성’이다. 동요, 동화, 소설, 동화극 위주의 아동문학 작품이 편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서정 양식인 동요보다 서사 양식인 동화와 소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다. 『셋별』이 아동문학의 새로운 무대로 평가되는 것은 연령별 다양한 문학과 장르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까닭이다. 주요 장르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요: 동요

동화: 동화, 재래동화, 신동화, 최신동화, 장편동화

소설: 유년소설, 소녀소설

동화극: 동화극

담화: 역사이야기, 대화, 일화, 소화, 기문

‘동요’와 ‘동화극’은 단일 용어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반면, 동화와 소설은 연령별, 성별, 길이 여부에 따라 ‘유년소설’ ‘소녀소설’ ‘장편동화’ 등 다양한 갈래로 분화되고 있다. 크게 보아 『셋별』은 ‘동요, 동화, 소설, 동화극’의 4대 장르의 틀을 갖추고 작품을 편집하고 있다. 특히 ‘장편소설’ ‘유년소설’ ‘소녀소설’ 등과 같은 장르의 출현은 방정환의 『어린이』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셋별』의 상당한 문학 양식적 실험의식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창간호부터 ‘정포은 전설’ 등 매호 ‘역사 이야기’ 란을 통해 조선의 역사와 인물, 민족 의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 주고자 했다. 현재 발굴된 3개호 가운데, 「충무공 순신」(2권 2호, 1924.2.), 「강감찬」(2권 3호, 1924.3.)이 실린 것을 볼 수 있다. 또, 2권 3호에 실린 「강감찬」이라는 글에 보면, “여러 동모들이여 새스별 데1권 2호와 데2권 데1호에서 서희란 이가 글단 군사를 말로 물니친 일을 기억하시시오.”(21면)라고 한 대목이 있다.

셋째, 매호 독자문단을 통한 소년 문사의 활약을 독려하고 담화실 코너를 두면서 독자와의 소통을 꾀했다. 『셋별』은 매호 소년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예란을 두고 개성 지역 소년

8) 「금의로 환향을 한 禹崔朴孫 四氏歡迎」, 조선중앙일보 1936년 3월 4일자

“일찍이 개성을 떠나 멀리 북미합중국(北米合衆國)에 가서 악전고투로 과거 10여 성상에 형설의 공을 닦고 금의귀향한 우상용(禹相用), 최중순(崔重淳), 박흥근(朴弘根), 손금성(孫金○) 四氏의 환영회는 29 이 오후 6시 반부터 부내 천일관(天一館)에서 자기지우 유지 ○○관계자 등 30여 명의 참석 하에 성대하게 행하고 그 동안의 흥금을 피력하며 ○○○이 있는 후 ○아홉 시에 화기에애리에 폐회하였다 한다.”

문예운동을 독려해 나갔다. 투고한 독자들은 개성 지역이 주를 이루지만 ‘경성’ ‘평창’ ‘울산’ 등의 독자도 눈에 띈다.

2. 방정환과 개성 어린이문예운동사의 한 측면

1) 『새별』과 『어린이』의 영향 관계

특히, 주목되는 점은 『어린이』와의 영향 관계이다. 동요·동화·동화극의 장르 의식, 역사이야기란의 설치, 독자문단, 담화실, 현상문제 등 지면 구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문예지의 유사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두 잡지를 아우르며 글을 발표했던 <색동회> 회원 간의 인연, 방정환과의 상호 교류 관계를 좀 더 밀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닮은꼴 같은 『새별』과 『어린이』, 두 잡지의 표지가 보여주는 유사성이다. 제호의 위치, 표지 상단에 ‘소년소녀잡지’라는 문구를 넣어 인쇄한 점, 사각 형태 사진을 크게 내세운 점 등이 인상적이다.



왼쪽 『새별』 2권 2호는 오른쪽 『어린이』 2권 1호보다 1달 뒤에 나온 것이다. 이미 『새별』보다 8개월 앞서 1923년 3월에 창간된 『어린이』는 1924년 접어들자 신년호에 특별 대부록 <최신유희 호랑이 잡기>를 삽입해 독자들의 큰 인기를 끌게 된다.⁹⁾ 이와 같은 『어린이』 잡지가 개성 소년들과 『새별』에도 전해지며 어린이 잡지계의 모방 모델이 되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어린이』 1권 9호(1923.10.)에는 ‘지방소년회 소식’으로 “개성서 『소년』 발행”¹⁰⁾이라는 제목 아래 개성소년회에서 ‘소년’ 잡지를 내기 위해 준비한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소년』이 ‘개성소년회’에서 내는 잡지라고 소개하였으니, 새별사에서 내는 『새별』과는 다른 잡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23년 10월을 기해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어린이 문예 잡지가 함께 탄생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는 곧 1923년 전후 소년운동, 어린이문예운동에 대한

9) “여러분 썩셔도 신년호는 모다 칭찬하시지만 참말 굉장하였습니다. 다른 재보라도 굉장하게 더 만히 박혔건만은 그래도 금시에 번쩍 날아가듯 팔려버려서 나중에 주문하시는 이에게는 한 권도 드리지 못했습니다.”(『어린이』 2권 2호, 1924.2. 40면)

10) “개성소년회에서는 이번에 『소년』이란 잡지를 발행하기로 되었다는대 작문 동화 동요 등을 만히 보내주기 바랍니다 합니다”(『어린이』 1권 9호, 1923.10. 18면.)

개성 지역의 열의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2) <색동회>, 개성 어린이날, 그리고 방정환과 교유 관계

한편, 『새별』의 출현은 단순한 잡지 발행을 넘어 당시 개성 지역의 근대 신문예운동사의 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성은 전통적으로 '개성 인삼' 재배로 상업 자본이 발달한 도시로, 1920년 4월에 이미 문예잡지를 표방한 『여광』¹¹⁾이 발행되는 등,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마해송·진장섭·고한승 등은 『여광』의 필진이었으며, 이 가운데 진장섭은 보성전문학교 시절 방정환이 편집 실무를 맡던 『신청년』의 필진이기도 했다. 이들 개성 출신 작가들과 방정환의 인연은 다시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창립한 <색동회> 회원으로 확대 결속된다. 이러한 인적 관계와 교류의 밑그림에서 개성 지역 아동지 『새별』과 방정환의 『어린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소년운동의 연대성, 잡지 편집 체제의 유사성, 또 두 잡지를 무대로 활동했던 공통된 필진의 양상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이 같은 교유 관계를 연결 짓는 중요한 인물은 바로 진장섭이다. 진장섭은 「소파와 나」라는 그의 수필에서, 보성고보에 다니던 열여섯 살 때 이미 당시 스무 살이었던 방정환과 처음 인연이 되었다고 쓰고, 1919년 3.1독립운동 때 두 사람은 함께 만세운동을 했다고 한다. 그 뒤 진장섭은 다니던 보성고보에 복학을 하지 못하고 1920년 9월 동경 청산학원으로 유학을 간다. 그 학교에서 진장섭은 1922년 졸업을 하고 그 해 4월 동경 고등사범에 입학하게 된다. 이곳에서 진장섭은 훗날 <색동회>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재호를 만난다.

진장섭이 쓴 다음의 글을 보자.

그 해(1919년) 8월 29일에 나는 개성을 떠나 일본 山口로 가서 그곳 鴻城中學에 입학했다. ... 내가 일본으로 떠난 뒤에 내 고향 개성에서는 몇 문학동지의 손으로 동인 잡지 『麗光』이 발간되었다. 동지 2호에 나는 「山口에서 松都까지」라는 기행문을 실었다. ... 그 글의 말미에 보면 “前略... 남대문역에 내리니 방정환·고한승·마해송 제군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는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나와 그들 사이에는 대단히 빈번한 연락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小波와 나는 가끔 편지왕래가 있을 뿐, 오래 동안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1922년 10월 중순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東京 大塚上町에 있는 내 하숙에 소파가 돌연히 나타났다. 무척 반가웠다. ... 각설하고 그 뒤 우리는 동지 규합에 착수하였고, 드디어 그 해 3월 16일 소파 집에서 제1회의 준비회합을 가진 바는 우리 회보에 기록된 바이다.¹²⁾

진장섭이 <색동회> 동인 조재호를 만난 시점은 1922년 무렵으로 되어 있지만, 방정환과 개성 출신 진장섭·고한승·마해송의 인연은 그 훨씬 전인 1919년부터 1920년부터 형성되어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볼 때 이번에 확인된 『새별』 3개호에서는 진장섭의 글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권호에 그의 글이 실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식민지 치하 1919년 3.1운동을 목도했던 청년 지식인으로서 이들은 어린이를 잘 기르자는 문화 건설에 공감하며 소년

11) 유입하, 『한국근대문학 해제집 IV』(국립중앙도서관, 2018) 참조

『여광』은 1920년 4월 5일 개성에서 발행된 잡지다. 표지에 잡지의 영문명을 'The Light of Korea'라고 붙였고 바로 밑에 '문예잡지'임을 기재하였다. 표지에 '대정 9년(1920) 4월 5일 발행'이라고 기재했고 판권에는 3월 31일 인쇄했다고 표기해 놓았다. '연 6회 발간', '격월 1회 1일 발행'을 내세웠으나, 그해 6월에 나온 제2호까지만 남아 있다.

12) 진장섭, 「소파와 나」, 『색동회 어린이운동사』, 색동회, 1975. 34~35.

운동과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각종 문예 잡지 발간에 의지를 갖고 함께 움직여 나갔다.

『새별』과 『어린이』가 공통적으로 어린이날이 있는 그 달치를 ‘어린이날 기념호’로 구성했다는 점도 이러한 운동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별』은 ‘어린이날 기념호’에서 당시 개성소년회 주최의 ‘개성의 어린이날 기념 기행렬’ 소식을 확보로 신고 있다. 『어린이』와 같은 형태로 잡지를 ‘어린이날 기념호’로 냈다. 이 기념호로 나온 『새별』에는 경성의 <명진소년회>, 협우(協友) 소년회 내 월간 잡지 <소년지광사>의 축하 광고도 실려 있다. 개성과 경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인 초창기의 의욕적 어린이운동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별』 2권 5호(1924.5.)에는 ‘어린이날 기념’ 문구를 표시한 광고가 7면¹³⁾이나 된다. 이는 곧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개성 유지들의 적극적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잡지의 표지 뒷면에 실린 ‘개성의 어린이날 기념 기행렬’ 사진 설명에는 “중앙예배당 압해 모힌 수천의 소년소녀”라고 되어 있다. 시대일보 1925년 6월 27일자에는 개성소년회 창립 3주년 소식이 소개되고 있다.¹⁴⁾ 이러한 보도로 미루어 보면, 개성소년회의 창립은 ‘1922년 6월’ 무렵이며, 이 시기는 바로 천도교소년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5월 1일 ‘어린이의 날’을 선포하고 경성 시내를 중심으로 선전지를 배포하며 알린 바로 다음 달이다. 이듬해 1923년 전 조선에 걸친 제1회 어린이날을 맞을 때 개성에서는 <소년의 금일(정춘수)>, <소년회 선전에 대해(김종필)>¹⁵⁾의 선전강연이 있었다.

한편, 『새별』은 다음 해 1924년 제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날 선전지 배포 및 소년가극음악, 한석원.마해송의 동화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¹⁶⁾ 이처럼 개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1920년대 어린이운동과 개성소년회의 활동은, 진장섭.고한승.마해송의 <색동회>와 더불어 방정환의 어린이운동과 함께 맞물려 움직여 나간 교유 양상을 볼 수 있다.

3. 『새별』 수록 아동문학 작품 조명

전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초 개성 지역 아동 잡지 『새별』은 1923년 11월부터 1924년 10월호까지 약 10개호가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3개 호 정도이다. 이 장에서는 그 개괄적인 작가의 현황, 『새별』을 무대로 활동했던 고한승.마해송, 그리고 이번에 새로 확인된 윤석중의 첫 동요작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주요 활동 작가의 소개

불과 3개호로 남아 있는 『새별』이라는 존재는 1920년대 초 우리나라 개성 지역에서 전개된 아동문학이 활발하게 성장해 갔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새별』을 무대로 활동한 주요 작가로는 ‘대화’에 우영희, 동요와 유년소설에 금강생, 동화에 고한승, 고한용, 소설에 임영빈, 동화극에 마해송 등이 있다. 그러나 익명 내지 필명의 글도 절반 가량이다. ‘小石’ ‘외구름’ ‘썬배’ ‘白曙생’ ‘구름’ ‘KY’ ‘P생’ ‘K생’ 등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13) 광고를 낸 곳은 도서문구 문화관, 보춘당약국, 고려인삼연구소, 개성사진관, 송경인쇄소, 반도시계점, 혁신양화점, 내산사진관 등이다.

14) 시대일보 1925년 6월 27일자. 「개성소년회 3주년 기념」

15) 동아일보 1923년 5월 4일자. 「개성소년회의 선전강연: 소년의 금일(정춘수), 소년회 선전에 대해(김종필)」

16) 시대일보 1924년 4월 26일자. 「개성, 소년기념선전」

지로 초창기 아동 잡지였던 만큼 원고 부족으로 잡지 발행인과 소수 편집진이 필자가 되어 잡지 지면을 채우느라 매달렸음이 역력하다. 일부 필명 ‘백서생’은 고한승, ‘P생’은 박흥근 등으로 짐작되기도 하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셋별』을 무대로 활약한 작가의 면모는 후속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장르적으로 『셋별』이 먼저 1924년 3월호부터 5월호까지 ‘장편동화(長編童話)’를 시도한 점도 평가된다. 연재된 작품은 「소돌이와 대돌이」이다. 장편을 ‘長篇’이 아닌 ‘長編’으로 표기했다. 이 작품은 외국 동화의 번안으로 추정된다. ‘소석(小石)’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인물도 확인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최초로 씌어진 장편 아동문학은 『어린이』에 연재된 방정환의 소년탐정소설 『동생을 차즈려』(1925.1.~1925.10.)와 『칠칠단의 비밀』(1926.4.~1927.12.)로 주로 언급되어 왔다.¹⁷⁾ 「소돌이와 대돌이」는 분량 면에서는 3회 연재로 그치고 있지만, ‘장편’이라는 장르 용어를 선취하여 아동문학 서사의 장편화를 이 시기에 이미 시도했다는 점이 평가된다.

2) 고한승·마해승 발표 작품의 서지 사항

고한승이 발표한 ‘신동화’ 「바위의 슬픔」 원작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고한승은 훗날 그의 ‘동화동극집’인 『무지개』(1927.3.)에 「바위의 슬픔」을 수록하면서, ‘1924년 5월 셋별 소재’라고 밝혔다. 역시 그가 밝힌 그대로이다. 이밖에 고한승은 『무지개』에 또 다른 동화 여러 편에 대해서도 ‘셋별 소재’라고 밝혀 놓고 있다.

『무지개』에서 고한승이 밝히고 있는 작품 수록 지면은 다음과 같다.

백일홍 이약이(1923년 11월.12월 「어린이」 소재)
 나비와 장사꽃¹⁸⁾(1924.3.31 시대일보 소재)
 바위의 슬픔(1924년 5월 「셋별」 소재)
 국괴소녀(1924년 2월 「신문예」 소재)
 노래부르는 꽃(1924년 9월.10월 「어린이」 소재)
 분꽃 이약이(1924년 10월.11월 「셋별」 소재)
 크리스마스 선물¹⁹⁾
 동화극 해와 달(1924년 3월 「신문예」 소재)
 집업는 나비(1924년 6월 「셋별」 소재)

우선 『무지개』에 나타나 있는 정도만 보더라도 고한승은 동화 「바위의 슬픔」(1924.5.), 「분꽃 이약이」(1924.10.11.), 동화극 「집업는 나비」(1924.6.) 등을 『셋별』에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그 발표 원문이 확인된 것은 1924년 ‘어린이날 기념호’에 실린 「바위의 슬픔」 한 편이다. 「바위의 슬픔」은 ‘신동화’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 고한승이 직접 쓴 ‘창작’ 동화로 파악된다. 창작일은 ‘1924.4.15.작’으로 되어 있다.

어떤 산 아래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가슴 속에는 귀한 금강석이 한 개 박혀 있다. 바위는 자기의 금강석을 꺼내어 유익하게 쓰게 하고 싶지만 한 모퉁이가 부스러져서 울퉁불퉁 고약한

17) 장정희. 「방정환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3.

18) 목차에는 ‘장사꽃’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가락지꽃’으로 되어 있다.

19) 작품의 말미에 ‘24.6.18일작’이라고 창작일은 밝히고 있으나 수록 지면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모습이 되었다. 어느 날 꼬꼬리 한 마리가 찾아와 바위의 친구가 되었다. 바위의 소원을 들은 꼬꼬리는 사냥꾼이 오거나말거나 홀로 노래부르며 있었다. 사냥꾼이 쏜 총알은 꼬꼬리의 가슴을 꿰고 들어가 바위를 깨뜨렸다. 비로소 사냥꾼에 의해 바위는 쪼개어지고 금강석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가슴에 귀한 보석을 갖고 있는 바위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꺼낼 수 없는 슬픔을 다루고 있다. 바위가 간직한 보석은 사냥꾼의 총알에 맞아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게 되지만, 자기를 지켜 주던 아름다운 꼬꼬리는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결국 그 보석의 혜택이 꼬꼬리를 죽인 사냥꾼의 총알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바위의 ‘슬픔’은 비극성을 드러낸다.

마해송의 동화극 「다시 건너서」의 발표 원작도 이번에 처음 확인이 되었다. 마해송은 1934년 첫 동화집 『해송동화집』(동경: 동성사)을 출간하면서, 12편의 동화와 아동극 작품을 수록했다. 이 가운데 「홍길동」 한 편은 일부 판본에서 누락된 것도 발견되었다.²⁰⁾ 이 가운데 마해송이 『셋별』 수록 작품이라고 밝힌 것은 동화 「어머님의 선물」,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 「다시 건너서」²¹⁾ 3편이다. 「다시 건너서」의 경우, 내용 변화는 없다. 다만 마해송이 『해송동화집』을 펴낼 때 한자 어휘를 한글로 순화시켜 고친 것이 눈에 띈다. 가령, 지문으로 표현된 “禽蟲은 쌍통쌍통 뛰고 銀蛤은 몸을 질질 끌며 나간다”(셋별)를 “金벌레는 쌍충쌍충 뛰고 銀조개는 몸을 질질 쓰들면서 나간다.”(해송동화집)로 표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해송동화집』 수록본에는 두 편의 아동극 말미에, 모두 ‘송도소녀가극단을 위하여’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셋별』 수록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마해송의 『해송동화집』에 수록된 「바위나리와 애기별」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 이 동화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 창작동화’²²⁾로 평가받는 데 반해, 그 발표 지면은 『셋별』이 아닌 『어린이』라는 연표에 대한 문제제기²³⁾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해송동화집』에서 마해송이 밝히고 있는 작품 소재 지면은 ‘1926년 1월 어린이’로 되어 있다. 이번에 본 연구가 검토한 『셋별』에는 1923년 발행본 2개호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러나 역시 당시 신문에서 보도되는 매체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셋별』에 「바위나리와 애기별」이 실려 있다는 보도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 볼 때, 이 작품이 『셋별』에 발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듯하다.

그리고 마해송은 그의 해송동화집에서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의 발표 시점을 ‘셋별 1923년 12월호’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셋별 1924년 1월호’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셋별』 1924년 신년호를 소개하는 보도에서 이 작품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

20) 엄희경, 「『해송동화집』의 이본과 누락된 「홍길동」의 의미」, 『동북아문화연구』 38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3. 참조할 것.

21) 동화 「어머님의 선물」,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송도소녀가극단을 위하여, 1923년.12.새스별), 아동극 「다시 건너서」(송도소녀가극단을 위하여, 1924년.5.새스별).

22)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132~133면.
 “1923년에는 박흥근 주간의 『셋별』지에 최초의 창작동화 「바위나리와 애기별」, 「어머님의 선물」, 「복남이와 네 동무」 등을 발표하는 한편, <송도소녀가극단>을 도와 지방 순회를 하면서 자작동화를 구연했다.” “마해송의 선구적 공적은 무엇보다 그가 이 나라 최초의 본격적 창작 동화를 썼다는 데에 있다. 1923년 동화 「어머님의 선물」과 그의 처녀작이자 대표작이라 불리는 「바위나리와 애기별」이 『셋별』지를 통해 발표됨으로써 한국아동문학사상 최초의 본격적 창작 동화는 출현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화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작품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구전되어 오던 전래동화를 그대로 기술한 것이거나 외국 작품을 번안한 것에 불과했고, 더구나 그것도 문학적 양식을 빌어서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23) 원종찬, 「아동문학사의 잘못된 연표- 바위나리와 애기별 의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6;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99면.

이다.

“새해 아침, 넬손경의 어렸을 때, 壽童의 죽음, 나무에 오른 아해, 이상한 나그네, 문명한 세상, 정직한 헛티, 서장군, 우리비도새비, 福男이와 네 동무, 어른판으로 등 기타 다수한 동요와 동화”(동아일보 1924.1.7.)

“새해 아침”이라는 권두의 글이 실렸다는 소개로 보았을 때 더욱 신년호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3) 발굴 윤석중 동요 「봄이 오니까」

윤석중(1911~2003)은 13세 되던 1924년 5월호 『신소년』에 동요 「봄」, 1925년 『어린이』지에 동요 「옷독이(오뚝이)」가 입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관련하여, 『새별』 2권 5호(1924.5.)에 윤석중의 초기 동요 「봄이 오니까」가 수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새별』 2권 5호 <독자문단>에 소개된 ‘동요(입상)’ 작품이다. 입상 동요 5편 가운데 4편이 모두 ‘보통학교’ 개성 소년인 반면, 윤석중은 경성 소년이다. 윤석중은 『어린이』, 『신소년』 등 폭넓게 아동 잡지를 구독해서 읽었던 소년 문사였다. 그가 개성에서 발행되는 『새별』까지 구해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중의 첫 동요 『신소년』 수록 「봄」과 『새별』 수록 「봄이 오니까」는 일종의 자매 작품이다. 어느 작품이 먼저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중이 그의 첫 데뷔 작품을 ‘봄’이라는 주제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1924년 당시 윤석중에게 ‘봄’의 의미는 각별하다. 윤석중은 1921년 열 살에 교동보통학교에 입학한 뒤, 일본 노래 「봄이 왔다[春が来た]」를 배우면서 왜 일본어로 된 봄의 노래를 부르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그 스스로 우리말로 된 봄 동요를 지었다고 여러 자리에서 회고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새별』에 발표된 「봄이 오니까」는 일본 동요 「봄이 왔다[春が来た]」에 대응되는 동요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봄’을 테마로 한 윤석중의 『새별』, 『신소년』 동요를 비교해 본다.

봄이 오니까

경성부 교동공립보통학교 尹石重

1. 짜뜻하고 살기도흔 봄이오니까
두더취는 들먹들먹 굴을 파오며
나뭇가지 푸릇푸릇 눈을 트도다.
2. 짜뜻하고 놀기도흔 봄이오니까
쇠소리네 쇠살쇠살 노래부르며
나뻬들은 덩실덩실 춤을추도다.

- 새별, 2권 5호, 1924.5.

봄

경성교동공립보통학교 尹石重 14세

1. 찻듯한봄이오니

울긋불긋솟봄오리
 파듯파듯풀잎싸귀
 2. 싹뚫한봄이오니
 여긋저긋새소리
 이곳저곳나비춤

- 신소년, 2권 5호, 1924.5.

제시된 바와 같이 윤석중의 「봄이 오니싸」와 「봄」은 연작에 가깝다. 두 동요가 표현하는 것은 봄이 되어 새와 나비가 활동하고, 풀잎사귀가 생기 있게 소생하는 이미지이다. 『샐별』의 「봄이 오니싸」는 3음보의 서술체로 구성되었다. 『신소년』의 「봄」은 7음절 3행을 1연으로 구성하며 각 연을 체언 종지로 산뜻하게 마무리한다. 「봄」에는 ‘울긋불긋 봄오리’ 이미지가 부가된 반면, 「봄이 오니싸」에는 ‘두더지와 꾀꼬리의 생기나는 행동과 목청’이 묘사되고 있다.

두 작품은 모두 독자문단의 ‘입상작’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호기심은 윤석중이 동일 작품을 두 잡지에 투고했는가, 윤석중이 본인의 원작과 개작본을 각기 다른 두 잡지에 투고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윤석중이 당시 일본 동요 「봄이 왔다[春が来た]」에 대응할 조선의 ‘봄’ 노래 창작을 다양하게 시도했음을 보여 준다.

윤석중의 초기 동요 「봄이 오니싸」는 ‘조선의 봄’을 기획한 그의 초기 항일 문학의식과 그 창작적 면모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샐별』지의 아동예술사적 조명

『샐별』을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1920년대 초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아동예술의 면모이다. 물론, 이 같은 측면은 조명된 바가 있지만, 이번에 새로 발굴된 『샐별』에는 어린 소년소녀들을 위한 예술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린이 관점으로 서술한 글이 실려 있다. 즉, 당시 아동예술을 바라보고 체험하며 받아들인 어린이의 관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샐별』은 잡지 창간과 함께 ‘샐별동무대회’를 열기 시작하여, 각종 ‘동화회’, ‘음악대회’, ‘강연’, ‘가극’ 등 순회 공연을 이어나갔다. 『샐별』은 잡지를 매개로 하여 움직인 우리나라 초창기 아동 예술의 한 현상이기도 했던 것이다.²⁴⁾

24) 당시 샐별사의 아동 예술 행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1923.11.9./ 開城샐별社童話會 去三日 高麗女子館에서 韓錫源 馬海松 兩先生の 童話로空前 한 大盛況

每日申報, 1923.11.12./ <샐별동무대회>

동아일보 1924.1.3./ 開城 샐별社主權 少年少女音樂會

시대일보 1924.4.26./ 개성, 소년기념선전

동아일보 1924.5.29./ 샐별社 童話會

시대일보 1924.6.17./ 한포(汗浦), 가극강연 성회(盛會), 샐별사의 순회반, 소년문제강연, 소년회 조직

동아일보 1924.6.17./ 샐별社의 童話, 歌劇盛況, 소년문예 강연회에서 마해송 고한승氏의 강연이 있스후 汗浦少年會도 組織(開城)

동아일보 1924.8.24./ 샐별社 活動, 가극 강연, 馬海松씨는 인천에

매일신보 1924.8.23./ 찬란한 샐별 郡, 개성소녀가극대회, 어린이의 천진한 예술, 만장 청중은 도취하였다.

먼저, 당시 아동 예술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린이의 시각으로 묘사된 풍경을 엿보기로 하자.

1) ‘한어린이’의 관찰로 본 셋별사 음악대회

『셋별』 2권 2호(1924.2.)에는 ‘한어린이’라는 필명의 글 「음악대회를 구경하고」가 실려 있다. 화자인 ‘어린이’는 당시 셋별사 주최 음악대회 풍경을 재미있게 그린다.

“새사별의 예고를 보고 벌써 언제부터 기다리든 우리 어엿분 동무들의 음악대회가 하마트면 노칠 변한 지난셋달 금요일에도 저녁에야 열렸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두시부터 저녁밥을 재촉하다가 어른들께 꾸중을 실컷 들었고 하마트면 새아닌 콩마당질이 날 변한 위험을 격근 뒤에 다섯 시에 된밥을 뿌리만 조금 싸고 고려녀자관의 맨꼭대기층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어서 자라서 돈 만히 불어 가지고 온 장 안에 있는 작난감이란 작난감을 다 사 가지고 놓고 심흔 것도 큰 소원이지만은 원수로 키가 적어서 취군 구경이나 운동 구경을 잘 못할 새에는 참 기가 맥힘니다. 왜 처음부터 어른으로 생겨나지 못하였나 하고 혼자 골을 내인 적이 한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는 나는 어른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원대로 어른이 되었더라면 그 날 저녁에는 도로 어린이 되기를 울면서 빌어쓸 뻔하였스니다”

“전에 본 적이 엷는 조구만 유성기에다가 소래판에도 소년판이 있든지 적은 내 손바닥보다더 더 적어보이는 소래판이 올려 노이더니만 그 꼴과는 다르게 소래가 엷지 그리 크고 또 유쾌하겠지요”

“차레차레로 뒤에 뒤를 디여서 나오는 무슨 독창이니 병창이니 동화극이니 또 무슨 악대의 합주니 독주니 소주니 탁주니 하고 작가 나오는데 모두가 우리 소년소녀들의 자랑거리였스며 어니 것이 방안에 가득찬 구경꾼들의 취한 듯한 박수와 갈채를 맞지 안는 것이 엷었습니다.”

“우리들처럼 어리지도 안으신 고 선생님이 그 육중하신 몸으로 무대에 올라오셔서 크고도 거시신 어른의 목소레로나마 고흠 百日紅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여 주셨습니다그려.”

음악대회를 가기 위해 오후 2시부터 서두르느라 부모님에게 혼이 난 아이의 설레는 감정부터, 음악대회에서 독창, 병창, 동화극, 합주 등을 자랑스럽게 감상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한어린이’는 마지막으로 고흠승의 백일홍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듣고 있다. 당시 음악대회에서 어린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유성기’에 대한 묘사도 재미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당시의 아동예술 행사가 소년소녀 및 동화구연가의 합동 무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어린이’의 변화이다. “작난감이란 작난감”도 가진 것이 없고 “취군 구경이나 운동 구경”도 잘 하러가지 못할 때 ‘한어린이’는 왜 자신이 처음부터 “어른으로 생겨나지 못”했는지 답답해하며 골을 낸다. 그러나 『셋별』이 주최한 음악대회에 참석한 후 “나는 어른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만일 어른이 되었더라면 그 날 저녁에는 도로 어린이 되기를” 울면서 빌었을 뻔했다고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 바로 조선 어린이들이 조흔 약속으로 빨리 성숙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기’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시 어린이운동가들의 인식과 노력이 실제 그 시대 어린이의 삶으로 실천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셋별사가 주최가 된 음악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관현악단의 주인공들은 어린이들

이다. 무대를 즐기는 관객들도 어린이들이다. 즉, 셋별사는 어린이들이 예술의 주체가 되고 관객이 되어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예술 현장에 참여시켰다. 아동예술은 어린이 시기의 감성 해방을 끌어 주는 유로가 된다는 것을 이 ‘한어린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셋별사의 아동 예술 행사와 방정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성의 아동 잡지 『셋별』은 『어린이』와 일정한 유대 관계를 보였다. 『셋별』과 『어린이』는 각각 주일학교와 천도교를 배경으로 성장한 점은 달랐지만, 조선 어린이를 위한 아동예술의 발전과 어린이날을 기념하자는 취지에서는 같은 노선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셋별』이 창간과 함께 ‘셋별동무대회’를 연 것 역시 1923년 『어린이』가 창간될 때 동무대회를 연 것과 다소 닮아 있다. 『셋별』이 이 같은 기획을 하고 적극적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색동회>가 동경에서 창립된 후 7월 23일 조선에서 『어린이』와 함께 개최한 ‘전선소년지도자대회’ 이후와 이어진다. 즉, 개성 지역 어린이 운동과 색동회의 활동은 연관지어 살펴볼 여지가 충분하다.

『셋별』 창간을 기념하는 대성황의 셋별동무회를 보면,²⁵⁾ “오백여 명의 어린 남녀가 모여 웃고 질겨하는 것은 때아닌 봄을 맞는 것갓땀다더라”라고 전한다. 이 동무회는 주로 동요 독창과 합창, 동화, 동화극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아동 예술 행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²⁶⁾ 1924년 6월에 이루어진 <가극강연성회> 때는 독창, 양금, 관현악 합주, 하모니카 연주와, 마해송, 고한승의 동화, 가극 <숨박국질>과 <물망초>가 이루어졌으며, 소년문제 강연, 소년회 조직도 함께 이루어졌다.²⁷⁾

『셋별』 2권 3호(1924.3.)에 실려 있는 “춘기동화대회” 알림 란의 기록은 셋별사와 방정환의 직접적인 교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방정환 고한승 마해송 세 분 선생님’이 어린이를 위해 이야기를 들려 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회 어린이날을 앞둔 시점에서 방정환의 개성 방문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개성소년회가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기행렬을 한 것, 『셋별』이 5월호를 ‘어린이날 기념호’로 발행한 것 등을 다시금 유심히 바라보게 한다.

방정환이 <천도교소년회>와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가열차게 일으킨 그 노력이 지역으로 전파되어 개성에서 또 하나의 봉우리로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색동회> 구성하고 있던 개성 출신의 인물이 있었다는

25) 동아일보, 1923.11.6.

26) 이때의 주요 프로그램은 ‘소년 7인의 합창’, ‘공영선(소년)의 동요 독창’, ‘한석원의 이야기’, ‘구순복(소녀)의 독창’, ‘마해송의 이야기’, ‘홍창봉(소년)의 독창’ ‘희극’ 등이다.

27) “재경 소년소녀 잡지 『새스별』사에서는 한포(汗浦) 시민의 초청을 받아 지난 십사일 가극반 소년소녀 십이 명이 한포에 이르러 다대한 환영 가운데 당일 밤 여덟시 반부터 당디 예배당에서 동화회(童話會) 겸 가극회(歌劇會)를 열었는데 남녀 학생의 독창(獨唱) 병창(並唱) 사현금(四絃琴) 양금(洋琴) 하모니카 관현악합주(管絃樂合奏) 등과 마해송 고한승 전수창 제씨의 재미있는 동화가 있은 후에 『숨박질』 물망초(勿忘草)란 두 가지 가극(歌劇)이 잇서 매우 재미있게 지냈는데 청중은 남녀로소 오백여 명에 달하여 한포 초유의 성황을 이루었고 그 잇흔 날 십오일 하오 한시부터 가튼 레배당에서 소년문제 강연회(少年問題講演會)를 개최하고 마해송씨와 고한승 씨의 열렬한 강연이 있은 후 이어서 한포소년회(汗浦少年會)를 조직하게 되어 모힌 소년 전부가 회원이 되고 어른은 찬성회원(贊成會員)이 되어 규칙을 통과하고 간사 오명을 선거한 후 새스별사 일행은 동리 성혜자 씨 집에 열린 시민유지의 환영회에서 오찬을 맞치고 오후 세시 차로 돌아왔다고(개성)” 동아일보, 2024.6.17.

점이다.

『셋별』에서 방정환이 동화대회를 가진 후 같은 해 8월에는 『어린이』가 후원이 되어 『셋별』의 경성 공연이 주선된다. 『셋별』은 경성에서 개성 이북의 수재 동포를 구조하기 위해 <개성 소녀가극대회>를 열기도 했다.

『셋별』사 주취와 『어린이』사 후원으로 개성 이북의 수재 동포를 구조코자 하는 개성 소년소녀(少年少女)의 가극무용대회(歌劇舞踊大會)는 예당과가치 데일회를 개최 이십일일 밤 여덟시 반부터 종로 청년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당각에 고한승(高漢承) 씨의 스회가 있슨 후 귀엽고 아름다운 소녀 일곱 명이 <와셔 직히지요>라는 노리를 불너 첫막을 열기 시작하여 혹은 무용 혹은 동화극(童話劇) 혹 독창(獨唱) 가극(歌劇) 등을 순서되로 맞치여 데일부(第1部)를 끝 내고 잠시 휴계가 잇섯는 바 이 사이를 리용하여 기경 리관운(李觀運) 씨의 수해에 대한 보고와 소파(小波) 방당환(方定煥) 씨로부터 불상한 그 동포를 위하여 오직 마음으로라도 동정의 눈물을 뿌리자는 간곡한 말이 잇슨 후 다시 이러흔 ○○를 위한 윤심덕(尹心德) 양의 ○○독창이 끝나자 즉시 데이부(第2部)에 옮겨 역시 어린이들의 몸짓과 소리로부터 아로새겨 나오는 턴진한 예술에 만장은 도취되얏섯는대 폐회되기는 동일시 반경이 잇스며 이날 밤에 동정의 기부금이 약 백원에 달하얏섯고 다시 작일에는 경운동 턴도교당(天道教堂)에서 데이회를 기취할 터이며 오늘 아침 아홉시부터 수표교예배당(水標橋禮拜堂)에서 다시 가극 무용대회를 열어 어린이들에게 공기한다더라.²⁸⁾

고한승의 사회로 진행된 이 가극대회는 “어린이들의 몸짓과 소리로부터 아로새겨 나오는 천진한 예술에 만장은 도취”되었다고 쓰고 있다. 방정환은 연사로 등장하여 “불상한 그 동포를 위하여 오직 마음으로라도 동정의 눈물을 뿌리자”고 호소했다. 이후 가극대회는 종로청년회관, 천도교회관, 수표교예배당으로 옮겨 가며 경성 시내를 순회했다.

5. 나오며

이상으로 본 연구는 1920년대 초 개성 지역에서 발행된 아동 잡지 『셋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윤석중문고> 소장본 『셋별』 3개호 즉, 2권 2호(1924.2), 2권 3호(1924.3), 2권 5호(1924.5) 3개호에 대한 1차 발굴 현황을 학계에 소개하고, 일차적으로는 서지적 고찰에 목적을 두고 『셋별』의 발행 사항과 편집 체제를 살폈다. 나아가 1920년대 초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에서 『셋별』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방정환과의 교유 관계 및 『어린이』와 영향 관계 등을 곁들여 짚어보았다.

3개 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잡지의 전체성을 규명하고 그 수록 작품의 구체적인 세부를 분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23,4년 개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어린이 운동과 『셋별』을 무대로 전개되었던 초창기 한국 아동문학과 아동예술의 새로운 일각을 조명해 보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셋별』이 1923년 11월 창간호를 낸 후 1924년 10월호까지 약 1년간 10개호를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편집 체제에서 나타나는 『셋별』의 가장 큰 특징은 ‘문에 중심 편집’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별』은 창간호부터 역사 인물 이야기 란을 두는 등 민족 의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다. 이번 『셋별』 잡지의 발굴이 새로운 시사점을 주는 것은, 『

28) 매일신보 1924년 8월 23일자. 「찬란한 셋별 郡, 개성소녀가극대회, 어린이의 천진한 예술」

셋별』과 『어린이』 편집의 유사성이다. 그 배경으로 본 연구는 진장섭·고한승·마해송 등 개성 출신 <색동회> 회원의 적극적 행보와 그 관련성에 대해 주목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셋별』에 수록된 아동문학 작품을 조명하고, 셋별사가 이끈 아동예술의 의미를 살폈다.

『셋별』은 1920년대 초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작가와 작품 양 면에서 활발한 성장을 이끌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셋별』의 주요 작가는 ‘대화’에 우영희, ‘동요’와 ‘유년소설’에 금강생, ‘동화’에 고한승, 고한용, ‘소설’에 임영빈, ‘동화극’에 마해송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고한승의 동화 「바위의 슬픔」과 마해송의 아동극 「다시 건너서」 두 편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다시 그 후에 나온 두 사람의 동화집 『무지개』(1927)와 『해송동화집』(1934) 수록본과 비교하였다. 서지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마해송의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의 발표 시기를 ‘셋별 1923년 12월호’가 아닌 ‘셋별 1924년 1월호’로 바로 잡았다.

윤석중의 동요 「봄이 오니까」도 처음 발굴 소개했다. 「봄이 오니까」는 윤석중이 일본 동요 「봄이 왔다[春が来た]」에 대응하여 창작한 동요로 윤석중의 항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초기 작품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1920년대 초 우리나라 아동예술사의 면에서 기여한 『셋별』의 특별한 노력을 주목했다. 『셋별』은 잡지 창간과 함께 ‘셋별동무대회’를 열기 시작하여, 각종 ‘동화회’, ‘음악대회’, ‘강연’, ‘가극’ 등 순회 공연을 이어나갔다. 『셋별』은 잡지 발행을 매개로 우리나라 초창기 아동예술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

『셋별』이 방정환과 교류한 것은 흥미로운 한 지점이다. 『셋별』이 주최한 ‘춘기동화대회’에서 방정환은 고한승·마해송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셋별』이 수재 동포 구제를 위해서 경성에서 <개성소녀가극대회>를 공연할 때 『어린이』는 그 후원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밑그림을 만들어 준 것은 바로 개성 출신 진장섭·고한승·마해송이 그 구성원이 된 <색동회>였다.

『셋별』은 약 1년 간 운영된 단명한 아동 잡지이다. 그러나 개성 아동문학의 주요 무대가 되어 주었으며, 이후 1927년 고한승의 『무지개』, 1934년 마해송의 『해송동화집』이 출간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했다. 특히, 개성 지역 어린이운동과 아동문학의 발전에 다대한 공로를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문헌

『시대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 『어린이』, 『신소년』.

논문 및 평론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1860~1945년-』, 민족문화사, 1992.

염희경, 『『해송동화집』의 이본과 누락된 「홍길동」의 의미』, 『동북아문화연구』 38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3.

원종찬, 「아동문학사의 잘못된 연표－바위나리와 아기별 의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6.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유임하, 「여광」, 『한국근대문학해제집 4』(국립중앙도서관)

장정희, 「방정환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3.

정인섭, 『색동회 어린이운동사』, 색동회, 1975.

<1920년대 초 개성 아동지 『샛별』 연구> 토론문

정선희(고려대)

1. ‘『어린이』/『샛별』’이라는 위계적 이분법: 『샛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어린이』라는 타자가 너무 빈번하게 호출되는 듯하다. 아울러 『어린이』와 『샛별』을 비교하거나 전자가 후자의 모방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발표자들의 시선에 기본적으로 ‘『어린이』/『샛별』’이라는 이분법이 전제되어 있다는 의심을 떨치기가 어렵다.

이때의 이분법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왜냐하면 두 아동잡지 사이의 이항대립이 색동회에서 지위를 기준으로 ‘중심인물 방정환/주변인물 마해송·고한승·진장섭’, 그리고 이들의 출신지를 기준으로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식민지 조선의 지방 도시 개성’이라는 또 다른 이항대립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삼중(三重)의 이분법에 전자는 후자를 선도한다는 서열화 된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발표자들이 『샛별』 기사 가운데 색동회원 마해송과 고한승의 작품, 또한 『어린이』 애독자이자 경성 토박이로 유명했던 윤석중의 투고작을 유독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발표자들은 『샛별』이라는 전체집합에서 『어린이』-또한 배후에 존재하는 방정환·경성-와 교집합을 가지는 기사들만 논의의 대상으로 취사선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발표자들은 『샛별』이 지닌 특수성과 논의의 잠재력을 부분적으로는 외면해버리는 무리하고 단순한 독법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2. ‘개성’이라는 지역적 특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은 어떠할까?: 토론자는 이 발표문의 미덕이 근원적으로 ‘개성’이라는 키워드에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성’이라는 렌즈를 잘 사용하면 서지학적 해제의 차원을 넘어 지역 아동문학 연구로서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할 수 있다면 그간 한국 아동문학 학술사에서 꽤 오랫동안 소년운동의 중심지로 군림해온 경성-물론 경성의 배후에는 제국의 수도 동경(東京)의 자성(磁性)이 일렁이고 있었다-과 이곳에서 간행되었던 아동잡지들을 내재적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될 것이다.

3. 문예잡지 『여광(麗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샛별』은 개성의 전통 및 유산과 무연(無緣)하게 등장한 평지돌출의 아동잡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개성은 예로부터 상업이 발달하였던 까닭에 『샛별』 이외에도 카프의 기관지였던 『군기(群旗)』, 지방신문 『고려시보(高麗時報)』 등 독자적인 지역매체의 계보를 오랜 시간 형성해온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1920년대 초”라는 공시적 접근 외에도 통시적 관점에서 아동잡지 『샛별』의 전조(前兆)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토론자가 주목하는 매체가 1920년에 창간된 문예잡지 『여광』¹⁾이다. 인상비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빛[光]’과 관련된 단어들이 제호로 선택되었다는 점, 더하여 마해송·고한승·진장섭 등 필진이 겹친다는 점, 또한 근본적으로 두 매체가 ‘개성’이라는 로컬리티를 토

1) 『麗光(THE LIGHT OF KOREA)』 1, 여광사, 1920.3; 『麗光(THE LIGHT OF KOREA)』 2, 여광사, 1920.6.

대로 성장하였다는 점 등을 둘 사이의 공통분모로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여광』은 방정환이 관여했던 동인지 『신청년(新靑年)』과도 꽤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매체였다. 때문에 『여광』과 『셋별』 간의 통시적 관계를 검토하는 일은 『셋별』이라는 매체의 좌표 값뿐만 아니라 현재 카오스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색동회의 전사(前史)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

4. 『셋별』과 남감리교(주일학교) 간의 상관관계: 『셋별』의 간행과 깊이 관련된 남감리교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소략하다. 우선 『셋별』의 판권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발행인 “米國人 安至善”은 감리교계 미국인 선교사 앤더슨(L. P. Anderson)의 한국식 이름이었으며, 편집인 “朴弘根”은 개성동부유년주일학교의 유년성가극단장으로도 활약한 인물이었다. 이 때문인지 『셋별』에 발표된 기사에서도 기독교의 기운이 종종 감지된다. 예컨대 원균의 참소로 옥살이를 하게 된 이순신은 “하나님은 의인을 도으신다”²⁾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복귀를 기다리며, 「력사이약이 강감찬」³⁾에서는 ‘병마(病魔)’나 ‘미신’을 연상시키는 ‘마마귀신’의 존재가 소멸되고 만다. 동명이인이거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현상발표」 당선자 명단 가운데는 훗날 기독교계 아동잡지 『아이생활』의 필진이자 『동화』의 주간으로도 활동한 최인화(崔仁化, 1910~1943)의 이름이 목격되기도 한다.⁴⁾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셋별』은 남감리교 관계자들이 개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선교나 문화 선교의 목적, 혹은 주일학교 교재의 용도로 간행하였던 매체였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들의 견해가 궁금하다.

5. 아주 사소한 지적 (발표문 8면): 소석(小石)이 분재한 「소돌이와 대돌이」의 원작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작은 클라우스와 큰 클라우스」(1835)이다. 이 작품은 식민지 조선에서 간행되었던 아동잡지 및 번역동화 앤솔리지에서 꽤 자주 소개되었던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한 편이었다.⁵⁾

2) 쓴배, 「력사이약기 李忠武公舜臣」, 『셋별』 2-2, 셋별사, 1924.2, 17면.

3) 쓴배, 「력사이약이 강감찬」, 『셋별』 2-3, 셋별사, 1924.3, 20~22면.

4) “平壤衛廳里六二 崔仁化” 「懸賞發表」, 『셋별』 2-2, 셋별사, 1924.2, 40면.

5) 맹주천, 「童話 큰돌이와작은돌이(一)」, 『신소년』 5-3, 신소년사, 1927.3, 4~10면; 맹주천, 「趣味童話 큰돌이와작은돌이(二)」, 『신소년』 5-4, 신소년사, 1927.4, 6~13면; 연성흠, 「큰복길이와작은복길이」, 『조선일보』, 1927.5.5.~5.16; 연성흠, 「큰복길이와작은복길이」, 『세계명작동화보옥집』, 이문당, 1929, 40~69면; 이갑섭, 「큰 돌쇠와 작은 돌쇠」, 『세계걸작동화집』, 조광사, 1936, 235~248면.

▣ 분과별 자유주제 발표

◇ 국어학

언어 현상으로서의 인터넷 밈 연구
용언의 상적 특성과 시제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연구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와 문체적 특성 연구
유동분류사 구문에서의 격 교체 현상에 대한 고찰

◇ 현대문학

오학영 희곡 텍스트의 모순성 연구
구소련 고려인 시에 대한 고찰
간힘과 떠돌, 소통의 서사 미학 -송영문학론-
작가 인식을 통한 최인호 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 고전문학

일제강점기 기녀 관련 사당의 역할과 의미
<전우치전> 속 약자적 인물의 결합과 그 의미
재지사족 所作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의 표현 양상과 그 의미
공정성 평가에 따른 고전 해석의 확장 가능성 연구

◇ 한국어교육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인식 조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과 전략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박사 유학생의 학술논문 수업 설계
한국문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고찰

[국어학]

언어 현상으로서의 인터넷 밈 연구
용언의 상적 특성과 시제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연구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와 문체적 특성 연구
유동분류사 구문에서의 격 교체 현상에 대한 고찰

언어 현상으로서의 인터넷 밈 연구

박광길 (강원대)

-목 차-

1. 서론
2. 밈과 인터넷 밈
3. 인터넷 밈의 생성과 전파
4. 인터넷 밈과 언어 현상
 - 4.1. 인터넷 밈과 신어의 형성
 - 4.2. 인터넷 밈의 언어적 특징
 - 4.3.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 결론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는 개념인 ‘밈(meme)’의 하위 분야 중 인터넷 밈을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보고, 인터넷 밈이 지닌 언어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 있다.

어느 시기에나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소통의 문제는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 졌다. 청소년들의 교실 안 은어, 비속어는 항상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지나친 줄임말이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어의 사용 역시 소통 단절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과 같이 비교적 젊은 세대의 문제로 다루어지지만, 이와 반대로 기성세대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한자어, 전문용어 등도 소통을 단절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렇듯 언어 사용과 관련된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하는 과정과 별개로 늘 새로운 단어, 표현들과 같은 언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소통이 단절된다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로 잡아야 할 대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만, 언어가 변화하며 새로운 요소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언어가 지닌 본질적 성격에 따른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단어나 표현이 나타난다는 것은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수용하는 과정

으로, 언어의 사용이 인식의 확장이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는 ‘밈(meme)’을 주목할만하다. 밈은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의 어근 ‘mimeme’를 유전자를 뜻하는 ‘gene’와 유사한 발음의 단어로 만든 용어로,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밈을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리처드 도킨스는 생물학적으로 정보를 복제하여 후대로 유전하는 유전자(gene)에 빗대어 문화적 정보를 모방하여 전파하는 현상을 밈(me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하였다.¹⁾ 밈이라는 개념은 1976년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분야마다 밈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방을 통해서 전해지는 문화적 요소’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밈은 모방을 통해서 전해지는 문화적 요소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건축 양식, 패션, 정치,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언어의 사용 역시 시기별로 특정한 단어, 표현이 유행하여 널리 퍼져 나가기도 하고, 유행하는 언어에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밈을 끊임없이 생겨나고 이어지는 언어 현상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활자, 라디오, TV를 거쳐서 매체의 발달로 인해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된 지금, 다양한 이미지, 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언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밈이 언중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생산, 소비되고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이 최근 언중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밈’ 문화를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밈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기존의 밈과 인터넷 밈의 차이점을 밝히고, 인터넷 밈이 생성된 배경과 전파되는 과정의 특징을 기술한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밈이 지닌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고 언어 현상으로서의 인터넷 밈이 지닌 의의를 밝힌다.

2. 밈과 인터넷 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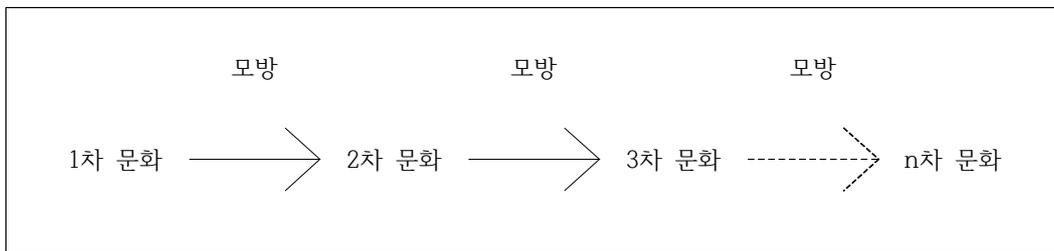
앞서 기술하였듯이 밈은 1976년에 리처드 도킨스에 의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를 복제하여 후대로 전하는 과정이 있듯이, 문화적 요소도 유전자처럼 모방을 통해 전해지는 현상²⁾이 있으며 이를 유전자(gene)에 빗대어 밈(meme)으로 표현하였다. 유전자가 생물학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단위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면, 밈은 문화라고 하는 비교적 추상적이며 큰 단위에서 사용되는

1) 리처드 도킨스, 홍영남 옮김(2006),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pp330~349.

2) 리처드 도킨스에 의하면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를 복제하여 후대로 전하는 과정을 ‘진화’로 파악하며, 마찬가지로 문화적 요소가 모방을 통하여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전달되는 과정도 ‘진화’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유전자(gene)는 생물학적 유전의 단위이고, 밈(meme)은 문화적 진화의 단위로 규정할 수 있다.

개념이다.

밈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은 모방과 더불어 장수, 다산성, 복제의 정확도를 들 수 있다. 밈은 특정 문화 현상을 모방하여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 내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즉, 유전의 현상이 부모 세대의 유전적 정보를 유전자가 지닌 채 자식의 세대로 물려주는 것이라면, 밈의 현상에 있어서 특정 문화(1차 문화)는 유전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고, 새로운 문화(2차 문화)는 유전의 자식 세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전자가 부모 세대의 유전적 정보를 지니는 과정을 밈에서는 ‘모방’ 혹은 ‘복제’로 표현한다. 밈은 이전의 문화 현상을 끊임없이 모방하여 더욱 오래, 더욱 넓게 퍼트리는 특징을 지녔다.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밈의 모방 과정>

밈의 모방 과정에 있어 모방 대상이 되는 문화가 있으며, 모방의 결과로 나타나 문화가 있다. 위에 표의 ‘1차 문화’는 모방 대상이 되는 문화이며 ‘2차 문화’는 모방 결과로 나타난 문화이다.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2차 문화 이후에도 모방을 통하여 3차, 4차를 비롯한 무수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전파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모방 결과로 나타난 문화는 언제든지 모방 대상의 문화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모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방 결과로 인한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 때 밈의 과정, 즉 문화의 진화는 멈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적인 밈’이란 모방 대상의 문화적 특징을 잘 간직한 채 더 넓게, 더 오래 해당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밈이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하는 ‘장수’, 많은 문화를 만들어 내 더욱 넓게 전파하는 ‘다산성’, 본래의 문화적 특징을 잃지 않아야 하는 ‘복제의 정확도’가 요구된다.³⁾

모방을 통해 문화가 전파되는 일련의 과정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특정한 건축 양식이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며 유행을 이어 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으며 그 대상이 패션, 스포츠, 경제 활동 등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분야에서 밈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이어가고 있다. 무언가가 본래의 정보를 일정 부분 유지 즉, 모방한 채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과정은 어느 분야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

3) 리처드 도킨스에 의하면, 성공적인 밈을 이루기 위한 장수, 다산성, 복제의 정확성은 성공적인 유전을 이루기 위한 조건과 같다. 다만 밈은 유전에 비해 오래 살아남는 장수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으며, 더욱 많은 문화를 생성하는 다산성이 중요하다.

이다.

이러한 밈 현상과 관련하여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밈’을 주제로 검색되는 논문이 약 50건 나타나며 이를 주제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⁴⁾

대분류	중분류	총합
인문학	독일어와문학(2), 언어학(1), 영어와문학(1), 종교학(2), 철학(3), 한국어와 문학(1)	10
사회과학	경제학(3), 교육학(3), 기타 사회과학(1), 법학(2), 사회과학 일반(1), 사회학(1), 신문방송학(3), 행정학(1)	15
자연과학	생활과학(2), 자연과학(1)	3
공학	건축공학(3), 기타공학(1)	4
의약학	의약학(1)	1
예술체육학	기타예술체육(1), 디자인(5), 미술(1), 예술일반(2), 의상(3), 체육(4)	16
복합학	학제간연구(1)	1

<표2. 밈의 선행 연구 주제 분류표>

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등에서도 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2008년부터 시작하여 점차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최근 5년 이내의 연구 결과로 나타난다. 해외에서 이미 밈에 대한 논의를 ‘밈학(Memetics)’의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⁵⁾ 국내의 연구도 점차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점에 밈의 현상을 언어적인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⁶⁾ 언어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비해, 언중들은 밈을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본래의 밈의 개념이 비교적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인 데에 반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즐

4) 2020년 7월 시점에 KCI 학술논문 검색 결과이며 연구 제목에 ‘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연구 제목을 통해 밈과 관련된 연구임을 알 수 있는 결과만 정리하였다. 주제 분류는 게재된 학술지의 KCI 분류를 따랐으며 대분류와 중분류까지 제시하였다.

5) 밈은 우리말샘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An element of a culture that may be considered to be passed on by non-genetic means, esp. imitation(모방 같은 비유전적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고 여겨지는 문화의 요소)”로 등재되어 있다. 밈을 다룬 수전 블랙모어(1999)의 저서에 추천 서문을 쓴 리처드 도킨스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편찬자들은 새로운 단어에게 사전에 등재되는 영예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후보자 단어는 그 정의나 유래를 매번 언급할 필요 없이 흔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기준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밈을 정리한 해외 홈페이지(<https://knowyourmeme.com>)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해외에서는 이미 밈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표2의 주제 분류상 인문학의 하위 중분류를 보면, 언어학으로 분류되는 연구는 기호학과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문학 작품의 이야기 변용, 밈을 활용한 읽기와 쓰기 교육에 대한 논의이다.

길 수 있는 하나의 놀이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기술한 밈의 개념과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인터넷 밈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밈은 모방을 통하여 전파되는 문화 현상, 또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놀이, 인터넷상의 유행어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우리말샘에 등재된 밈의 표제어 정보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말샘에 밈이 최초로 등재된 시기는 2018년 9월로 당시 뜻풀이는 “특정 사람과 연관이 있는 말이나 유행어”이며 이후 몇 차례의 편집을 아래와 같은 정보로 등재되어 있다.

표제어	밈(meme)
품사	명사
분야	사회일반
뜻풀이	인터넷에서 유행어·행동 따위를 모방하여 만든 사진이나 영상. 또는 그것을 퍼뜨리는 문화 현상. 1976년에 도킨스(Dawkins, R.)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작가는 인간의 이러한 모방 심리를 통해 문화도 유전자처럼 진화한다고 설명하였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용례	- 인류는 문화의 핵심 요소인 밈을 전달하고 모방함으로써 그 발전을 가속화시켜 온 것이다.《매일신문 2007년 1월》 - 해당 글은 일종의 밈으로 취급받으며 최근에도 ‘개발진의 허세’라는 키워드로 종종 거론되고 있다.《게임메카 2018년 9월》
어원	<그리스어>mimēma

<표3. 우리말샘에 등재된 밈의 정보>

위 표3의 뜻풀이와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중들은 밈을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화’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샘에 등재된 밈을 통해 본래 밈이 문화적 진화와 관련된 사회학적 개념인 데에 반해, 일반 언중들에게는 그보다 축소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우리말샘의 표제어 정보는 기존의 밈의 개념과 구분되는 인터넷 밈의 개념이다. 최순옥 외(2020)의 논의에 따르면 인터넷 밈의 개념은 1993년 마이크 고드윈이 처음 사용했으며, 인터넷 밈과 기존의 밈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밈은 정확히 일치하는 복제를 통해 확산되지만 인터넷 밈은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변화가 반영된다고 하며, 즉 인터넷 밈은 문화의 아이디어, 행동, 스타일이 이용자들의 창의성에 의해 변형되어 이미지 또는 영상의 형태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⁸⁾ 또한 Wiggins&Bowers(2015)에서 인터넷 밈은 참여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결과물로서, 참여하는 과정이 쉬워지고 창작과 공유에 대한

7) 우리말샘의 집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회원이 집필 신청한 표제어는 주로 특정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나 전문 집단이 아닌 일반적인 언중들이 사용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밈의 경우 표제어 편집 이력에서도 최초 제안자나 중간 편집자들이 밈을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유행어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최순옥, 최성인, 이재현(2020), 「유튜브에서의 뮤직비디오 팬덤 분석 BTS MV의 시청, 댓글 상호작용, 밈 영상 제작」, 한국언론학보 64권 1호, 한국언론학회, p13

의지가 높으며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⁹⁾

이를 정리하면 인터넷 밈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모방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보를 변용하여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해 내는 데에 있다. 이는 밈이라는 개념은 본래 모방을 통하여 전파되는 문화 현상, 또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하지만, 인터넷 밈은 이와는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즉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한 성격¹⁰⁾을 지닌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문화가 생겨나고, 더불어 기존의 문화 정보를 정확하게 모방하는 것이 아닌 밈 생성 참여하는 이용자의 창의성을 더해 변형시키는 성격이 더해진 결과이다.

본고의 논의는 기존의 밈의 개념과 구분되는 인터넷 밈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어적 특징이 인터넷 밈이라는 범위 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터넷 밈은 넓은 의미에서 신어의 형성이나 유행어의 사용 등과 같은 특정한 언어 현상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와 같은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인터넷 밈이 생겨난 배경과 전파되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어서 인터넷 밈이 지닌 언어적 특징을 밝힌다.

3. 인터넷 밈의 생성과 전파

인터넷 밈의 만들어지고 전파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나아가 지금의 다매체를 통한 인터넷 밈의 전파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¹¹⁾ 인터넷의 보급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에 이른바 ‘커뮤니티’라고 하는 홈페이지들이 개설되었다. 인터넷에 등장한 커뮤니티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적을 지니고 게시판을 통해 소통하는 홈페이지를 뜻한다. 공통의 관심사는 커뮤니티에 따라 스포츠, 게임, 패션, 음식, 영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판에 올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읽고, 자신의 의견을 내며 소통한다. 인터넷 밈이 생성되기 시작한 지점은 바로 커뮤니티의 개설,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에 개설된 커뮤니티 중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이다.¹²⁾ 디시인사이드는 1999년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한 IT의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9) Wiggins,B.E., Bowers,G.B.(2015), Memes as genre: A structurational analysis of the memescape, *New Media & Society* 17(11).

10)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언제, 어디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참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며 진입 장벽이 낮아야 하는데, 인터넷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11) 국내에서 인터넷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이다. 당시 가정용 PC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 통신망이 구축되며 PC 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광케이블 설치가 이루어지며 1999년에는 본격적으로 인터넷 정액제가 시행되고 이때부터 인터넷 사용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12) 트래픽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이용량을 측정하는 시밀러웹(www.similarweb.com)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디시인사이드는 국내 홈페이지 트래픽 순위 중 전체 7위에 해당하며, 포털 사이트를 제외하면 1위에 해당한다. 이는 하루에 200만 번 이상 접속이 이루어지고, 하루에 약 70만 건의 글이 올라오는 수준으로 국내 홈페이지 중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티로 개설되었으며, 주로 디지털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의 특징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올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자 하였다. 이에 당시의 대부분 커뮤니티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디시인사이드에서는 게시판 대신 사진을 올리는 공간이라는 뜻에 ‘갤러리’를 개설하여 글과 사진을 함께 올리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갤러리를 개설하였으며, 갤러리에는 필수적으로 글과 사진을 함께 올리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으로 이용자들이 사진을 포함하지 않고 글을 올리면 해당 글이 삭제되었는데, 이를 커뮤니티에서는 ‘잘린다(잘린다)’라고 표현하였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글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아무 사진을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글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올리는 사진을 ‘잘림 방지’ 줄여서 ‘잘방’이라고 표현하였다.¹³⁾

본래 갤러리의 주목적은 이용자들이 사진을 올려 감상하는 것이었지만,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나 사진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갤러리에 올리는 사진은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단순히 게시글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고, 이를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글이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진이 올라오며 이러한 사진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어느 특정 사진이 대단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그 사진을 원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창작물들이 만들어졌다. 특정한 사진을 원본 재료로 두고, 이용자들의 창의력을 더해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 전파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인터넷 밈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밈은 그 시작이 잘방으로 표현되는 사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미지 중심으로 그 문화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점점 특정 단어나 표현 등이 더해져¹⁴⁾ 일종의 ‘인터넷 유행어’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터넷 밈은 순수하게 재미를 위해 생겨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 쟁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터넷 밈과 함께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한 신어도 함께 생겨났다.¹⁵⁾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인터넷 밈은 여러 매체를 거쳐 이후 음악, 영상을 포함한 방대한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인터넷 밈의 주요한 특징은 앞서 밝혔듯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문화와 특정 문화를 다양하게 변용하는 창의성이다. 기존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창의적인 생산물을 만들어 냈지만, 커뮤니티가 여러 홈페이지로 나누어져 있고 커뮤니티마다 관심사와 성격이 상이하여 커뮤니티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초창기 인터넷 밈은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는 비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인터넷 공간을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13) 지금도 잘방이라는 용어를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잘방’ 자체가 게시글에 포함된 사진이라는 점에서, 이를 줄여 말하는 ‘잘’이라는 표현 역시 일반적인 사진의 의미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혐오스러운 사진을 ‘혐잘’, 움직이는 사진을 ‘움잘’과 같이 표현한다.

14) 인터넷에서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말투나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맞춤법 파괴라는 주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외계어, 2000년대 초 인터넷 밈과 어울려 사용되었던 하오체, 삼체 등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한글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용하는 야민정음 등이 있다.

15) 이는 국립국어원의 신어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밈이 많이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인 2000년대 초중반의 신어 자료집을 보면, ‘하이루(2003)’, ‘개새(2004)’, ‘개똥녀(2005)’, ‘떡밥글(2005)’ 등의 신어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의 등장은 인터넷 밈의 영향력 확대 더불어 생산성, 다양성을 높여 밈을 성공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였다. 유튜브가 인터넷 밈을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주제의 다양화이다. 기존의 커뮤니티는 자신의 관심사를 다루는 커뮤니티에만 주로 접속하여 관심 분야 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 다. 반면 유튜브는 하나의 화면에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주제의 영상이 노출되어 지금 어떠한 영상이 화제이고 어떠한 영상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유튜브는 전 세계의 영상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어 국내의 화제뿐만 아니라 국외의 화제까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영상은 포털 사이트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단순한 취미나 흥밋거리부터, 전문적인 지식 까지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주제의 영상이 올라온다는 것은 모방 대상이 되는 문화가 더욱 풍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튜브의 특성상 주로 영상과 음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기존의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의 인터넷 밈이 영상, 음악 나아가 더욱 다양한 요소와 결합된 인터넷 밈으로 확장되었다.

둘째는 이용자들의 증가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도 이용자들이 적지는 않지만, 유튜브의 이용자 수는 이보다 월등히 많다. 유튜브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이용자는 20억 명이 넘으며 일일 시청 시간을 합치면 10억 시간을 넘는다.¹⁶⁾ 이는 유튜브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문화가 방대하게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특히 유튜브는 주로 개인 제작에 의해 영상이 만들어지며, 영상을 사전 제작 후 업로드하기도 하고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텔레비전 매체와는 다르게 영상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고 싶은 영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작자에게 주고, 제작자는 수입과 직결되는 시청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영상을 제작한다. 이렇듯 유튜브상에는 제작자와 시청자가 모두 영상을 기획하고 완성하는 단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참여 과정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유튜브의 등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다양해지고 이용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참여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현재는 TV 시청자보다 더욱 많은 시청자 수와 시청 시간을 보인다.¹⁷⁾ 이렇게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유튜브상에서 퍼져 나가는 인터넷 밈이 기존 비주류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인터넷 밈의 생성은 인터넷의 보급, 커뮤니티 문화의 등장과 더불어 텍스트와 사진을 결합한 밈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유튜브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변용하며 2차, 3차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이용자들의 증가로 참여문화가 형성되

16) <https://www.youtube.com/intl/ko/about/>

17) TV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컸을 때는 TV 프로그램에서 유행한 것들이 유튜브에서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유행한 것들이 TV를 통해 소개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소위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이 TV 프로그램의 주요 출연자로 나오기도 하며, 유튜브에서 인터넷 밈으로서 유행한 한 가수의 노래를 TV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TV 프로그램보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뜻하며, 동시에 주류 문화로 분류되던 TV 프로그램을 넘었다는 점에서 비주류 문화를 벗어났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어 인터넷 밈이 더욱 성공적으로 전파되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 밈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으며, 지금은 주류 문화로 올라오는 단계에 있다.

이처럼 인터넷 밈은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현재 영향력을 키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생산하고, 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에서 몇 가지 예시와 함께 인터넷 밈이 지닌 언어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4. 인터넷 밈과 언어 현상

인터넷 밈은 사진,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단어나 문장, 표현 등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나 음악, 영상을 비롯하여 몸동작, 물건 등 그 외연을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인터넷 밈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다는 인위적인 결과물이란 성격과 동시에 인터넷 밈이 생성되고 전파되는 현상 자체는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모습과 닮아있다. 이에 인터넷 밈을 언어 현상의 하나로 보고, 인터넷 밈의 언어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4.1. 인터넷 밈과 신어의 형성

언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등장하면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말을 창조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어 등으로 불리며, 신어는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언어학 분야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신어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따라 신어의 형성 요인, 방법 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2000년대 이후 신어의 생성에 인터넷 문화가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현상이 신어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신어가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기도 한다. 이에 최근의 신어 연구에 있어 신어 후보를 추출할 때에 인터넷 자료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신어의 형성에 있어 형성 원인이 인터넷 밈이 되기도 하며, 형성 이후 신어가 전파되는 과정에 인터넷 밈이 사용되기도 한다. 인터넷 밈은 경우에 따라 신어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신어를 만들어 내거나 전파하는 수단으로서도 작용한다.

모든 신어가 인터넷 밈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밈은 많은 부분 신어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인터넷 밈이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하여 만들어질지라도, 사람들은 새로 만들어진 인터넷 밈을 지칭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만든다.¹⁸⁾ 신어는 새로운 사물

18) 아프리카 가나의 독특한 장례식 모습을 보인 영상에서 춤 동작과 음악, 장례지도사들의 진지한 표정 등이 인기를 끌며 인터넷 밈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관짝소년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음악이나 영상 자체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매번 음악, 영상을 사용할 수 없기에 이를 지시하는 단어를 만든다. 인터넷 밈이

이나 개념이 등장하면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단어 혹은 구, 문장과 같은 언어 단위인데 인터넷 밈 자체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국립국어원이 조사한 신어 자료집에서도 나타난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9년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빈도 30 이상의 표제어 85개 중 인터넷 밈과 관련된 신어는 48개로 나타난다. 이는 수록된 신어 자체가 인터넷 밈으로 사용되거나, 신어의 생성 배경이 인터넷 밈인 경우, 신어의 표기 방식이나 조어법 등이 인터넷 밈에 나타난 현상을 따르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이다. 수록된 신어에 전문어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일상어인 신어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 밈과 관련된 신어로 분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인터넷 밈은 언어 단위를 포함한 더욱 넓은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언중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신어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언어 현상을 ‘언어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언어와 관련된 현재의 상태’라고 하면, 인터넷 밈이 사회·문화적 현상을 담고 있는 신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언어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4.2. 인터넷 밈의 언어적 특징

인터넷 밈은 그 자체로 언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술하였듯이 인터넷 밈이 “인터넷에서 유행어·행동 따위를 모방하여 만든 사진이나 영상. 또는 그것을 퍼뜨리는 문화 현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터넷 밈은 1차적으로 유행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유행어는 사전적으로 “어떤 시기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일시성’을, 사용 대상에서는 ‘다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¹⁹⁾ 이러한 점에서 유행어와 같이 인터넷 밈 역시 일시적으로 다수에게 사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간적인 성격인 일시성은 유행어뿐만 아니라 신어가 지닌 성격이기도 하며 인터넷 밈은 대부분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사용된다. 최근에는 특히 그 주기가 짧으며, 이러한 이유로 새로 생겨나는 인터넷 밈을 이해하며 유행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 밈은 유행어뿐만 아니라 은어와 같은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은어는 유행어와 다르게 특정 집단 내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로 폐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은어가 집단 밖에서도 사용되는 등 너무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은어로서의 생명을 잃게 된다. 이러한 폐쇄적인 특징으로 인터넷 밈은 특정 문화에서 생겨난 유래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2018년도에 유행한 ‘폰은정’이라는 인터넷 밈이 대표적으로 은어적 특징을 보여준다.²⁰⁾ 폰은정이라는 인터넷 밈은 생성 배경을 모르면 이로부터 파생되는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지시하기 위한 언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인터넷 밈은 신어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신어 자체가 인터넷 밈이 되기도 한다.

19) 양해리(2019), 「한국 청소년의 언어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욕설, 비속어, 은어, 유행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폰은정’은 이름이 ‘폰은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사람이 신기하다며, ‘폰’ 씨가 진짜 존재하는가를 질문한 게시물에서 시작된 인터넷 밈이다. 게시글을 읽은 여러 사람 역시 ‘폰’ 씨는 처음 본다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게시물 작성자는 “한국인이야. 대신 실제로 존재는 안 해. 사실 내가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야. 근데 성이 폰 씨라서 신기해”라는 글을 남긴다. 즉, ‘폰은정’이란 이

다양한 표현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폰은정에서 시작된 인터넷 밈을 사용하는 집단 내에 소속될 수 없다. 이에 ‘폰-’으로 표현되는 인터넷 밈은 은어적 성격을 지녀, 해당 표현만으로는 그 뜻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해당 인터넷 밈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해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인터넷 밈은 사용 범위에 있어 상반되는 유행어와 은어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는 인터넷 밈이 만들어진 배경과 현재의 사용 모습에 이유가 있다. 인터넷 밈은 커뮤니티 문화에서 시작되었으며, 인터넷 밈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처음 사용될 당시 이는 비주류 문화에 속해 있었다. 비주류 문화는 주류 문화로 성장하고자 하지만, 역설적으로 주류 문화로 성장함과 동시에 비주류 문화는 사라진다. 비주류 문화는 소수문화로도 불리며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지고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문화가 양적으로 성장하여 주류 문화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비주류 문화가 지닌 독특한 성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터넷 밈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선 인터넷 밈이 본질적으로 밈 현상의 하나라는 점에서 널리 전파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본다. 이러한 점은 성공적인 유행어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는 성격과 일치한다. 이에 인터넷 밈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되고자 가능하면 강하게 전파되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 밈은 비주류 문화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전파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인터넷 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주류 문화에 속하며, 이러한 문화를 자기들만 즐기고 싶어 한다. 만약 자신들이 만들어 낸 인터넷 밈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밈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내 흥미를 잃고 해당 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터넷 밈이 유행어의 특징과 은어의 특징을 모두 지녔다는 것은 인터넷 밈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인터넷 밈을 사용하는 문화에서는 소위 ‘죽은 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밈을 뜻한다. 그리고 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당 밈이 만들어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밈이 너무 많이 전파되어 더 이상 재미를 잃고 식상해지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유행어와 같이 일시성의 특징을 보이며 대부분 일시적인 인기만 얻을 뿐, 유행의 기간을 길게 지속하기 힘들어 자연스럽게 밈이 사용되지 않는 현상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밈이 자신들만 사용하던 문화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하여 은어와 같이 폐쇄성을 잃어 사용되지 않는 현상이다.²¹⁾

이렇듯 인터넷 밈은 유행어와 은어의 특징을 모두 지닌다. 또한 언중들은 밈 현상 자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참여하며, 이에 자연스럽게 인터넷 밈을 밈의 일반적인 개념으

름은 게시글 작성자가 가상으로 만들어 낸 인물이며, 이후 ‘폰’은 마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이라는 의미의 접두사처럼 파생하여 많은 인터넷 밈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실제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지만 당첨될 것으로 예상하고 좋아하는 상황을 ‘폰로또’, 좋아하는 이성에게 상상 속에서만 고백하는 상황을 ‘폰고백’, 사고 싶은 물건을 실제 사지 못하고 사는 상상만 하는 상황을 ‘폰구매’와 같이 표현한다.

21) 이와 같은 이유로 밈 문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밈의 생명력을 ‘신선함’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신선함을 잃은 밈, 즉 식상한 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신선함이 사라지는 것을 싫어하는 특징으로 특정 밈을 지나치게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로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밈은 유행어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 은어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여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사진, 영상이 포함된 유행어’, ‘자신들이 만들고 즐기는 새로운 놀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언중들에게 마치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신들이 생성 과정과 전파 과정에 참여한 유행어 또는 은어와 같은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4.3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인터넷 밈을 언어 현상으로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인터넷 밈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터넷 밈은 다양한 문화를 창조해 낸다. 언어는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담고 있고, 언어의 사용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식 범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언어 현상은 더욱 다양한 문화를 창조함과 동시에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범주를 확대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인터넷 밈은 인터넷이라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은 매체의 특징과 밈이라는 모방과 전파를 통해 진화하고자 하는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 밈 문화 이전과는 다르게,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에 해당하는 새로운 언어 현상도 나타나고, 이와 같은 과정이 점차 언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밈의 생성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며 문화를 창조해 낸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밈의 부정적 영향은 더욱 많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소통의 단절을 지적한다. 기술하였듯이 인터넷 밈은 신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신어와 관련하여서 세대 간 소통의 문제는 항상 주요한 논점으로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통 문제에 있어 인터넷 밈이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은데, 인터넷 밈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이미 인터넷이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터넷 밈의 경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도, 생성되고 전파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모든 인터넷 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세대 내 소통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밈이 현재 비주류 문화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같은 세대 내에서도 인터넷 밈을 사용하는 집단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이 양극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소통과 관련된 언어 사용의 문제가 이전에는 주로 세대 간 소통 문제였다면, 지금은 이전과 다르게 세대 내 소통 문제가 커져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도 언어는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동반하

기도 하였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항상 언어는 새로 만들어지고 사용하기를 반복한다. 신어의 연구가 현재 다양한 논의로 확장되었듯이, 인터넷 밈에 대한 논의도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언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인터넷 밈과 관련한 언어 현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통한 비판적 수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고는 인터넷 밈을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보고, 인터넷 밈의 언어적 특징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밈과 인터넷 밈의 개념, 인터넷 밈이 생성되고 전파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터넷 밈이 언어 현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신어, 유행어, 은어 등 다양한 언어 현상의 특징과 함께 인터넷 밈의 언어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밈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인터넷 밈은 언중들에게 일종의 ‘인터넷에 존재하는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된 유행어’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밈이 일반적으로 큰 범위에서의 언어 현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터넷 밈은 신어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 또는 신어 그 자체라는 점에서 신어가 지닌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밈이라는 본질적인 특징에 의해 유행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밈의 생성이 비주류 문화에서 출발한 데에 있어 은어적인 성격을 지녀, 인터넷 밈은 유행어와 은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어느 시기에나 신어, 유행어, 은어 등의 사용으로 소통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해결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인터넷의 보급을 기점으로 현재 인터넷 밈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언어적인 관점에 볼 때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언어 현상의 연장선이며 동시에 이전과 같이 다양한 문제를 동반할 수 있기에,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인접 분야에서 다루는 밈의 개념을 명확하게 다루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다. 앞서 논의한 대로 밈은 그 자체를 정의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밈과 더불어 밈의 다양한 특징을 밝혀 논의의 타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인터넷 밈의 예시와 함께 논의를 전개하였으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논의가 되었겠지만, 이는 인터넷 밈이 지닌 성격상 어려움이 있었다. 인터넷 밈이 생겨나고 전파되고, 사라지는 시기가 매우 짧아 본고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시로 사용한 인터넷 밈이 그 의미를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밈과 관련된 언어 현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밈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 답론

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후속 연구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참고문헌

1. 저서

- 김한샘, 『2005년 신어』, 국립국어원, 2005
남길임, 『2019년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2019
박용찬, 『2003년 신어』, 국립국어연구원, 2003
박용찬, 『2004년 신어』, 국립국어원, 2004
박장순, 『한류의 흥행 유전자 밈』, 북북서, 2001
Richard Dawkins, 『The Selfish Gene』 (홍영남 역, 『이기적 유전자』, 을유문화사, 2006)
Susan Blackmore, 『meme machine』 (김명남 역, 『밈』, 바다출판사, 2010)

2. 논문

- 김광현, 「문화 유전자와 문화 코드 -미메틱스와 기호학의 접목을 위하여-」, 『기호학연구』 26, 2006, 85-100쪽.
나지영, 「영상 매체를 통한 ‘진짜-가짜 대결’ 밈(meme)의 전승 양상」, 『문화콘텐츠연구』 16, 2019, 91-111쪽.
양해리, 「한국 청소년의 언어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욕설, 비속어, 은어, 유행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9.
정한테로, 「‘신어의 삶’에 관한 탐색- 2020년~2004년 신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83, 2017, 119-152쪽.
조동기, 「사이버공간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밈’의 확산에 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 21, 2016, 215-234쪽.
최순욱·최성인·이재현, 「유튜브에서의 뮤직비디오 팬덤 분석 BTS MV의 시청, 댓글 상호작용, 밈 영상 제작」, 『한국언론학보』 64권 1호, 2020, 7-45쪽.
Wiggins,B.E.·Bowers,G.B., 「Memes as genre: A structurational analysis of the memescape」, 『New Media & Society』 17(11), 2015, 1886-1906쪽.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유튜브 보도자료 (<https://www.youtube.com/intl/ko/about/press/>)
Know your meme (<https://knowyourmeme.com>)

<언어 현상으로서의 인터넷 밈 연구> 토론문

최유숙(중앙대)

이 연구는 인터넷 밈을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보고, 인터넷 밈이 지닌 언어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본 토론자는 이 연구를 접하기 전까지는 인터넷 밈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하였기에, 이 토론을 기회로 인터넷 밈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문에 따르면 인터넷 밈이 하나의 언어 현상일 수 있는 이유로, 시기별로 특정한 유행이 있다는 점과 그 유행에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의 두 조건만 충족된다면 모두 언어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요? 즉 인터넷 밈뿐 아니라 앞서 언급된 건축 양식, 패션, 정치, 철학 등도 유행이 있고, 그것이 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하기만 한다면 이들도 언어학의 대상으로서의 언어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인위적인 결과물이란 성격과 동시에 인터넷 밈이 생성되고 전파되는 현상 자체는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모습과 닮아 있다.(9쪽)”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언어 현상으로 봐야 볼지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밈은 넓은 의미에서 신어의 형성이나 유행어의 사용 등과 같은 특정한 언어 현상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는 ‘인터넷 밈과 신어·유행어와의 유사성’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듯합니다. 즉 인터넷 밈이 “유행어 또는 은어와 같은 하나의 언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인터넷 밈은 유행어 또는 은어와 ~한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 더 명료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신어의 형성에 있어 형성 원인이 인터넷 밈이 되기도 하며, 형성 이후 신어가 전파되는 과정에 인터넷 밈이 사용되기도 한다. 인터넷 밈은 경우에 따라 신어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신어를 만들어 내거나 전파하는 수단으로서도 작용한다.”라고 쓰고 계신 만큼 이들에게 각각에 대해 대표적인 한두 가지 사례를 제시해 주신다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인터넷 밈은 “신어 형성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기도 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지점을 명확히 표현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밈에 대한 저의 이해 부족으로, 오랜 시간 고민의 결과물을 오독하지는 않았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밈의 생성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며 문화를 창조해 낸다는 의의가 있다.”라는 희망적인 문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언의 상적 특성과 시제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연구

김병건(건국대)

< 차례 >

1. 머리말
2. 이전 연구
3. 용언의 상적 특성과 시제 형태소의 결합
4. 맺음말

1. 머리말

‘-었-’과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다.¹⁾ 하지만 몇몇 용언은 ‘-었-’ 결합형이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 (1) 가. *그 아이는 잘생기다.
나. *그 아이는 잘생긴다.
다. 그 아이는 잘생겼다.
르. *그 아이는 잘생기겠다.
- (2) 가. 그 아이는 예쁘다.
나. *그 아이는 예쁘나.
다. 그 아이는 예뻐다.
르. 그 아이는 예쁘겠다.

‘잘생기다’는 (1가)과 같이 쓰일 수 없고, (1다)과 같이 ‘-었-’이 결합된 형태로만 가능하고 현재로 해석된다. 반면, ‘예쁘다’는 (2가)처럼 기본형으로 현재의 사태를 기술하고, (2다)처럼 ‘-었-’이 결합되어 과거의 사태를 기술한다. 이들은 (1나)와 (2나)에서 보듯 ‘-느-’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공유하지만,²⁾ (1르)와 (2르)에서처럼 ‘-겠-’의 결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예쁘다’는 ‘-겠-’의 결합이 가능하지만, ‘잘생기다’는 불가능하다.³⁾

‘잘생기다’처럼 ‘-었-’이 결합되어 현재의 사태를 기술하는 것은 다른 몇몇 용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1) ‘-었-’을 ‘완료’하는 상(aspect) 범주로 볼 것인지, ‘과거’라는 시제(tense)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은 힘든 일이어서 때론, 시상(tense-aspect) 범주라 하여 두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 형태소로 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논박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완결된 일이 라는 완료적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기술하는 상황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과거를 나타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적용해,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다’라고 기술했다.
- 2)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잘생긴/*잘생기느’와 같은 관형사형과 ‘이미’보다 ‘참’과 같은 정도 부사의 수식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들어 ‘잘생기다’를 형용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잘생기다’를 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잘생기다’는 이와 같이 용언의 품사 분류에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제공해주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 3) ‘잘생겼겠다’는 가능하다. 여기서 ‘-겠-’은 추론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3) ㄱ. 잠을 잤다.
 ㄴ. 산 정상에 올랐다.

‘-었-’이 결합하여 과거의 사태를 나타내는 (3ㄱ)과는 다르게 (3ㄴ)는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3) ㄴ´. 지금 산 정상에 올랐다.
 ㄴ´´. 어제 산 정상에 올랐다.

(3ㄴ´)과 같이 지금 현재 산 정상에 있다는 현재의 사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3ㄴ´´)처럼 과거의 사태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찰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한국어 용언의 네 가지 부류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 양상

	-느-	-었-		-겠-
		현재 사태	과거 사태	
잘생기다 예쁘다	*잘생긴다 *예쁜다	잘생겼다 ×	×	*잘생기겠다 예쁘겠다
오르다 자다	오른다 잔다	올랐다 ×	올랐다 잤다	오르겠다 자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용언이 시제 관련 형태소와의 결합에서 <표 1>과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었-’의 결합으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태를 표시하는 ‘잘생기다’류가 가지는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2. 이전 연구

‘잘생겼다’가 현재로 해석되는 언어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시도했다. 특히 ‘-어 있-’에서 문법화하여 과거시제로서의 기능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었-’의 통시적 발전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다.

송철의(1995), 고영근(2007)에서는 ‘-었-’이 동사를 상태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송창선(2001)은 ‘잘생겼다, 못났다’ 등은 ‘-었-’으로 인해 정확하게는 ‘-어 있-’의 ‘있-’이 형용사로 기능하기 때문에 ‘잘생겼다, 못났다’ 등이 형용사인 것처럼 쓰이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잘생기다, 못나다’ 등은 ‘-었-’ 없이도 ‘*잘생긴다, *못난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용사적 성격을 가진다. ‘-었-’이 형용사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다.⁴⁾ 그리고 ‘상태화’ 즉,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과 ‘-었-’ 결합형이 현재 사태를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예쁘다’와 같은 형용사는 ‘-었-’ 결합형이 과거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뻐다.’는 ‘그녀는 잘생겼다.’와는 다르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단절’의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태를 나타낼 수 없다.

김선영(2013)에서는 ‘잘생기다’류(안되다/덜되다/막되다/못되다/잘못되다, 못나다/잘나다, 잘생기다/못생기다, 그르다, 틀리다, 썩다(←썩이다), ……)에 결합하는 ‘-었-’은 ‘늬었다’의 과거 시제 ‘-었-’과는 공시적으

4) 각주 (2) 참조.

로는 기능상 관련성을 맺지 않는 결과 상태 표시의 ‘-었-’으로, 근대국어 말기까지 ‘-었/어서-’가 [+상태성] 일 때는 과거, [+상태성]일 때는 현재 상태를 나타냈다는 최동주(1995)의 연구 결과를 빌려, 통시적인 흔적이라고 했고, 문숙영(2009)에서도 ‘-었-’의 문법화 경로상의 한 지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송창선(2001, 2003)은 ‘-었-’은 완료의 지속을 나타내던 ‘-어 잇-’에서 문법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다. 이영경(2007)에서는 ‘-어 잇-’의 의미와 용법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는 ‘-었-’이 동사에 통합되어 어떤 동작이 완료되고 그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특별한 용법을 성립시킨 것으로 보았다. 중세국어의 ‘-어 잇-’ 관련 문법 현상이 그 흔적을 남긴 것으로 본 것이다. 박형우(2014)에서도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던 ‘-어 잇-’이 상태성과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었-’으로 문법화한 것이고,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었-’이 가진 상태성이란 의미기능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과거시제 또는 완료로서의 ‘-었-’ 외에 몇몇 용언에만 나타나는 ‘-어 잇-’의 흔적으로서의 ‘-었-’ 또는 상태성의 ‘-었-’을 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설정이 타당하다면 그 출현 환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왜 몇몇의 용언에만 이런 기능의 ‘-었-’이 한정되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연구는 없다.

(4) 철수는 양복을 입었다.

‘입었다’는 (3ㄴ) ‘올랐다’처럼 현재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현재로도 그리고 ‘입-’는 행위가 과거에 완료되었다는 의미로서 과거로도 가능하다. ‘-었-’에서 이 언어 현상의 해답을 찾는 것은 “이 ‘-었-’은 과거시제 또는 완료로서의 ‘-었-’인가, 아니면 상태화(또는 상태성) 또는 결과 상태 표시의 ‘-었-’인가”,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등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던져준다. 그리고 최소한 ‘-어 잇-’의 기능을 이어 받은 ‘-었-’은 ‘-어 잇-’으로 환언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5)에서 보듯 그렇지 않다.

(5) ㄱ. 철수는 잘생겼다.

ㄴ. *철수는 잘생겨 있다.

이 언어 현상을 결합하는 용언과 ‘-었-’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본 연구들도 있다. 김선영(2013)에서는 결과 상태 표시의 ‘-었-’과 함께, ‘잘생기다’류의 어기(語基)가 되는 ‘생기다, 되다’ 등은 완성 상황(전체 시 구간과 하위 시 구간들이 이질적인 상황으로 상황 변화가 함축된다.)과 상태 상황(전체 시 구간과 하위 시 구간들이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다.)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 완성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탓에 상태 상황에서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은 자리 잡지 못했고 이러한 활용 양상이 ‘잘생기다, 안되다’ 등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박형우(2014)에서는, 상태성 관련 의미의 ‘-었-’과 더불어, ‘잘생기다’류의 후부 요소인 ‘생기다, 나다, 되다, 빠지다’ 등이 가진 상태성 관련 의미와 기원적으로 동사인 특성 때문에 ‘잘생기다’류가 특수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이 연구들은 결합하는 용언의 특수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선영(2013)에서처럼 완성 상황과 상태 상황 모두를 나타낼 수 있는 용언이기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동사와 형용사 양쪽 모두로 쓰이는 ‘그르다, 눅다, 눅다, 붉다, 크다’ 등은 상태 상황, 즉 형용사로 쓰일 때 ‘-었-’과의 결합에서 현재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아래 예에서 보듯 그렇지 않다.

(6) 철수가 키가 컸다.

(6)이 현재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달라진 철수가 있고 동사로서 “「1」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⁵⁾라는 의미일 때에만 가능하다. 형용사로서 “「1」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면, 어제 만난 철수의 키에 대해 이야기할 때라는 상황에서 가능하며 이는 과거가 된다.

그리고 박형우(2014)에서처럼 이 언어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을 ‘상태성 관련 의미를 가진 동사’로만 보면, ‘기울다, 깨닫다, 남다, 늙다’ 등 ‘생기다, 나다, 되다, 빠지다’가 구성요소로 없는 용언들의 ‘-었-’ 결합성이 현재로 해석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오르다, 입다’와 같이 의미적으로 상태성을 가지지 않는 용언들도 또한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송창선(2001, 2003), 이영경(2007), 최성호(2020)에서 한 ‘잘생겼다’가 현재로 해석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결과가 또는 변화가 일정 시점에서 완료되고 그 결과가 현재에까지 지속되는 것이라는 설명과 Vendler(1967)의 상태(state), 달성(achievement), 완수(accomplishment), 행위(activity)라는 네 가지 어휘상 유형에 따른 ‘-었-’의 결합 의미를 통해 ‘-었-’이 표현하는 의미가 어떠한가를 밝힌 김천학(2017)에 주목하여, ‘-었-’의 결합으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태를 표시하는 ‘잘생기다’류가 가지는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3. 용언의 상적 특성과 시제 형태소의 결합

용언은 각각 내적으로 사태의 전개 모습에 대한 상적(aspectual) 의미를 가진다. 예로부터 동사는 동작 또는 사건의 전개를 표현하고 형용사는 상태를 표현한다고 본 것이 상적 의미 중 하나이다. 이 상적 의미는 이전 연구들에서 [±상태성], [±순간성], [±지속성], [±종결성], [±과정성], [±반복성] 등이 제시되었고,⁶⁾ 이 의미들은 용언의 갈래(aktionsart)를 나누는 데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잘생기다’류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이들 중 [±상태성], [±종결성], [±지속성]에 주목한다.

용언은 크게 [±상태성]으로 나눌 수 있다. [+상태성]은 지속적 상태 또는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는 과정으로 관찰되지 못한다. 반면 [-상태성]은 행위나 변화 등과 같이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는 과정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의 ‘-고₁ 있-’과의 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7ㄱ)과 (7ㄴ)은 ‘-고₁ 있-’의 결합이 가능한 반면 (7ㄷ)은 불가능하다. 즉 ‘먹다’와 ‘늙다’는 [-상태성], ‘예쁘다’는 [+상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7) ㄱ. 먹고 있다.
- ㄴ. 늙고 있다.
- ㄷ. *예쁘고 있다.

[-상태성]을 가지는 용언 중 몇몇은 사태에 대한 진행 과정의 시작점과 끝점을 모두 의미적으로 함의하지만([+종결성]), 몇몇은 표현하는 행위의 시작만 있을 뿐 끝점이 없다([-종결성]). [+상태성] 용언은 지속적 상태 또는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점 모두를 상정할 수 없다.

- (8) ㄱ. 먹기 시작하다.
- ㄴ. 먹기(가) 끝나다.
- (9) ㄱ. 늙기 시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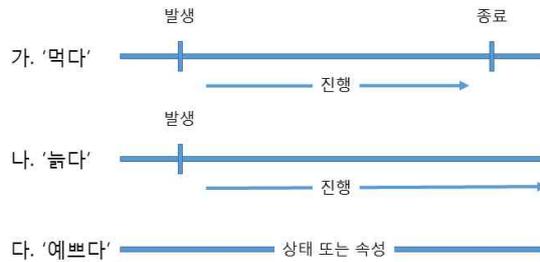
5) 이하, 모든 낱말의 뜻풀이, 품사 분류, 어휘번호 등은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한다.

6) 본 연구에서는 상적 의미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는다. 상적 의미에 대한 이전 연구는 정규석(2005)에 잘 정리되어 있다.

- ㄴ. *늡기(가) 끝나다.
- (10) ㄱ. *예쁘기 시작하다.
- ㄴ. *예쁘기(가) 끝나다.

‘떡다’는 시작을 나타내는 ‘-기 시작하다’와 끝을 나타내는 ‘-기(가) 끝나다’ 모두 가능하지만, ‘늡다’는 ‘-기 시작하다’만 가능하다. ‘예쁘다’는 둘 다 불가능하다. ‘떡다’는 먹기 시작하는 순간과 먹는 과정, 먹기가 끝나는 순간을 모두 가지지만 ‘늡다’는 그 사태의 시작점과 과정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끝점을 상정할 수는 없으며, ‘예쁘다’는 과정과 시작점, 끝점 모두 상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상태성]과 [±중결성]으로 구분한 용언의 부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6> 용언의 부류 I

이들은 또, 표현하는 사태의 결과가 지속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지속성])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떡다’와 ‘입다’(<그림1>의 ‘가’)는 모두 내적으로 그 시작점과 끝점을 함의하지만, ‘입다’는 사태의 종료 후 그 사태의 결과가 지속되는([+지속성]) 데 반해서 ‘떡다’는 끝점에서 종료된다([-지속성]). ‘늡다’, ‘알다’, ‘죽다’ 등(<그림1>의 ‘나’) 시작점만을 함의하는 용언은 시작점인 사태의 발생과 동시에 표현하는 사태가 지속되며, ‘예쁘다’, ‘작다’ 등(<그림1>의 ‘다’)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는 지속성을 가진다. “그 아이는 예쁘다.”에서 ‘예쁘다’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끝나는지 상정할 수 없는 ‘그 아이’의 속성이지만, ‘알다’는 알게 되는 순간, 즉 ‘알다’의 시작점 이후로 아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 (11) ㄱ. 입고 있다.
- ㄴ. 먹고 있다.
- ㄷ. 늡고 있다.

(11ㄱ) ‘입다’는 ‘-고₁ 있-’ 외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의 ‘-고₂ 있-’의 뜻도 가능하지만, (11ㄴ) ‘떡다’는 ‘-고₂ 있-’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입다’는 입는 행위의 과정(옷을 착용하고 있는 중임)과 입는 행위가 종결된 후에 입는 행위의 결과가 지속됨(옷을 착용한 상태) 둘 다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떡다’는 먹는 행위의 과정으로만 가능하고 먹는 행위가 종결된 후에는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다. (11ㄷ) ‘늡다’도 ‘입다’와 같이 행위의 과정과 행위의 결과 지속 상태 둘 다로 해석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와 <표 1>을 비교해 보면, [A형]은 ‘자다’류, [B형]과 [C형]은 ‘오르다’류, [D형]은 ‘예쁘다’류라고 할 수 있다.

<표 2> 용언의 부류 II

±상태성	±종결성		±지속성	예	구분
-상태성	+종결성	+출발점 +끝점	-지속성	입다, 쓰다, 신다, 오르다, ... 먹다, 굽다(炙), 때 리다, ...	[A형]
			+지속성	입다, 쓰다, 신다, 오르다, ...	[B형]
+상태성	-종결성	+출발점 -끝점	+지속성	죽다, 늙다, 알다, ...	[C형]
		-출발점 -끝점		예쁘다, 작다, ...	[D형]

상적 특성에 따라 분류된 <표 2>의 용언은 각각의 상적 특성에 따라 ‘-느-’, ‘-었-’ 등 일명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에서 차이를 보인다.

- (12) ㄱ. 영화가 밥을 먹는다.
 ㄴ. 영화가 밥을 먹었다.
 (13) ㄱ. 영화가 바지를 입는다.
 ㄴ. 영화가 바지를 입었다.

[A형]인 ‘먹다’는 사태의 과정에 대해 기술하거나, 종료된 사태를 기술할 수 있다. 전자는 ‘-느-’으로, 후자는 ‘-었-’으로 표시되어 각각 현재와 과거의 일로써 해석된다. 반면 [A형]이자 [B형]인 ‘입다’는 ‘먹다’와 같이 사태의 과정에 대해 기술하거나, 종료된 사태를 기술할 수 있지만, ‘먹다’와는 다르게 ‘-었-’과의 결합에서 중의적이다. (13ㄴ)은 과거의 일로도, 현재의 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영화가 바지를 입는 행위를 과거의 어느 때에 완료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영화가 지금 현재 (치마 등이 아닌) 바지 차림으로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입다’가 이렇게 ‘-었-’의 결합에서 중의성을 가지는 이유는 [+지속성]과 관련 있는 듯하다. 송창선(2001, 2003), 이영경(2007), 최성호(2020)에서 설명했듯, 이들이 현재로 해석되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결과가 또는 변화가 일정 시점에서 완료되고 그 결과가 현재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4) ㄱ. 영화가 늙는다.
 ㄴ. 영화가 늙었다.
 (15) ㄱ. *영화가 예쁘다.
 ㄴ. 영화가 예뻤다.

[C형]인 ‘늙다’와 [D형]인 ‘예쁘다’는 둘 다 표현하는 사태의 지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14ㄱ)과 (15ㄱ)의 대조로 알 수 있듯, ‘예쁘다’는 ‘-느-’과 결합하지 못한다. 이러한 통합 제약은 ‘늙다’와는 달리 ‘예쁘다’가 [+상태성]으로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진 과정으로 관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⁷⁾ 또, (14ㄴ)의 ‘늙었다’는 현재로도 해석 가능한 데 반해 (15ㄴ)의 ‘예뻤다’는 과거로만 해석된다는 차이도 가진다. 이는 ‘-었-’과의 결합형을 현재의 상태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단지 [+지속성]만이 아닌 [±상태성]과도 관련 있다는 점을 시사

7) 한동완(1985)에서는 동사는 구체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전개되고, 형용사는 구체적 시공 속에서 시간적 길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느-’는 시간적 과정, 즉 ‘起部→結部’의 내부 시간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형용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다.

(16) 굵다⁴, 그르다, 길다¹, 눅다, 늦다, 멀다¹, 붉다, 크다, ...

(17) 굵다³, 그르다, 길다², 눅다, 늦다, 멀다², 붉다, 크다, ...

(16)은 [-상태성]인 [C형]이고, (17)은 [+상태성]인 [D형]이다. (16)의 ‘-었-’ 결합형은 모두 현재의 상태로 해석되지만, (17)은 모두 과거로만 해석된다. 몇 개를 비교해 보자.

(18) ㄱ. 길다¹: **동사** “머리카락, 수염 따위가 자라다.”

(예) *어제 머리가 길었다. / 너, 머리가 {*긴다/길었다}.

ㄴ. 길다²: **형용사** “잇닿아 있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

(예) 어제 만난 그 사람은 머리가 길었다.

/ 너 머리가 {길다/*길었다}.

(19) ㄱ. 늦다: **동사** “정해진 때보다 지나다.”

(예) 어제 약속 시간에 늦었다.

/ 지금 약속 시간에 {늦는다/늦었다}.

ㄴ. 늦다: **형용사** “기준이 되는 때보다 뒤져 있다.”

(예) 어제 연주에서 박자가 늦었다.

/ 지금 박자가 {늦다/*늦었다}.

(20) ㄱ. 멀다¹: **동사** “시력이나 청력 따위를 잃다.”

(예) 어제 눈이 멀었다.

/ 그 사람은 지금 눈이 {먼다/멀었다}.

ㄴ. 멀다²: **형용사**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예) 어제 간 버스 정류장은 멀었다.

/ 지금 가는 버스 정류장은 {멀다/*멀었다}.

(18)~(20)에서 보듯, (ㄱ)은 ‘-었-’ 결합형이 현재와 과거 모두로 해석 가능한 데 반해 (ㄴ)은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6) 낱말들의 ‘-었-’ 결합형이 현재로도 해석되는 것은 그들의 의미 특성에 기인한다. (16)의 낱말들은 벌어져야 인지할 수 있는 사태들이다. 즉 인지하는 순간은 언제나 행위의 시작점이 지난 과거의 일이 되고, 표현된 사태는 지속되기 때문에 ‘-었-’과 결합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로도 해석되는 것이다.⁸⁾ 그리고 지금 현재 이뤄지는 출발점 상의 변화·행위 등의 과정을 서술할 때에는 ‘-느-’ 결합형이 가능하다. [-상태성], [+지속성]이 ‘-었-’ 결합형을 현재로 해석하도록 하는 요인처럼 보인다.

‘납다, 닳다, 틀리다’ 또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의미상 [+상태성]처럼 보이지만 ‘예쁘다’와 같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는 지속적 상태성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들은 동사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뜻풀이를 살펴보면 ‘-게 되다’, ‘-어지다’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태가 변화한 것임을 나타낸다. 즉,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는 [-상태성] 용언이다. 그리고 [-종결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C형] 용언이다.

(21) 납다

ㄱ. 「1」 물건 따위가 오래되어 헐고 너절하게 되다.

(예) 옷이 납는다. / 옷이 납겠다. / 옷이 납았다.

8) (17ㄱ)의 ‘길다’가 ‘*어제 머리가 길었다’, ‘*너, 머리가 긴다.’가 안 되는 것은 ‘길다’가 ‘어제’ 그리고 ‘지금’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 ㄴ. 「2」 생각이나 제도, 문물 따위가 시대에 뒤떨어지다.
 (예) *제도가 낡는다. / 제도가 {*낡겠다/낡았겠다}. / 제도가 낡았다.

(22) 닮다

- ㄱ. 「1」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다.
 (예) *철수는 아버지와 닮는다. / 철수는 아버지와 {*닮겠다/닮았겠다}. / 철수는 아버지와 닮았다.
 ㄴ. 「2」 어떠한 것을 본떠 그와 같아지다.
 (예) 민수가 철수를 닮는다. / 민수가 철수를 닮겠다. / 민수가 철수를 닮았다.

(23) 틀리다¹

- ㄱ. 「1」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예) 계산을 틀린다. / 계산을 틀리겠다. / 계산이 틀렸다.
 ㄴ. 「2」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예)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다. /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리겠다/틀렸겠다}. / 이 일을 마치기는 틀렸다.
 ㄷ. 「3」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게 못하고 비뚤어지다.
 (예) *그 인간은 틀린다. / 그 인간은 {*틀리겠다/틀렸겠다}. / 그 인간은 틀렸다.

(21ㄱ), (22ㄴ), (23ㄱ)은 앞에서 살펴본 [C형]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21ㄴ), (22ㄱ), (23ㄴ), (23ㄷ)은 [C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D형]과는 달리 ‘*틀리다’와 같이 기본형으로 쓰일 수 없고, [C형]과 달리 ‘*틀린다’와 같이 ‘-느-’ 결합형으로도 쓰이지 못하며, 현재와 과거 둘 다로 해석 가능한 [C형]과 달리 ‘-었-’ 결합형이 현재만을 나타낸다. 그리고 [C형]과 [D형]과는 달리 ‘*틀리겠다/틀렸겠다’처럼 ‘-겠-’과의 결합에서는 반드시 ‘-었-’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용언을 [E형]이라고 하자.

[E형]인 (21ㄴ), (22ㄱ), (23ㄴ), (23ㄷ)은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사태의 끝이 없으며 사태의 결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상태성]과 [-종결성], [+지속성]이라는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D형]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E형]은 [C형]처럼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지 못해 ‘-느-’와 결합하지 못하는 [+상태성]의 특징을 가진다. ‘-고₁ 있-’과 ‘-고₂ 있-’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24)는 둘 중 어느 것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하다.

(24) *그 인간은 틀리고 있다.

하지만 (21ㄴ), (22ㄱ), (23ㄴ), (23ㄷ)의 ‘-게 되다’, ‘-어지다’라는 뜻풀이에서 보듯, [D형]과는 달리 [+출발점]을 가진다. ‘변화’를 함의하는 것이다. 변화는 보통 동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E형]에서 표현하는 변화는 그 변화의 과정에 인간의 행위 등이 개입하지 못하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로서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서 출발점만 있고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는 과정으로 관찰할 수 없는 변화인 것이다. 그래서 [+상태성]의 특징도 아울러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박형우(2014)의 ‘상태성 관련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기술은 이런 특징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다.

(25) 잘나다

- ㄱ. 「1」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쁘게 생기다.
 (예) 얼굴이 *잘난다 / *잘나겠다 / 잘났겠다 / 잘났다.
 ㄴ. 「2」 능력이 남보다 앞서다.
 (예) 철수가 참 *잘난다 / *잘나겠다 / 잘났겠다 / 잘났다.

(25) ‘잘나다’는 ‘잘’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발생하는 사태이고([+출발점]), 얼굴이나 능력이 잘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상태성]). 어떤 이가 ‘잘나게 굴-’어도 실제로 잘난 상태를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형]은 [D형]과 달리 ‘-었-’ 결합형이 현재로 해석되고, [B형]·[C형]과는 달리 현재로만 해석된다.

[E형]은 결과 사태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B형]·[C형]·[D형]과 같이 [+지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D형]과 달리, [C형]인 (19ㄱ) ‘눅다’, (20ㄱ) ‘떨다’처럼, [+출발점]이기 때문에 인지하는 순간 그 사태는 언제나 과거의 일이 된다. 그래서 ‘-었-’ 결합형이 현재의 상태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었-’ 결합형을 현재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상태성], [+지속성]이라고 본 앞의 입장은, [E형]은 [+상태성]이기 때문에, [+출발점], [+지속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E형] ‘-었-’ 결합형이 [B형]·[C형]과는 달리 현재로만 해석되는 것은 [+출발점]을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는 과정으로 관찰할 수 있느냐 없느냐([±상태성])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겠-’과의 결합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6) 기울다

- ㄱ. 액자를 거는 걸 보니 액자가 한쪽으로 기울겠다.
- ㄴ. 이야기를 들어보니 액자가 한쪽으로 기울었겠다.

(27) 길다²

- ㄱ. 이야기를 들어보니 철수는 머리가 길겠다.
- ㄴ. 집에서 거의 안 나오던 그때에는 머리가 길었겠다.

(28) 잘나다

- ㄱ. *그렇게 꾸미다가는 잘나겠다.
- 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은 잘났겠다.

[C형]인 (26) ‘기울다’, [D형]인 (27) ‘길다²’는 미래에 벌어질 것이라 여겨지는 추론(‘-겠-’)과 벌어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추론(‘-었-’) 모두 가능하지만 [E형]인 (28) ‘잘나다’는 (28ㄱ)과 같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추론을 표현할 수 없고, (28ㄴ)처럼 오직 해당 사태가 벌어져 인지한 이후인 과거의 사태로만 표현될 수 있다. ‘기울다’와의 차이는 [+출발점]을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는 과정으로 관찰할 수 있느냐 없느냐([±상태성])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발생을 과정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울다’는 그 사태의 출발점을 과거나 현재, 미래에 자유롭게 놓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잘나다’는 출발점(=동사적 특성/기본형 안 됨) 이후의 과거 사실이자 상태(=형용사적 특성/‘-느-’ 안 됨)로만 인지하기 때문에 벌어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추론만이 가능한 것이다. ‘예쁘다’는 시간이 상정되지 않는 상태성이기 때문에 [+출발점]인 ‘잘나다’와는 다르다. 즉 출발점을 지나야 인지되는 사태인 ‘잘나다’와는 달리 ‘예쁘다’는 과거 시점의 상태와 현재 시점의 상태, 미래 시점의 상태 모두 표현할 수 있다.

‘뒤늦다, 때늦다, 덜되다, 못되다, 세련되다, 안되다, 오래되다’와 같은 다른 [E형] 용언들도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⁹⁾

(29) 철수가 {*못되다/*못된다/*못되겠다/못됐겠다/못됐다}.

“「1」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라는 의미의 ‘못되다’를 대표로 보면, ‘*못된다’로 [+

9) ‘뒤늦다, 때늦다, 덜되다, 못되다, 세련되다, 안되다, 오래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형용사로 분류되어 있다.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늡다, 닳다, 틀리다, 잘생기다’ 등은 동사로 분류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품사 분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상태성)이지만, ‘못’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발생하는 사태이고([+출발점]), [+지속성]의 상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29)와 같은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상 특징의 요인이 된다. ‘잘생기다’가 (1)과 같은 결합상 특징을 보여주는 이유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정리하면, 용언의 ‘-었-’ 결합형이 현재로 해석되는 요인은 [+출발점]과 [+지속성]이며, ‘-느-’과의 결합은 [+상태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출발점]은 [+상태성]과 함께 과거로만 해석 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자 ‘-겠-’이 아닌 ‘-었겠-’의 결합만을 허용하는 바탕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 2>를 수정하면 <표 3>과 같다. 음영 표시된 부분이 ‘-었-’ 결합형이 현재로 해석되는 용언의 부류이다.

<표 3> 용언의 부류 III

±상태성	±종결성		±지속성	예	구분	‘-었-’ 결합 의미
-상태성	+종결성	+출발점 +끝점	-지속성	입다, 쓰다, 신다, 오르다, ... 먹다, 굶다(飢), 때리다, ...	[A형]	과거
			+지속성	입다, 쓰다, 신다, 오르다, ...	[B형]	과거/ 현재
	-종결성	+출발점 -끝점	+지속성	죽다, 늙다, ... 알다, 낡다, 닳다, 틀리다! ...	[C형]	과거/ 현재
		-출발점 -끝점	+지속성	예쁘다, 작다, ...	[D형]	과거
+상태성	-종결성	+출발점 -끝점	+지속성	낡다, 닳다, 틀리다! ... 잘나다, 못나다, 잘생기다, ...	[E형]	현재

4. 맺음말

한국어 용언은 ‘-느-’, ‘-었-’, ‘-겠-’ 등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과 그 해석에서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었-’과의 결합에서 몇몇은 과거로만 해석되는 데 반해서 몇몇은 현재와 과거 둘 다로 해석 가능하며, 몇몇은 현재로만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잘생기다’류 용언이 ‘-었-’과의 결합에서 현재로만 해석되는 이유와 ‘-느-’, ‘-겠-’ 등 다른 시제 형태소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특이성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용언의 ‘-었-’ 결합형이 현재로 해석되는 이유를 ‘-었-’에서 찾고자 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다르게 각 어휘가 가지는 내적인 상적 의미에서 찾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결과가 현재에까지 지속되는 의미 특성([+지속성])이 ‘-었-’ 결합형을 현재로도 해석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출발점]도 또한 이러한 해석에 영향을 주는 의미 특성이라 보았다. 예를 들어, ‘잘생겼다’가 현재로 해석되는 것은 ‘잘생기다’는 ‘잘’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발생하는 사태이고, 이러한 사태는 벌어져야 인지할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사태를 인지하는 순간은 언제나 과거의 일이 되지만, 발생한 사태의 결과는 현재에 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잘생기다’는 ‘-겠-’과의 결합에서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추론은 불가능하고(*‘잘생기겠다’) 이미 벌어졌을 것이라 여겨지는 일에 대한 추론인 ‘-었겠-’만 가능한데(‘잘생겼겠다’), 이는 [+상태성]과 [+출발점]이 요인이 된 것이다. 출발점(=동사적 특성/기본형 안 됨) 이후의 과거 사실이자, 인간의 의지 등으로 성취될 수 없는 사태로서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지 않는 상태(=형용사적 특성/‘-느-’ 안 됨)이기 때문인 것이다.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잘생긴다’도 불가능하다.

참고문헌

- 고영근(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개정판)』, 집문당.
 김선영(2013), 「‘잘생기다’류 용언에서의 ‘-었-’의 문법적 지위와 기능」, <어문연구> 41(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67-92쪽.
 김천학(2017), 「어휘상 유형에 따른 ‘-었-’의 결합 양상 고찰」, <국어학> 81, 국어학회, 115-144쪽.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박형우(2014), 「‘-었-’ 관련 특수 활용 형용사에 대한 연구」, <문법 교육> 21, 한국문법교육학회, 95-119쪽.
 송창선(2001), 「‘-었-’에 남아 있는 ‘-어 있-’의 특성」, <어문학> 73, 47-65쪽.
 송창선(2003), 「현대국어 ‘-었-’의 기능 연구: ‘-었겠-, -었더-, -었었-’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27, 언어과학회, 191-196쪽.
 송철의(1995), 「‘-었-’과 형태론」,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847-863쪽.
 이영경(2007), 「‘값다’류 용언의 동사적 성격과 ‘-었-’」, <형태론> 9(2), 277-292쪽.
 정규석(2005), 「국어 동사의 상(相)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동주(1995), 「국어 시제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성호(2020), 「‘었’의 의미와 통사」, <한국어 의미학> 67, 121-163쪽.
 한동원(1985), 「현재시제 선어말 {느}의 형태소 정립을 위하여」, <서강어문> 5(1), 서강어문학회, 29-62쪽.

<용언의 상적 특성과 시제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연구> 토론문

조용준(건국대)

본 연구는 용언의 상적 특성과 시제 형태소 의미의 상호작용 현상을 고찰한 것으로서, 특히 ‘잘생기다’ 류 용언이 ‘-었-’과의 결합형인 ‘잘생겼다’ 류 활용형에서 현재로 해석되는 것은 이 용언의 [+지속성], [+출발점]이라는 상적 특성에 의한 결과로 보는 반면, ‘-느-’와의 결합이 제약되는 현상은 이 용언의 [+상태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생기겠다’는 불가능하되 ‘잘생겼겠다’는 가능한 현상 역시 이들 용언의 [+지속성], [+출발점]이라는 상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런 분석은, 필자도 밝혔듯이, 시제형태소의 의미 특성에 기반한 기존의 설명 방식과 달리 이들 용언이 지닌 내적인 상적 의미에서 그 이유를 찾는 독특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늡다’와 같은 용언과 ‘잘생기다’ 류 용언이 공통적으로 [+지속성], [+출발점]의 의미를 지니지만, 전자의 경우 “[+출발점]을 내적 시간구조를 가지는 구성”([-상태성])으로 본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은 것([+상태성])으로 보아, 이들 두 유형의 용언이 시제형태소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를 포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합니다.

1.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제 형태소의 범위는 ‘-느-’, ‘-었-’, ‘-겠-’으로 보입니다. 시제 형태소의 범위에 대해서는 ‘-겠-’을 제외하는 논의도 있고, ‘-겠-’ 뿐만 아니라 ‘-을 것이-’까지 포함하는 논의도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제 형태소의 범위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상적 특성 ‘지속성’에 대해 필자는 본문에서 “표현하는 사태의 결과가 지속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말하기도 하고, ‘예쁘다’, ‘작다’처럼 “시작점과 끝점이 없는” 지속성을 의미한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접적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의미라면 ‘결과성’(정규석 2005 참조)을 의미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상태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쁘다’, ‘작다’와 같은 형용사의 경우 ‘결과’ 상태의 지속이라기보다는 그저 상태의 지속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상태”라고 필자가 정의한 ‘상태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위의 두 의미 특질을 묶을 수 있는 정의나 경험적 증거를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3. 상적 특성 ‘상태성’ 역시 주목할 만한데, ‘잘생기다’ 류 용언 등을 상태성 용언에 포함하고 형용사와의 차이점을 ‘출발점’ 유무에 의해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태성은 본문에서 “지속적 상태 또는 속성”을 나타내고 “내적 시간 구조를 가지는 과정”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쁘다’, ‘작다’ 등의 형용사의 경우 용언 자체로 지속적 상태 또는 특성을 나타내지만 ‘늡다, 닳다, 틀리다’, ‘잘나다, 못나다, 잘생기다’와 같은 용언은 용언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었-’과의 결합형이 그 지속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결과’로서의 지속적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었-’의 기능은 잉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와 문체적 특성 연구 -2010년~2019년 TV 공익광고와 인쇄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고혜원(중앙대)

〈 목 차 〉

1. 서론
2.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
3. 공익광고 언어의 문장 특성
4. 결론

1. 서론

광고는 영화, 드라마, 소설 등과 함께 동시대의 소비 성향과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광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광고와 공공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제작·유통되는 공익광고로 나눌 수 있다. 공익광고는 국민의 의식개혁 및 각종 캠페인을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¹⁾ 상업광고에 비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80년대의 초창기 공익광고는 계도적이고 명령적인 문구를 주로 사용한 데 반해 최근의 광고는 부탁이나 권유, 호소 등의 부드러운 화법을 활용하거나(강연임 2007:3), 다양한 언어유희를 사용하기도 한다. 즉 광고의 홍보성과 언어의 창조성이 결합된 광고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 양식의 변화에 따라 전달 방식은 바뀌었지만, 공익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매가 아닌 설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발화문 간 내용이나 구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즉 광고 언어는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전형성을 갖는 텍스트로서 독특한 장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고영근 1999:264~269). 따라서 매체별로 나타나는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와 특성을 분류하여 그 전형성을 연구하여야 한다.

공익광고는 주로 텔레비전, 유튜브, 라디오, 신문, 잡지, 대중교통 게시판을 통해 전달된다. 이 광고는 영상광고와 인쇄 광고와 라디오 광고로 나누어지는데, 동일한 메시지라도 매체에 따라 전달 방식이나 문구는 다르게 나타난다(김미형 2011:34). 예를 들어 TV 공익광고에 사용되는 문구는 대사, 내레이션, 자막의 형태로 표현되는데, 대사는 구어체이며 자막은 문어체이지만 내레이션은 온전히 구어체 혹은 문어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인쇄 공익광고의 문구는 문어체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어의 문체는 문어체와 구어체로 대별

1) KOBACO에 따르면, 초기의 공익광고는 미국이나 영국의 예에서처럼 전쟁 중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일련의 캠페인 활동이다. 그러나 현대의 공익광고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부조리 해결과 같은 범인류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https://kobaco.co.kr/site/main/content/what_public_ad 참고)

되지만, 순수 대화를 위한 구어체인가 낭독을 위한 문어체인가, 순수 문어체인가 등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문장의 종결 양식에도 차이가 나타나며 광고의 전달 효과에서도 구분이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매체에 따른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와 문체적 특성을 분석하여 메시지 전달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0년~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수주한 TV 공익광고 91편과 인쇄 공익광고 165편을 분석하였다. 주제의 흐름은 광고 전편을 다루었으며, 문체 분석은 동일한 주제를 다룬 광고 25종을 선별하였고, 이 중 출현 빈도가 높은 주제 10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동일한 주제가 매체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을 검토하면 각각의 전달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2.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

공익광고는 매체 특성과 무관하게 정해진 주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는 공익광고의 주제를 크게 5가지 가정·청소년, 경제사회·기타, 공중보건·복지, 사회공동체, 자연환경으로 분류하고, 이 대주제 안에서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제작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 최근 10년간 제작된 공익광고의 주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공익광고 주제 변화 추이(2010~2019)

		가정·청소년		경제사회·기타		공중보건·복지		사회공동체		자연환경		합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
2019	TV	1	8.3	2	16.7	0	0.0	8	66.7	1	8.3	12	100
	인쇄	4	30.8	2	15.4	2	15.4	5	38.5	0	0.0	13	100
2018	TV	0	0.0	1	11.1	0	0.0	8	88.9	0	0.0	9	100
	인쇄	1	7.1	2	14.3	0	0.0	8	57.1	3	21.4	14	100
2017	TV	1	10.0	1	10.0	0	0.0	8	80.0	0	0.0	10	100
	인쇄	0	0.0	0	0.0	0	0.0	16	80.0	4	20.0	20	100
2016	TV	1	11.1	4	44.4	0	0.0	4	44.4	0	0.0	9	100
	인쇄	3	13.6	0	0.0	7	31.8	10	45.5	2	9.1	22	100
2015	TV	3	30.0	2	20.0	0	0.0	4	40.0	1	10.0	10	100
	인쇄	0	0.0	1	6.7	2	13.3	11	73.3	1	6.7	15	100
2014	TV	1	10.0	2	20.0	0	0.0	6	60.0	1	10.0	10	100
	인쇄	4	14.8	5	18.5	0	0.0	12	44.4	6	22.2	27	100
2013	TV	1	25.0	0	0.0	0	0.0	3	75.0	0	0.0	4	100
	인쇄	0	0.0	1	5.6	1	5.6	12	66.7	4	22.2	18	100
2012	TV	2	18.2	3	27.3	0	0.0	5	45.5	1	9.1	11	100

	인쇄	3	18.8	1	6.3	1	6.3	8	50.0	3	18.8	16	100
2011	TV	1	12.5	1	12.5	0	0.0	5	62.5	1	12.5	8	100
	인쇄	0	0.0	0	0.0	0	0.0	0	0.0	7	100.	7	100
2010	TV	1	12.5	2	25.0	0	0.0	4	50.0	1	12.5	8	100
	인쇄	0	0.0	0	0.0	0	0.0	0	0.0	13	100.	13	100
합	TV	12	13.2	18	19.1	0	0.0	55	60.4	6	6.6	91	100
	인쇄	15	9.1	12	7.3	13	7.9	82	49.7	43	26.1	165	100

지난 10년간 제작된 주제별 빈도수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TV 공익광고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사회공동체로 55편(60.4%)이 제작되었고, 다음으로는 경제사회·기타 18편(19.1%), 가정·청소년 12편(13.2%), 자연환경 6편(6.6%)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인쇄 공익광고는 사회공동체로 82편(49.7%), 자연환경 43편(26.1%), 가정·청소년 15편(9.1%), 공중보건·복지 13편(7.9%), 경제사회·기타 12편(7.3%) 순으로 제작되었다. 양 매체 간 사회공동체 관련 광고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는데, 나눔, 이웃, 사회화합, 스마트 기기 바른 사용, 공공 매너, 타인 배려, 안전, 교통안전 등과 같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는 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일 것이다. 각각의 대주제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광고 리스트는 <별첨 1>과 같다.

2.1 가정·청소년

대주제 '가정·청소년'은 TV 공익광고 총 91편 중 12편으로 13.2%, 인쇄 공익광고 총 165편 중 15편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소주제는 '가족·대화, 청소년, 폭력 예방, 학교 앞 유해 환경, 아동 성폭행'에 관련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TV 공익광고에서는 12편 중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이 6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인쇄 매체도 마찬가지로 15편 중 9편이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이며, 폭력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폭력의 심각성을 메시지 수용자에게 깊이 각인시키고 있다.²⁾

다음으로 '가족·대화'에 관련한 내용도 TV 광고에서는 4편, 인쇄 광고에서는 1편을 제작했는데, 가족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질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하거나, 언어 유희를 통해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있다.³⁾ 이외에도 청소년의 언어순화, 폭력을 통한 자살, 형식적인 자기소개서 문제, 학업 성적이 아닌 자녀 자체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2) 2014년 인쇄 공익광고 중 <부전여전(父戰女戰)>이란 작품은 여학생 교복을 입은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포스터에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폭력을 대물림을 은유적으로 묘사하여, 가정에서의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2015년 <학교 폭력이 자라면>이라는 TV 공익광고에서도 영상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2019년 인쇄 공익광고 중 <정말 즐겨찾고 있습니까?>란 작품은 '즐거찾기'란에 부모님 성함이 있더라도 정말 '즐거찾고' 있는가 질문을 하는데, 이는 음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언어유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2.2 경제사회 · 기타

대주제 ‘경제사회 · 기타’는 TV 공익광고 총 91편 중 18편으로 19.1%, 인쇄 공익광고 총 165편 중 12편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소주제는 ‘국가 브랜드, 국가 경제, 국민의식 · 나라사랑, 개인정보 보호, 부정부패, 선거, 독서, 절약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TV 공익광고에서는 18편 중 국민의식 · 나라 사랑에 관한 내용이 6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쇄 매체에서는 12편 중 1편만이 제작되었다. 탈북민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소외계층에 관한 인식개선, 경쟁 위주 사회에 대한 비판, 광복 70주년 기념, 3.1 운동 정신 계승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인식개선에 관한 광고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참신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2019년 인쇄 공익광고 중 <여권 색이 달라도 모두 대한민국의 구성원입니다>의 경우 ‘대한민국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우리 사회의 각지에서 일하는 그들은/편견도 동정도 필요하지 않은/우리 사회의 당당한 노동자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언어적인 참신성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공익광고의 공익성이 강조된 반부정부패에 관련한 광고도 제작되었는데, TV 광고에서는 3편, 인쇄 광고에서는 1편을 제작했는데, 동일한 음운을 사용하거나, 반어적인 기법, 혹은 이미지의 극대화를 통해 광고 언어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1)

드라마 속 남1 : 이번 건만 잘 부탁해/ 그리고 저 이거/ 괜찮아 이 사람아 / 사람 참 손 부끄럽게

시청자들 : 받지마/ 저 사람 왜 저래 / 받으면 안 되는데/ 안되지

드라마 속 남2 : 받겠습니다

시청자들 : 아-

드라마 속 남2 : 마음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NA/자막 :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⁴⁾

흔한 부정청탁 장면인데, 극중 인물2는 청탁을 “받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받지 않겠다’는 것을 ‘받겠다’고 하여 광고의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인 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드라마 시청자를 통해 부정청탁 현장은 익명의 다수가 지켜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인쇄 공익광고인 <목격자>에서도 5만 원권 속 인물이 눈을 뜨고 부정부패의 현장을 지켜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최근의 인쇄 공익광고는 2019년 작품처럼 문자 텍스트는 최소화하고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개인 정보 보호, 선거, 피싱 스미싱 피해 예방, 독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2.3 공중보건 · 복지

4) <https://www.youtube.com/watch?v=CawzfQCfUvk&list=PLoS1UHk6c8K7JhoaNmtNah5IMh65RUuT-&index=2>
(2016, 받겠습니다)

대주제 ‘공중보건·복지’는 TV 공익광고로는 한편도 제작되지 않았고, 인쇄 공익광고는 총 165편 중 13편으로 7.9%를 차지하고 있다. 소주제는 ‘담배·마약, 헌혈, 게임이나 도박 중독, 안전한 성생활, 원산지 속이기’에 관련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공중보건·복지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담배·마약, 헌혈’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약운동퇴치본부나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수주하기 때문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쇄 공익광고 13편 중 도박이나 게임 중독에 관한 내용이 6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5편이 2016년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금연한 관한 내용이 3편 헌혈이 2편이며, 광고의 다수가 문자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 예는 <그림1>과 같다.

<그림1> 인쇄 공익광고 예시(이미지 중심)

2.4 사회공동체

대주제 ‘사회공동체’는 TV 공익광고 총 91편 중 55편으로 60.4.2%, 인쇄 공익광고 총 165편 중 82편으로 49.7%로 5개의 대주제 중 가장 빈도수가 높다. 소주제는 ‘타인배려·

주제	금 연(2016)	금 연(2016)	도박 중독(2016)	게임 중독(2016)	부정부패(2016)
인쇄 광고					

공공매너, 나눔·이웃, 사회화합, 교통안전, 인터넷 예절, 바른 언어 사용, 안전운전, 스마트기기의 바른 사용, 다문화, 반려견, 일자리’ 등등 사회공동체 운

영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광고가 제작되었다.

TV와 인쇄 공익광고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주제는 ‘타인배려·공공매너’로 TV 공익광고는 10편, 인쇄 공익광고는 12편이 제작되었다. 갑질, 정보보호, 출산, 층간소음,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등이 주요한 주제였고, 특히 층간소음과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중 층간소음을 다룬 TV 공익광고를 (2)에서 보도록 하겠다.

(2)

남NA/자막 : 집에서 왜 까치발로 걸어요?

여NA/자막 : 아랫집에 아기 채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까요.

남NA : 사진 거는 걸 왜 미루세요?

자막 : 사진 거는 걸 왜 내일까지 미루세요?

여NA/자막 : 시험 앞둔 수험생이 있으니까요.

남NA : 기타는 왜 안 치세요?

자막 : 오디션이 코앞인데 왜 기타는 안 치세요?

여NA/자막 : 내일 면접인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요.

자막 : 내일 면접인 아랫집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요

남NA : 아래층을 먼저 생각하는 층간 내리사랑

자막 : 층간 내리사랑

남NA: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입니다.⁵⁾

2017년 <층간내리사랑> (2)에는 ‘① 까치밭로 걷기, ② 밤에 사진 안 걸기, ③ 밤에 기타 안 치기’라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층간 예절을 지키세요.’라고 주제를 계도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잔잔한 음악과 남녀의 문답을 통해 메시지를 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1980년대 공익광고 초창기와는 다른 메시지 전달 방식이 잘 나타난다. 다음으로 ‘사회화합’에 관련한 내용도 TV 광고에서는 6편, 인쇄 광고에서는 4편을 제작했는데, 소통과 존중이 사회화합의 근간임을 알리거나, 다문화, 남녀, 세대 갈등의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SNS가 대중화되면서 나타나는 스마트기기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악플이나 언어폭력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5 자연환경

대주제 ‘자연환경’은 TV 공익광고 총 91편 중 6편으로 6.6%, 인쇄 공익광고 총 165편 중 43편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환경 관련 광고는 TV보다는 인쇄 광고에서 훨씬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다. 소주제는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자제, 환경보전, 재활용’에 관련한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TV 공익광고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내용이 3편, 인쇄 공익광고에서는 26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빨대나 일회용품 사용으로 파괴되는 지구, 머그컵 사용, 벌목의 폐해’ 등 다양한 주제가 나타났고, 다음으로 ‘에너지 절약’은 TV 공익광고 3편, 인쇄 공익광고 10편이 제작되었고, ‘자전거 타기, 전기 절약, 코드 뽑기, 벌목하지 않기’ 등 에너지를 절약했을 때, 혹은 낭비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전지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 공익광고 언어의 문장 특성

인쇄 공익광고의 문자 텍스트와 TV 공익광고의 대사, 내레이션, 자막의 언어 형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TV 공익광고의 경우 대사, 내레이션, 자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편의

5) <https://www.youtube.com/watch?v=XFXSBUNz-w4>(층간내리 사랑, 2017년)

광고가 이루어지므로 문어와 구어의 구분 없이 TV 광고의 자료로 다루기로 한다.

3.1 문장의 길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인쇄 광고의 문장 길이와 TV에 방송된 공익광고의 문장 길이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김미형(2011:35)에 따르면 인쇄 공익광고의 문장이 TV 공익광고 자막의 문장 길이보다 길다고 한다. 자막으로 처리되는 문장은 영상이 빨리 지나가므로 지면과 같이 긴 문장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자살 예방을 홍보하는 인쇄 공익광고와 TV 공익광고를 (3)~(4)에서 보도록 하자.

(3)

① 무관심에 아이는 계단을 오릅니다 / 2007년 이후, 10년 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을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무관심이 만든 계단, 2018)

② 목숨을 버린다는 건 / 가족을 버린다는 것 /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건/ 당신을 믿고 따르는 아내와 아들딸의 목숨마저 버리는 것입니다./지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항상 당신을 응원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2013)

(4)

①

자막 : 많이 힘들어+(?)/우울해+(?) /고민 있어요+(?)

NA :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우울해/우울해?/고민있어요/고민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서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⁶⁾

②

NA :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자막 : 해마다 100여 명 자살

NA :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 없습니다.

자막 : 학교 폭력 피해자 70만 명

NA·자막 :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

NA·자막 : 내 아이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NA :관심과 도움만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막 : 학교폭력 이제 그만! / 상담전화 117⁷⁾

(3)~(4)에 사용된 문자 언어를 비교해 보면 (4) ②를 감안하더라도 TV 공익광고에 사용된 텍스트의 양이 적다. TV 공익광고는 자막 외에도 대사와 내레이션과 같은 언어적 메시지와 음향이나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거리, 상황 등과 같은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주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기기의 바른 사용에 관한 공익광고 (5)~(6)을 통해 인쇄 공익광고에서 이미지의 역할에 대해 보도록 한다.

6) <https://www.youtube.com/watch?v=HdNEATE2qlA>(물음표를 붙여 주세요, 2013)

7) <https://www.youtube.com/watch?v=pjxdddQmu4k>(그런 애는 없습니다, 20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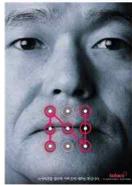
(6)

자막 : 잃어버린 [대화]에 대한 묵념 /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묵념 / 잃어버린 [열정]에 대한 묵념 / 잃어버린 [관심]에 대한 묵념 /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NA :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⁸⁾

(5)~(6)은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한 광고인데, (3)~(4)와 달리 매체 간 문장 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인쇄 광고가 짧은 경우도 있다. 또한 TV 공익광고의 자막과 내레이션 문장을 합치면 인쇄 광고의 카피보다 유의미할 정도로 짧지 않다. 이는 (5)에 제시된 인쇄 광고의 고정된 이미지가 영상광고의 비언어적 메시지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문자 언어로 상황 설명이나 주제 강조 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2 문장의 유형

문장 수가 대부분서문다.영향스토설득그리	제목	중독, 당신도 모르게 잠긴 문(2015)	열수족 잠깁니다(2013)	집속과 집속(2012)
	지문	중독, 당신도 모르게 잠긴 문/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자신도 모르게/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마트폰을 열수록 가족 간의 대화는 잠깁니다.	집속이 많아지면/집속은 줄어듭니다./ 친변의 문자보다, 백번의 통화보다, 한 번의 만남이 서로를 더 가깝게 합니다.
이미지				

의 유형을 통해 발화자의 태도를 알았는데, 오장근(2013:159)에 따르면 본의 공익광고는 매체와 관계없이 평의 비중이 높아 55% 정도를 차지한 각 매체의 특성은 곧 문장의 유형에 을 미치게 되는데 인쇄 광고에서는 긴 리를 담을 수 없기에 함축적인 문구로 력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 영상광고는 인쇄 광고와는 달리 텍스트 외에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수용자를 설득하기가 용이하다. 그중에서도 하나의 컨셉이 담긴 스토리를 통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평서문은 물론이고 수용자의 행동유발 및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청유문과 의문문,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명령문, 그 외에도 감탄문 등 다양한 문장의 유형이 나타난다.

마약 퇴치 광고에 나타난 매체별 문장 유형을 (7)~(8) 살펴보도록 하겠다.⁹⁾

(7)

쾌락은 한 순간입니다./ 마약, 순간의 쾌락이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8) <https://www.youtube.com/watch?v=xAa2GMFqggU>(스마트폰 중독-묵념 2014)

9)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발주한 광고 중에는 중독 관련 광고는 인쇄 공익광고만 있어, 인쇄와 TV 매체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약처'의 광고를 인용하도록 하겠다.

2014)

(8)

고등학생들 : 이거 봐봐, 마약 아니야? / 마동석 : 마! 그거 위험해!
여자 : 이거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지나?/ 마동석 : 마! 살은 운동으로 빼야지, 운동해!
대학생들 : 짜라란~ 아이 괜찮아~ / 마동석 : 마! 그거 한 번으로 끝날 거 같아? 문 좀 열어봐, 빨리!
마동석/자막 : 아저씨가 무서워? 마약은 더 무서워!
마동석/자막 : 빛나는 청춘을 마약으로 물들이지 마세요./마약, 한 번은 없습니다.
마동석 : 그러니까, 마약! 하지 마요~.¹⁰⁾

(7)과 (8)은 마약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로 인쇄 광고에는 두 문장 모두 평서문이 사용되었
다. 쾌락은 한순간이며 마약이 삶의 마지막으로 이끌 수 없음을 평서문으로 표현하여 사실
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고,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함축적인 문구와 이미지로 표현했다.
반면에 영상 공익광고에서는 위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 ‘마동석’ 씨를 광고의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나, 마동석의 무서움보다 마약의 무서움이 크다는 메시지를 3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인쇄 공익광고가 평서문으로 구성된 데 비해 영상광고에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
문 등이 나타났지만, 특히 명령문의 사용빈도가 높다. 공익광고에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명
령문이 다수 사용되면 수용자에게 거부감을 주어 설득력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평서문이나
청유문 등을 사용하는데, 이 광고에서는 배우 마동석의 ‘무서운’ 이미지보다 잘못된 마
약 사용이 더 큰 무서움을 이끈다는 화제가 있었기에 명령문 사용이 가능했다. 이 역시 하
나의 스토리를 영상 속에서 다양한 요소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TV 공익광고의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9)~(10)에서 화재 예방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9)

① 예측 불가/ 화재는 계절, 환경, 상황 그 어떤 순간에도 예기치 않게 일어납니다./우리가 생활하는 모
든 순간순간에 화재에 철저히 대비해야합니다. (예측불가, 2018)

② 그 때는 설마 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한 발 늦습니다./
산불화재, 당신의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화재 예방, 2011)

(10)

남자1: 불 좀 쬐봐. / 자막 : 모든 곳에 도사린 위험!
남자1: 끝까지 눈을 떼지 말라고 했잖아. //남자들/자막 : 어딴어?
남자1: 막아 / 남자2 :비상구까지 다 막았습니다, 형님!
자막 : 출구 없는 재난
남자1: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운전자 :봐 못 비켜! /
남자1 : 비켜! 안 그러면 모든 게 사라져버려!
자막 : 건잡을 수 없는 화재가 찾아온다 / 화재, 365일 대개봉
NA : 화재, 조금 더 살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자막 : 예고편이 없는 화재, / 조금 더 살피면 막을 수 있습니다.¹¹⁾

10) <https://www.youtube.com/watch?v=oNSMWpiNQmc> (마약, 한번은 없습니다, 식약처, 2016)

11) https://www.youtube.com/watch?v=7BO_kUIyapw(영화 예고, 2018)

(9)의 인쇄 광고 ①~②를 보면, 모두 평서문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화재는 예측불가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과 라이터 오작동과 같은 사소한 실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평서문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5)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함축성을 배가하였다. 반면에 TV 공익광고는 앞선 예시와 마찬가지로 화재가 난 상황을 영화 예고라는 컨셉을 활용하여 전개하고 있다.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등 다양한 문장이 나타나고 있다. (10)에서는 광고 수용자를 설득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영화 예고편으로 만들어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결국 화재에는 예고편이 없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평서문에 한정되지 않고 명령문, 감탄문 등을 활용하였다.

인쇄 공익광고는 하나의 정지된 이미지, 함축적 의미를 포함한 간단한 문구와 부연설명 등으로 주제를 표현해야 한다. 반면 TV 공익광고는 언어적 요소 외에도 비언어적 요소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문장의 유형에서도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공익광고의 언어의 주제와 문장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는 크게 ‘가족·청소년, 경제사회·기타, 공중보건·복지, 사회공동체, 자연환경’으로 나누어졌고, 인쇄 공익광고와 TV 공익광고의 문장 구조에서는 광고 속 문장의 길이, 문장의 유형에서 차이를 보였다. 첫째 문장의 길이는 인쇄 광고의 카피와 영상광고의 자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면 광고의 카피의 문장의 길이가 영상광고의 자막보다 대체적으로 길었다. 이는 지면 광고는 표현의 제약을 지니지만 TV 광고는 움직이는 이미지와 청각적 언어 자극을 표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둘째 문장 유형에서는 평서문이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다수 사용되었다. 특히 지면 광고는 광고 카피 외에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평서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TV 공익광고는 상황극이 담겨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감탄문 등 다양한 문장 유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와 문장 구성 간의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데 있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별첨]

〈표〉 매체별 공익광고의 주제 및 내용(2010년~2019년)

대주제	소주제	매체	제 작 편 수	내 용
가정.청소년 (TV-12편) (인쇄-15편)	가족/대화	TV	3	1. 가족 간 대화(아빠, 딸)15/ 2. 한중공동캠페인15/3. 안과 밖이 다른 가족 11
		인쇄	1	부모님 즐겨찾기(19)
	청소년	TV	1	언어순화
		인쇄	5	학교폭력(2), 자소서(1), 폭력
	폭력예방	TV	7	가정폭력(2/4,6), 학교폭력(3/5,7,9)
		인쇄	6	가정폭력(3), 학교폭력(3)
	국가경제	TV	1	국민희망(13)
		인쇄	0	
	기타	TV	0	
		인쇄	3	학교 앞 유해환경 차단(19)/아동성폭행(2)
경제사회. 기타 (TV-18편) (인쇄-12편)	국가 브랜드	TV	2	여기는 제주(11), 예의지국(10)
		인쇄		
	국가경제	TV	2	경제 활성화(도전)2015/따뜻한 희망(10)
		인쇄	0	
	국민의식/ 나라사랑	TV	6	1. 나라사랑(군인, 선거,저금)14 2.3.1운동(19) 3. 이세돌(16) 4. 탈북민(16) 5. 문화생활(16) 6. 애국하는시간(12)
		인쇄	1	외국인 노동자(19)
	기타 (개인정보)	TV	2	1. 개인정보(소중한 인생)14 2. 열려라 참깨(12)
		인쇄	0	
	기타(근로)	TV	0	
		인쇄	1	주 52시간 근로(특 반칙 19)
	기타(독서)	TV	0	
		인쇄	6	독서 시리즈(2014)/독서효과(12)
	기타(발명가)	TV	0	
		인쇄	1	발명가(15)
	기타 (피싱/스미싱)	TV	1	1. 피싱스미싱(누구나)2019
		인쇄	0	
기타 (역사 중요)	TV	0		
	인쇄	1	1. 당신의 시험지(역사)13	
부정부패	TV	3	1. 돌아볼 때(14) 2. 받겠습니다(16) 3. 양심과 욕심(12)	
	인쇄	1	목격자(5만원 18)	
선거	TV	1	민주주의 역할극(16)	
	인쇄	1	당신의 투표소(18)	
절약/소비	TV	1	작은 결핵식(17)	
	인쇄	0		
공중보건. 복지 (TV-0편) (인쇄-13편)	기타(중독)	TV	0	
		인쇄	5	1. 게임(16) 2. 도박(16-4편)
	기타:안전/원 산지속이기	TV	0	
		인쇄	2	성생활 위한 규칙(19)/원산지(13)
	헌혈	TV		
		인쇄	2	헌혈 레드카펫에 오르다(12) /헌혈(19)
	담배/마약	TV	0	
인쇄		3	담배(16-2편), 담배중독(15)	
보건/위생	TV	0		
	인쇄	1	마스크 착용(15)	
교통안전	기타(군대폭 력)	TV	4	1. 운전매너-좋은사람(17) 2. 안전은 안(스마트폰, 안전벨트 18) / 3. 안전운전(13) 4. 술잔들의 질주(10)
		인쇄	16	1. 음주운전(19, 18,14) 3편 2. 어린이(17-2편) 3. 운전매너(17-3편) 4. 보복운전(15, 16/2편), 5. SNS사용(16-2편, 14-1편), 6. 안전벨트(14) 7. 아무개님 퇴장(13) 8. 한장의 술(12)
	기타(군대폭 력)	TV	0	
	인쇄	1	계급은 폭력 무기 아님(14)	

사회공동체 (TV-55편) (인쇄-82편)	기타(다문화)	TV	1	다문화(13)
		인쇄	1	배려의 칸(18)
	기타(몰카)	TV	0	
		인쇄	3	동활, 숨은카메라, 보이나요(17)
	기타(반려동물 유기)	TV	0	
		인쇄	4	유기(14, 18-2편), 입양(16)
	기타(불법다운로드)	TV	1	사라집니다(10)
		인쇄	1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19)
	기타(일자리)	TV	1	나눔이 더함이다(18)
		인쇄	1	비정규직(15) 일회용컵
	기타(쓰레기)	TV	1	중형차 백만대버림(음쓰 11)
		인쇄	1	재떨이에 쓰레기투기(15)
	기타(반려견 목줄)	TV	0	
		인쇄	2	반려견 목줄(19-2편)
	기타(장난전화/자살예방)	TV	2	자살예방(13)/공정한 기획(12)
		인쇄	2	장난전화(112, 119 /16-2편)
	나눔/이웃	TV	12	1. 소외계층-노숙인(19) 2. 타인배려(주차, 층간소음, 악취..14) 3. 나눔(18) 4. 노인:일자리(19-2편), 독거노인(19) 5. 소외가족(한부모, 조선, 다문화 17) 6. 실버 토크(4편 2012) 7. 나는,,(소외된 이웃 11)
		인쇄	1	육아부담/휴직(19)-육아출산
	사회화합	TV	6	1. 소통(17 송승헌) 2. 균형발전(김갑수15) 3. 잘 듣기(19-2편) 4. 올림픽(17), 5. 존중(17)
		인쇄	4	1. 성차별(17:간호사) 2. 다문화,남녀,세대갈등(16) 3. 갑질(15-2편/갑질, 상하)
	스마트기기 바른사용	TV	3	1. 모바일제로타임(15) 2. 묵념-대화필요(14) 3. 악역배우(길거리, 대중교통 등17)
		인쇄	9	1. 중독(15-2편/잠긴문, 개구리), 14 2. 조금 사용(굴비 15) 3. 열수록 잠김(가족대화) 13, 4. 찾지말고 찾아봐(2편)13 5. 고개들어요(12) 6. 접속과 접속2편(12)
	안전	TV	3	1. 안전과 방심(14) 2. 어느 안전(19) 3. 화재(18)
		인쇄	3	1. 화재(18) 2. 오토바이, 콘돔(16) 3. 공사장(14)
	언어생활	TV	2	1. 악플 가짜뉴스(19) 2. 올바른 한글(16)
		인쇄	4	1. 악플(14, 18) 2. 혐오어(17) 3. 언어파괴(17)
	인터넷 예절	TV	3	악플 :너의 목소리(14), 능력자-(17), 선플릴레이(11)
		인쇄	9	1. 악플(18, 16, 14(악), 한줄(14-3편) 2. 사이버 왕따(15-2편) 3. 악플대신 랍플(13)
	타인배려/공공매너	TV	10	1. 감정노동(갑질 놀부전15), 갑질(18) 2. 정보보호(정용인 16) 3. 출산,임신-아기의 마음(16), 육아기(19) 4. 층간소음(17) 5. 공공예절(통화 18) 6. 데이트폭력(19) 7. 예절(흡연, 자리양보, 통화)11 8. 공공장소 매너(10)
		인쇄	12	1. 임신부(18) 2. 층간소음(17, 16, 15) 2. 감정노동/갑질(17-3편) 3. 추가노동(17일하시게) 4. 층간소음4편(13)
	기타(금융습관)	TV	1	들다리(17)
		인쇄	0	
	기타(납세)	TV	1	공동체의식-납세(16)
		인쇄	0	
	기타(유적지 낙서)	TV		
		인쇄	3	유적지 낙서(13)
기타(독서)	TV	1	독서(김영하)18	
	인쇄	0		
기타(입장차이)/대화필요	TV	1	마음속 리모콘(10)	
	인쇄	2	대화가 필요해2편(12)	
기타(피싱스미싱)	TV	1	의심이 안심(15)	
	인쇄	0		
기타(성차별)/편견/외모	TV	2	누군가는 이야기(18)/숨은 인재찾기(성별, 나이, 학력 극복)11	
	인쇄	2	외모지상주의2편(12)	
장애인배려	TV	2	발달 장애2편(19)	
	인쇄	0		

자 연 환 경 (TV - 7 편) (인쇄-16편)	에너지절약	TV	3	위대한 발견(발명과 발견)14 /5천만개의 발전소(13, 12)
		인쇄	10	1. 전기 절약(18 뽑아주세요, 15 전기도 돈) 2. 여백의 미3편(14) 3. 도시의별 헤는밤(13) 4. 전기 한달 무료(13) 5.에너지 돌아오지않음(12) 6.내복약(11) 7. 코드뽑기(10) 8. 뽑는 것이 심는 것(10)
	일회용품자제	TV	2	쿨한 가게(30, 60) 19-2편
		인쇄	4	쓸수록 줄어듭니다(북극곰서식지)16/일회용 아닙니다(12)/일회용 나무(10)/뽑는데1초(10)
	환경보전	TV	3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커피(15)/ 어느새, 우리의(11), 저탄소 녹색 성장(10)
		인쇄	26	1. 빨대(가장 가벼운총)18 2. 바다(쓰레기 18) 3. 삼표 하나3(17, 북극곰, 여우, 고래) 4. 여기가 맞을텐데(17) 5. 종이(공장연기, 벌목 차 14-2편) 6. 머그잔(14) 7. 지구온난화독도(13) 8. 국보1호(12) 9. 10년 6편(명퇴당한 명태, 나는 판다가 아니에요 등) 10. 9편(10)
	재활용	TV	0	
		인쇄	2	Think Green(16)/이면지(12)

<참고문헌>

<자료>

공익광고협의회 TV 공익광고 91편(2010년~2019)

공익광고협의회 인쇄 공익광고 165편(2010년~2019)

<https://kobaco.co.kr>

<단행본>

고영근, 『텍스트 이론』, 아르케, 1999, .264~269쪽.

<논문>

강연임, 「공익광고의 텍스트 구조와 특성-지면광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39, 우리말글학회, 2007, 3쪽.

김미형, 「인쇄 공익광고와 TV 방송 공익광고의 구문 특성 분석」, 『한국어의미학』 34, 2011, 34쪽.

서은아, 「공익광고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 연구」, 『한말연구』 21, 한말연구학회, 2007, 127-142쪽.

오장근, 「공익광고의 언어적 특성과 유형 분석」, 『영상문화』 22, 2013, 한국영상문화학회.

이철우, 『한국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915.

임지룡, 「학교문법 상대 높임법의 새로운 이해」, 『한민족어문학』 69, 2015, 한민족어문학회.

전동균, 『시의 기법을 활용한 광고 표현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전정미, 「광고 텍스트에 나타난 설득화법의 표현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 38, 겨레어문학회, 2007, 1-57쪽.

정윤희, 「TV 공익광고의 메시지 전달 전략 연구 -언어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6권, 우리말학회, 2014, 253-277쪽.

허미선 외, 「공익광고에 나타난 설득 담화의 화용론적 분석」, 『언어학연구』 30, 한국중원언어학회, 2014, 255-278쪽.

<공익광고 언어의 주제와 문체적 특성 연구> 토론문

권정현(한성대)

이 연구는 2010년~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수주한 TV 공익광고 91편과 인쇄 공익광고 165편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공익광고의 매체에 따른 메시지 전달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으로 보입니다.

<표1>의 공익광고 주제 변이를 살펴보면, 사회 공동체 관련 주제가 항상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또한 ‘공중보건·복지’ 주제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비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영상 매체의 경우는, 입체적 기술 효과 덕분에 주로 구어체의 청각적 효과로 언어 표현이 매우 간결하고 상황 설정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이 주로 사용되며, 인쇄 매체의 경우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평서문의 긴 문장이 사용된 점도 특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광고 언어의 문외한으로서 우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읽고 독자로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정리하여 질문 드리하고자 합니다. 오해가 있거나 이해가 부족하여 생겨난 질문이니 잘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65편의 자료는 국내 광고에서 10년 간 축적된 전편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편이 아니라면 165편의 자료를 매체와 주제별로 선정하고 분석한 기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인쇄와 영상 매체를 비교한 의도가 궁금합니다. <표1>을 보면 인쇄 매체의 작품들은 특정 주제에 집중된 비중으로 나타나며 최근 들어서는 그 제작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동일 주제에 대하여 매체의 문체적 특징과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신 의도라면 각 매체만의 언어 표현의 한계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서론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문제와 종결 양식에 따라 문장의 길이와 광고 언어 전달 효과에서도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러한 전달 효과가 설득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광고 언어들의 문체적 특징이 어떠한 전달 효과를 주는지 3장의 예시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이 연구에서는 광고 언어의 문체적 특징을 문장의 길이와 유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제별 논의에서는 은유적 표현과 스토리텔링(상황극 설정) 등의 표현 기법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은유적 표현이나 특히 3장의 TV 광고 예시들을 보면 ‘의미의 전이’

나 반복 표현 전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체적 특징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TV 광고는 상대적으로 문장의 길이가 영상의 화면 속도에 맞추어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사의 경우는 그렇지만 내레이션과 자막의 경우는 인쇄 매체와 유사한 길이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레이션과 자막의 경우와 인쇄 매체의 문구는 어떤 차이가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함축적 표현이 문장의 길이를 짧게 한다면 인쇄 매체의 문장들이 짧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6. 이번 광고 분석을 통해 광고 언어의 전형성을 살펴보았다면 인쇄 매체와 영상매체의 설득 전략은 어떤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적 요소를 제외한 문체적 전형성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분류사 구문에서의 격 교체 현상에 대한 고찰

엄홍준(계명대)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이서’ ‘-서’ 와 ‘-이’를 하나의 형태소의 이형태로 보아 유동분류사 구문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홍용철(2019)에 의하면 유동 분류사 구문에서는 동사구 내에서 주격의 형태를 가진 유동 분류사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그는 주격으로 보아 반드시 이 격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목적격의 형태는 수의적이어서 그것이 유지되는가에 관련 없이 합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동사구 내에 남겨진 분류사의 격이 주격이라면 이것은 인허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이론 내적인 문제이고 둘째, 타동사구 내에서는 주격이 나올 수 없다는 경험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주격의 형태를 지닌 분류사의 조사가 주격조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김민국에서는 ‘-이서’와 ‘-서’를 이형태로 보고 ‘-이’는 주어와 연속체로 나올 때는 주격조사로 대격 영역에서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부사격 조사 또는 보조사 등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창섭에서는 ‘이서’와 ‘이’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있다. 황화상 김인균

2. 유동 분류사에서 보이는 비대칭성에 대한 분석과 그 문제점

이 장에서는 유동 분류사 구문에서의 다음과 같은 비대칭성에 대한 분석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a. 학생이 사과를 두 명*(이) 먹었어.
- b. 사과를 철수가 두 개(를) 먹었어.

(1a)에서 동사구 내에 있는 분류사 두 명에 조사 이가 붙으면 정문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비문이 된다. 반면에 (1b)는 분류사 두 개에 조사가 있어도 정문이고 없어도 정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문장을 주어-목적어 비대칭의 한 예로 취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1a)의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적격의 생략은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주격이 동사구 내에서 출현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문장에 대한 도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홍용철(2019)은 무격 유동 분류사가 부가어로 취급될 때 (1a)의 도출 과정에서 왜 무격 유동 분류사가 적법하지 않은지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 (2) a. 무격 유동 분류사의 부가

- [NP [NP 학생이] [두 명]
- b. Spec,vP에의 주어 삽입
[vP [NP [NP 학생이] [두 명]] 사과를 먹었어
- c. 목적어의 뒤섞기 이동
[vP 사과를(i) [vP [NP [NP 학생이] [두 명]] t(i) 먹었어]]
- d. 격 점검을 위한 주어 이동
[IP [NP 학생이](j) [vP 사과를(i) [ve [NP t(j) [두 명]] t(i) 먹었어!!!]

그에 따르면 무격 유동 분류사 ‘두 명’이 주어 ‘학생이’에 부가되어 만들어진 복합체가 Spec,vP에 삽입된다. 이후 목적어가 vP의 지정어 위치로 뒤섞기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무격 유동 분류사 ‘두 명’이 부가어라 한다면 이것을 남겨둔 채 주어 ‘학생이’가 격 점검을 위해 목적어를 가로질러 T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 이 도출의 결과, 부가어인 무격 유동분류사 ‘두 명’이 의미역 위치인 vP의 지정어 위치에 혼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유동양화사에 대한 일반화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10)의 도출 과정 중 ‘학생이 두 명’ 복합체가 vP의 지정어 위치에 삽입됐을 때 무격 유동 분류사는 논항이라 가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때 격 표지를 지녀야 하는데 격 표지를 지니지 않아 격 표지에 대한 일반화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일반화에 기초함을 알 수 있다.

(3) 격 표지에 대한 일반화

- a. 격 표지는 보충어 자리에서 출현이 수의적이다.
- b. 격 표지는 지정어 자리에서 출현이 의무적이다.

(4) 유동 양화사에 대한 일반화

Quantifiers cannot be floated in O-positions.

(유동양화사는 의미역 위치에서 떠다닐 수 없다.)

홍용철(2019)에 따르면 격 표지에 대한 일반화는 지정어 위치에 있는 요소는 격 표지를 무조건적으로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명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표지를 지녀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비합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유동양화사에 대한 일반화는 달리 말하면 유동 양화사가 비의미역 위치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한다. 이 절에서 우리는 동사 보충어 위치의 무격 유동 분류사를 제외한 모든 무격 유동 분류사는 비의미역 위치에 나타나는 부가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즉, 동사 보충어 위치의 무격 유동 분류사를 제외한 모든 무격 유동 분류사들은 유동 양화사에 대한 일반화 (5)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2d)에서 혼자 남겨진 ‘두 명’에 격 표지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논항도 되고 적법한 문장이 된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5) 학생이 사과를 두 명이 먹었어.

즉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유동 분류사는 동사구의 지정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논항이 되고 논항이기 때문에 격 표지를 지녀야하는데 격표지를 지녀 격표지의 일반화를 준수하게 된다. 또한 이 유동 분류사는 격표지를 지녔기 때문에 논항이 되어 유동양화사의 일반화에도 저

촉되지 않아 합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러한 그의 분석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론 내적인 문제와 경험적인 문제로 나뉜다. 먼저 이론 내적인 것을 고려하면 동사구 내에서 어떻게 주격이 인허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집약된다. 주격은 동사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범언어적인 현상인데 홍용철(1994, 2017)의 주장 즉 격이 형태적으로 실현되는 한국어에서 격 표지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이 격 자질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주어는 명칭결정을 위해 반드시 격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설명되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vP의 지정어 위치에서 주격을 인허 받기 위해 ‘학생이’는 T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혼자 남겨진 ‘두 명이’는 어떻게 주격을 점검받을지가 의문이다. ‘두 명이’는 그 자리에서 격을 점검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이’를 점검한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사과를’이라는 요소가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또한 ‘학생이’가 T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을 하면 CP 국면(phase)에서 vP 국면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험적인 문제는 타동사구(*vP) 내에서 과연 주격이 출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Jung(2001)과 엄홍준(2008)에서도 주장되는바 동사구내에서는 명사구가 아닌 다른 요소에 격이 할당되어도 그 격표지는 목적격 표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한 예라 할 수 있겠다.

- (6) a. 도현이가 밥을 먹지를 않아.
b. *도현이가 밥을 먹지가 않아
c. 도현이가 운동장을 뛴다.¹⁾
d. *도현이가 운동장이 뛴다.
e. 도현이가 공을 은솔이를 주었어.
f. *도현이가 공을 은솔이가 주었어.

(6)의 예들은 타동사구 내에서 주격이 올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렇듯 동사구 내에서는 주격이 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²⁾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한데 더 정교한 이론의 틀을 만들어 동사구 내에서도 격을 인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과 정반대의 논리로 이것이 주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지금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도출과정에 중심을 두어 어떻게 vP 내에서 주격이 표시 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을 미루고 vP 내에서는 격이 대격 이외에는 나올 수 없는 것이 경험적인 사실이고 따라서 이것은 한국어 격 표시 현상에 심각한 문제를 제시한다고 말하고자 한다.(엄홍준 2008, Jung 2000).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 주격조사는 사실 주격조사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여 vP 내에서는 절대로 주격이 나올 수 없음을 증명한다.

3. 이형태로서의 이 이서 서

1) 비능격 동사는 동사구가 타동사구와 같은 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엄홍준(2008)을 참고.
2) 반면에 비대격동사 구문과 심리형용사 구문에는 절대로 목적격이 올 수 없다. 이들 동사에는 타동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동사의 구조는 Radford(2004)를 참조하길 바란다.

(1)의 예와 비슷한 다음을 보기로 하자.

- (7) a. 학생이 네 명(이/이서) 음식을 먹는다³⁾./학생이 네 명이(서) 음식을 먹는다.
- b. 학생이 음식을 네 명*(이/이서) 먹는다./ 학생이 음식을 네 명이(서) 먹는다.
- c. 학생이 넷(이/이서) 음식을 먹는다./ 학생이 음식을 넷이(서) 먹는다.

만약 ‘-이’가 주격 조사라면 뒤에 다른 조사가 붙을 수 없는 것은 Yang(1972)이래로 임동훈(2004)의 주장이 보태져 현재 이르기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 (8) a. 내가 온 곳은 서울에서가/는 아닙니다.
- b. 철수에게만의 승리
- c. *철수에게의만 승리
- d. *철수만의에게 승리

따라서 이것 뒤에 ‘-서’가 올 수 있다면 이것은 구조격조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조사 김민국(2009)에서처럼 보조사 혹은 부사격 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 김민국에서는 ‘-이서’와 ‘-서’를 이형태로 보고 ‘-이’는 주어와 연속체로 나올 때는 주격조사로 대격 영역에서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부사격 조사 또는 보조사 등으로 보고 있다. 정리하면 분류사 뒤의 조사 ‘-이’가 구조격조사라면 이것에 뒤에 ‘-서’라는 조사가 오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조격조사는 조사의 통합에서 가장 뒤에 출현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비대칭성은 유동 분류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서’와 ‘-서’가 이형태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9) a. 학생이 네 명이 음식을 먹는다.
- b. 학생이 네 명이서 음식을 먹는다.
- c. 학생이 넷이 음식을 먹는다.
- d. 학생이 넷이서 음식을 먹는다.
- (10) a. 학생이 음식을 네 명이 먹는다.
- b. 학생이 음식을 네 명이서 먹는다.
- c. 학생이 음식을 넷이 먹는다.
- d. 학생이 음식을 넷이서 먹는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서’가 이형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창

3) 네 명에 조사 표지가 없는 문장의 문법성/수용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에 대해 우리도 완전한 문법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4) ‘-이서’에 대한 분석에 대한 정리는 김창섭(2010)에서 정리되어 있는데 고영근(1968)과 김민수(1971)에서는 주격조사(여기서의 주격조사는 ‘-이/가’처럼 엄격한 의미에서의 주격조사가 아니라 ‘-에서’와 같은 넓은 의미의 주격조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용운(2006)과 황희상(2009)에서는 보조사, 서정목(1984)에서는 후치사 등으로 보고 있다.

섭(2010)에서는 ‘-이’에 ‘-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서’가 준말 ‘-이’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⁵⁾ ‘-서’를 주격조사로 보고 있는 고영근(1968)에서 ‘-서’의 생략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임동훈(2004)에서는 ‘-서’의 수의적인 생략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위의 문장에서 ‘-이’와 ‘-이서’는 여동성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다. 위의 문장의 a와 c는 ‘학생이 음식을 네 명이 같이 먹는다.’는 해석과 ‘학생이 음식을 네 명이 각자 따로 먹는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다. 반면에 b와 d는 두 번째 해석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4a)의 경우 ‘네 명이’는 여동성(더불어 함께 함의 의미를 지님)을 지닌 문장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서’의 준말 ‘-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격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황화상(2009)에서는 ‘-이서’가 쓰인 문장에서 ‘=서’는 안 나타나도 되지만 ‘-이’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보고 여동의 의미는 ‘-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언급한다.

(11) 우리 둘이서는 어제 도서관에 갔다.

위에서도 살펴 본 것처럼 여동성은 고영근(1968, 2008)에서는 ‘-이’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황화상에서는 ‘둘이’ 수와 여동의 의미를 지닌다면 ‘둘’은 수의 의미를 ‘-이’는 여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혼자서의 -서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현희(2005, 2006)에 의하면 혼자서는 그 어원이 ㅎ오 사쳐이고 ㅎ오 사에 서가 바로 결합하였다고 분석한다. 어원적으로 혼자서의 서는 이서와 이형태 관계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 하지만 김민국(2009)에서는 비록 혼자서의 서가 이서와는 무관했지만 현대국어에서 혼자서의 서는 둘이서와의 관경서 유추되어 음운론적인 이형태를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혼자서는 이서와의 결합관계에서 체계상의 빈칸이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상의 안정을 위해 이서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해석되어 빈칸이 채워진 것이라고 언급한다.

한 명이서 한사람이서와 한 분이서와 같은 예들은 말뭉치에서 찾아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서는 여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의 서가 둘이서의 이서와 이형태로 인식된다는 것이 김민국(2009)의 설명이다.

한편 황화상(2009)에서는

이제 다시 주격 출현의 의무성에 대한 홍용철의 제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 (12) a. 학생 셋이서 음식을 먹는다.
b. 학생이 셋이서 음식을 먹는다.
c. *학생이서 셋 음식을 먹는다.

5) 김창섭에서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a. 학생 열이서 노래를 불렀다.
b. 학생 열이 노래를 불렀다.

(8a)와 (8b)가 문법적이고 (8c)가 비문법적이라고 한다면 주격이 생략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우리는 알타이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주어가 부정격으로 나타난다는 유형론적인 특징과 배치되는 (11)의 제안을 살펴보았고 주격이 의무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김용하(1999)에서 제안된 의미역 위치와 격 위치에 대한 설명도 참고할 만하다. 여기에서 그는 의미역 위치 즉 기저 위치에 남겨지는 명사구는 격이 없이 나타나고 이동을 하는 명사구는 격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격을 받기 위해 이동을 한다는 초기의 최소주의에 부합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격표지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이서'의 이형태들이 올 수 없는 문장이 있다. 김민국에서 지적하듯이 상태성 동사 또는 형용사에서는 '-이서'의 출현이 불가능하다.

- (13) a. 학생이 두 명이 예쁘다.
b. *학생이 두 명에서 예쁘다.

이런 경우의 '-이'는 당연히 주격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형용사 등의 비대격 동사들은 대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진짜의 vP 영역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이러한 문장에서는 대격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14) a. 학생이 네 명이 음식을 먹는다.
b. 학생이 두 명이 예쁘다.

첫 번째 조사 '-이'는 '-이서'와 교체될 수 없는 전형적인 구조격 조사인 주격 조사이고 (10a)에서의 그것은 '-이서'와 교체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이'는 전형적인 구조격 조사인 주격조사도 되고 부사적인 성격을 가진 즉 '-이서'의 성격을 가진 조사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8a)의 두 번째 '-이'는 '-이서'의 성격을 가진 부사적인 속성을 지닌 조사로만 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3. 격 표지 출현에 대한 일반화

(15) 격 표지 출현에 대한 일반화 (홍용철 1994)

- a. 격 표지는 보충어 자리에서 출현이 수의적이다.
b. 격 표지는 지정어 자리에서 출현이 의무적이다.

홍용철에서는 위와 같이 주어 위치에서는 격이 반드시 출현해야 하고 목적어 위치에서는 그것이 수의적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몇 가지 반례를 이론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16) a.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니?

b. 비(가) 온다.

이렇듯 무수히 많은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이 가능한데 이것은 위의 제안과는 상반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들을 홍용철(2017)에서는 주제화로써 해결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제화로 해결되는 듯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 또한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17) 그 사람 pro 무슨 책 읽었니?

pro 등의 공요소가 TP의 지정어 위치에서 존재하는데 이때는 왜 격표지가 안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격이 없는 주어는 주제어라고 본다면 왜 은/는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왜 일까에 대한 해답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이 두 명(이) 사과를 먹었어.
여자가 세 명(이) 책을 샀어.

두 명과 세 명에 격이 없는 것이 낯설다면 왜 (12)는 이상한지가 이상하다.

부가적으로 운율적인 문제를 언급하면 물론 실험통사론에서 그 증거를 빌려야 하겠지만 다음의 두 문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8) a. 그 사람(이) 소설책을 읽었다.
- b.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니?

평서문에서는 주제화되는 것으로 읽히지만 의문문에서는 주제화되는 운율로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평서문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의 운율단위가 나머지가 또 하나의 운율 단위가 되어 두 개의 운율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의문문은 하나의 운율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실험을 통해 입증된다면 홍용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터키어 등과 같은 언어 즉 알타이어의 특징 중의 하나가 주어가 부정격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이다. Ramsted(1939/1979)에서는 주어에 어미가 없는 형태를 nominative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현상은 알타이어에서 흔한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19) a. Biz san-a [süt iç-ti-k] gibi görün-dü-k
 we-NOM you-DAT milk drink-PST-1PL like apper-PST-IPL
 'We appeared to you to have drunk milk' (Mulder 1976)

b. Biz_i san-a [_{CP} pro_i süt iç-ti-k] gibi görün-dü-k

- (20) a. Biz_i birbirmiz-i_i [[pro_i viski iç-ti-k] san-ıyor-uz]
 we-NOM_i each other-ACC_i whiskey drink-PST-1PL believe-PROG-1PL
- b. *Biz_i [[birbirmiz_i viski iç-ti-k] san-ıyor-uz]
 we-NOM_i each other-NOM_i whiskey drink-PST-1PL believe-PROG-1PL

위의 예는 터키어의 주어인상구문과 예외적 격 표시 구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a)에서는 내포절에 있는 주어가 모문의 주어로 이동한다는 것이고 (14a)에서는 내포절의 주어위치에

서 모문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때 주어에는 격 표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a)의 내포절에서 주어 *birbirmiz*에는 주격 표지가 없는데 반하여 이것이 모문의 목적어로 상승할 때 대격 조사 *-i*가 표시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 김민국 2009. '-이서'의 분포와 문법범주, *형태론* 11권 2호, 338-356
- 김용하. 2008. 한국어 유동 양화사의 통사론. *시학과언어학* 15: 241-275.
- 김용하. 1999. 한국어의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 엄홍준. 2009. 국면에 의한 한국어의 격 인허. *어문논집*, Vol. 41, p. 29-65
- 이익섭. 1973. 국어 수양화사의 통사 직능에 대하여. *어학연구* 9: 46-63.
- 임동훈. 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권, 119-157.
- 최기용. 2001. 한국어 수량사 구성의 구조와 의미: 비속격형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37-3: 445-482.
- 최기용. 2006. 장형 부정 구문의 격 교체, *언어* 31, 441-461.
- 홍용철. 1994. 융합 이론과 격조사 분포. *생성문법연구* 4: 1-43.
- 홍용철. 2017a. 한국어에서의 격 표지 실현과 격 인허. *생성문법연구* 27-1: 107-132.
- 홍용철. 2017b. 명칭 결정 알고리즘과 한국어의 격 표지. *언어* 42-4: 989-1006.
- George, Leland M. and Jacklin Kornfilt. 1981. 'Finiteness and Boundedness in Turkish', in *Binding and Filtering*, ed., Frank Heny, 105-127. Cambridge Mass.: MIT Press.
- Jung, Yeun-Jin. 2000. Syntactic Case vs. PF Case,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 21-45.
- Moore, John. 1998. 'Turkish Copy-raising and A-Chain Localit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149-189.
- Ramstedt, J, Gustaf. 1979. *A Korean Grammar*. Humanities Press.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 Yang, In Seok. 1972. *Korean syntax: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Paek Hap Sa

<유동분류사 구문에서의 격 교체 현상에 대한 고찰> 토론문

최윤(전남대)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통사론, 그 중에서도 의미역과 조사에 관련한 선생님의 그간의 논의가 하나의 큰 맥락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으로 논의의 완성에 도움을 드려야 하지만 배움이 깊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매한 질문으로 선생님의 논의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를 하며,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로서의 '유동 양화사'

선생님의 논의 시작에서부터 지적하고 있듯 '유동 양화사'는 보통 주어로 가정되고 있습니다.

(1) 저기 학생들이 둘 간다.

즉, 위 문장에서는 '학생들'과 '둘'이 하나의 성분으로 동사구 명시어 위치에서 생성되었다가 '학생들'만 이동하고 수량 표현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보통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몇 가지 이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 의미역 이론과 일치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어의 위치를 IP의 명시어 위치로 보는 견해와 달리 모든 IP의 명시어 위치를 단일하게 비의미역 위치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 그리고 주어 논항이나 목적어 논항 사이의 차별 없이 모든 의미역 단일한 방식(지배)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과 설명이 있었지만 지면과 시간의 한계상 선생님의 의견을 자세히 서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와 '부사적인 속성을 지닌 조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토론자는 (별다른 대안은 없으면서) '부사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서술의 흐름상 선생님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격표지 유무에 의한 해석

격표지 유무에 의한 해석에 있어 보다 대조적인 설명이 추가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점층적인 예들을 통해 설명을 강화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2) 가. 저기 학생 둘 간다.

나. 저기 학생 둘이 간다.

다. 저기 학생이 둘이 간다.

라. 저기 학생이 둘이서 간다.

위와 같은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여기에 더해 각 문장의 ‘둘’ 뒤에 나오는 ‘∅, 이, 이서’ 뒤에 ‘만’ 등의 보조 조사를 넣은 문장들도 대조적으로 제시한다면 ‘이/이서’뿐만 아니라 ‘이’ 역시 {이서}의 변이형태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3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격 표지 출현에 대한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혼자

(3) 가. 혼자(서) 밥을 먹는다

나. 철수가 혼자(서) 밥을 먹는다

‘혼자가 주어도 될 수 있고 부사어도 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현대문학]

오학영 희곡 텍스트의 모순성 연구
구소련 고려인 시에 대한 고찰
간힘과 떠돌, 소통의 서사 미학 -송영문학론-
작가 인식을 통한 최인호 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오학영 희곡 텍스트의 모순성 연구

- 텍스트 내적 구조와 실존주의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민선희(중앙대), 박종수(중앙대)

<차례>

1. 문제제기
 2. 장르 모순과 장르 이데올로기의 충돌
 3. 표층과 심층 혹은 새로운 형식과 철학의 모순
 4. 실존적 구원 문제와 여성 주인공을 둘러싼 모순
 5. 결론
-

1. 문제제기

전후 신진극작가들에게 실존주의는 기성 작가들과 그들을 규정짓는 중요한 경계선으로 작용했다. 실존주의는 6·25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야 했던 전후세대 작가들에게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매력적인 사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¹⁾ 신진극작가 중에서 오학영(吳學榮, 1937~1988)은 형식적인 실험을 통하여 인간의 내면을 그려냄으로써 실존주의 희곡의 대표적인 극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닭의 의미> 3부작(<닭의 의미>(1957), <생명은 합창처럼>(1958), <꽃과 십자가>(1958))²⁾은 한국 실존주의 희곡을 논하는 것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되어왔다.

1950년대 한국에서 실존주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뜨거운 쟁점’³⁾의 대상이었다. 실존주의는 그 발생지에서조차도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사상⁴⁾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실존주의 그 자체보다는 식민지 경험에 연이어 일어난 특수한 역사적 사건의 본질, 식민주의의 연장성이 부과한 ‘민족적 전통(독자성)과 세계적 동시성’⁵⁾이라는 과제 자체의 문제가 쟁점의 심

1) 박명진, 「1950년대 전후 희곡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오학영과 장용학의 희곡을 중심으로」, 『우리문학 연구』 제39집, 우리문학회, 2013, 281쪽.

2) 이후 이들 세 텍스트를 동시에 지칭할 때 삼부작으로 표기.

3) 나종석, 「1950년대 한국에서의 실존주의 논쟁과 사회비평의 가능성-최일수의 ‘민족적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카톨릭철학』 제16호, 한국카톨릭철학회, 2011, 160쪽.

4) 실존주의의 한국에서의 대중적 유행과 논쟁성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실제 유럽에서도 실존주의는 신문과 잡지에 유행처럼 오르내렸고, 1945년 문맹에서 벗어나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당시 이미 불안과 절망, 자살의 정조를 조장하는 무기력성, 일종의 정신병으로까지 해석되기도 하였는데, 사르트르(맹트낭 클럽)는 완전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중심 개념이라도 재정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장 구종 거리 8번지 살드 샹트로에서 실존주의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마틸다 라마디에·아나이스 드포미에, 『장폴 사르트르-자유로운 실존과 글쓰기를 위해 살다』, 임미경 옮김, 작은길, 2015, 103~106쪽.)

층적 토대를 이루고 있었다. 실존주의의 급속한 영향과 그에 대한 논쟁적 비판의 구도는 역사적 과제 자체가 직면한 모순적 구조를 반영하고, 실존주의는 그러한 문제의식들을 상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어준 것이다. 1950년대 후반 새롭게 등장한 오학영의 텍스트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비평의 관점 또한 실존주의와 결부된 당대적 문제의식과 지배담론의 맥락 위에 존재하고 있다. 새로운 형식적 측면이 자연스럽게 실존주의라는 서구 사조와 연관되는 것은 단순한 형식 변화를 넘어 당대의 시대적 문제의식을 함축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가치 평가의 기준이 언제나 형식과 어긋나는 내용과의 교차 지점에 있다는 사실이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기성 극단’⁶⁾과 차별되는 개혁과 실험적 신인작가군의 관점에서 그 가치평가는 중국에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비극적 허무주의”⁷⁾나 ‘단순한 형식적 성과를 동반한 세계관적 제자리걸음’⁸⁾으로 귀착되고 있다. 그 형식과 내용의 어긋남으로 인해 삼부작의 가치는 오로지 ‘과도기성’⁹⁾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과도기’의 의미는 텍스트의 형식과 주제의 구현이 아직 본격적인 차원에 이르지 못하고 미숙한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작품군이 탁월하게 구현했다고 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의 일원성에 대한 비교이다. 이승현은 그러한 과도기성에 내포된 미숙과 미완의 차이 자체가 바로 그 시대의 구조와 문제를 이미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¹⁰⁾ 이승현의 논의는 실존주의를 후경화함으로써 형식과 내용으로 이분화되어 있었던 삼부작의 내적 구조를 다시 일원화하고 가치를 탐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는 실존주의와 텍스트 사이의 상관성을 전제할 때 다시 불분명한 것이 된다. 1950년대 당시의 현실 인식을 전제할 때 실존주의는 삼부작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오학영의 삼부작을 바라보는 또 다른 문제적 관점은 삼부작이 1950년대의 지층뿐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진 오학영 작품 세계의 일부라는 것에 있다.¹¹⁾ 삼부작의 내적 구조는 1950년대 이후 오학영 텍스트 속에서 반복된다. 이는 그의 삼부작이 1950년대라는 특정한 시대의 유행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텍스트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삼부작에 대한 해석적 지층을 1950년대 이후로 확장할 때, 삼부작은 서구 사조의 영향 관계와 그 자체의 독자적인 텍스트 구조의 상관성 속에서 사유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때 삼부작의 구조는 실존주의를 전제하면서도 형식과 내용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총체적인 텍스트 내적 구조를 확보한다. 왜냐하면 내적 구조의 지속성은 삼부작의 실존의식과 그 형식이 구성하고 있는 동일성을 전제하고 동일성은 초월적 정체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²⁾

5) 나종석, 앞의 글, 164-166쪽.

6) 김미도, 「1950년대 희곡의 실험적 성과」, 『어문론집』32집, 어문학회, 2001, 100쪽.

7) 홍창수, 「전후의 실존의식-50년대 오학영론」, 민족문학사연구소 희곡분과, 『1950년대 희곡연구』, 새미, 1998.

8) 오영미, 「1950년대 후반기 한국희곡의 變移樣相」, 『한국극예술연구』제2집, 한국극예술학회, 1992, 163쪽.

9) 오학영의 삼부작은 1960년대 이근삼, 박조열, 윤대성, 오태석 등 비사실주의 계열의 희곡이 가능하게 된 기초와 계기를 마련한 ‘과도기적’ 작품으로 평가된다. (현재원, 「실존주의, 형식 그리고 작가 의식」, 민족문학사연구소 희곡분과, 앞의 책, 297쪽.)

10) 이승현, 「〈담의 의미〉 삼부작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형식 실험의 상관성 연구」, 『한국극예술연구』제49집, 한국극예술학회, 2015.

11) 1957년 추천 희곡으로 등단한 오학영은 1988년 교통사고로 타계하기까지 희곡작품뿐 아니라 소설, 라디오 극본, 에세이와 평론을 꾸준히 발표하였고, 소설집과 시집도 발간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오학영의 1950년대 희곡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먼저 1950년대 <닭의 의미> 삼부작과 실존주의의 관계를 정립하고 모순적인 텍스트 내적 구조를 파악한 후, 1950년대 이후 희곡 텍스트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삼부작의 모순성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오학영의 희곡이 지니는 특징들은 단순히 실존주의의 문제가 아닌 ‘극작가 오학영’이 지니는 특징과 한계로써 다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장르 모순과 장르이데올로기의 충돌

오학영의 삼부작은 장르적으로 실존주의 희곡 또는 “실존주의 경향의 희곡”¹³⁾으로 정의된다. 실존주의 극은 그 자체로 합성적 존재인데, 마틴 에슬린에 의하면 그것은 ‘형식과 내용의 모순성’을 수반한 불완전한 극 양식이다. 그는 부조리극과 실존주의 극을 비교하면서 부조리극이 세계관과 형식의 양 측면 모두를 새로운 경지로 개척했다면 실존주의 극은 새로운 세계관(인간 존재의 무의미성, 이성적 직관형식의 불충분함에 대한 의식 등)을 옛 형식 속에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¹⁴⁾ 이때 사르트르나 카뮈와 같은 실존주의 작가들 역시 베케트나 이오네스코 등과 같은 부조리극 작가들에 비하여 ‘더 적절한 형식성에는 도달하지는 못한’ 미완의 작가들로 평가받게 된다.¹⁵⁾

이러한 정의는 매우 아이러니한데 부조리극을 전제할 때 실존주의극은 서구극의 계보에서 과도기적 양식극이기 때문이다. 그 정의에 의하면 형식적 표현이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일수록, 즉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형식 속에 잘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장르적 과도기성은 더욱 더 미완성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 이와 같은 실존주의극에 대한 형식과 내용의 모순적 양상이 한국 문단에서도 발견되지만 그 결은 역전되어 있다. 오영미는 1950년대 후반기 한국희곡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오학영 희곡의 극적 성과가 단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의 작품은 ‘사실주의적인 스토리 라인을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한 것으로 그 새로운 형식은 사실적 표현이 불가능한 의식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라고 정의한다.¹⁶⁾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는 서구 현대극에 대한 모방으로써의 형식적 특징과 그 모방이 “피상적 추종”¹⁷⁾에 그치고 있다는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 오영미의 해석은 형식적인 것의 새로움은 인정하되 그러한 형식적 특징이 작품의 한계로 작용하는 모순적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내용과 형식의 결합 양상이 마틴 에슬린과는 반대인데, 이와 같은 인식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형식 그 자체에 대한 가치가 지연 혹은 부인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틴 에슬린이 실존주의극 형식을 낡은 것으로 파악한 이유는 그 전개의 양상이 본능과 직

12) 김선하, 『리코리의 주체와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2007, 142~143쪽 참조.

13) 박명진은 실존주의 희곡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작품들을 ‘실존주의적 경향의 희곡’으로 명명한다. 이러한 명명은 서구사조의 굴절된 수용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1950년대 일련의 작품들에게 부과된 장르적 폐쇄성을 개방적으로 변환시키면서 동시에 그것을 부과할 때 수반되는 필연적 굴절성과 불완전성을 상기시킨다. (박명진, 앞의 글, 286쪽.)

14) “표현되는 내용과 표현 형식을 완전히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부조리극을 실존주의극과 구별짓는다.” (마틴 에슬린, 『부조리극』, 김미혜 옮김, 한길사, 2005, 37~38쪽.)

15) “생의 무의미와 이상의 상실은 Giraudoux, Anouilh, Sartre, Camus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비합리성을 낡은 컨벤션으로 표현했을 때 반해 부조리 연극의 작가들은 더 적절한 형식으로 추구했다.” (Arnold P. Hnchcliffe, 『부조리문학』, 황동규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11쪽.)

16) 오영미, 앞의 글, 163~165쪽.

17) 위의 글, 165쪽.

관, 이미지적 장면 제시라는 부조리극의 극단적 재현 양상과는 달리 분명한 논리적 전개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주제 또는 철학적 인식 등과 연관된 내용적 측면이 형식적 측면에 흡착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베케트나 이오네스코의 극들을 살펴보면, 극의 본질적 구조는 객관적인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이성적 논리성은 완전히 탈각되고 모든 내용적 측면이 형식 속으로 흡수·일치되어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과 해석의 구도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일치 속에서 부조리극은 성립한다. 부조리극은 형식 그 자체가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양식을 반영한다. 예술인의 장르적 정의를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리얼리즘적 재현을 벗어난 초현실적 부조리극의 양식들은 그 형식성 자체에 새로운 철학적 사고를 흡착하고 있으며, 그렇게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극양식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장르적인 정의 자체가 내적 균열과 다양성을 융합하게 되는 한계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Kenneth Tynan은 예술인의 부조리극의 정의가 이전의 모든 극 역사를 최종적 단계인 부조리극으로의 발전적 역사로 제시하는 “과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¹⁸⁾ 그러나 실존주의극과 부조리극 사이의 위와 같은 관계는 분명 오학영 삼부작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다시 검토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예술인의 장르적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하나의 사실은 형식 자체의 가치가 내용에 대한 가치와 대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삼부작의 한계로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역사(현실)에 대한 결핍성들(우연성, 주관성, 추상성, 비실천성 등)은 실존주의라는 장르적 프레임 안에서 오히려 장르 자체의 특징으로 수렴 가능해진다.

부조리극을 전제한 마틴 예술인의 실존주의극의 정의를 참조하면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비논리성이나 비이성적 비합리성의 측면은 그 자체로 작품의 한계로 지적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실상 1950년대 한국 사회에 실존주의가 상륙했을 때에는 부조리극과 같은 극단적 형식과 내용의 상관관계가 전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전개되는 본격적인 비사실주의 극조차 서구의 극단적 부조리극과 비교할 때 완전한 형식적 해체성에 도달했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그 비교적 방법론에 동반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식들이 더욱 문제적이고 복잡하다. 따라서 순수한 비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실존주의 사조의 수용과 그것에 대한 상이한 해석적 관점의 존재가 오학영 삼부작 해석에 미친 영향력을 더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실존주의극과 부조리극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관점들은 실존주의를 바라보는 당대의 인식과 태도로 연결되고 오학영의 삼부작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그것들의 교차적 지층 속에서 1950년대 새롭게 등장한 오학영의 삼부작이 해석되었고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 속에서라야 장르적 담론과 발전적 계보를 전제한 텍스트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오학영의 삼부작은 1950년대라는 전후 시대의 산물로서 당대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적 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삼부작의 첫 편 <답의 의미>는 그 시작에서부터 ‘저항’이라는 관념적 용어가 등장하는 데, 이러한 선언적 제시가 인물의 내적 투쟁으로 전개되는 양상은 삼부작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부정적인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는 당시 실존주의 자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다. 그 대표적인 논자로 최일수를 들 수 있다. 최일수는 실존주의의 주관적 지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18) 이와 같은 발전적 역사적식에 대한 비판은 오학영을 과도기적 텍스트로 평가한 기존의 연구 관점에도 적용가능하다. (Arnold P. Hnchcliffe, 앞의 책, 9쪽.)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실존문학이 전쟁과 혼란을 계기로 도시 지식층의 태반이 생활은 정체되고 사회적으로 무능해져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권태를 느낀 나머지 그것을 해결하고자 숨 막힌 대결 속에서 말초적으로 자기의 위치와 행위를 찾으려고 하는 이른바 변형적인 자기 옹호를 위한 세계의 소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논리를 발전시키려고 한다.¹⁹⁾

최일수에 의하면 당대의 실존주의는 “역사적 인식의 결여”이자 “극단적 주관주의적 사유체계”로 이때의 대결 의식은 ‘도시 지식인의 허무적인 심리적 풍습에서 유래된 권태 속의 자기 옹호적 기획’일뿐이다. 그는 당대의 선결 과제를 분단의 극복과 아시아 민족의 자주성 획득으로 보았다. 실존주의를 ‘극단적 개인주의의 말초적 추궁’으로 규정하는 시각 아래 현실적인 문제가 실존주의로 극복될 가능성은 전무한 것이 된다.²⁰⁾ 최일수의 관점에서 당대의 시급한 과제는 실존주의라는 사조와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대 분단이나 민족적 자주성이란 문제는 거대 담론적 차원으로 인지되고 있었고, 실존주의는 명백히 거대 담론적 프레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사조였기 때문이다.

한편 최일수와 달리 이어령은 실존주의의 주관적 지성주의에 대해 절대적인 옹호를 표시한다. 이어령이 말하는 지성의 힘이란 ‘신념에 기원을 담고 무언가를 향한 응시의 자세 속에 존재한다.’ 그는 침묵을 강조하는데, 지금은 “도피도 출전도 아닌 정체의 시간”으로 무엇보다 ‘지적 모험이 절박한’ 순간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침묵은 실천과 행동 이전 “지성의 무기를 닦”는 과정으로 개인의 내적 체험을 통한 치열한 투쟁성으로 재현 가능한 것이다.²¹⁾ 최일수가 말한 역사적, 민족적 과제를 당시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도 유효한 초거시적이고 절대적인 이상이기 때문이다. 즉 최일수와 이어령의 차이는 역사적 과제나 그것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력하는 과정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사유방식과 태도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다면, 같은 철학적 사조를 두고 무효성과 유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철학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다.

실존주의는 명백히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방식의 하나였으며,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유방식이란 것은 발명이나 발견이라기보다는 심화에 가깝다. 새롭다는 것은 반드시 역사적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주지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유방식의 등장과 확산은 보편적 차원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1950년대 한국 사회에 실존주의의 유행 현상은 이미 그 자체로 특정한 사유방식의 전이와 공유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과 인정의 대결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유방식의 생산적 기저가 정치적 차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발적 ‘유행’이라는 형식의 확산 그 자체의 효과는 사조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일어난다.²²⁾ 실존주의의 유용성에 대한 태도들은 결국 ‘순수한 실존주의’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정치화된 실존주의’에 대한 관점과 그에 대한 논증과 설득을 동반하게 된다. 지금 현시점에서 실존주의의 가치가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

19) 최일수, 「실존문학의 총화적 비판-하나의 서론적 고찰」, 『경향신문』, 1955.4.13.

20) 나종석, 앞의 글, 168쪽.

21) 이어령, 「주어 없는 비극」, 『조선일보』, 1958.1. (이어령, 『저항의 문학』, 경지사, 1959, 20쪽.)

22) 마르크스는 ‘이론이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힘이 된다.’고 말하면서 이론과 대중의 관계는 사태의 뿌리, 즉 “인간 자신”에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말한다. (K. 맑스, 『헤겔 법철학 비판』, 홍영두 옮김, 아침, 1994, 196쪽.) 이에 의하면 1950년대 한국 실존주의와 대중성의 관계는 실존주의의 기원지와 원전적 이론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유행 그 사태 자체의 효과와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생긴다. 즉 1950년대 한국에서의 실존주의의 유행과 대중성은 결정된 무엇에 대한 모방과 무엇이든 보다는 여전히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 남는다.

가'를 다시 물어볼 때 상기되는 불필요성은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실존주의는 다양한 배경과 노력, 철학적 계보를 통해 등장하게 된 인간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 중 한 가지일 뿐이다. 새로운 상품이 주목과 유행을 구가하다 시들해지는 것처럼 근대 이후, 철학과 사유방식들도 그와 같이 상품화된다. 그러나 그 인기의 시듦과 무관하게 한번 등장한 사유방식은 지속적인 영향을 잔여적으로 남기게 된다. 따라서 1950년대 그토록 논쟁적이었던 실존주의는 지금에 이르러 하나의 과정이자 인간 사유방식의 필연적인 한 지층이라는 모습으로 인지된다.

마틴 에슬린의 실존주의극과 부조리극의 비교와 실존주의에 대한 최일수와 이어령의 대립적 태도 속에서 기존의 오학영 삼부작의 정체성은 선택된 것에 불과해진다. 최일수의 관점을 적용하느냐, 이어령의 관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텍스트의 정체성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때 사조에 대한 논쟁과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양식(장르)적 발전이라는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위에 놓이게 된다. 진정한 문제는 한국에서 실존주의극이라고 명명된 텍스트의 양태,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적 어긋남이 아니라 내적 구조의 모순성 그 자체에 있다. 이 문제를 중력화 할 때, 실존주의에 대한 당대의 비평적 관점의 대립 또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본질적 가치의 문제 위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사후적 관점에서 삼부작이 명백히 양식적 발전의 계보 위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양태에 대한 인정은 삼부작의 양태 속에 모순적인 관점을 동시에 존재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과도기'는 정제되지 않은 혼용의 의미도 포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부작을 그러한 계보적 선위에 놓을 수 없다 하더라도 삼부작은 명백한 형식적 파격을 통해 리얼리즘 극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삼부작의 양태, 즉 새로운 구조는 그 자체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는 프레임 속에 실존주의에 대한 두 관점의 대립을 아우르게 된다. 결국 삼부작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전제된 실존주의 양식 적용의 성공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 양식에 대한 적용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부된 사유 방식과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 관점들이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사유 방식의 프레임과 결부되어 있다.

3. 표층과 심층 혹은 새로운 형식과 철학의 모순

오학영의 삼부작과 실존주의 담론의 상관성은 텍스트 외적 환경에 국한된 의미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적 구조의 본질적 의미 그 자체의 구성과 연관된다. 공시태적 관점에서든 계보적 관점의 역사성에 한해서든 삼부작은 실존주의와 그 담론과의 연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텍스트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누빔이 그것의 중력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텍스트와 담론의 상관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을 매개로 구성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관점과 의미의 본질적 구조 그 자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모순적 구조를 본질로 하는 이와 같은 논리적 선후 과정의 순환적 해석의 의미 구성이 일정한 담론으로 소통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차원의 고정된 지점(누빔점)들이 필요하다. 삼부작에서는 '저항'이라는 투쟁적 관념의 기표가 그것에 해당한다. 당대의 정치 사회적 문제와 실존주의 그리고 그에 대한 담론들이 이 관념을 누빔화하여 상호작용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해갔다. 그런데 당대 한국의 실존주의 수용은 사르트르보다 까뮈에 경도되어 있었다.²³⁾ 동시에 오학영의 삼부작에 대한 한국 문단의 평가는 까뮈보다는 사르트르에 경도되어 있다.²⁴⁾

23) 박명진, 앞의 글, 291쪽.

텍스트 삼부작에 대한 해석적 계보는 ‘저항’이라는 투쟁에 대한 순수한 텍스트 내적 구조와 해석적 관점의 어긋남, 즉 미끄러짐의 구조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

- 상화 그래, 답이란 놈은 아무래도 좋아. 답의 의미가 문제지, 답은 의미야.²⁵⁾
- 상화 그것이 아 작품의 포인트지, 붉은 배경은 현실을 의미하는 거야. 부조리한 현실과 맞대거리하며 찢기우면서 저항하는 답의 자세.
(중략)
- 상화 그것은 저항하는 답이 해명할 것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행위를 충실하게 하는 것뿐이야. 넌 그대로 빨간 엽서를 받으러 가면 돼.²⁶⁾
- 상화 아! (전신에 땀을 흘린다. 바가지에 남은 물을 들어 마시고 비틀거리며) 말하라. 지금 여기에 누가 살해자이고 누가 피살자인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피살된 것이 아닐까. (감정에 균열이 생기는지 그 움직임이 불안해진다) 인제 저 주검마저 내 곁을 떠나간다. 그럼 난 한층 더 고독해질 거야, 아니야. 어쩌면 사람은 날 때부터 고독한 존재였을 거야. 아란이 내 곁에 있을 때 그의 숨결도 고독했어. 하지만 그 고독하던 생명이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없는 주검 앞에서 아- 나는 나의 벌거벗은 생명이 여기 있음을 느끼게 된 까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략)
- 상화 (천천히 아란의 시체 앞에 꿇어앉는다) 아란이 우린 우리들의 사랑과 생명을 이체야 늦게 알았어. 저렇게도 웅얼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만히 입술을 아란의 입에 맞추며 오열한다) ²⁷⁾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삼부작에서의 ‘저항’을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다. 아란의 죽음은 명백히 의도적인 극적 설정이며, 그에 대한 상화의 반응은 현실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부조리성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부조리적 의식의 관점에서 나르시스적 인식이나 우연성, 피상성 등은 그 정도와 극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의미 구성이 가능하다. 실존주의의 근원적인 물음이 바로 죽음과 실패를 이룬 인간의 삶, 살아감 그 자체의 실존적 가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적-의식 차원에서,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나아가 ‘인간은 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인간 실존의 가장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실존주의와 부조리적 의식의 기본적인 저항 개념이다. 그러한 질문은 곧 기존에 주어져 있던 관념적 개념에 대한 회의와 의심에 수반된 반동적 효과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상화의 말을 빌리면 “살아가기만 하면 그것두 저항하는 방법”²⁸⁾인 것이다. 실존주의적 텍스트들은 이 근본적인 저항 관념 위에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이상과 남녀의

24) 이어진에 의하면 오학영의 작품 세계가 표피적인 실존주의로 폄하 받는 강력한 원인 중 하나가 상화의 도피적 성향이다. (이어진, 『오학영 ‘삼부작’의 다성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5쪽.) 이 때 도피적 성향이란 텍스트의 주제와 결부된 문제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속 저항이 현실과 사회적 실천성과는 괴리된 개인 혹은 나르시스적 문제의식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앞장에서 다룬 당대의 문제와 결부된 실존주의에 대한 논쟁의 구도와도 유사한데, 까뮈와 사르트르의 비교에 있어서는 실존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결합을 시도한 후기 사르트르의 정치적 경향에 대한 참조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5) 오학영, <답의 의미>, 『꽃과 十字架』, 현대문학사, 1976, 39쪽.

26) 위의 글, 43쪽.

27) 오학영, <생명은 합창처럼>, 위의 책, 72쪽.

28) 오학영, <답의 의미>, 54쪽.

사랑, 신뢰, 계급, 가족의 죽음 등과 같은 현실적 상징체계들이 관계를 맺고 있다.

위고 …… 감옥에서 매일같이 생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문제예요. 그것은 모든 사건이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만약 먼데서 바라보면 그것은 집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가까이 가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돼요. 행위란 너무나도 빨리 사라져요. 행위란 당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당신이 원했는지 혹은 그것을 만류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은 …….(29)

나는 기다렸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고 땀방울이 눈썹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그 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그 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프고 이마의 모든 핏줄이 피부 밑에서 한꺼번에 뛰고 있었다. (중략) 이번에는 아라비아 사람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고 단도를 뽑아서 태양에 비취 나에게로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로 부딪치는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꺼운 베일로 눈을 덮었다. (중략) 번쩍이는 단도로부터 통겨나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불타는 검은 나의 속눈썹을 자르고 고통스러운 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였다. (중략) 나는 권총을 움켜쥐었다. 방아쇠가 밀려나고, 나는 총신의 반짝이는 배를 만졌다. 그리하여 메마르고 귀가 멍멍해지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중략) 이어서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에 다시 네 방을 쏘았다. 총탄은 깊이 보이지도 않게 들어박혔다.(30)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사르트르의 <더러운 손>과 까뮈의 <이방인>에서는 사건의 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고와 뫼르소는 자신이 행한 살인 사건에 대해 동일한 실존주의적 의식을 보여준다. 까뮈는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그 명분이나 인과적 논리의 변명을 이야기하는 대신 뜨거운 더위와 찰나의 감각을 묘사한다. 사르트르의 표현대로 뫼르소의 행위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고, 그가 그것을 진정 원했는지도 알 수 없다. 한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두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속해 있는 원칙을 동반한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이성적으로 끊임없이 제거하며 순수한 ‘인간 결정체’를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위고를 향해 “자넨 인간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위고, 자넨 원칙만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말한 에드레르의 질타는 더럽고 추악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가치를 노출한다.(31) 그것은 붉은 장갑을 끼듯 이상주의에 함몰되어 있고 죽음과 흡사한 순수함을 지님으로써 에드레르에게 파괴자로 비난받는 위고의 정체성까지 포함한 것이다.

실존주의적 장르 속에서 인간은 고전적 비극 장르 속 인간처럼 ‘상징적 갈등 속에 주저 없이 밀어 넣어지지만’(32) 고전 비극의 주인공들이 도달하는 숭고한 위치와 정 반대의 자리로 추락한다.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신은 위대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까뮈가 발견한 진리의 순간은 목적을 위한 처절한 고통과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 갈 때, 다시 그 원점으로 내려가는 시간 속 시지프다. 시지프가 “무거운 그러나 한결같은 걸음걸이로 그 끝을 알지 못하는 고뇌를 향하여 다시 내려” 갈 때, 마침내 그는 호흡이 되고 바위 그 자체가 되며, 자기의 운명보다 우위에서

29) 사르트르, 『더러운 손』, 최성민 옮김, 서문당, 1996, 31쪽.

30) A. 카뮈, 『이방인-페스트』, 송진희 옮김, 해원출판사, 2001, 49~50쪽.

31) 사르트르, 앞의 책, 184~185쪽.

32) J.L.스타이언,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부조리 연극』, 원재길 옮김, 예하, 1992, 142쪽.

바위보다 더 강하게 된다.³³⁾ 시지프 신화의 형벌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과 성취의 무용성 (부조리 그 자체)이 아니라 운명으로 주어진 비참한 조건의 절대성과 그에 대한 고뇌가 함께 구성하는 찰나의 순간에 등장하는 의미와 가치이다. 이는 구원 또는 예언과는 다른 인간 예수의 죽음 그 자체를 반영하기도 한다. 인간 예수의 죽음과 비참성은 인식과 동시에 소멸됨으로써 그 조건적 운명이 압도적 진리로 전환된다. 승리가 아닌 비참함에 기반한 인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사유방식은 실존주의가 도달하고자 하는 진리의 초석이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결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한다.³⁴⁾

실존주의가 추구하는 추락한 인간 실존의 가장 이상적인 재현은 삼부작의 '상화'가 오히려 위고와 뫼르소보다 더 잘 담아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적 이상과 어머니의 죽음은 나체 애인의 황당한 죽음보다 훨씬 더 이상주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 속 저항은 상화의 반성과 깨달음의 과정과는 분리된 절대지(絕對知)의 형태로 외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아란의 죽음으로부터 상화의 인식론적 깨달음에 이르고 있는 삼부작의 극적 전개 과정은 철저하게 텍스트 초반에 언표된 저항의 관념을 발전시키고 성취하려는 의도된 노력의 과정에서 클라이맥스를 완성한다. 사형에 처한 상화의 태도는 결혼에 대한 반항과 마찬가지로 제도와 법의 형태로 인간에게 행해지는 절대적 제약에 대한 저항이자 자유에 대한 극단적 옹호임은 틀림없다. 극속에서 변호사는 아란의 죽음을 이데올로기적 죽음과 비교하는데, 그것은 죽음과 관련된 사건을 “그야말로 우발적인 사건”³⁵⁾이라는 실존주의적 차원으로 정의하는 과정이다. 아란의 죽음이 우발적이라는 것은 상화에게 의도적 양심적 잘못이 없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제안한 “감정의 순수성”을 상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상화는 법과 윤리와 결부된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것을 관통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오학영은 1971년 그의 수필 「자유와 보장과 고양」에서 ‘진실 실천’은 어떠한 제약으로도 속박할 수 없는 것으로 자유를 통해 그것이 존재하고 가능해진다고 반복해서 주장한다. 그는 반공주의와 같은 국가의 정치 이념이나 종교적 윤리적 이념과의 대립 속에서도 예술의 자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³⁶⁾ 다시 말해 궁극적 깨달음의 상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제약적 요소들을 횡단하며 구성되고 있다. 이는 무의미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력감에 대한 실존주의적 고뇌와 깨달음을 극단적으로 상징화된 자유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통해 표명하면서 그것이 곧 저항이자 투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고, 뫼르소가 실존 의식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한 인간의 예시인 것과 달리 상화는 극이 진행되면서 실존주의적 의식을 저항의 도구로 더욱 명백히 인식하는 강력한 주제로 거듭난다. 그에게 실존 의식의 누빔인 저항은 “세계에 대한 질문이며 인간의 존재 증명을 위한 몸짓”³⁷⁾에서 점차 죽음, 법 등을 포함한 현실적 질서에 대항한 극단적 자유 의지로 변모 발전해간다. 따라서 상화의 죽음은 195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의 전체주의에 국한되지 않고, 1970년대 국가주의를 포함한 보편적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 의지를 반영한다. 이 지점에서 삼부작은 도피성과 비참여성의 혐의는 벗게 되지만

33) A. 카뮈, 『시지프의 신화』, 이정림 옮김, 범우사, 1999, 145쪽.

34) “에드레르 : 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사랑하지. 모든 그들의 더러운 면, 악덕과 더불어 인간을 사랑해. 인간의 음성, 물건을 쥐는 그들의 따뜻한 손, 모든 피부 죽에서도 불거숭이가 된 인간의 피부, 불안한 눈초리, 서로가 죽음에 대하여 또는 고뇌에 대하여 절망적인 투쟁, 그것을 나는 사랑하고 있지.” (사르트르, 앞의 책, 185쪽.)

35) 오학영, <꽃과 십자가>, 앞의 책, 81쪽.

36) 오학영, 「自由의 保障과 高揚」, 『藝術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1971.4, 112~113쪽.

37) 이승하, 「실존주의」, 고봉준 외, 『문예사조』, 시학, 2007, 288쪽.

실존주의적 가치는 미끄러지게 된다.

<꽃과 십자가>에서 상화의 내면세계 혹은 상화라는 고정된 주체를 타자화한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상화심과 상화지의 분신 형식은 그 자체로는 자기 확신을 토대로 하는 코기토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신을 대신한 의식의 주체'를 넘어선 해체적 주체의 행적을 재현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모순적으로 절대지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유와 결부된 저항 의식의 세계관 구조를 확인시키고 도식화하는 역할도 한다. 세 심급의 대화는 상화가 두 심급의 유혹과 설득을 목살하고 타자와 구별된 이상적 모델이자 깨달음의 주체로 상화를 구성해가기 때문이다. 아란의 죽음과 상화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회의를 거쳐 상승하고 있는 생명과 사랑의 가치는 “초월적 주관”³⁸⁾이자 강력한 주체성과 다르지 않으며, 텍스트의 내적 구조는 실존주의와 계몽주의를 동시에 재현하고 있다. 즉 '저항-자유-사랑'의 유기적 의미 사슬을 통해 부상하고 있는 궁극적 깨달음의 '진리'는 피상적 나열이나 흉내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팽창된 실존주의 혹은 이상화된 실존주의 의식이다. 서구의 실존주의가 신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 내리려 하고 있다면 오학영의 텍스트는 실존주의를 통해 다시 신을 호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4. 1950년대 이후 텍스트의 구조와 여성 주인공을 둘러싼 모순

실존주의와 삼부작의 내적 구조가 주조하고 있는 모순성은 삼부작을 문제적 텍스트로 만들고 가치와 한계를 동시에 존재하게 만든다. 모순적 텍스트 정체성은 실존주의 담론 속에서 분리와 결합, 율리와 일치 같은 이분법적 가치 체계의 가장자리를 따라 텍스트를 논쟁적으로 대상화시킨다. 삼부작의 구조는 실존주의적 고뇌와 깨달음이라는 의식 구조와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실존주의의 본질적 가치로부터 미끄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텍스트의 본질적 구조는 분신을 동반한 상화의 내적 고뇌나 부조리적 인식의 재현, 죽음과 동반된 형이상학적 사유와 자유, 저항이란 주제의 피력과 결부된 형식과 내용의 분리를 통해 이해할 수 없다. 삼부작이 보여주는 미끄러지는 모순성은 텍스트 자체에 결부된 그 내적 구조 자체의 모순성에 있는 것이다. 이 모순성은 2장에서 다루었던 사조주의적·장르주의적 분할 체계에 결코 완벽하게 걸리지 않는다. 삼부작의 모순성이 텍스트 그 자체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또 다른 근거는 1950년대 이후의 오학영 희곡 텍스트에서도 유사한 실존적 문제의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화 처음엔 공포에 떨고 회의를했어. 그러나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곳엔 이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간이 탄생했다. 나는 그 생명과 인간을 절실히 느꼈어. (지와 심을 각각 가리키며) 너같이 교활하고 또, 너같이 어처구니없는 놈들은 소용없어. 전존재를 불살러 버리는 사랑은 나의 신념이고 용기야. 나의 전의지야, 전생명이야. 의지와 생명은 너같이 교활하거나 어릿광대도 아니다. 외부의 조건을 초월하는 모든 법칙의 모든 원리의 근원이야. 나를 누가 재판하느냐. 나를 재판하는 건 나 하나 뿐이야. 나는 무죄다.³⁹⁾

38) 김선하, 앞의 책, 20쪽.

39) 오학영, <꽃과 십자가>, 88쪽.

실존주의와 삼부작의 새로운 형식 표현 사이의 접점은 형식의 의미를 채우는 관념적 주제가 형식을 필연적으로 호명하는 것에 있다.⁴⁰⁾ 그리고 그 필연성의 토대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꽃과 십자가>에서 이상화된 상화는 “성인(聖人)”⁴¹⁾으로 인식되고 마지막 그의 깨달음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완성된다. 인용된 삼부작의 마지막 장면은 현실 차원의 법과 윤리가 기독교적 ‘죄-심판’의 구조로 치환되는 심리적 교차가 재판의 본질적 구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텍스트 제목은 교수대를 ‘십자가’로 명백히 은유하고 있으며, 처형 직전이라는 상징적 시간과 죽음을 매개로한 성인과 무죄의 결합 구조는 분명 인류 구원의 희생양인 예수(메시아)를 은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아 모티브는 반드시 사후적인 구원의 완성을 전제할 때 의미가 성립한다. 인간인 예수의 죽음 이후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는 정치사범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반드시 죄를 필요로 한다.

실존주의는 이원론적 질서 속에서 죄와 구원의 문제를 사유하는 것을 비판한다. 위고와 뮌르소의 살인은 명백히 죄의 심급을 상징하지만, 현실 원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까뮈와 사르트르의 텍스트는 인간의 죄가 정치 이데올로기와 법질서를 투과하여 존재하는 실존적 차원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주체의 의지와 무관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죄는 그들이 행한 행위에 결부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자체와 결부된 것으로,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행한 살인, 즉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도달하게 된 필연성이다.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곧 죄인 것이다. 이때의 죄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이 죄의 심급을 사유할 때, 구원을 호명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 때문이다. 당연히 이 신은 인간 실존 외부에 존재하고 죄의 심급과는 무관한 존재이다.⁴²⁾

상화의 “무죄”는 메시아적 정체성과 실존주의적 구원의 무용성이 결합된 것이다. 메시아의 죽음은 구원 완성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인간의 죽음 또한 필연적이다. 실존주의가 메시아의 죽음을 구원과 무관한 인간 실존의 형식으로 사유했다면, 오학영의 텍스트는 메시아성이 제거된 실존적 죽음을 실존적 메시아의 죽음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꽃과 십자가> 이후 발표된 <향의>(1959)는 좀 더 노골적으로 이 문제를 재현하는데, 문둥병자이면서 근친상간을 시도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지영은 원죄의 인격화와 다름없다. 기독교적 구원인 죄의 인정과 뉘우침을 주장하는 목사에게 지영은 “마귀는 목사님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어요”⁴³⁾라고 주장한다. 지영의 언술에서 전자의 경우는 현실 원리 속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40)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학영이 그리고자 했던 세계가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으로 이해될 외부 현실 세계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그가 당대 사회의 문제를 기존의 예술들이 현실을 인식하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따라서 오학영의 <닭의 의미> 삼부작은 과도기적일지라도 당대를 살고 있는 인간 내면을 통해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사실주의 양식과 차별화된다.” (이승현, 앞의 글, 73쪽.)

41) “일동 온다- 와.(설렁거린다)/수인B (목소리를 죽여서)이봐, 저게 바로 성인이면 어찌겠나./수인D 뭐라고 자네 성인이었나? 지금? /수인B 음. /일동(약간 불안한 기색이 떠돈다)” (오학영, 앞의 글, 75쪽.)

42) 이는 까뮈가 부조리, 즉 실존의식을 이야기할 때 “부조리란 신 없는 죄”라는 말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지점이다. (A. 까뮈, 앞의 책, 75쪽.)

43) 오학영, <향의>, 앞의 책, 139쪽.

하나님과 마귀의 결합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다. 이원론적 세계관이나 실존주의적 사유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 선(진리)이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이다’라는 문장은 신의 존재를 호명하면서 동시에 악의 개념을 모순적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신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오학영 텍스트의 실존적 인식 구조 그 자체를 반영한다. 그리고 상화는 <항의>가 문제시하고 있는 이 모순된 죄와 구원 문제의 해답을 상징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선생 구원은 없어요. 정의도 끝나구, 행동의 쓰디쓴 결정이 있을 뿐이야. (화가 치밀어) 선희는 죽었어요. 그녀는 아무 죄도 없었죠. 그녀는 사랑을 죽음으로 대신 받은 거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요. 구원도 아냐. 사랑을 위하여 죽은 행동이야, (김씨를 향해 돌아 앉으며) 구원이나 정의나 다 우스운 소리요. 우리가 죽게 되면 그것은 정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죠. 거부했을 뿐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⁴⁴⁾

<묘한 장난을 끝내라>(1962) 또한 삼부작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텍스트는 남북 전쟁이 발발한 시기에 공산군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이 갇혀 있는 유치장을 배경으로 한다. 상화의 처형 순간처럼 죽음이 임박한 극단적 순간 속에서 주인공 이선생은 유부남인 자신을 사랑한 제자 선희와 그녀의 희생적 죽음을 회상한다. 첨예한 정치, 사회적 배경과 유리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이야기는 죽음과 구원의 문제와 교차하면서 주체의 자유와 의지라는 절대지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선생의 정체성은 고스란히 상화와 겹치는 것이다.

이선생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김씨에게 독일군에게 저항하며 죽어간 한 순교자의 이야기를 한다. 자신들을 축복해 달라는 독일군의 요구를 거절하고 총을 맞은 주교는 죽음의 순간 “내 영혼 안에 평화가 있나니”라고 말한 것이다. 순교자에 대한 이선생의 언술은 순교자의 믿음과 구원, 그리고 의지의 논리를 통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라는 의미를 구성한다. 따라서 옆방의 총성을 듣고 공포에 질린 김씨가 이선생에게 함께 기도하자는 제안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선생은 곧 구원을 부정한다.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순교자를 호명하면서도 구원을 부정하는 이선생의 논리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적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진리가 인간 외부에 있지 않으며 전적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성취된다는 새로운 구원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선생은 선희의 죽음은 죄나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다만 자신의 결정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자신의 결정은 곧 신의 결정과 등가를 이루게 된다. 즉 텍스트는 상화와 마찬가지로 이선생을 통해 죽음에 직면한 인간에 불과한 주체가 실존적 사유를 경유하며 신격화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구원의 부정은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메시아적으로 신격화되면서 구원이 빗겨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씨 (중얼대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올 수 없으나…… (울음섞인 뉘두리 같은 음

44) 오학영, <묘한 장난을 끝내라>, 앞의 책, 105-106쪽.

성을 계속 성경을 읽는다. 여기서 읽는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끝까지)⁴⁵⁾

크리스트 걱정 말아요. 나는 이제 안정됐소. 내 죽음이 당신과 내 친구의 영원한 진리가
되길 원해요. 이것은 어떠한 인간이고 한번은 희망하는 것이요. 마리아. (이마
에 입을 대고서 돌아선다.)⁴⁶⁾

이와 같은 구조는 <악인의 집>(1958), 그리고 <유다의 음성>(1973)에서도 반복된다. 위 첫 번째 인용문은 석해가 악인의 집으로 은유되고 있는 아버지 지대인의 집을 떠난 후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할머니 정씨가 성경을 읽는 장면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포로수용소에 갇힌 미군 크리스가 같은 처지인 포로 유다의 밀고로 잡혀가는 장면이다. 석해와 크리스는 상화와 이선생과 동일한 심급을 지니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처한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메시아적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크리스를 밀고한 유다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고, 석해가 떠난 지대인의 집안은 구원의 희망을 상실한 파멸의 가정으로 묘사된다.

이들 인물이 구성하고 있는 실존의식과 메시아적 상징의 모순성은 여성 인물의 존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각 텍스트에서는 아란과 유사한 여성 인물들이 모두 존재하는데, 이들은 언제나 순수하고 무고하며 대부분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는 오학영 희곡에서 메시아는 실존적 의식을 경유하며 재구성되는 것인데 이때 여성인물들의 죽음과 파멸, 희생이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인공들은 절대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고 이상적인 주체로 거듭난다. 즉 그들에게 인간의 실존적 의미는 곧 사랑이고, 역으로 그 사랑이 곧 실존의식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혹은 도약적 변화를 위해서 텍스트는 사랑의 대상인 여성의 죽음과 파멸을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그 자체로 실존적 부조리성을 재현할 수 있다. 실존주의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음과 메시아적 주체의 탄생이라는 도약적 구도의 반복은 주체-타자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죽음을 명백히 타자화시킨다. 가령 상화는 자신의 깨달음이 자신의 실존적 고뇌와 투쟁을 통해 도달한 것처럼 인식하고 묘사하지만, 그것은 아란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희생이 <묘한 장난을 끝내라>에서는 아란에 대응하는 선희가 스스로가 선택한 희생으로 대체되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결국 이선생의 메시아적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희생적 선희의 죽음이 다시 타자화되는 것에는 동일하다. 실존주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 자체를 해체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대타-존재를 ‘소유’의 형태로 체험한다”⁴⁷⁾는 사실을 인정한다. 타자의 존재가 곧 나를 존재시킨다. 따라서 사랑을 매개로 한 두 사람의 연쇄적인 죽음이 실존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학영의 텍스트는 이 죽음을 목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모순을 보이게 된다.

45) 오학영, <악인의 집>, 위의 책, 332쪽.

46) 오학영, <유다의 음성>, 위의 책, 178쪽.

47)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Ⅱ』, 정소성 옮김, 동서문화사, 2016, 595쪽.

5. 결론

실존주의적 사유는 기본적으로 나르시스적이다. 까뮈와 사르트르, 오학영의 세 텍스트는 모두 주체의 내적 인식이 현실적 세계를 장악하면서 인간 실존과 결부된 죄, 죽음, 구원, 자유, 선택 등등과 같은 문제들을 고민한다. 또한 그 실존 문제들은 그 묘사적 방식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현실 문제와 무조건 괴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⁴⁸⁾ 따라서 문제는 실존주의 희곡, 혹은 실존주의 계열의 희곡인 오학영의 텍스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구조로 실존 의식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이다.

실존주의를 서구적 장르로 인정하는 전제 속에서 실존주의 극은 그 자체로 과도기적 형식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때 삼부작의 ‘과도기성’은 불완전이나 미성숙의 부정적 의미의 지층에서 매우 미묘하게 미끄러지게 된다. 더군다나 오학영은 1950년대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유사한 주제와 형식의 텍스트를 생산해갔다. 결국 실존주의와의 상관성 속에서 남게 되는 텍스트의 본질은 텍스트를 둘러싼 총체적 사태를 담아내고 있는 텍스트 그 자체의 정체성, 즉 텍스트 내적 구조의 의미와 한계이다.

오학영 텍스트의 내적 구조가 담아내고 있는 실존 의식들은 서구의 실존주의 의식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극이 진행됨에 따라 텍스트는 차이를 드러낸다. 즉 텍스트를 그 자체로 본다고 할 때, 그 자체에는 시간의 문제가 개입된다. 이는 오학영 삼부작의 본질을 해석하기 위해 개입시킨 생산적 계보의 시간문제와도 동일한 구조이다. 특정한 시대의 텍스트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시간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 정체성과 시간의 관계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후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새롭게 혹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상대주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간을 전제하되 “시간 밖의 항구적 지속성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의 조건”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⁴⁹⁾

지금까지 오학영의 삼부작을 1950년대라는 한 역사적 지층과 문학사적 계보 속에서 이해해 왔지만, 이때 개입시킨 시간은 서구의 기원적이고 정전적인 텍스트와 관념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고정 시킨 것이었다. 우리의 시간이 변화하고 흐르듯이 기원지와 정전적 텍스트의 시간 또한 함께 흐르고 변화한다. 수용과 영향 관계 속에서 정전화나 기원에 대한 고정은 이미 그 해석의 시작에서부터 차별적인 시간의 개입을 반영한다. 즉 기원지에서의 실존주의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내포되어 있는 동일성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며, 오학영의 텍스트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오학영의 텍스트를 해석할 때 전자는 절대적

48) 이에 관해서 존재하는 실존주의에 대한 논쟁적 대립은 그 어느 쪽이 옳거나 틀렸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주의적 관념체계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비판에 대해 명백한 반론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실존주의가 현실과 괴리되었거나 개인의 나르시스적 문제에 무조건 종속시킬 순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진영, 「전후 한국문학의 실존주의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156-157쪽 참조.)

49) 김선하, 앞의 책, 144-145쪽.

인 것이며 후자는 그 절대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한편 오학영의 텍스트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관점에 대한 비판적 구조를 보여준다. 명백히 오학영의 텍스트는 절대지를 텍스트 속에서 스스로 구성하고 결정하고 있다. 실존주의와의 상관성 속에서 오학영 텍스트의 ‘저항’은 실존적 지층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실존주의 담론에 내포된 관점의 교차와 어긋남을 함께 아우른다. 오학영 텍스트가 단순히 서구의 실존주의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용하고 모방하며 완성적으로 구현했다면, 이러한 의미는 결코 구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학영 텍스트의 모순성은 텍스트의 내적 구조가 구성하고 있는 자유와 의지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실존주의적 장르성을 충만하게 관통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텍스트 정체성을 보여준다.

주체의 관점에서 오학영의 텍스트는 분명 한계를 보인다. 주체의 확실성은 반드시 타자화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실존주의에서 ‘나-너’의 인간관계에 기반한 사랑의 실존은 대등한 것으로 존재한다. 실존주의에서 주체와 타자와의 관계를 데카르트적 주체의 확실성에 대한 끝없는 회의의 반복으로 이해할 때,⁵⁰⁾ 그것은 주체와 타자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되지도 못하고 지속되는 실존적 관계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학영의 텍스트는 ‘그 출발점을 끊임없이 비우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자기 확실성을 찾는다.’⁵¹⁾ 오학영 텍스트에서의 주체는 충만한 실존주의적 구조 속에 존재하는 명백한 역사주의적 주체인 것이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전제는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오학영 텍스트의 내적 구조 사이의 상호성을 고려할 때이다.⁵²⁾ 텍스트가 불러일으키는 미묘한 불쾌함은 한국의 현실과 그 역사적 문제가 오학영의 실존주의 텍스트의 내적 구조에 나란히 겹쳐질 때-실존주의가 대유행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 적용하지만 원전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없이 미끄러지는 것의 실존성-부상하게 되는 진실에 대한 순간적 응시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학영의 텍스트는 실존주의와의 상관성 속에서 실존주의를 전제할 때 모순성을 보여주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상황과 그 역사성 속에서 그 모순성은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그야말로 ‘모순적인 텍스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끄러짐과 모순이 바로 실존주의 극 혹은 실존주의 계열의 희곡으로 정의되는 삼부작과 오학영 텍스트의 정체성이자 그 가치와 한계가 될 것이다.

50) 리코르는 데카르트적 코기토는 지속적으로 자체의 확실성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은폐되어져 있는 코기토는 순간순간 회의의 산에 자신의 확실성의 바위를 다시 올리도록 선고된 시지프스라고 말한다. (위의 책, 23쪽.)

51) 김선하에 의하면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의 의식은 그 “출발점을 끊임없이 비우고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 확실성을 찾는 운동이다.” (위의 책, 59쪽.)

52) 조가경은 1950년대 한국 실존주의를 양가적인 태도로 바라본다. 실존주의의 유행과 그 비판적 쟁점에는 실존철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으로부터 ‘주체성의 반성과 그 확립’이라는 당대의 과제를 내포한 의지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실존철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작업 자체의 문제도 물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나종석, 「1950년대 한국철학계에서의 실존주의-박종홍과 조가경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제20집,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0, 10~11쪽.) 조가경의 논의를 참조할 때 오학영 텍스트의 모순성은 이와 같은 실존주의에 대한 양가적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즉 오학영 텍스트의 모순성은 실존주의와 결부되어 존재했던 당대의 역사적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오학영, 『꽃과 十字架』, 현대문학사, 1976.

『경향신문』, 『藝術界』

단행본 및 논문

A. 카뮈, 『시지프의 신화』, 이정림 옮김, 범우사, 1999.

A. 카뮈, 『이방인·페스트』, 송진희 옮김, 해원출판사, 2001.

Arnold P. Hnchcliffe, 『부조리문학』, 황동규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J.L.스타이언,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부조리 연극』, 원재길 옮김, 예하, 1992.

고봉준 외, 『문예사조』, 시학, 2007.

김미도, 『한국 현대극 연구』, 연극과인간, 2001.

김선하, 『리코르의 주체와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2007.

마틴 에슬린, 『부조리극』, 김미혜 옮김, 한길사, 2005.

마틸다 라마디에·아나이스 드포미에, 『장폴 사르트르-자유로운 실존과 글쓰기를 위해 살다』, 임미경 옮김, 작은길, 2015.

민족문학사 연구소 희곡분과, 『1950년대 희곡 연구』, 새미, 1998.

사르트르, 『더러운 손』, 최성민 옮김, 서문당, 1996.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Ⅱ』, 정소성 옮김, 동서문화사, 2016.

이어령, 『저항의 문학』, 경지사, 1959.

나종석, 「1950년대 한국철학계에서의 실존주의-박종홍과 조가경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제 20호,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0.

나종석, 「1950년대 한국에서의 실존주의 논쟁과 사회비평의 가능성-최일수의 ‘민족적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가톨릭철학』제16호, 한국가톨릭철학회, 2011.

박명진, 「1950년대 전후 희곡에 나타난 실존주의 양상-오학영과 장용학의 희곡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제39집, 우리문학회, 2013.

오영미, 「1950년대 후반기 한국희곡의 變移樣相」, 『한국극예술연구』2집, 한국극예술학회, 1992.

이승현, 「<닭의 의미> 삼부작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형식 실험의 상관성 연구」, 『한국극예술연구』제49집, 한국극예술학회, 2015.

이여진, 「오학영 ‘삼부작’의 다성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진영, 「전후 한국문학의 실존주의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제4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5.

<오학영 희곡 텍스트의 모순성 연구> 토론문

이승현(경북대)

흥미로운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오학영의 <닭의 의미> 3부작, <닭의 의미>(1957), <생명은 합창처럼>(1958), <꽃과 십자가>(1958)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눈에 띄었습니다. <닭의 의미> 3부작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세계관의 차원에서 당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거나 형식적인 차원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논의는 오학영의 텍스트를 작품 자체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비해 이 논문은 오학영의 텍스트를 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에 대해 크게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을 묻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실존주의극에 대한 규정 문제

이 논문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2장에서 실존주의극 자체가 가지는 모순성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논의가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마틴 에슬린의 논의를 통해 실존주의극의 특징을 밝히고 있기에 오학영의 작품이 가진 모순성을 설명하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닭의 의미> 3부작을 실존주의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논리적 분석 없이 오학영의 작품을 실존주의로 규명하는 입장은 자칫 이 논문이 재고하고자 했던 기존 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박명진이 기존에 실존주의 희곡으로 이해되던 작품을 '실존주의적 경향의 희곡'으로 명명하는 방식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서구 실존주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텍스트인 데도 <닭의 의미> 3부작을 실존주의극으로 선언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 실존주의 개념 적용과 분석의 문제

<닭의 의미> 3부작을 실존주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2장에서 말하는 장르가 무엇인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순적이고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보이는 '장르'가 실존주의인지 실존주의극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장은 마틴 에슬린의 논의를 중심으로 실존주의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1950년대 한국에 대한 상황은 최일수와 이어령의 실존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대비됩니다. 최일수와 이어령에 대한 논의가 실존주의라는 서구의 철학사상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존주의극과 실존주의를 구별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실제 한국문학에서도 소설 장르의 경우 장용학이나 오상원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은 실존주의 소설로 규정하며 그 성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1950년대 한국에서 실존주의와 실존주의극에 대한 논의와 그 영향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3장과도 연관됩니다. 3장에서는 1950년대 한국 실존주의 경향과 오학영 텍

스트에 대해 이미 사르트르와 까뮈의 차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순수한 텍스트 내적 구조와 해석적 관점의 어긋남, 즉 미끄러짐의 구조”(7쪽)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 사르트르와 까뮈 그리고 오학영에 대한 구별이 특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르트르와 까뮈로 묶이는 서구 실존주의와 오학영이라는 개별 작가의 특징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학영의 ‘저항’이 가지는 차별성(혹은 모순성)이 특별히 사르트르와 까뮈에 대한 구별로 설명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면 이러한 설명 방식은 기존의 논의처럼 서구 실존주의를 기준으로 오학영 작품의 특징을 구별하는 동시에 오학영 작품에서 저항의 의미와 그 모순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 1950년대 연극적 상황에 대한 고민의 문제

이 글에서 아쉬운 점은 1950년대 상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서술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합니다. “실상 1950년대 한국 사회에 실존주의가 상륙했을 때에는 부조리극과 같은 극단적 형식과 내용의 상관관계가 전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실적으로 그 이후에 전개되는 본격적인 비사실주의 극조차 서구의 극단적 부조리극과 비교할 때 완전한 형식적 해체성에 도달했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4쪽) 이 서술에 따르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부조리극을 잘 수용했는지도 알 수 없기에 1950년대 실험적인 연극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도 가능하지만, 오학영의 텍스트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당대 연극적 상황에 이해가 가미되어야 전반적인 논의의 의미가 배가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도 언급했지만, 실존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설 장르의 성과는 희곡 및 연극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실존주의라는 철학사상의 수용이 연극과 연결되는 맥락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소련 고려인 시에 대한 고찰 -〈先鋒〉에 수록된 시를 중심으로-

김낙현(중앙대)

차례

1. 서론
2. 시 장르가 성행한 이유와 그 내용
3. 고려인 시의 형식상의 특징
4. 결론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先鋒〉 신문에 수록된 고려인 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고려인 문학에서 시가 갖는 의의와 그 내용 그리고 형식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 있다.

〈선봉〉신문(1923~1937)은 연해주 시절 구소련권 고려인들의 삶을 대변하고 문학을 형성, 발전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고려인들의 유일한 한글 신문이었다. 〈선봉〉은 1923년 3월 1일 연해주에서 조선의 3.1운동을 기념하여 창간된 신문으로서, 처음의 명칭은 〈三月一〉이었는데, 4호부터 〈선봉〉으로 개칭되었다.¹⁾ 1937년 강제이주 후인 1938년부터 1991년까지 〈레닌기치〉로 개명되었다가 다시 현재까지 〈고려일보〉로 제호가 변경되어 구소련권 고려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선봉〉신문이 본격적으로 고려인들의 문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1927년 ‘독자 문예란’을 만들면서부터이며, 〈선봉〉신문에는 1세대 고려인 문인들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어, 고려인 문학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선봉〉신문이 처음에 조선의 3.1운동을 기념하여 발간되었던 사실은 그만큼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뿌리인 조선의 현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인 문학은 디아스포라 문학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당시 소련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소련문학의 한 갈래로서 성장하는 특수성을 보였다.

고려인 문학에 관한 연구는 구소련이 붕괴된 1980년대 말부터 서서히 연구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비교적 많은 연구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려인 문학이 싹트고 발전한 토대가 된 연해주 시절 〈선봉〉에 수록된 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겠다. 특히,

1) 선봉신문 편집부, 「선봉 신문의 역사와 임무」, 〈선봉〉, 1928년 4월 20일.

고려인 시의 형식상의 특징은 아직까지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본고는 이런 사실을 염두해두고 <선봉>에 수록된 고려인 시의 현황과 그 내용 그리고 형식상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선봉>에 수록된 고려인 시에서 드러난 형식상의 특징은 그대로 1937년 강제이주 후에도 고려인 시에서 그대로 재현되기에 <선봉>에 수록된 시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우선, <선봉> 신문에 수록된 시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하고 시 장르가 성행한 이유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고려인 시의 형식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의 자료는 우정권이 간행한 『조명희와 『선봉』』(역락, 2005)²⁾과 필자가 새롭게 찾아낸 13편의 시³⁾를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2. 시 장르가 성행한 이유와 그 내용

우선, <선봉> 신문에 수록된 고려인 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정권의 책에는 포석 조명희의 시 8편과 그 외 59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어 총 67편의 시가 있다. 또한, 필자가 찾아낸 시는 13편이다. 이들 모두 합쳐서 80편의 시가 연해주 시절 <선봉> 신문에 수록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된다. 물론, <선봉> 신문에 발표된 시가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지나, 마이크로필름을 하나하나 검토해보아야 하고 그나마 어떤 해에는 마이크로필름마저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선봉> 신문에 수록된 시를 파악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선봉>에는 시, 소설, 동화, 평론 등의 고려인 문학 작품이 실려 있는데, 시 장르가 압도적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설과 평론은 극히 작품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⁴⁾ 그렇다면 왜 시 장르가 압도적으로 많이 성행했는가. 이에 대한 검토로 우선 다음과 같은 글을 살펴보자.

일반, 군중의 이데야를 건전하게 하며 감정을 음축이는데 있어서 놀애가 다른것보담도, 또한 다른 문예 작품보담도 보편화하기가 더 험하고 힘있는 것이므로, 이같이 큰 의의가 있는 놀애들의 생산과 까드르들을 조직, 지도하기 위하여 조선인 작가 그루빠의 기타 문화기관에서도 힘을 내려니와, 첫째로 이것을 조직, 지도할만한 상부기관의 주의와 힘을 돌리어 주어야 하겠다.⁵⁾

위의 글은 고려인 문학의 선구자요 개척자로 평가받는 抱石 趙明熙의 글이다. 윗글에서 조명희는 군중의 이데올로기를 건전하게 하며 감정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것이 노래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효과적임을 역설하고 있다. 노래(시)는 작품을 창작하기에 보편화하기 쉽고 힘 있

2) 이 책에는 고려인 문학의 선구자요 개척자인 포석 조명희의 작품과 선봉에 수록된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물론, 선봉에 발표된 고려인 시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봉에 수록된 고려인 문학 작품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자료이다.

3) 필자가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새롭게 찾아낸 고려인 시는 다음과 같다. 김화선의 「붉은 아장」(1932)과 「어부가」(1934), 「승리의 깃발이 날리는 따푸인」(1934), 조기천의 「공격대원에게」(1931)과 「야외연습」(1932), 리춘백의 「공산청년」, 전동혁의 「고기를 위한 투쟁으로루!」(1933), 태장춘의 「매장하자」(1934), 김해운의 「우다르니크」(1934), 한 아나톨리의 「십월은 해마다」(1934)와 「1000」(1934), 「뜨락 또리스트의 놀애」(1934), 「두 소원」(연대미상) 등이다.

4) 특히, 소설은 현재까지 선봉에 발표된 것으로 2편 밖에 없고 동화 1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작품은 정철의 「광부의 가정」(1935), 강태수의 「공청회 조직원」(1937) 등이고, 동화는 오동파의 「개구리와 종달새」(1935)가 있다.

5) 조명희, 「조선의 놀애를 개혁하자(2)」, <선봉>, 1935년 8월 3일.

는 전달 매체이므로 큰 의의가 있는 노래(시)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윗글에서 조명희가 “군중의 이데야를 건전하게 하며 감정을 음죽이는데”라는 언급은 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군중들을 교양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장르임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시는 군중들을 교양시키고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이다. 당시 <선봉> 신문의 주요한 임무가 고려인들의 계급적 사상의 고취, 도시와 농촌의 혁명적 건설에 대한 지도, 고려인들이 사회주의 혁명 건설에 용감한 투사가 되도록 교양하는 것, 고려인들에게 혁명적 건설과 훈련, 교양 등의 모범을 소개하고 고취⁶⁾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고려인 시의 역할과 시가 성행한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는 소설에 비해 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고, 보다 더 빠르고 쉽게 군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에 시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을 떠나 타국인 구소련에서 전개된 디아스포라(diaspora) 고려인 문학은 필연적으로 당시 구소련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배경에 따라 발전할 수밖에 없는 소련문학의 한 갈래였다. 연해주 시절 고려인 문학이 형성되고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는 바로 소련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한창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때였다. 즉 1930~40년대 소련문학의 기본적인 주제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전쟁 이후의 파괴된 국가 재건이었다.⁷⁾ 소련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928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단행하여 여러 방면에서 국가의 기틀을 다져간다. 이 과정에서 문학은 대중들에게 새로운 국가건설을 알리고 그들을 새 국가건설에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등장하게 된다. 말하자면 북한문학 형성기에 북한이 소위 ‘민주개혁’을 단행하고 새 국가건설에 박차를 가할 때, 문학이 대중들을 새 국가건설에 동원시키고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는 교양의 역할을 담당했듯이, <先鋒>에 발표된 시는 이러한 대중들을 교양시키기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장르였기에 시 장르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선봉>에 수록된 시 중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계급투쟁을 형상화한 계열의 작품⁸⁾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시의 역할을 중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가 성행했던 이유는 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배경이다. 소설 창작은 시 창작에 비해 인물, 배경, 사건을 기본으로 한 플롯을 필요로 하고 전문적인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물론, 시 장르도 상징이나 이미지, 운율 등 전문성을 요하나, 고려인 문학이 형성되고 발전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시의 전문적인 속성이 필요 없는 때였다. 당시 고려인들은 구소련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그것을 잘 전달하고 대중들을 교양시키는 시만 필요할 뿐이었지 전문적인 속성을 필요로 하는 순수시는 창작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선봉>에 수록된 시는 몇 편의 시를 제외하고 순수시가 아닌 목적문학의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말하고자 하는 전달 동기가 중시된 시이기에 특별히 시적 기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를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한 바를 쉽고 빠르게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고려인 시는 경직성과 투박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해주 시절 <선봉>을 중심으로 고려인 문학이 처음 형성된 때에는 전문적인 문인이 없는 상황이었다. 고려인 문학이 전문적인 문인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에는 포석 조명희의 역할이 있었다. “조명희 동무를 해삼시에 오게 하면서 전문적

6) 선봉신문 편집부, 「선봉 신문의 략사와 임무」, <선봉>, 1928년 4월 20일.

7) 김규진 편(2003), 『러시아문학 입문』, 월인, 200~202쪽 참조.

8) <선봉>에 수록된 시 중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계급투쟁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은 조명희의 「녀자공격대」(1931), 「맹서하고 나서자」(1934), 조기천의 「야외연습」(1932), 허성록의 「파종의 봄」(1934), 한아나톨리의 「뜨락또리스트의 노래」(1934) 등이 있다.

문에 창작 사업을 시키겠습니다”⁹⁾라고 당시 <선봉> 신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조명희가 직접적으로 <선봉> 신문에 뛰어들어 문예 페이지를 만들면서부터 고려인 문학은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듯 고려인 문학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문 문인의 부재는 소설에 비해 창작이 용이한 시 장르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선봉>에 수록된 시의 내용은 조명희의 「짓밟힌 고려」(1928)와 「‘오일’ 시위운동장에 서」(1935), 그리고 「까드리여, 너이의 짐이 크다!」(1935), 김준의 「조선에 준다」(1930), 시량의 「조선은 어대로 가느냐」(1931), 전동혁의 「삼월 일일」(1936) 등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조선의 민족해방을 노래한 작품이 있고, 마청의 「오일의 노래」(1929), 남진의 「타국 전선의 용사들」(1933), 한 아나톨리의 「프락토리스트의 노래」(1934), 정철의 「광부의 노래」(1935) 등과 같은 사회주의 건설과 계급투쟁을 노래한 작품이 있다. 또한, 조국으로서의 소비에트 찬양을 노래한 작품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조명희의 「십월의 노래」(1930), 태장춘의 「리춘백에게」(1934), 자강의 「튼튼히 지키자」(1934) 등이 있다.¹⁰⁾

이상과 같은 시는 모두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한 강한 목적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소련문학의 한 갈래로 성장, 발전한 고려인 문학은 재래의 전통적인 순수시가 창작될 수 없었고, 개인의 고유한 정서나 감정 표출보다는 집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를 창작하였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확인하게 해준다.

반(反)혁명적인 상징적(象徴的) 문예작가
-리호연의 사상을 폭로하자-

혁명을 저주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자괴 현실을 비판하며, 원동 고려인 예술을 예술 생명주의자들의 리론화(理論化), 예술화식이라는 반무산 계급의 상징적 문예 작가-리호연(국제사범대학생)의 작품들을 해부하면서 계급적 대담-볼셰비키의 투쟁적 비판을 주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리호연이라는 자본가의 반렬이다. 자본 국가에서(조선인지 어딘지는 몰으나) 상당히 환락적(歡樂的) 생활을 맛 본 사람이다. 이 사상을 발표한 그의 작품을 보면

오늘 이곳에 이 몸

오늘이 이러한 날인 줄을/ 내 정말 몰랐노라/ 이곳이 이러한 곳인 줄을/ 내 정말 몰랐노라./ (중략)//

어제가 좋은 시절이라고/ 인습이 나를 ×인다./ 저곳이 평안하다고/ 고집 나를 당긴다.

보라! 이것은 넷날 자괴의 환락, 소위 행복의 괴역, 또는 그 모든 인습이 리호연의 가슴에 공상(空想)을 한없이 날구어 줄 때 로력의 나라, 누어서 평안히 지낼 수 없는 쏘베트 국가 안에서의 자괴의 현실(現實)을 한없이 마마우는 그에게서는 다시 없는 비명(悲鳴)이다. 이 절편의 시적 표현이 그의 계급적 성분을 말한 것이며 그의 생활의 넷날 그림을 내어놓은 것이다. (중략) 이제 결론으로 쓰려는 것은 리호연이는 반-무산 계급적 문예 작가로 일방으로는 원동에서의 고려인 문예운동을 약화하려는(문예 표현적 방법, 형식까지) 경향으로 유심주의만 철학적, 방랑적, 애상적(哀傷的) 기분으로 우리 문예의 정신을 마비시키려 하였으며, 또는 상징적인 자괴 작품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저주, 회방하는 시험을 주관적 목적으로 하였다.¹¹⁾

9) 동철, 「우리변강에 대한 문예를 날자」, <선봉>, 1936년 5월30일.

10) 이상의 내용은 김낙현의 「<先鋒>에 수록된 고려인 시의 전개양상」(『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272~285쪽을 참조하였음.

위의 글은 <선봉>에 실렸던 글로서 당시 고려인들의 문학 작품의 창작 방향과 어긋난 작품을 가멸차게 비판한 글이다. 비판의 요지는 상징적인 시를 써서 문학을 예술지상주의화 했으며, 계급적 투쟁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무산 계급의 성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는 유심주의만 강조하는 철학적, 방랑적, 애상적인 작품으로서, 고려인들의 문예 정신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를 저주하려는 의도로 창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윗글에서 제시된 시는 당시 고려인들의 시 창작방법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이 이러한 날일 줄을/ 내 정말 몰랐노라/ 이곳이 이러한 곳인 줄을/ 내 정말 몰랐노라”라는 위의 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서만 드러낸 것이며, 당시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도 아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논자가 비판하고 있듯이 오늘의 현실 즉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계급투쟁의 현실을 시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이 이러한 날일 줄을/ 내 정말 몰랐노라/ 이곳이 이러한 곳인 줄을/ 내 정말 몰랐노라”라는 시의 내용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작방법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볼 때, 인용된 위의 시는 눈 앞에 펼쳐진 사회주의 건설의 현장을 그리고 이를 예찬하며 격려하고 독려하는 내용이 아닌 퇴폐적인 낭만주의적 경향을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논자는 위의 시를 유심주의로 가득찬 철학적, 방랑적, 애상적인 작품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先鋒>에 수록된 고려인들의 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근간으로 한 목적성이 분명한 작품이며, 그 내용은 다수의 작품이 사회주의 건설과 계급투쟁을 그린 시이다. 아울러 주목되는 점은 자신들의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았으나, 자신들의 뿌리인 조선의 식민지 현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조선의 민족해방을 꾀한 시를 창작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강제이주 전 연해주 시절 <선봉> 신문에 수록된 시는 강제이주 이후의 시와는 달리 민족적 색채가 강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¹²⁾

3. 고려인 시의 형식상의 특징

조명희가 첫 시 「짓밟힌 고려」(1928)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산문시 혹은 단편서사시가 창작되었다.

1) 정형시

정형시는 총 7편으로서 대부분 정형시는 1930년대 이전에 창작된 시이다. 고려인들은 엄격한 정형률(외형률)을 배격하고 시를 창작함.

11) 「반(反)혁명적인 상징적(象徴的) 문예작가-리호연의 사상을 폭로하자」, <선봉>, 1932. 6. 1.

12)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대소련 동화정책에 의해서 일상생활이나 그들의 작품에서 ‘민족’이나 ‘조국’, ‘조선’, ‘연해주’, ‘고향’ 등의 말들은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강제이주 후 고려인들은 의식적으로 ‘조선’이나 ‘연해주’ 등을 망각하고 생존적 차원에서 소련에 동화하는 작품들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 자유시

자유시는 총 50편.

3) 산문시(장시) 혹은 단편서사시

산문시(장시) 혹은 단편서사시는 총 19편.

고려인 시에서는 당시 조선문단과는 달리 산문시 혹은 단편서사시가 매우 많이 창작되었다.

4) 장편서사시

장편서사시는 총 3편이다. 장편서사시 역시 당시 조선문단과는 달리 고려인 시에서 성행한 시 형식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소련문학의 직접적인 자장 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소련의 혁명시인인 마야코프스키 시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4. 결론

<구소련 고려인 시에 대한 고찰 -〈先鋒〉에 수록된 시를 중심으로-> 토론문

안상원(부산외국어대학교)

이 논문은 신문 <선봉>에 수록된 고려인 시의 고찰을 논의한 것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선봉>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 특히 연해주 시절 고려인 시 형식을 간직하고 있음을 다룬다는 점, 연구자 선생님께서 발견한 시 13편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하겠습니다. 연구의 완성을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하려 합니다.

선생님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선봉>의 탄생 배경은 상당히 전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는데요. 첫째는 독자의 이데아를 건전하게 자극하여 볼셰비키에서 주장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전쟁 이후의 파괴된 국가 재건’을 이룩하는 것, 둘째는 ‘자신들의 뿌리인 조선의 식민지 현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 조선의 민족해방을 꾀한 시를 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편집부에서 포석을 모셔왔다는 지적, 체제를 따르지 않은 리호연의 시를 비판한 것 등을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1. <선봉> 전체의 방향이 시 장르뿐 아니라 타 장르에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곡이나 소설, 평론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집부의 목소리도 등장했을 것이고, 전체 장르의 성향이 비슷했다면 <선봉>의 목적과 방향이 상당히 뚜렷하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리호연’의 시를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평론이 실린 것을 근거로 <선봉>의 색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리호연’의 ‘개인의 정서나 감정 표출’을 다루는 시가 실릴 수 있고, 분명 그것을 선호했을 독자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봉>이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재건 및 민족해방을 이야기하지만 내적으로는 균열되는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3. 2장에서 민족적 색채가 강한 경우의 작품은 본문에 따로 등장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진 인상이 듭니다. 러시아 문학의 한 갈래로서 연해주 문학을 받아들임에도, 고려인의 ‘민족’적 정서가 달랐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있는 지점인지라, 이에 해당하는 작품과 선생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4. 3장에서는 <선봉>에 수록된 고려인 시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해당하는 대표작품들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단편서사시’와 ‘장편서사시’를 구분하시면서, 장편서사시를 혁명시인인 마야코프스키 시의 영향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상의 영향점은 어떤 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선문단의 장편서사시와의 형식이나 내용상의 구분점도 알고 싶습니다.

간힘과 떠돌, 소통의 서사 미학

- 송영문학론 -

손혜숙(한남대)

<목 차>

1. 다시, 송영
2. 욕망하는 주체, 간힘 자아의 실존 의식
3. 유랑하는 존재, 유령 같은 존재
4. 소통의 (불)가능성, 날 것 그대로의 인정
5. 산책, 정체성 찾기의 여정
6. 인간의 위엄과 고결한 정신을 지켜내는 일, 문학

1. 다시, 송영

송영은 1967년 『창작과 비평』을 통해 단편 〈투계〉로 등단한 이래 2016년 작고하기 전까지 반평생을 오롯이 문학인의 길을 걸어 왔지만,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작고했다. 등단 당시 대표적인 문예지였던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양쪽의 관심을 받으며 부상했던 것과 달리 1970년대 중반 대중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문단의 관심보다는 대중의 관심과 가까워졌다. 작가로서 나름의 문학적 신념과 방향성이 있었겠지만, 당대 문단의 관행은 이를 포용하지 않았다. 즉 그의 소설은 본격소설에서 멀어져 중간소설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 또한 소홀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소위 ‘잘 팔린’ 소설에 가려져 그와 같은 시기에 나란히, 그리고 꾸준히 창작된 본격 소설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 모든 문학이 그렇듯이 그 역시 문학을 통해 인간 세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시대사적인 화두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대사적 변화와 함께 가고 있는 그의 문학적 특징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송영 문학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영은 1940년 전남 영광에서 8남 3녀 중 다섯 째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아버지와 많은 형제들 탓에 힘겨운 유년을 보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셋째 형이 광주로 가던 중 빨치산에게 목숨을 잃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마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면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유년시절을 보냈다. 집안이 넉넉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은둔생활을 했던 연산에서의 삶은 그의 작품 〈투계〉, 〈염산의 은빛 종탑〉 등에 고스라니 투영되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울 금호동의 산동네에 정착한 송영은 홀로 입시 준비를 하여 1959년 한국외국어대학 독일어과에 진학하게 된다. 1963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해병대 장교로 입대한 송영은 군대에서 부당한 폭력에 시달리다 장교 후보생 훈련 도중 탈영을 하여 7년여 간의 부랑생활을 한다. 당시의 탈영과 부랑생활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하는데, 이때부터 그는 인간 사회의 부당한 폭력 문제와 ‘자유’에 천착하기 시작한다. 소설 〈선생과 황태자〉, 〈계절〉, 〈부랑일기〉를 비롯해 많은 작품 속에서 당시의 경험과 사유가 전유되곤 한다. 이웃집 다락방에서의 은둔 생활을 비롯해 미술학원 강사, 여관 심부름꾼 등을 전전하던 송영은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거쳐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

다 결국 연행되어 군 사령부 교도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1967년 『창작과 비평』에서 당선된 〈투계〉라는 작품을 읽었던 법무 장교의 호의로 몇 달 만에 풀려나게 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이어 나간다. 〈중앙선 기차〉(창작과 비평, 1971), 〈미화작업〉(문학과지성, 1973), 〈계절〉(세대, 1973)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1974년에는 자유실천문인협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반폭력 대열에 나서기도 했다.

송영은 창작 활동과 함께 작가적 삶의 영역에서도 소통과 연대의 미학을 몸소 실천해 보았다. 신문 연재소설을 통한 독자와의 거리 좁히기가 그것인데, 1975년 『조선일보』에 〈그대 눈 뜨리〉를 연재하면서 그의 대중과의 소통은 시작된다. 그가 천착했던 인간과 현실에 관한 문제를 〈북소리〉(문예중앙, 1978), 〈지붕 위의 사진사〉(세계문학, 1980), 〈친구〉(현대문학, 1986), 〈비탈길 저 끝 방〉(창작과비평, 1988) 등의 본격소설로 발표하기도 하고 동시에 대중소설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내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스와핑, 원조교제, 실험 부부의 등의 애정 풍속도와 모럴 문제를 다룬 〈망콩껍질 속의 연가〉는 세간의 인기를 얻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뒤이어 영화와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흥행의 가도를 달렸으며 오늘날까지 송영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문학이 소수의 지식인이나 문학인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면서 홀대받아온 대중소설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가속화 속에서 가난에서 탈출한 대중들의 취미활동을 타고 전성기를 맞았다. 송영 역시 이러한 대중들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한 것인데, 문학이 독자를 전제하는 글쓰기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송영의 신문연재 소설 쓰기는 소통의 실천적 행위라 볼 수 있다. 이후 송영은 1987년 단편 〈친구〉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1990년에는 〈중앙선 기차〉와 〈북소리〉 등이 중국 소설 전문지 『소설문예』에 번역·소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의 많은 소설들이 외국에 번역 소개되기 시작한다.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중편 〈浮浪日記〉를 비롯하여 〈계단에서〉, 〈삼총집 이야기〉, 〈친구〉, 〈계절〉 등의 작품이 『Metamorphoses』(2003), 『US Pen Journal』(2005), 『Chelsea』(2006), 『Literary Review』(2006) 등의 미국 우수 문학 계간지에 소개되었고, 2008년에는 영역본과 원작의 합본 소설집 『부랑일기 Diary Of A Vagabond』를 출간하였다. 그의 작품이 국외로 시장을 넓혀 소개된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문학적 공간 또한 국외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0년대 후반 국제화, 개방화 바람과 함께 송영 역시 해외 방문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의 작품 역시 해외로 공간을 옮겨 여로형 소설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발로자를 위하여』(창작과비평사, 2003), 『새벽의 만찬』(문학수첩, 2005)을 비롯하여, 그의 유고소설집 『나는 왜 니나 그리고르브나의 무덤을 찾아갔나』(문학세계사, 2018)는 그가 말년까지 꾸준하게 창작 활동에 임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송영은 50여 년 동안 꾸준히 창작 활동에만 집중해 왔지만, 그의 문학세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작품 해설과 서평에 머물러 있던 연구는 근자에 와서 조금씩 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역시도 초기의 소설들에만 집중되어 있다.¹⁾ ‘열림과 닫

1) 최근에 진행된 송영의 문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는 이선영, 「가두는 세계와 열어내는 문학- 송영의 『선생과 황태자』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31집, 우리문학회, 2010; 모영철, 「송영 소설의 공간성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박수현, 저항과 투항- 송영의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짜·사기·도둑의 의미와 그 한계」, 『한국문학회론과 비평』59집, 한국문학회론과 비평학회, 2013; 박수현, 「폭력의 기원과 공권력의 구조-1970년대 송영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5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서보호, 「군대소설과 규율의 수사학적 양상 연구: 1960-7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2015; 윤애경, 「송영 소설에 나타난 폭력과 주체의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6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이명재, 「감힌 자아의 열린 세계 지향」, 『금요문학 마당: 그림습니다. 송영』 발표문, 2019의 논의가 있다.

힘’, ‘이데올로기의 폭력과 저항’, ‘인간 실존’ 등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송영의 문학을 명명하고 있는 언어들이다. 기존의 규명들도 일리가 있지만 그의 방대한 문학적 스펙트럼 전체를 조감하기엔 성긴 틈새들이 보인다. 또한 그의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그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지점이 누락되어 있다. ‘작품을 쓰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과 선의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대화 방식’이라던 그의 말처럼 그의 소설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은 역시 ‘소통’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는 소설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자 했던 송영, 인간 실존 탐색에 천착했던 그의 문학세계를 조망해 보고, 송영 문학의 큰 줄기가 되는 주요 특징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송영 문학 연구의 주춧돌이 되어 일부 시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욕망하는 주체, 갇힌 자아의 실존 의식

송영의 등단작인 <투계>는 ‘나’와 ‘종형’의 갇힌 공간에서 벌어지는 ‘투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실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종형의 왕국은 갖가지 폭력이 용인되며 그 어느 외부의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다. ‘나’가 종형에게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는 공간이자, 뿌라마를 넘어설 새로운 무사를 찾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는 공간이다. 그곳은 종형의 다양한 욕망이 공존하는 실존 공간이다. 사방이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투계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폭력성을 마주하게 된다. 뿌라마도, 샤모도 모두 종형의 닭임에도 불구하고 종형은 뿌라마를 넘어설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주길 바란다. 라캉의 언설처럼 욕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결핍인 동시에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한 대상이 지속적으로 치환되는 것이다.²⁾ 투계에 대한 종형의 집착은 이 ‘욕망의 환유 연쇄’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욕망의 끝은 무엇에 닿아 있는가. 오롯이 투계를 향해있는 종형의 삶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종형이 종일 닫힌 공간에서 하는 일이란 뿌라마를 이겨줄 새로운 닭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종형은 강자로 군림하는 뿌리마를 미워하면서도 뿌라마를 쉽사리 제거하지 않는다. 뿌라마가 마지막 투계에서 패배하였음에도 투계에서 패한 닭은 식용으로 쓴다는 통상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뿌라마는 종형에게 닭이 아닌 인간의 삶에서 부딪치는 일종의 ‘한계’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 한계란 다양한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인 동시에 당대의 거대 권력이다. 쉽사리 넘어서거나 극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지되는 한계 상황.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욕망이 투사된 투계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인간과 삶의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

논의들 중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정리되지 않은 논의들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보호는 서정인, 송영, 이청준의 소설을 대상으로 근대 소설의 수사학적 대응 양상이라는 자장 안에서 송영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서술과 대화의 경계 없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선생과 황태자>, <계절>, <님께서 오신날>, <모두에게 축복을>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개별적인 문학성을 빚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윤애경은 선행 연구들의 연장선에서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적 폭력의 의미를 살피고, 세계와 주체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가장 최근의 논의이자 송영의 문학세계 전반을 훑고 있는 이명재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이명재는 송영의 문학세계를 소설가로서의 50년 삶의 궤적을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눈다. 1967년부터 1976년까지를 초기로, “갇힘 속 실존인식과 참여 추구”의 문학이라 명명하고, 1977년부터 1996년까지를 본격소설과 함께 대중소설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모색했던 중기로, 1997년부터 2016년 작고하기 전까지를 국제교류를 지향하고 서양음악에 접근했던 후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시기별로 송영의 작품들을 정리하며 송영을 “김승옥 같은 감성에, 조세희 못지않은 서민의식을 지닌 데다 최인호와 상이한 시민적 자장의 흡인력에도 황석영 못지않은 참여의식을 겸비한 채 1970년대와 80년대를 아우른 한국소설 문학의 표상과도 같은 기린아”였다고 평가한다.

2) 이진경, 「자크 라캉: 무의식의 이중구조와 주체화」, 이진경·신현준외 『철학의 탈주』, 새길, 1995, 40쪽 참조.

샤모가 뿌라마에게 패배하던 순간 종형이 느낀 감정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라는 거대한 벽 앞에 또다시 무너졌을 때와 같은 좌절감과 패배감이었다. 이때의 좌절감은 인간의 폭력성과 연결되어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분출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윤패된 자아로, 약자에게 횡포를 가하는 인간의 비겁함과 폭력성을 담지한 종형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에 관한 본질적인 물음 앞에 서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의 종형을 무작정 단죄할 수 없게 된다. 유리창 밖의 서양신부를 보고는 부들부들 떠는 종형의 모습에서 인간의 나약한 존재의식과 실존적 불안을 감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투게는 인간의 다층적인 욕망의 구조를 가시화한다. 이기려는 본능적 욕망에 더해 반복되는 폭력에서 유발된 증오와 분노, 그리고 타자(종형)의 욕망까지도 가세된 샤모에게 이기려는 본능적 욕망밖에 없는 뿌라마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욕망의 양가성을 현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투게>에서 보인 욕망의 형태는 중편 <선생과 황태자>에 오면 인간의 주체성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인다.

나는 존재란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걸 일찍부터 알고는 있었죠. 다시 말하면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탐내고 그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이거죠.³⁾

위 인용은 <선생과 황태자>의 서술자 ‘순열’의 발화 중 일부이다. 순열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며 아예 실체조차 부인했던 고정관념을 깨고 스스로 ‘선택’을 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탐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이라는 실천을 한 것이다. 그러나 순열의 선의의 욕망, 주체성 획득을 향한 욕망은 좌절되고 만다. 국가라는 거대 권력 앞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삭제되고 개인적 욕망은 철저히 묵살된다. 그것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말이다. 일방적인 정형의 규율과 틀을 거부하며 자유를 갈망한 결과 또 다른 규율이 배가된 형태로 부여되고, 그는 서열이 존재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에 갇혀 버렸다. 이제 <투게>에서 문제시되었던 가시적인 주관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 폭력, 구조적 폭력의 형태로 확장된다. 그것은 이미 구성적으로 폭력적이며 자연화 된 우리 사회의 모든 체계들⁴⁾로, 송영 소설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끊임없이 이데올로기적 폭력의 정체에 의문을 던진다.

순열에게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부표역할을 하며, 그를 3호 감방의 수인들과 구별 짓게 하는 잣대가 된다. 서열 2위인 정하사가 자신의 월남전 민간인 학살이라는 죄명에 ‘선택’이라는 말을 붙이자 단박에 반박하고 부인하는 태도에서 ‘선택’의 의미를 재 사유하게 된다. 주체성을 가리키는 ‘선택’은 순열에게 일종의 버팀목이었지만, 거대권력 앞에 선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가 말하는 ‘선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의 ‘선택’ 이론을 부정하는 정하사의 언설에 “그의 치부를 가렸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열의 태도는 그가 정하사를 향해 쏟아내는 거친 항변이 애초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결국 정하사나 순열은 다르지 않다. 단, 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무정형의 거대권력을 인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3호 방에서의 순열의 존재성은 중요하다. 순열은 선생이라는 말이 그대로 상징하고 있듯 3호 감방에 있는 인물들의 각성을 돕는다. 특히 정하사의 포기를 시도로 바꾸고, 정하사가 자신의 죄 행간에 숨겨져 있는 거대권력의 횡포를 인지하는 데 가까이 가게 한다.

순열과 정하사의 대립은 각자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게 하며, 서로의 진정한 소통의 가

3) 송영, <선생과 황태자>, 『선생과 황태자』, 책세상, 2007, 56쪽.

4)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역, 난장이, 2011, 23-25쪽 참조.

능성을 열어준다. 불침번을 서고 있는 순열에게 담배와 함께 화해를 청하며 자신의 과거를 상세히 설명하는 정하사는 처음으로 순열을 인간답게 대하며, 또 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게 된다. 정하사의 상고이유서 부탁에 자신의 이야기를 쓸 것 같았던 순열의 기우에는 정하사를 향한 공감과 새로운 연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송영은 <선생과 황태자>의 순열과 정 하사의 대립을 통해 비가시적인 거대 권력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함을 설파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순열의 돌발적이고 긴 오열을 제지하지 않는 암묵적인 용인을 통해 극대화된다. 순열의 오열은 내면 깊숙이 숨겨만 왔던 감정의 표출로,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직조되어 있다. 거대 권력에게 담보 잡힌 자유, 이러한 한계 상황에 처한 실존적 고통과 울분, 감옥 안의 또 다른 폭력에 굴복했던 자신을 목도하면서 오는 창피함이 그의 기나긴 오열 위로 중층적으로 얹혀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찰과 반성, 연대를 거쳐 새로운 실존을 향해 나가기 위한 삶의 쉽표로 작동한다.

송영은 폭력적 억압과 규율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실존뿐만 아니라 배금주의 사회에서의 실존과 욕망의 문제까지도 아우른다. <중앙선 기차>는 기차라는 공간 안에 인간 세계를 축소해 놓은 서사이다. 기차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각축전은 현대 경쟁사회의 재현임을 짐작케 한다. 일찍 서둘러 자리를 잡지 못하면 추위에 떨기 일쑤이고, 앞으로 나가려고 발을 들어 올렸다가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면 그나마 있던 자리도 빼앗겨 버리는 곳, 목적지에 못 내린 여인을 보며 안타까움보다는 그 여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인간의 주체성을 추동하던 욕망은 다시 비인간적인 욕망의 형태로 현시된다.

자리가 왜 없습니까? 저 여자처럼 사기라도 친다면 자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자릴 못 잡는 사람들은 대개 초행이거나 아주 아둔한 사람뿐이라구요. 선생께서 이 기차의 풍속에 서투르니까 자릴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 단골 승객들은 의외로 아주 악빠랏요. 말하자면 최소한의 요령은 갖춘 셈이죠. 선생께서 앓을까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단골들이 재빨리 앞질러 가서 자리란 자리는 죄다 차지해버리거든요. 일단 점령이 끝난 뒤에 어슬렁어슬렁 다가서 봐야 때는 늦은 거죠. 스피드의 시대 아닙니까?⁵⁾

공간과 자리 확보에 투영된 심리는 욕망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설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확보하길 바라는 마음은 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는 다시 앓을 자리가 있는 공간을 바라는 마음으로 확장된다. 안정된 삶을 꾸리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안정’이라는 단어 앞뒤로 수많은 수식어구를 붙이면서 점차 확장되어가는 구조와 닮아 있다. “자기가 차지한 지면에 만족할 줄 모르는 짐승”, “늘 본능적으로 다른 땅을 넘보”는 인간의 욕망 앞에서 중앙선 기차는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가 된다. 그러나 기차의 멈춤과 함께 이들의 욕망의 질주 역시 잠시 지연된다. 사람들은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유토피아를 상상하기도 하고, 지친 듯 방관하기도 하며, 신에 의지해 타자와 연대를 이루기도 한다. 각각각색의 모양으로 어둠을 견뎌내고 있지만, 분명한 건 잠시나마 모두에게서 실존적 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비인간적인 욕망 역시 상쇄된다. 하지만 사회가, 세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변할 수 없다는 듯이 기차가 움직이자 사람들은 또다시 “잃어버렸던 좌석의 질서를 되찾기 위해 맹렬하게 다투고 욕지거리를 퍼부어대고 상대방을 사정없이 밀어붙”(129쪽)이다. “주저하고 망설이던 환오조차 이제 그 다툼에 한몫 거”든다.(129

5) 송영, <중앙선 기차>, 앞의 책, 111쪽.

쪽) 경쟁과 비인간적인 욕망에 적응해 가는 환오와 그런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계를 향한 작업 복 청년의 환멸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구조적 폭력이 가시화된다.

3. 유랑하는 존재, 유령 같은 존재

갇힌 공간에서 나온 인물들은 열림의 공간으로 직진하지 못한 채 유령 같은 유랑을 시작한다. 그들은 안과 밖의 경계에 있는 인물로, 이른바 사이 공간(in-between)의 존재들이다. 유랑하는 존재의 형상화는 안과 밖이라는 분단의 변증법 혹은 이분법의 폐쇄성과 폭력성⁶⁾에 대한 거부의 표출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세계로 쏟아져 나왔기에 그들은 그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다. <부랑일기>의 ‘나’는 말 그대로 부랑자다. 그의 떠돌음에는 인간의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욕구와 자유가 깔려있다. 편안한 잠자리와 자유가 있는 대신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는 영미교 천변의 바라트에서의 생활, 식과 주가 해결된 대신 자유가 박탈되었던 여씨네 다락방에서의 삶, 그리고 모든 것이 확보된 동대문 어귀의 삼류 여관에서 조바로 생활했던 삶.

‘나’가 첫 번째로 머물렀던 영미교 천변은 “시민들의 온갖 배설물과 찌꺼기가 죄다 빠지고 있는 듯한”⁷⁾ 역한 냄새를 풍기는 곳이다. 다리 위 좌판대에 싸구려 음식들이 ‘나’의 식욕을 돋우고 날조한 바라크들이 고동 껍데기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 영미교 천변은 빈곤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낸다. 당장에 먹고 자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부랑자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꼴사나운 빈민굴의 전형”(15쪽)인 영미교 천변은 “한 폭의 밝은 수채화”처럼 눈이 부신 풍경으로 다가온다. ‘나’는 자유가 있고, 발을 뺄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빈곤의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추악의 관념을 까마득히 잊”(15쪽)을 수 있었다. 그런 ‘나’에게 자존심이 있을 리가 없다. 옛날에는 신통치 않았던 동창이 튼튼한 밥줄을 가지고 나타나도 ‘나’에게는 오로지 그 동창으로 인해 “오래 동안 선망해 왔던 표적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의 삶에 단순히 본능적인 욕구 충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듯이 ‘복통’을 통해 잠재되어 있던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추동된다. “끔찍스런 복통을 유발했던 공복 상태”로 회귀될까 하는 ‘두려움’, “며칠 동안 벽을 부르짖고 신음할 때” 느꼈던 고독감.

이러한 고독감과 두려움은 여씨네 다락방에 숨어 사는 동안에도 이어진다. 여씨 할머니덕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얼굴도 본적 없는 그들과 가족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나’에게서 인간의 실존적 고독감이 묻어난다. 여기에 갇힘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찾아오는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까지 배가된다. 안락한 음식과 주거 공간이 박탈되는 순간에 찾아온 해방감은 본능적 욕구보다 자유와 감정이 먼저라는 것을 드러낸다. <비탈길 저 끝방>의 병태의 떠돌음 역시 빈곤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우선한다는 점을 표징한다. 빈곤에서 촉발되었으나 그를 장물아비가 되어 떠돌게 하는 것은 누명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다. 그러나 형인 병섭 마저도 이런 병태의 떠돌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오로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즐거움과 행복감이 깨어질까봐 두려”⁸⁾워 동생 병태가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자신의 안위만을 고집하는 냉정한 세계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고독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길 위의 삶을 사는 이들의 고독감은 존재감 없음과 연루되어 있다. 그들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 있는 것도 아니다. 부재하지도 현존하지도 않는 유령 같은 존재이다. 가시성의 출몰. 비

6)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곽광수 역, 민음사, 1990.

7) 송영, <부랑일기>, 『부랑일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8, 14쪽(이후 쪽수만 표기).

8) 송영, <비탈길 저 끝방>, 『비탈길 저 끝방』, 실천문화사, 1989, 23쪽.

가시적인 것의 가시성. 본질상 보이지 않으며, 존재자 너머의 것으로 남아 있는 환영, 명령 같은 존재이다. 비존재로서 현존하는 그들은 어떤 정체성으로도 통합될 수 없다.⁹⁾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타자를 갈구한다.

사실 난 인간적으로 고독한 놈이올시다. 요새 몇 푼 만지고는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고독해요. 형씨, 우리 한번 진짜로다가 인간적으로 사귀어 봅시다.(<부랑일기>, 38쪽)

여관 조바인 ‘나’에게 자신의 고독감을 고백하며 친구가 되자고 손 내미는 <부랑일기>의 산도 위로 <비탈길 저 끝방>의 병태가 겹쳐진다. 비록 내세울만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비교적 살만 할 정도의 기본을 갖춘 산도에게 걸핍된 것은 의외로 그의 고독감을 상쇄해줄 친구였다. 비루한 ‘나’와는 급이 다른 장물아비 산도가 자신을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느낀 ‘나’는 그의 말대로 친구가 되기로 한다. 산도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이후 찾아온 ‘나’의 또 다른 욕구들을 충족시켜준다. 그의 세치 혀에 의해 여관 조바인 ‘나’의 신분은 ‘의원 비서’로 급상승하며, 신분상승으로 인해 자연스레 나의 성욕 또한 채워진다. ‘인간적으로 고독’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자던 말과는 다르게 산도는 ‘나’와 친구가 된 다음 가장 먼저 나의 신분을 세탁한다. 그리곤 여관 조바가 아닌 의원 비서인 ‘나’로 같은 업계 동료들에게 소개한다. ‘나’ 또한 “그놈의 그 돈을 버는 재간” 때문에 그와 친구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불안한 유랑의 삶을 살고 있는 ‘나’와 ‘산도’에게는 애초부터 친구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짧은 꿈만 같았”던 산도와 함께 지낸 시절은 끝이 난다. 결국 진정한 소통을 전제한 친구 맺기도, 안정된 삶의 정착도 모두 실패한 것이다. 그 어디에도 그들이 발붙일 곳도, 그들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여전히 유령 같은 “부랑자”일 뿐이다. 앙톨로지(hantologie)와 옹톨로지(ontologie).¹⁰⁾ 비슷한 발음처럼, 그의 서사를 유영하는 유령론은 그렇게 존재론을 향해 있었다.

이러한 인물들의 실존적 고뇌는 현실 인식과 연루되어 있다. <비탈길 저 끝방>에 등장하는 형은 부유층과 중산층과 빈민들이 나란히 살고 있는 “비탈길 맨 위쪽에서 큰길까지” 느리게 걷는 것을 즐긴다. 형의 눈에 들어오는 갖가지 풍경들. 각기 다른 주거 형태와 표정, 목소리를 타고 실려 오는 것은 현실의 삶이고, 일상이었다. 송영은 차이 나는 일상을 전경화하면서 물질에 의한 계급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폭력 문제를 묘파한다. 늘 떠돌며 빈 셔터만을 눌러대던 <지붕 위의 사진사> 강현수가 데모대의 행렬을 향해 비로소 셔터를 누르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송영의 소설이 향하고 있는 피사체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쓰는 것은 “비록 목선 음성이거나 결국 희망을 향한 노래”라던 송영. 그가 담아내고 싶었던, 그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는 ‘인간’이고, 그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이었다.

4. 소통의 (불)가능성, 날 것 그대로의 인정

거대 권력이든 개인적이든 갈혀 있던 자아가 보이지 않는 벽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삶은 녹녹치 않았다. 빈궁한 생활에 미숙한 관계 맺기가 더해져 그들은 여전히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고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의 만찬>에 등장하는 사내나 <미금역에는 무

9)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진태원 역, 이제이북스, 2007 참조.

10) 여기서 말하는 유령론은 데리다가 제안한 개념이다. 유령론은 존재론과 유령의 혼성어이며, h의 묵음 처리로 앙(ât)톨로지로 발음되고, 존재론은 옹톨로지[õtɔlbɔʒi]로 발음된다.

엇이 있나)에 등장하는 정씨는 모두 그 연장선에 있다.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자주 혼술을 하는 사내에게서 도시인의 외로움을, 가둠에 대한 속죄의식에 의해 매일 밤 행해지는 또롱이와의 새벽 만찬에서 자유보다 더 소중한 소통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젊음의 활력”, ‘(삶의) 강한 의욕’을 느끼기 위해 매일같이 종착역인 미금역에 나가는 정씨에게서 노년의 단절과 외로움이 묻어난다. 이제 송영의 작품을 통해 시종일관 천착해 왔던 인간의 실존적인 고독감의 원인과 상쇄 방향을 들여다볼 차례다. 갇혀 있는 인간에서 떠도는 인간으로 이제는 소통을 시도하는 인간의 모습을 포착하게 된다.

〈계단에서〉, 〈삼층집 이야기〉, 〈친구〉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응집해 사는 하숙집을 공간으로 하고 있다. 인물들은 더 이상 홀로 갇혀있거나, 홀로 떠돌지 않는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어울림을 시도한다. 그러나 온전한 어울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계단에서〉의 안태오, 〈삼층집 이야기〉의 월슨, 〈친구〉의 도일의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이다. 〈계단에서〉의 하숙집 주인 김기문은 청결을 우선하는 사람으로 하숙생으로 들어온 안태오가 지저분하게 방을 쓰고 있다는 말을 접하고는 안태오와의 신경전을 시작한다. 자신의 왕국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시작된 김기문의 횡포가 더해질수록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 한다. 변기 개조 사업을 핑계로 붙여놓은 ‘사용 엄금’, 안태오 방으로 통하는 계단 앞에 붙여놓은 ‘통행금지’란 딱지 모두 한낱 부질없는 행위가 되어 버린다. 낡은 계급의식과 권의의식의 응집. 바로 김기문이 가하는 횡포의 실체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인의 권위”에 저항하는 변기 오물 사건이나 연못 오물 세레 사건의 범인이 안태오라고 확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저 비뚤어진 편견과 자신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향하는 증오의 산물일 뿐이다. 안태오와 김기문이 마주하는 곳. 즉 소통의 통로인 ‘계단’이 차단되는 지점에서 둘의 관계 회복의 불가능성이 드러난다. 스스로 막아버린 계단. 그리고 집안의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사다리는 결국 김기문을 죽음으로 몰아간다. 만약 김기문이 편견과 권의의식을 내려놓았더라면, 제멋대로 상상하는 대신 안태오에게 물어봤더라면 적어도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연루되진 않았을 것이다. 〈삼층집 이야기〉에서 전세는 역전된다. 월슨은 매번 하숙집 주인 오여사의 권위의식과 편견의 피해자가 된다. 오여사를 비롯해 이 집에 거주하는 하숙생들은 월슨의 정체에 궁금해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 뒤에서 모여 제멋대로 상상하며 수근될 뿐이다. 월슨의 정체를 알아오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받은 장씨는 자신의 맞은 편 방을 쓰고 있는 이웃사촌 월슨과 한마디도 얘기를 나뉘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인지한다. 어쩌면 이들은 한 공간에 모여 살고 있지만,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월슨은 자신의 이름 대신 ‘그놈’ 혹은 ‘양키녀석’으로 호명된다. 오여사에겐 이미 월슨의 존재성은 거세되었고, 그가 직업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여사만 가지고 있었던 권위의식과 차별적 시선은 하숙생 모두에게 전이된다.

오여사의 표정에는 가뜩이나 월슨을 경멸하는 기색이 역연했다. 동시에 그녀는 월슨이 가난뱅이라는 사실에서 어떤 불쾌감마저 느끼는 모양이었다. 거기에 앉아 있던 다른 투숙자들도 막상 월슨의 현금 사정을 처음 듣고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싸구려 분식센터에서 저녁 식사를 때우고 하숙비를 깎자고 졸라대는 미국인의 모습이 어쩐지 빨리 수궁이 가지 않았고, 마치 오여사의 경우처럼 그 사실에서 약간의 불쾌감을 맛보았다. 그런데 아마도 이 불쾌감이란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속고 있다는 느낌 때문인지도 몰랐다.¹¹⁾

오여사를 비롯해 하숙집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에 균열이 생기자 불편해 한다. 서양인은

11) 송영, 〈삼층집 이야기〉, 『부랑일기』, 위의 책, 109쪽.

직업이 있어야하고, 가난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암묵적 편견이 배신감과 불쾌감으로 치환되면서 월슨에게 가해지는 조소와 경멸은 극대화된다. 이제 월슨은 그들과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월슨은 그저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며 준비하고 있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인종과 경제적 층위로 형성된 이중적 차별에 가난한 이방인은 더 이상 그들과 연대할 수 없다.

두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함께 살면서 도통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함께 살면서도 함께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독하다. <친구>의 나와 독일의 관계를 경유해 보자. 독일은 한국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닌 혼혈이다. 마치 작성하고 안태오와 월슨을 섞어 놓은 듯한 인물이다. ‘나’가 도일을 처음 마주한 곳은 ‘그린하우스’이다. 그의 다르면서도 수려한 외모에 시선이 갔고, 그를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 바라보는 구경꾼들의 표정 때문에 그에게서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하나님의 가장 걸출한 피조물”로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시선에 쾌활하게 말하던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소설은 그렇게 인종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편견과 호기심으로 시작된다.

‘나’와 독일은 우연히 하숙집에서 조우하여 가까워진다. 독일은 사람들의 편협한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제법 쾌활하게 내게 다가온다. 오히려 ‘나’가 아이들 사이에 섞여 아이스크림을 빨고 있던 자신에게 도일이 편견을 가질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독일은 어른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할 수 있는 거라며 ‘나’의 기우를 희석시킨다. 어른스러운 도일에 비해 혼혈을 향한 통속적인 궁금증들을 품고 있는 ‘나’의 모습은 상대적이다.

“나는 너를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나와 같은 인간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지. 너도 그걸 원하고 있지?”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를 마치 옷가게의 마네킹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는 인간 말예요. 나 자신은 그런 데 무관심하려고 애쓰지만 이따금 그런 시선을 느낄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신경 쓸 가치가 없는 문제야. 이 지구상에는 수백 수천의 다른 종족이 살고 있어. 인간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구. 같은 종족도 성격과 용모가 제각각 다르지. (중략) 결국 너는 혼자고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일 뿐 그밖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구. 나나 너나 모두 이 지구상의 한 인간일 뿐이야.”¹²⁾

‘나’는 도일을 향한 통속적인 궁금증을 숨긴 채 독일과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나’의 인내는 독일의 고백을 끌어낸다. “아저씨는 진정한 내 친구니까 내가 자신의 얘기를 해도 괜찮겠”이라며 ‘나’가 궁금해 하던 의문에 답을 해준다. 어른과 소년, 혼혈인과 한국인. 하숙집 아들과 하숙생. 여러 형태의 차이를 내재한 그들이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독일은 수려한 외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양부모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 아이처럼 보였다. 햇볕이 잘 드는 독일의 방은 ‘나’가 부러워할 정도로 쾌적하고 없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독일은 “아저씨하고 함께 있을 때는 왠지 마음이 든든해요. 혼자라면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떠들 배짱이 없었을 거예요.” 라며 ‘나’에게 불임성 있게 다가왔고 그래서 친구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독일에게서 낯섬을 느낀다. 그저 피부 빛 때문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마지노선을 그어 놓고 더 이상 그 선을 넘지 않는 독일의 행동 때문이었다. 필요이상으로 미국인과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도일’. 그런 그가 세상 누구보다도 존경하던 아버지를 두고 또 다른 미국인 양부를 필요로 했던 이유. 독일의 이해할 수 없는 “위선적인 행동”에 난 침묵으로 기다린다.

12) 송영, <친구>, 『부랑일기』, 위의 책, 87-88쪽.(이후 쪽수만 표기.)

우연히 본 편지 한 장이 발단이 되어 독일의 고해성사가 시작된다. 부족할 것 없이 보였던 쾌활한 독일의 내면에 감춰진 비밀. 아니 치부가 드러난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제기랄, 난 대체 아버지가 몇이나 되고 어머니가 몇이나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어른들이 모두 내겐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구요. 난 고아니까 말이죠.”(99쪽)라는 독일의 토로에 ‘나’는 “도일이 답지 않게” 왜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느냐고 반문한다. 어쩌면 이 “~답게”라는 말 때문에 도일이 솔직하지 못한 채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데 말이다. 양연회에서 연결해준 미국의 양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현재 양부에게 바치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고백과 함께 도일은 그동안 ‘나’를 속인 것에 대한 사죄를 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이것은 나를 향한 사죄가 아닌 독일 자신에게 보내는 사죄일지 모른다. 자신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한 채 철저한 가면 뒤에 숨어 살아왔던 그 지난한 삶에 대한 미안함,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회적 편견에 대한 울분과 그에 대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이 혼재되어 덩어리째 터져 나온 것이다. 이 울음은 정서의 정화뿐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회복에도 기여한다.

내 눈에는 그 방에 있는 커다란 옷장이며 번쩍거리는 오디오 세트며 벽에 걸린 테니스 라켓 따위가 모두 한낱 무대를 꾸미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은 있었다. 도일이 눈물을 보인 순간 나는 이제야 우리가 흥허물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건 이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거짓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¹³⁾(〈친구〉, 100쪽.)

결국 독일의 울음과 함께 터져 나온 고해 성사는 도일을 향한 ‘나’의 배신감과 독일과 ‘나’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뜨린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고독하지 않다. 치부를 드러내 놓고 눈물을 흘려도 괜찮은 사람, 날 것 그대로의 민낯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친구이며 자아든 타자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소통이라는 작가적 전언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5. 산책, 정체성 찾기의 여정

갇혀 있는 존재나 부랑하는 존재나 그들의 종착역은 모두 열림을 통한 소통이었다. 틀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 타자와 관계 맺기까지의 도정에서 우리는 “사색하는 산책자”와 마주치곤 한다. 이제 부랑하는 길 위의 존재들- “공간을 필요로 하고 사적 생활을 그대로 갖고 싶어 하는 거리 산보자들”에서 “침착”하고, “아무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¹⁴⁾” ‘산책자’로 이동한다. 가난과 소외, 아버지의 죽음까지 송영의 혹은 작품 속 인물의 상흔이 겹쳐져 있는 ‘염산’을 끊임 없이 배회하는 행위나 니나를 찾아 떠난 이국땅에서의 배회에서 도약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송영은 삶을 주제화하는 방법으로 산책을 활용한다.

〈염산의 은빛 종탑〉의 ‘나’에게 염산은 아픈 고향 같은 곳이다. 그곳엔 ‘나’를 반겨주는 가족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그저 유년시절의 윤편되고 소외된 자아, 아버지의 죽음과 의문, 염산에서 생활 중 가장 아름다웠던 하루가 공존해 있을 뿐이다.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하는 일이란 특별할 게 없다. 그저 마을 앞길을 느리게 걸거나 살던 집 앞에 가서 우두커니 바라보는 것이 전부이다. ‘나’는 “어둡고 갑갑하고 바다에서 썰 새 없이 불어오는 비바람이 마음을 더욱 어둡고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염산의 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¹⁵⁾것을 행운이

14)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역, 서울, 민음사, 2006, 132, 140쪽 참조.

15) 송영, 〈염산(鹽山)의 은빛 종탑〉, 『새벽의 만찬』, 문학수첩, 2005, 117쪽.

라 생각한다. 이쯤 되면 ‘나’의 염산행과 느리게 걷기의 의미를 눈치 챌 수 있다. 반겨주는 이도 없고, 딱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가 지속적으로 염산을 산책하는 행위는 ‘기억하기’와 ‘콤플렉스 극복’에 있다. 산책이란 통상적으로 시선을 활용하여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그러나 송영의 작품에서 산책자의 시선은 외부를 경유하여 내부로 굴절된다. 다양한 사람들과 풍경을 보면서, 과거를 소환하고, 소환된 과거 속 자신을 끊임없이 응시한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자아, 소외되고 유폐된 자신의 모습을 끄집어내어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목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소환된 과거의 기억이 꼭 음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염산에 온 첫날 마주한 마을 여인들의 강강술래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찌면 밝고 행복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주기도 했다. 고향의 영화들 가운데 강강술래는 가장 좋은 양화인 셈이다. ‘나’의 염산 산책은 아픈 상처와 콤플렉스로 뒤범벅이 된 과거 자신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생채기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나’에게 덧씌어진 오명이 벗겨지고, 나의 위치는 정상적인 자리를 찾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나’의 산책은 목적 없는 잉여적인 것이 아니다. 또 외부 세계에 열광하고 도취되지도 않는다. 자기 나름의 개성, 즉 자기 세계를 충분히 확보¹⁶⁾하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내면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이는 제도와 시스템에 길들여진 감성의 해방을 의미하며 여로형 구조와 결합하여 ‘나’의 의식을 표상하고 주제를 형상화한다. 나에겐 신과 같은 종탑, “막연한 위안 같은” 종탑이 있는 염산은 작가 송영에게도, 작중 인물 ‘나’에게도 세상을 향한 도약의 발판인 셈이다.

이제 ‘나’의 도약, 송영의 도약은 이국을 향한다. 그곳에서 역시 산책은 과거를 소환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데 달아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내면 응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소통으로 확장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소통의 대상이 된다. 소설 <나는 왜 니나 그리고르브나의 무덤을 찾아갔나> 속에서 역시 산책을 통한 과거 회상은 멈추지 않는다. 마치 회고록을 써 내려가듯 길 위에서 순간순간 나의 과거가 끊임없이 소환된다. 이 작품 안에는 송영의 개인사와 그 개인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수많은 작품들에 관한 설명들이 숨겨져 있다. 미완성이지만, 마치 유고집을 예견이라도 하고 집필한 듯이 그간의 대표적인 작품 내용과 주제들이 응집되어 있다. 때문에 ‘니나’의 무덤을 향한 ‘나’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송영 문학의 지향점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니나’는 늘 소외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작품들 속 수많은 ‘나’들을 처음으로 환대하는 사람이다. ‘니나’의 타자에 대한 환대를 통해 ‘나’는 그녀와 유대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니나의 죽음 후에도 그녀를 다시 찾아오게 하는 동력이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국에서의 산책. 여기서는 산책 보다는 산책을 통한 소통에 방점이 있다. ‘나’는 때론 강아지와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 길가에 핀 민들레와 소통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7년 만에 만난 러시아의 원로급 작가인 A와는 소통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언어적 장벽도 있었지만, 강아지, 민들레와도 대화를 나누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런 의미에서 돌연 ‘나’에게 친구가 있냐고 묻는 A의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A의 돌발적인 질문에 ‘나’는 친구는 많은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관대하지 못한 자신의 성격을 탓해보지만, 썩 유쾌하지는 않다. 친구가 없다며, 친구 만들기란 쉽지 않다는 A의 말은 송영의 소설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도 지연되는 문제의식이다. 이 소설에 이르러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는가 싶은 순간 소설은 더 나아가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

16) 빅토르 푸르넬, 「파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 파리, 1858년, 263쪽(발터 벤야민, 『도시의 산책자』, 조형준 역, 새물결, 2008, 34쪽에서 재인용)

선 여러 작품을 통해 그가 말하는 친구의 의미를 찾은 바 있다.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친구 되기를 통해 정신적 스승인 톨스토이로부터 배워온 “가장 고결한 인간 정신의 길”을 실현해 왔던 것이다. ‘서로’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 너와 나, 즉 타자가 없이 나 혼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의 길이기에 그의 작품에서 친구, 어울림의 문제는 끊임없이 소환되었던 것이다.

6. 인간의 위엄과 고결한 정신을 지켜내는 일, 문학

송영의 유교 소설 〈나는 왜 니나 그리고르브나의 무덤을 찾아갔나〉속 니나를 향한 여정에서 앞서 만났던 송영의 수많은 작품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작품들은 그의 삶의 여정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다. 담담하게 쏟아내는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횡단하는 작품들을 통해 그간의 삶의 여정을, 문학의 여정을 정리하고 있는 송영과 마주친다.

송영 문학의 특징은 크게 네 줄기로 뻗어 있다. 첫째, 그의 초기 소설들은 주로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외부와 단절되어 있던 주체의 욕망과 실존 의식을 담고 있다.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의 환유 연쇄, 다층적인 욕망의 양가성,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비)가시적인 폭력성을 현시하며 인간의 실존적 불안을 형상화하고 있다. 둘째, 간혀 있던 윤패된 자아는 어느 순간 세상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떠돌며 세상을, 빈곤의 삶을 담아내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쫓기 시작한다. 길 위의 삶을 사는 이들의 고독감은 존재감 없음과 연루되어 있다. 그들은 죽은 것도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재하지도 현존하지도 않는 유령 같은 존재이다.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줄 타자를 갈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의 실존적 고뇌는 현실 인식과 연루되어 있다. 송영은 작품을 통해 차이 나는 일상의 모습을 전경화하면서 물질에 의한 계급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폭력 문제를 묘파한다. 그가 내내 몰두하였던 대상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간혀 있는 존재나 부랑하는 존재나 그들의 종착역은 모두 열림을 통한 소통이다. 존재감을 찾아줄 타자를 갈구하던 떠돌은 어느 순간 공동체를 이루며 소통을 시도한다. 송영은 작품을 통해 인간의 실존 문제에 천착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관계 맺기가 무엇인지를 구현해내고 있다.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친구이며 자아든 타자든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소통이라 것을 작가적 전언으로 내걸고 있다. 넷째, 송영은 삶을 주제화하는 방법으로 산책을 활용한다. ‘나’의 염산 산책은 아픈 상처와 콤플렉스로 뒤범벅이 된 과거 자신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생채기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내면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는 행위인 것이다. 정체성 찾기의 여정을 통해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인간의 위엄과 고결한 정신’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는 일이 자신의 문학임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송영은 ‘글’이라는 세례를 받던 ‘처음’으로 회귀하여 그에게 있어 문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문학이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답한다. 톨스토이의 글이 “전쟁, 가난, 폭력으로 죽어간 형제 등 20세 청년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런 기억에 허덕이던”¹⁷⁾ 자신을 구원하여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인간의 위엄과 고결한 정신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¹⁸⁾(111~112쪽)가르쳐 준 것처럼 그 가르침을 다른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는 일. 송영에게 문학은 그런 것이었다.

17) 송영, 〈나는 왜 니나 그리고르브나의 무덤을 찾아갔나〉, 『나는 왜 니나 그리고르브나의 무덤을 찾아갔나』, 문학세계사, 2018, 111쪽(이후 쪽수만 표기).

<간힘과 떠둠, 소통의 서사 미학- 송영 문학론> 토론문

이민정(나사렛대)

손혜숙 선생님의 「간힘과 떠둠, 소통의 서사 미학- 송영문학론」에 대한 논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일부만 다루었던 송영의 작품들을 총망라해서 ‘송영’의 전반적인 작품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송영의 전반적인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송영 문학의 ‘열림과 닫힘’, ‘이데올로기의 폭력과 저항’, ‘인간 실존’ 등의 작품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통’의 문제로까지 연구 주제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인간 실존’과 ‘소통’입니다.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초기 작품부터 후기 작품까지 ‘인간 실존’과 ‘소통’의 유기적 관계를 새롭게 고찰해 내고 유의미한 가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송영 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힘’ → ‘떠둠’ → ‘소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의 작품에서 ‘간힘 자아, 유폐된 자아’를 내포하고 있는 인물들이 드러나고, 중기 작품에서는 부랑자의 삶을 드러내는 ‘떠둠’ 즉 사이 공간(in-between)의 존재들, 후기 작품에서는 ‘소통’을 통해 인간 실존의 탐색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즉 발표자께서 결론부분에서 밝히고 있듯이 송영의 문학은 ‘간혀 있는 존재나 부랑하는 존재나 그들의 종착역은 모두 열림을 통한 소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산책을 위한 소통’을 꼽고 있습니다. 각 장에서 논의를 위해 여러 이론들을 바탕으로 정치하게 글을 잘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해 봅니다.

1. ‘인간 실존’에 천착했던 송영의 문학을 ‘소통’의 문제로까지 확장시켰는데,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데 궁금합니다.
2.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며 인간의 실존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손혜숙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송영의 개인사를 통해 ‘송영의 작품 전반’을 고찰하고 있는데, 작품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사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도 같이 드러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사 속에 시대적 상황이 녹아들어 있겠지만(거대 이데올로기 등), 개개인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아를 유지하고, 타인과의 소통을 갈망하게 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자끄 라캉을 비롯해 슬라보예 지젝, 가스통 바슐라르, 자크 데리다, 발터 벤야민의 이론 등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논의를 논리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리다의 ‘유령론’의 개념과 벤야민의 ‘산책자’의 개념은 이 논문의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에서 그 개념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논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최인호의 소설관과 그 형상화 양상

김선욱(한성대)

차례

1. 들어가며
2. 대중성 지향으로 소설관 정립
3. 대중성 지향 소설관의 형상화
 - 1) 평범한 인물 유형-아이의 재발견
 - 2) 자전적 글쓰기를 통한 갈구 충족
4. 나오며

1. 들어가며

본고는 『별들의 고향』의 상업적 성공 이후, 최인호 소설관의 변화에 따라 그의 초기의 단편 소설에서 나타나는 성향이 1970년대 후반기 중·단편소설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1970년대 문단은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참여와 순수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강요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별들의 고향』의 상업적 성공을 통해 대중작가라는 꼬리표가 달린 최인호는 비평적 측면에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최인호에 대한 저평가는 이후 꾸준한 연구를 통해 격상되게 된다. 주목할 만한 최인호 소설의 새로운 독해 방식은 모더니즘적 글쓰기를 통한 체제 저항을 들 수 있다. 후속 연구들은 이런 독해 방식을 따름으로써 1970년대 최인호의 단편들이 가진 저항의 의미를 밝히고 규명하는데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다양한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독해 방식은 이런 분석법에 잘 맞는 1970년대 초기의 특정 작품들에 치중하게 되어 이와는 성향이 다른 여타 최인호의 1970년대 단편들을 다루지 않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특히 『별들의 고향』의 성공 이후 최인호 소설관의 변모하게 되고, 1970년대 후반기 작품들¹⁾에서 이러한 변모 양상이 서서히 나타나기에, 이들 작품들의 연구는 총체적인 작가 연구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선행 작업이라 생각해 본다. 그런 이유로 본고는 1970년대 단편들을 통해 『별들의 고향』 이후 최인호 소설관이 어떻게 변모하였으며 이 변모한 소설관이 어떻게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최인호 연구는 크게 분류하여 초기 중·단편소설 연구, 대중 소설 연구, 역사·종교 소설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²⁾ 이중 초기의 중·단편 연구는 1970년대라는 시대성과 함께

1) 본고는 최인호의 소설관 변화에 따른 변화한 양상의 중·단편작품들이 『별들의 고향』을 이후로 창작되었다고 본다. 『별들의 고향』은 1972년 9월부터 1973년 9월까지 조선일보에서 연재되었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1970년대 후반기 작품'은 1970년대 후반, 즉 1975년 이후라는 단순한 시간적 구분 대신 최인호 작품 성향적 구분으로 이해하여 1973년 9월 이후 발표된 작품들을 이르도록 한다.
2) 최인호의 초기 중·단편 소설 연구는 김인경(2007), 김진기(2015), 김은하(2016), 광상순(2017) 김지윤(2017) 등이 있고 대중 소설 연구로는 윤정화(2014) 등이 있다. 역사 종교 소설 연구는 광양(2014), 김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은 작가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반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김인경³⁾에서 제시한 독해 방식이다. 김인경은 최인호가 보여준 “병적인 도피의 인상”⁴⁾의 모호하며 소극적 태도가 ‘전복’이나 ‘해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역으로 당시 사회에 저항하고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들은 이런 독해 방식과 궤를 같이 하여 이를 더 보완하고 견고히 하였다.⁵⁾

이런 독해 방식은 나름의 성과와 함께, 두 가지 한계를 안게 되었다. 첫째, 최인호의 1970년대 단편소설 중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만 분석 텍스트로 삼다 보니 『별들의 고향』 이전의 모더니즘적인 성향의 단편들의 분석에 편중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최인호의 1970년대의 다른 경향의 단편들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게 되었다. 이전의 이러한 경향에 벗어나려는 연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박찬호⁶⁾는 1970년대 후반의 최인호 소설이 변모했음을 지적하며 이들 소설에서는 현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머문 것과 달리 자아 성찰과 타인의 관계 형성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말한다.⁷⁾ 이처럼 최인호는 『별들의 고향』을 통해 인기 작가가 된 이후로 이전의 경향과 다른 작품들을 발표하였고 이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1970년대 최인호 중·단편 소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편중된 작품 독해는 이미 긍정적인 의미 차원에서, 문단을 등지고 대중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최인호를 다시 1970년대의 이원화된 시각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게 한다. 광철호⁸⁾는 최인호가 이분법적 문단의 강요에 ‘열외자’가 아니라 ‘예외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평가하는데⁹⁾ 최인호의 초기 단편을 저항적 혹은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이전 연구들은 최인호가 ‘열외자’가 아닌 ‘참여자’임을 증명하여, 다시 당시 문단의 이분법적 구분에 그를 편입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순수냐 참여냐의 문단의 대립에서 대중이라는 제 3의 길을 모색한 최인호의 문학적 성과를 무화시킨다.

물론 1970년대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최인호의 단편들을 시대와 완전히 분리해서 독해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다만 작품과 시대를 철저히 연결하여 분석한 이전 연구 성과들 사이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의미에서 초기의 모더니즘적 성향의 단편들과 1970년대 후반기에 나타나는, 중·단편 작품들의 이질성의 근거를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 1970년대 초기 최인호 소설관과 『별들의 고향』이후 최인호의 소설관을 살피

인경(2017), 음영철(2017) 등이 있다. 이하 자세한 서지 사항은 참고문헌.

3) 김인경,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연구: 조세희, 최인호, 이청준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4) 이동하, 「도피와 긍정」, 최인호, 『타인의 방』 해설, 민음사, 1983, 433쪽.

5) 김인경, 김은하, 김지윤에서는 이러한 맥락으로 최인호 작품에 숨겨진 비판적이고 저항적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1970년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Vol.39, 국제어문학회, 2007, 김은하, 「문화학: 예외상태로서의 박정희 시대와 남성 주체의 형성-최인호의 초기작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Vol. 5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김지윤,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미학」, 『우리말 글』 Vol.72, 우리말글학회, 2017.

6) 박찬호,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보행자의 존재성과 도시 공간의 재장소화 양상」, 『현대소설연구』 No.6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288쪽.

7) 1970년대 최인호 소설의 다양한 양상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김치수는 최인호 소설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를 보면 초기의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단편과 현실의 단면을 그리는 단편들이 구분된다. 이동하는 1970년대 소설의 초반의 도피적 경향과 1970년대 후반의 화해적 경향의 소설을 비교하며 최인호 소설의 다양한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 김치수, 「개성과 다양성」,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371쪽. 이동하, 위의 책, 409~424쪽.

8) 광철호, 「최인호, ‘조커-작가’의 기원」, 『작가세계』Vol.28 No.2, 2016, 116쪽.

9) 최인호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이미 최인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인호 역시 스스로 자신은 체제와 반체제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체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독자는 절대 속일 수 없다」, 『문학사상』 351호, 문학사상사, 2002. 133쪽.

고자 한다. 최인호의 소설관을 규명하는 작업은 작품 외적인 자료인 2차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였다. 1970년대 당시 작가의 당선 소감, 인터뷰와 1970년대 이후 회고와 같은 작가론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작가의 변화된 소설관이 「죽은 사람」, 「신혼 일기」, 「다시 만날 때까지」와 같은 작품들에서 어떤 양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이들 작품들이 최인호의 초기 작품들과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1970년대 최인호의 소설관과 중·단편 작품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대중성 지향으로 소설관 정립

최인호는 욕심이 많은 작가였다. 최연소 신문 연재 작가였고 많은 인터뷰를 하였으며 경향신문의 객원기자로 활동했고 세 편의 희곡을 발표했으며 자기 소설의 영화화를 넘어 영화 제작까지 하게 된다. 이런 의욕적인 행보는 그가 등단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난다.¹⁰⁾ 그는 1963년 고등학생 때 한국일보에 「벽구멍으로」를 통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지만 학생이란 이유로 수상이 취소된다. 이후 최인호는 1965년에 「뭘 잃으신 것이 없습니까」를 조선일보에 응모하고 당연히 당선되리라 생각하여 친구들과 외상으로 자축 파티를 벌였다. 결과는 낙선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조선일보 문화부에 자신의 작품이 제대로 응모되었는지 확인하기까지 한다.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울화통’이 난 최인호는 1966년 신춘문예에 당선되기 위해 수십 편의 단편을 썼고 그중 네 편에 대한 응모를 동생에게 부탁하고 공군에 입대한다. 훈련소에서 자신이 조선일보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당선에 기뻐하기보다 자신이 당선된 것이 하나뿐이냐며 되물을 정도로 작가적 자신감과 문학적 야심이 강했다. 그의 이런 야심과는 별개로 당시 최인호에게 이렇다 할 소설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단 당시의 소감문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 글을 쓴다는것은 하나의 양심이다. 작가의 양심과 사명은 輸出해 버리면 안된다. 그것은 出血輸出을 의미한다.¹¹⁾

(나) 아직 나는 스물다섯 살밖에 아니라는 것, 그런 철학은 늙어가면서 천천히 배우자는 것. 미안하다 나는 벌써 변명만 배운 것일까. 사실 쓰는 글마다 투고하는 기분으로 임한다면 어찌면 그나름대로 道 가 通할지도 몰라.¹²⁾

(가)에서 최인호는 글을 쓰는 것이 “하나의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의 창작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각오에 가깝다. (나)에서 최인호는 부대 내 장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장교가 자신의 작품에 철학이 없음을 비판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철학은 늙어가면서 천천히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 작가의 소설을 통한 지향점, 즉 소설관이라 생각한다면 작가 스스로 자신의 소설관이 뚜렷하지 않음을 실토하는 모양새다. 투고하는 기분으로 작품을 창작하겠다는 말도 (가)와 유사한, 소설 창작에 임하는 각오에 가깝다. 이러한 작가의 미약한 소설관은 왕성한 작품 활

10) 이하 최인호의 신춘문예 등단과 창작과 비평사와 관련된 일화 등 개인사적 내용은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부, 여백, 2015. 161~200쪽 참조.

11) 「본사신춘문예 소설당선작. 견습환자. 수상소감」, 조선일보, 1967. 6면.

12) 최인호, 「순례자 추천완료소감」, 『현대문학』 2월호, 현대문학사, 1969. 292쪽.

동과 문단의 관심을 받으며 점차 확립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는 등단 이후 적극적인 작품 활동을 통하여 1971년 봄, 당시 문단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현대문학』, 『월간문학』, 『문학과 지성』에 작품을 발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최인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참여’를 지향한 『창작과 비평』에도 작품을 신고자 했다. 때마침 『창작과 비평』의 편집자 염무웅의 연락을 받아 「미개인」을 전달하게 된다. 「미개인」은 최인호의 초기 단편치고 사회 비판적 색채가 강한 작품으로 작가 스스로가 일부러 『창작과 비평』의 경향에 맞춰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¹³⁾ 그러나 염무웅은 작품이 저항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말을 고치길 바랐고 최인호는 평론가가 작가에게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게 된다. 그렇게 최인호는 당시 참여 문학을 주도한 『창작과 비평』과 등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최인호는 자신의 의도와는 별개로 『문학과 지성』의 경향을 따라 예술성을 강조하는 창작 활동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최인호의 소감을 보면 당시 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는 그 작품에서 <휴머니즘과 예술성을 동시에 옹호>하였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 짧막한 단평이 바로 내가 쓰고자 하는, 노력하는 창작의욕과 그야말로 합일한다. 나는 그 두 가지의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작품을 쓰고 싶다. -중략- 결점이 많은 내 성격 중에 한가지 기특한 것은 결코 은혜는 잊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의 수상도 나에게서는 은혜이고 사랑이다. 나는 그 고마운 분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행동반경을 줄이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는 작품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¹⁴⁾

여기서 그가 자기 소설의 지향점이 휴머니즘과 예술성이라고 뚜렷하게 밝히는 모습을 통해 등단 초기의 미약한 소설관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최인호가 문단과 담을 쌓고 대중성을 지향했다는 지금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작품의 예술성에 대한 상당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성과 휴머니즘적 성과를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는 작가의 말은 그의 야심 많은 성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휴머니즘과 예술성에 대한 지향 역시 다른 비평가의 말을 인용하여 동의하는 차원에서 소설관을 전개한 것으로 볼 때, 그의 소설관이 아직은 자기 주도적이기 보다는 당시 그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상해 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내용이다. 뒤에 나오는 기대에 어긋나는 작품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하여 수상해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상투적인 의미일 테지만 결국 그는 자신을 옹호하는 문단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소속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문단에 대한 이런 긍정은 『별들의 고향』 이후 문단과 등진 그의 모습과 대조된다. 이렇게 예술성을 지향하고 문단과도 별문제 없던 소위 ‘문제적 작가’였던 최인호는 『별들의 고향』을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

13) 이미 최인호는 등단을 준비함에 있어 신문사별 선호 작품 유형을 분석했었다. 최인호, 「천재 작가를 위한 고언」, 『누가 천재를 죽였는가』, 여백, 2017. 253~254쪽. 또한 최인호는 염무웅에게 작품을 주기로 한 후 「미개인」을 썼는데, 후에 그의 회고에서 「미개인」이 작품의 주제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문단의 상황 때문에 실리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미개인」을 『창작과 비평』의 경향에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창작과 비평』의 입맛에 맞게 「미개인」을 썼음을 추론할 수 있다.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부, 여백, 2015. 199쪽.

14) 최인호, 「수상소감-진짜」, 『현대문학』 3월호, 현대문학사, 1972. 19쪽.

그 무렵 평론가 김현 씨가 나를 불러 어느 술집에서 자리를 함께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는 심각한 얼굴로 내게 말하였다.

“당신은 참 좋은 작가였다. 그런데 『별들의 고향』으로 대중 작가가 되려 한다. 당신은 우리가 옹호하는 작가였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난처한 우리의 입장이 점점 코너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니 양자 중에 하나를 택일하여 달라.”

나는 그때 단호하게 말하였다.

“내게 신경 쓰지 마시오, 형님. 내가 못마땅하면 내 이름을 평론에서 빼시오. 내 이름이 부담스러우면 내 이름을 평론에서 제외시키시오.”¹⁵⁾

1970년대 최인호의 소설관이 극적으로 변모하며 확립되게 된 계기는 『별들의 고향』의 기록적인 상업적 성공과 이후 작품에 대한 평단의 강도 높은 비판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에게 주어진 대중성, 예술성 양자택일 상황의 결과로 최인호는 자신만의 소설관을 확연히 정립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참여냐 순수냐의 이분법적 문단 상황에서 순수를 지향하는 『문학과 지성』의 측에 가까웠던 최인호는 자신의 작가적 욕심을 통해 신문연재를 시작하게 된다. 그가 1972년 9월부터 1973년 9월까지 조선일보에서 연재한 『별들의 고향』은 대중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된다. 뜨거웠던 대중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문단은 그의 작품이 호스티스 문학이며 가벼운 대중소설이라며 저평하게 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최인호는 예술성과 대중성의 기로에 서게 되고 결국 그는 문단을 등지고 대중의 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 대중과 문단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최인호는 『문학과 지성』의 편집자 김현에게 자신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이름을 평론에서 빼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그의 태도는 현대문학상을 수상했을 당시의 수상 소감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질적이다. 이후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면 당시 최인호의 소설관이 변모하며 정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독자가 제 소설을 재미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설에서 재미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를 가미했을 때 소설이 재미있게 되느냐가 문제겠는데, 사람들이 왜 소설을 읽느냐, 그 의문을 풀어 보면 자연 재미의 요소가 밝혀질 것으로 압니다. 소설은 인생의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죠. 작가에게는 스스로를 비쳐 보는 거울이고 독자에게는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 -중략- 좋은 거울이라 했을 때, 그것은 가장 인생을 잘 반영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중략- 거울이 필요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의 갈구, 그 갈구를 충족시켜 주는 범위가 넓을수록 많은 사람의 손에 들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구의 충족은 감동이고, 감동은 재미로 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데, 사실 제가 제작하는 거울은 그다지 큰 것이 못됩니다. 작품이 진지하지 않다, 너무 가볍다는 평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소설이 꼭 진지하고 웅장하고 처절해야만 하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¹⁶⁾

이 글을 통해 이전의 예술성을 성취하고자 했던 최인호의 태도가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가 내세우는 것은 바로 소설의 ‘재미’인데 그는 재미의 근거가 인생을 반영하는 것이라 말한다. 여기서 소설이 반영하는 것이 ‘사회’가 아닌 ‘인생’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그가 생각하는 소설이란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나 체제에 대한 저항과 같은 의도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개인적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갈구를 충족시켜주면서

15) 최인호, 『나는 나를 기억한다』 1권, 여백, 2015. 248쪽.

16) 최인호, 「그 견습환자의 자기진단서」, 『문학사상』 1월호, 문학사상사 1975. 227~228 쪽.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전의 글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모두 잡으려고 했던 예술성과 휴머니즘 중 예술성보다 휴머니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술성에서 휴머니즘 혹은 휴머니즘을 통해 성취하려는 대중으로의 지향은 최인호 소설 창작 태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성 문단, 비평 권력에 대한 저항과 대중을 향한 지향은 비단 '최인호'라는 문제적 작가의 특수한 행보라고만 치부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태도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태생과도 맞닿아 있다.

이언 와트¹⁷⁾는 18세기 영국의 소설의 발생을 리얼리즘과 독서 대중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이해한다. 독서 대중의 형성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여흥으로서의 문학이 각광받았고 이를 통해 독서 계층이 상위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이런 독서 대중의 형성을 바탕으로 디포와 리처드슨이 이전의 고전 형식과 옛 문학의 기준을 요구하는 비평가들에서 벗어나 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혁신에 이를 수 있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단이라는 비평 권력을 등지고 대중에게로 다가간 최인호의 선택은 소설을 더 소설답게 하고자 했던 작가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인호가 제시하는 '인생을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인호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조금씩 우울하고 짓눌린 상태에 있는 현대인, 더우기 도시인에게 웃음·쾌감을 주는-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작품에 특정한 인물이나 인위적인 상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중략- 특색없는 인물에 특수하지 않은 상황이 설정된 작품- 그 때문에 내 작품이 신통하지 못하다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신통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기적적인 경지- 그런 색다른 것을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말인데, 저는 소설의 재미가 꼭 특수한 상황, 별다른 세계에만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에 잠재된 인물, 우리들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라 봅니다.¹⁸⁾

최인호는 재미를 위해서 특수하거나 인위적인 인물과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신 소설의 재미를 우리 내부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인생의 반영'은 대중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인물과 일상적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인위성을 제거한 일상성이야말로 『별들의 고향』에서 시작되는 최인호 소설관 변화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이 일상성을 바탕으로 최인호는 1970년대 후반기에 이전과는 다른 색을 지닌 단편들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다.

3. 대중성 지향 소설관의 형상화

1) 평범한 인물 유형-아이의 재발견

초기의 최인호 단편소설의 인물들은 대부분 위에서 언급된 '특정한 인물'에 해당하는 인물 유형을 보여준다. 웃지 않는 병원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노력한다든가¹⁹⁾ 자신이 죽이지도 않은 여자를 죽였다고 자백하기로 결심하거나²⁰⁾ 매일 밤 벌거벗은 채로 아이들의 방에서 책을

17) 이언 와트, 강유나 외 1명 역 『소설의 발생』, 강, 2009. 71 쪽.

18) 최인호, 앞의 책. 228쪽.

19) 최인호, 「견습환자」,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권, 문학동네, 2002.

20) 최인호, 「2와 1/2」, 위의 책.

읽는 인물²¹⁾은 특이성을 지닌 인물 유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기 단편들에서는 그런 특이한 인물 유형 대신 평범성을 지닌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인물의 평범화는 최인호 소설에서 나타나는 ‘아이’ 인물 유형을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최인호의 초기 단편소설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된 인물 유형은 바로 ‘아이답지 않은 아이’²²⁾ 즉 애늬은이 유형이다. 「술꾼」, 「모범동화」, 「예행연습」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은 술을 갈망하거나²³⁾ 어른과 경쟁에서 승리하며²⁴⁾, 사기를 친 어른의 먹살을 잡고 집단으로 폭행하는 모습²⁵⁾을 통해 아이의 외피를 쓴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아이 인물들은 그렇기에 ‘특정한’ 인물 유형이며 문제적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기 단편들의 ‘아이’ 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아이 모습으로 그려진다. 「죽은 사람」의 어린 ‘나’는 밤에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무서워 아버지를 깨우고²⁶⁾ 아버지에게 매번 외상으로 안마를 해주며,²⁷⁾ 자고 있는 아버지의 젖꼭지를 무의식적으로 빨고 부끄러워한다.²⁸⁾ 「신혼 일기」에서 아내는 자신의 아이인 다혜의 지능이 남들보다 덜 발달되었다는 그림책 외판원의 말을 듣는다. 아내는 남편인 ‘나’에게 다혜가 남들보다 머리가 모자란 아이일지 모른다고 운다. 그러자 남편인 ‘나’는 그건 말은 상술이며 다혜는 동요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끝까지 부를 줄 알기에 절대 모자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엄마가 울어 주눅이 들어 있던 다혜는 엄마를 위해 부끄러움을 타면서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부른다.²⁹⁾ 「다시 만날 때까지」의 ‘나’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값을 절약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양되는 고아인 생후 칠 개월 되는 쌍둥이 여자 아기 둘과 아홉 살 짜리 남자 아이인 연석을 데리고 비행기를 탄다. ‘나’는 연석이 ‘나이보다 두어 배는 조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연석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내 안을 돌아다닌다든지, 상스러운 동요를 부르는 등, 연석의 조숙함은 평범한 아이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연석이 라이터를 훔쳤다고 오해하여 아이를 때리기도 하지만 미국에 도착할 때가 되어 새로운 부모에게 잘 보이라는 마음으로 씻기고 자신의 칫솔을 주어 이를 닦인다. 이에 연석은 헤어지는 순간 ‘나’를 한 번 부르고 떠나게 된다.

「술꾼」, 「모범동화」, 「예행연습」에서 나타나는 애늬은이 인물 유형은 산업화 사회의 윤리적 모순을 드러내거나³⁰⁾ 합리성과 절대성을 가장한 현실을 심문하고 허구성을 폭로한다.³¹⁾ 아이답지 않은 아이라는 아이러니를 통해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에 대조되는 「죽은 사람」, 「신혼 일기」, 「다시 만날 때까지」에서 나타나는 아이 다운 아이 인물 그 평범성 때문에 이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인호의 변화된 소설관을 통해 살펴 본다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결과로 이해할 수

21) 최인호, 「사행(斜行)」, 위의 책.

22) 최인호 초기 단편 소설에서 나타나는 아이 인물에 대한 연구로는 권은수, 김지혜, 김성환이 있다. 권은수,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아버지와 아이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지혜, 「조숙(早熟)과 만숙(晩熟)의 경계」, 『어문논집』 Vol.59, 중앙어문학회, 2014. 김성환, 「산업화 시대의 윤리와 아동의 재발견」, 『한국문학논총』 Vol.81, 한국문학회, 2019.

23) 최인호, 「술꾼」, 앞의 책.

24) 최인호, 「모범동화」, 위의 책.

25) 최인호, 「예행연습」, 위의 책.

26) 최인호, 「죽은 사람」,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3권, 문학동네, 2002. 86~87쪽.

27) 최인호, 위의 책. 88쪽.

28) 최인호, 위의 책. 89~91쪽.

29) 최인호, 「신혼 일기」, 위의 책. 147~149쪽.

30) 김성환, 「산업화 시대의 윤리와 아동의 재발견」, 『한국문학논총』, 한국문학회, 2019, 178쪽.

31) 남진우, 「현대의 신화-최인호 문학의 기원」, 최인호, 『타인의 방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해설, 문학동네, 2002, 357쪽

있다.

「술꾼」 「모범동화」, 「예행연습」의 아이는 어른들과 대결하거나 서로 적대적 관계를 갖는다. 「술꾼」에서 아이는 어른인 사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사내는 아이의 목에 칼을 겨눈다. 「모범동화」의 잡화상 강씨는 전학생 아이와 원판 찌기, 주사위 놀음, 심지 뽑기를 통해 세 번에 걸쳐 서로 대결한다. 그 세 번의 대결에서 전학생 아이는 불가사의하게 승리한다. 「예행연습」에서 박애 고아원은 외국에서 오는 후원자를 속이기 위해 동네 아이들을 모집하여 환영식을 연습한다. 그러나 후원자의 방문은 취소되고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연습시켰던 교관은 아이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다. 대결의 과정에서 어른다워야 할 혹은 아이를 보호해야 할 어른은 부재한다. 이들 어른의 모습은 ‘아이답지 않은 아이’와 대조를 이루며 ‘어른답지 못한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술꾼」의 아이는 끝내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모범동화」의 강씨는 세 번의 대결에서 패배하자 자살하게 된다. 고아원의 원장과 교관은 후원자가 오지 않자 도망간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의 승리조차 불행하게 그려진다. 「모범동화」에서 어른과의 대결에서 이긴 전학생 아이 역시 그가 죽을 것을 예견하며 울게 되는 것이다.

아이-어른 대결 구도를 통한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과 폭로는 당시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그 의미를 충분히 지니게 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에 반해 「죽은 사람」, 「신혼일기」, 「다시 만날 때까지」의 아이-어른의 화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은 현실 문제에 대한 작가적 해결 방안이 나타난다. 아이다운 아이는 그 평범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른을 필요로 하게 된다. 어른이 필요한 아이는 어른답지 못한 어른의 어른다움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만날 때까지」의 ‘나’는 ‘인도적 의무감’과 전혀 상관없이 비행기 값을 아끼자는 이유로 아이들을 미국까지 보살핀다. 이 과정에서 ‘나’는 쌍둥이 아기가 울자 수면제를 분류에 타 먹이고 라이터가 없어지자 특별한 근거 없이 연석에게 라이터를 돌려주라며 혼을 낸다. 이런 ‘나’의 모습은 앞의 ‘어른답지 못한 어른’의 모습에 가깝다. 그러나 자신을 알아보고 ‘방실방실거리면서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나’는 이 쌍둥이 아기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각성한다. ‘나’의 각성은 아이들의 영당의 ‘몽고반점’으로 형상화되며 결국 ‘나’는 이를 통해 아이들과 동질감을 느낀다. 변화된 ‘나’는 시카고에 도착할 때쯤 연석의 이를 닦게 하기 위해 자신의 칫솔을 준다. 이를 닦게 하는 행위는 ‘나’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연관되어 있다. ‘나’의 어린 시절, 미군이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치약과 칫솔을 주어 이를 닦게 한 일이 있었다. 칫솔질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치약거품을 삼키거나 구역질을 했는데, 미군들은 이를 카메라로 찍었고 여기서 ‘나’는 미군들이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희희낙락하는 꼬락서니를 카메라에 담기 위함’이었다고 느낀다. 이는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열등감으로 이어지고 ‘나’는 입양되는 아이들을 보며 이전의 열등감을 상기한다. 그러나 아이들과 자신의 동질감을 갖게 되자 ‘나’는 연석에게 미리 이를 닦게 함으로써 미국의 부모를 대비하게 한다. 이는 칫솔질에 대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연석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자신의 전철을 연석이 밟지 않게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다운 아이’는 보호 받을 대상인 동시에 어른의 자기성찰의 매개체가 되면서 어른을 다시 어른다운 어른으로 바꾸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른은 아이에게 강한 연민을 갖게 되는데 이 연민은 비단 어른에서 아이로 향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 형태를 띠게 된다. 「신혼 일기」의 다혜가 울고 있는 엄마를 위해 <피리 부는 사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죽은 사람」에서 나타나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아버지는 가엾은 아버지일까. 그렇다 그럴지도 모른다.³²⁾

상호 연민을 통한 아이와 어른의 화해 과정은 독자들에게 욕구의 충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현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어른에서 아이로, 혹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향하는 상호 연민은 서로 강한 유대감을 일으키고 이는 현실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평범성을 지닌 아이다운 아이 인물 유형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대한 최인호의 작가 의식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2) 자전적 글쓰기를 통한 갈구 충족

1970년대 초기 최인호 단편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위에서 언급한 아이답지 않은 아이 유형과 어른답지 않은 어른 외에 세계와의 대결에서 철저히 패배하는 ‘패배자’ 유형의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등단작인 「견습환자」에서 ‘나’는 아무도 웃지 않는 병원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 증상을 과장한다든가 인턴에게 농담을 던지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자 ‘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1병동과 2병동의 문패를 모두 바꿔 버린다. 그러나 병원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와 1/2」에서 ‘나’ 역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지만 변소로 도망가는 다른 용의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거짓 자백을 할 결심을 하게 된다. 사물의 모반에 당하여 사물이 되어 버리고 결국 아내에게 버림받는 인물이 나오는 「타인의 방」의 ‘나’ 역시 이런 인물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패배자 인물 유형은 문제 상황-도전-패배라는 서사 구조를 형성한다. 세계와 개인의 침예한 갈등은 결국 개인의 패배로 귀결되는 양상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1970년대 초기 단편소설의 경향은 1970년대 후반 단편소설에서 변하게 된다.

1970년대 후반 최인호 단편들 중 이전 단편들과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작품들은 삽화적 중·단편들일 것이다. 「죽은 사람», 「신혼 일기」가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매우 일상적이고 나아가 사소하기까지 한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 두 작품은 갈등 구조가 약하며 인물들을 변화시킬 만한 소설적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두 작품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삽화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죽은 사람」	「신혼 일기」
아버지의 임종.	결혼하는 과정의 어려움.
다른 형제보다 ‘나’를 편애한 아버지.	출산의 과정과 육아의 어려움.
어릴 적 밤에 들리는 소리에 겁을 내는 ‘나’를 위로해 주었던 아버지.	신혼 전세방을 힘들게 구하는 과정.
마작을 했던 아버지.	아내가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함.
아버지에게 안마를 함.	노래를 못 부르는 아내가 자장가를 부름.
영화를 보고 울었던 아버지.	아내가 태교를 위해 예쁜 아이 사진을 가지고 다님.

32) 최인호, 「죽은 사람」, 앞의 책. 94쪽.

<p>자고 있던 아버지의 젓꼭지를 빨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좋아하는 발레 선생 님과 관계를 끊음. 아버지의 유품인 화분. 고은 선생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군대 고참의 자살. 가난했던 외가와 외할머니의 죽음. 평안도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남하한 아저 씨의 죽음. 아버지 묘소 이장.</p>	<p>‘나’는 사는 게 괴로워서 술을 마심.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지능이 떨어 질 지도 모른다는 그림책 외판원의 말에 아 내가 울게 됨.</p>
--	---

서술자인 ‘나’가 작가 혹은 소설가 지망생인 점, 아버지가 요절하였거나 아버지가 변호사였다는 점.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누나, 형, 동생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 그리고 누나의 이름이 경옥이라는 점이나 딸의 이름이 다혜라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이 두 작품은 다분히 자전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특색이 없는 평범한 인물과 인위적 상황이 아닌 일상적 상황을 다루기 위해 최인호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 즉 자전적 글쓰기 전략을 취한 것이다. 작가에게 있어 소설이란 ‘스스로를 비쳐 보는 거울’이라고 말했던 그의 소설관은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성취된다.

이 두 작품은 두드러지는 갈등 구조가 드러나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발전하지 못한 채 바로 해소된다. 「죽은 사람」에서 아버지는 누나 경옥의 발레 선생님을 좋아하는 듯한 모양새를 띠지만 누나의 일기를 훑어본 뒤 발레 선생과의 관계를 끊는다.³³⁾ 「신혼 일기」의 ‘나’는 결혼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데 처음 가족들은 대부분 반대의 의사를 표한다. ‘나’가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속으로는 결혼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결국 만장일치로 결혼 승낙을 받게 된다.³⁴⁾ 두 작품의 다른 삽화들도 이와 같이 매우 일상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 갈등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발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로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로써 독자들은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 평범한 인물들을 통해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며 독자들의 현실 문제에 대한 갈구는 자연스럽게 충족이 된다. 이는 『별들의 고향』 이후 확립된 최인호의 소설관에 따른 서사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중들의 고민은 체제나 정치, 거대 담론에 있지 않다. 「신혼 일기」에서 아내가 고민하는, 머리를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오히려 대중들의 고민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고민은 대중들에게 ‘갈구’를 느끼게 하고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인물들을 살펴보거나 평범한 인물들의 상황을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 갈구의 충족이 이뤄지는 것이다. 갈구의 충족이 감동으로 이어지며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설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최인호 소설관에서 말하는 소설의 지향점이었다.

4. 나오며

지금까지 『별들의 고향』 이전의 최인호의 중·단편 소설을 1970년대 초기의 소설로, 『별들의

33) 최인호, 「죽은 사람」, 위의 책. 91~93쪽.

34) 최인호, 「신혼 일기」, 위의 책. 112~123쪽.

고향』 이후의 중·단편 소설을 1970년대 후반기 소설로 구분하여 최인호의 소설관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등단 이후 1970년 이전 최인호의 당선 소감문을 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소설관이나 창작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1970년 초기의 현대문학상 수상 소감문을 보면 그가 이전의 모호한 소설관에서 벗어나 휴머니즘과 예술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예술성’은 ‘창작과 비평’의 편집자인 염무웅과 마찰을 겪으며 당시 ‘창작과 비평’으로 대표되는 참여 문학과 ‘문학과 지성’으로 대표되는 순수 문학에서 순수 문학의 예술성을 지향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최인호의 소설관은 『별들의 고향』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며 다시 변모하게 된다. 그는 『문학사상』에서 발표한 「그 견습환자의 자기진단서」는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창작 활동을 반성하면서 소설에 대한 당시 최인호의 솔직한 생각이 드러나 있어 주목할 만하다. 거기서 최인호는 소설에서 재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설이 일종의 거울임을 주장한다. 거울이란 소설이 인생을 반영한다는 말을 의미한다. 그는 이 인생의 반영을 통해 독자의 갈구를 충족시켜 줄 때 감동이 오는 것이고 이 감동이 결국 재미로 연결됨을 역설한다. 이 과정에서 최인호는 인생의 반영을 위하여 특이성을 지닌 인물이나 인위적 상황을 배제한다. 이로 인해 평범한 인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들이 서사의 재료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별들의 고향』 이후 최인호의 1970년대 후반기 작품들은 이런 최인호의 변화된 소설관이 반영되는 「죽은 사람」, 「신혼 일기」, 「다시 만날 때까지」와 같은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의 이전 작품들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으로 평범한 아이 인물 유형의 등장과 일화를 통한 자전적 글쓰기를 들 수 있었다. 초기 최인호 소설에서 등장하는 아이 인물은 아이답지 않은 애늬은이 같은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 유형은 아이에 대한 평범한 인식을 전복하면서 아이러니를 불러일으켜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기 최인호 소설에서 나타나는 아이 인물은 오히려 평범한 아이처럼 그려진다. 이는 작가가 도피적인 상업주의에 머물게 된 결과가 아니라 변모하여 정립된 대중성 지향적 소설관에 의하여 창작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평범한 아이 인물은 이전의 성숙하지 못한 어른 인물과 상호연민을 통하여 강한 유대감을 일으키고 결국 이는 현실 문제의 해결책의 하나로 제안된다.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1970년대 후반기 소설의 특징은 자전적 글쓰기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들에서는 이전의 평범한 소설의 갈등 구조 대신에 여러 가지 일화들을 묶는 방식으로 소설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이런 작품들은 갈등 상황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첨예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손쉽게 해결된다. 이는 그가 말한 인위성의 배제로 인위성이 없는 구조는 독자에게 서사와 자신의 삶이 유사하게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감은 갈구의 충족으로 이어지고 갈구의 충족은 감동으로, 감동은 재미로 연결된다.

최인호 작품 전체를 보았을 때 초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 초의 소설들은 무분별한 산업화와 강압적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적 문학으로 이해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의 대중적인 작품들은 현실 도피적인 상업주의 문학이라는 오명을 단 채, 저평가 받았다. 최인호를 호의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많은 연구들 역시 이런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초기 작품에 연구를 집중하거나 대중적 작품들에서 일면 참여 정신을 찾는 등 여전히 대중성은 기피해야 할 무언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소설이라는 장르는 태생적으로 상위층 소수 독자로부터 중산층으로 이동을 통한 독서 대중의 형성과 맞닿아 있다. 왜 소설에서 철저히 재미만을 추구하면 안 되는가. 그 재미를 통해 독자는 공감을 느끼고 갈구를 충족하고 위로 받고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만으로 최인호가 바란 소설의 성취는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

다. 참여나 순수나 싸움에서 그 어떤 지향점이 우위를 가질 수 없듯 재미를 추구하는 것 역시 열위를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인호는 『별들의 고향』 이후 체제 반체제에서 또 다른 길인 비체제라는 제 3의 방법을 찾아냈고 문단이라는 비평 권력을 등지고 독서 대중들에게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독자는 속일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인호의 전체 소설 작품 세계에서 초기의 단편들은 그의 소설 세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물론 최인호 소설의 대중성 역시 최인호 소설의 일면에 불과하다. 또한 본격적으로 대중성을 띠었던 신문연재소설을 다루지 못한 점, 1980년대까지 이어진 그의 중·단편을 더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 이전 작품과 이후 작품들의 연결점들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앞으로의 연구 목표로 삼으려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언 와트, 강유나 외 1명 역 『소설의 발생』, 강, 2009.

정기간행물

학위 논문

곽양, 『최인호의 『상도』에 나타난 도가사상:노자 『도덕경』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권은수, 『최인호 단편소설 연구: 아버지와 아이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인경,

학술지 논문

곽상순, 「최인호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정상성과 병리성의 상관성 연구-「견습환자」, 「술꾼」, 「타인의 방」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Vol.4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7.

곽철호, 「최인호, ‘조커-작가’의 기원」, 『작가세계』 Vol.28 No.2, 2016,

김성환, 「산업화 시대의 윤리와 아동의 재발견」, 『한국문학논총』Vol.81, 한국문학회, 2019.

김은하, 「문화학: 예외상태로서의 박정희 시대와 남성 주체의 형성-최인호의 초기작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Vol. 5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1970년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Vol.39, 국제어문학회, 2007.

-----,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불교적 인식 연구-『길 없는 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Vol.0 No.63,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세계관과 성찰의 서사」, 『한성어문학』 Vol.38,

한성어문학회, 2018.

김지윤,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웃음’의 미학」, 『우리말 글』 Vol.72, 우리말글학회, 2017.

김지혜, 「조숙(早熟)과 만숙(晩熟)의 경계」, 『어문논집』 Vol.59, 중앙어문학회, 2014.

김진기, 「최인호 소설의 정치성 연구」, 『중앙어문학회』Vol. 61, 중앙어문학회, 2015.

-----, 「최인호 소설의 반공주의 연구」, 『우리어문연구』 Vol.59, 우리어문학회, 2017.

박찬효,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보행자의 존재성과 도시 공간의 재장소화 양상」, 『현대소설연구』 No.6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윤정화, 「1970년대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미국문화’」, 『비평문학』 Vol.-No.53, 한국비평문학회, 2014.

음영철, 「최인호의 『유림』에 나타난 유가사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Vol.2017 No.5, 한국콘텐츠학회, 2017.

<1970년대 최인호의 소설관과 그 형상화 양상> 토론문

임형모 (한성대)

흥미로운 발표문이었습니다. 잘 읽었고요. 논문을 완성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정이 필요한 지점에는 제 의견을 보태고, 의문이 드는 부분에서는 질문을 던져 보는 방식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4장인데, 5장으로 해도 되겠어요. 2장은 소제목으로 ‘대중성을 지향하는 소설관 정립’, 3장은 ‘아이의 재발견에 따른 평범한 인물의 형상화’ 혹은 ‘평범한 인물 유형’, 4장은 ‘갈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전적 글쓰기’ 정도로 세분화하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갈구’가 작가의 용어를 활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구자의 시각을 담은 용어로 바꿔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1장은 문장이 너무 거칠어요. 2~4장은 어느 정도 문장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1장은 그렇지 않아요. 소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서론을 다시 썼다고 판단이 돼요. 문장을 안정적으로 써야 합니다. 결국은 문장이거든요. <별들의 고향>(1972~3)의 대중적 성취가 소설관에 변화를 가져오는 이유를 발표문에 작성하기는 했으나 분명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좀 더 설득력 있게 부연을 하면 좋겠어요. 작가의 소설관을 규명하는 작업을 2차 텍스트를 중심으로 논한다고 했으나, 그러한 작가의 생각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실제 작품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겠지요. 더불어, 대중소설과 80년대 소설을 논하기 전에 70년대 중·단편 소설을 짚고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점을 부연하면 좋겠어요.

또한, ‘휴머니즘과 예술성’ 그리고 ‘소설을 소설답게 하고자 했던 작가적 고민’ 그리고 ‘스스로를 비쳐 보는 거울’ 등과 같이 작가의 소설관을 엿볼 수 있는 말들은 많은데, 이를 연구자만의 시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연구자는 그러한 소설관을 어떻게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지 연구자의 관점을 제시해 주세요.

더불어,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던 작품들을 나열해 주면서, 상대적으로 논의에서 소외가 되었던 작품의 목록 정도는 외각주 등에 제시를 해 놓으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편하겠어요. 무엇보다 작품의 제목 옆에 발표 년도를 병기해 주면 훨씬 좋겠지요. 참고문헌에서도 1차 자료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1차 텍스트부터 친절하게 제시해 주는 게 어떨까요.

끝으로, 제목입니다. 어디까지나 제안인데, 제목을 ‘1970년대 최인호 중·단편소설의 변모 양상’ 정도로 하고 ‘소설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도의 부제를 붙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어요. 흥미 있는 글이었고요, 멋진 논문으로 완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문학]

일제강점기 기녀 관련 사당의 역할과 의미
<전우치전> 속 약자적 인물의 결함과 그 의미
재지사족 所作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의 표현 양상과 그 의미
공정성 평가에 따른 고전 해석의 확장 가능성 연구

일제강점기 기녀 관련 사당의 역할과 의미

- 義妓 論介와 貞女 春香을 중심으로

문순희(연세대)

1. 들어가면서

본 연구는 임진왜란 시 왜장을 안고 바위에서 뛰어내린 의기 논개와 <춘향전>의 주인공인 춘향과 같은 기녀 관련 사당이 일제강점기 일본어로 제작된 안내서에서 지역의 명승고적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논개와 관련된 유적은 조선 후기로부터 진주에서는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1920년대에도 ‘飛鳳山’, ‘水晶峯’, ‘晉陽城’, ‘望晉峯’, ‘大寺池’와 더불어 논개가 뛰어내린 바위인 ‘義巖’, 논개 사당인 ‘義妓祠’, 그리고 비각이 있는 ‘義妓閣’의 8곳이 ‘晉陽八景’으로 신문에 소개되어 있다.¹⁾ 이후 1937년 일본어로 간행된 『晉州概史及名勝古蹟』 속에도 10곳의 진주 명승고적 중 하나로 신사가 위치한 진주공원 뒤에 이어서 축석루와 의암이 소개되어 있으며, 같은 해 진주군에서 발간한 『郡勢一斑』에도 축석성지, 축석루, 의암의 순서로 소개되었다.²⁾ 이처럼 기녀 관련 일화와 이와 관련된 장소가 고적으로 소개되는 사례는 남원에서 발간된 안내서에도 발견된다. 『南原案内』에는 고적으로 광한루에 이어 춘향 사당이 소개되었다. 의암과 춘향 사당처럼 조선시대 기녀와 관련된 장소가 일본어로 간행된 안내서에 명승고적으로 주목되었다는 것은 논개와 춘향을 둘러싼 기녀 관련 담론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과거 논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디의 출생이고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녀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조선 후기 생성된 ‘논개의 순국과 충절’ 관련 담론과 여기에 조작된 기억 연구, 논개의 <義巖別祭> 연구 등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다.³⁾ 정지영(2009)이 논문에서 “논개에 대한 사실은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증명을 위한 노력은 논개에 대해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역설적 사실만을 보여 줄 뿐이다. 논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사실은 논개에 대한 어떤 기억이 여러 내용으로 뚜렷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논개에 관한 여러 설은 그 사실과 무관하게 현재 우리에게 임진왜란 시 왜장을 안고 강에 몸을 바친 의기(義妓)로 전승되어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춘향의 기억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춘향은 19세기 소설 속 주인공으로 역사적 인물인 논개와 달리 가상 인물이긴 하나, 20세기 초부터

1) 「巡廻探訪(二百四十四), 十八郡排列하고 中央에雄據 錦繡江山의 晉州」, 『동아일보』, 1927년 2월 22일 기사.
2) 『晉州概史及名勝古蹟』(晉州郡觀光協會, 1937)과 『郡勢一斑』(慶尙南道 晉州郡, 1937)은 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 『南原案内』(南原邑, 南原商工會議所, 연도미상)은 東京經濟大學 사쿠라이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3) 조선후기 논개 담론의 전개와 변이에 대해서는 박노자(2007), 정지영(2007) 등의 논의가 있으며, 이화영(2019)은 이러한 논의를 이어 근대 이후 최근까지 논개 담론이 어떻게 활용되면서 문화적으로 재현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논개제인 <의암별제>에 관해서는 성계옥(1986)과 양지선·김미숙(2010) 등의 연구가 있다.

일본인들에 의해 정절을 지킨 여성의 상징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남원에서는 춘향의 영혼을 기리는 축제까지 개최되었다. 이러한 춘향에 대한 이미지와 축제는 현재까지도 오래된 전통처럼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역사/문화적 기억이 시대에 따라 어떠한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선택과 배제가 반복되었다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관계 속에서 고전 인물이 재구성되고 활용되었는지 알아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논개와 춘향에 대한 ‘집단 기억’이 단절된 기억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⁴⁾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일제강점기에 조선시대 인물인 논개와 소설 속 가상 인물인 춘향이라는 기녀 사당이 어떤 의도 아래 재건 및 신축되고, 이를 둘러싼 제례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지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일제강점기 기녀 관련 사당과 제례의식

임진왜란 이후 진주 지역에서 떠돌던 논개 이야기는 柳夢寅의 『於于野談』에서 처음 기록되었다. 이후 경종 2년(1722)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崔鎮漢이 논개의 행적을 인정하고 포상하는 내용을 비변사에 올린 결과 인정되면서, 축석루 바로 아래 논개가 바다에 뛰어내린 바위를 義巖이라고 하고 鄭大隆을 시켜 암벽에 ‘義巖’이라고 새기게 하였다. 이때 義巖事蹟碑을 세워서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영조 16년(1740)에는 축석루 서쪽에 義妓祠를 중건하고, 정조 3년(1799)에는 洪和輔에 의해 보수되기도 하였다. 이후 순조 때에도 의기사를 보수하거나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의기사는 여러 번의 보수를 거치면서 유지되었다. 고종 5년(1868)에는 진주목사로 재임한 璞園 鄭顯爽⁵⁾에 의해 사당이 중수되었는데, 그는 진주 관기들을 동원하여 논개를 기리는 <義巖別祭>를 지내게 하였다. 이때 동원된 기생의 수는 무려 3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이후 매년 6월 중에 길일을 택하여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⁶⁾

이처럼 조선 후기 진주 지역 사람들의 노력으로 비석과 사당이 마련되고 제사가 진행되면서 논개는 義妓로서 자리매김 되었는데, 18세기 이후 다산 정약용, 매천 황현 등이 논개를 추모하는 글과 시를 남기면서 야담 속 기녀 이야기였던 논개 이야기는 양반 사대부들에게도 충을 실행한 의녀로 널리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처음 유몽인에 의해 ‘晉州官妓’로 소개된 논개는 1799년 간행된 『湖南節義錄』에서 본관, 출생, 생애 등이 밝혀지고, 崔慶會의 세 번째 후실로 기록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논개는 조선 후기 사대부들에 의해 점차 여성 충신으로 만들어졌다.⁸⁾

4) 기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관해서는 논개제는 금지되었고 당시 생산된 논개 담론은 민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일제 논개 담론을 연구한 이화영은 논문에서 일제강점기에 논개 담론에 관해서는 1920년대 김창숙, 변영노, 한용운 등의 시와 시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5) 정현석은 1867년에 진주 목사로 부임하여 진주지방에서 현감과 목사를 연임하면서 『教坊歌謠』를 저술한 인물로 이때 진주 기녀들로만 치러지는 방식의 제례의식을 실시하였다(양지선·김미숙, 「의암별제의 특성 연구」, 『한국무용연구』 28(20), 한국무용연구학회, 2010, 170쪽.)

6) 유승수, 「진주성의 의기 논개 고」, 『의암별제』, 보고서, 2006, 336-350쪽.

7) 다산 정약용은 정조 3년에 의기사를 보수한 홍화보의 사위로 그의 요청으로 「晉州義妓祠記」를 썼고, 매천 황현은 「義妓論介碑」를 남겼다.

8) 조선 후기 논개가 義女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지영(2007)을 참고할 수 있다.

19세기 말 박원에 의해 시작된 논개 제사인 <의암별제>는 20세기 초까지 계승되었다가 1910년대 한일병합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⁹⁾ 고종 때 진행된 논개제는 의식이 끝난 후 여흥 잔치가 3일 베풀어졌는데, 유교의 제의적 기능과 동시에 풍류적 성격을 함께 지는 독특한 사례였다.¹⁰⁾ 이후 논개제에 관해서는 1920년 신문 기사에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義妓 論介의 事跡을 世世傳傳히 祈念키 爲하여 晉州城 龜石樓 西部에 祠堂을 建하고 年年히 ■志가 參拜하며 祭祀하더니 近年에 至하여 參拜者 殆無할 뿐 아니라 祭祀 及 日字까지 忘却하고 風磨雨況의 懷損된 故로 ■地有力者들은 今夏로부터 藝奴組合에서 斡旋하여 重修 發起會를 組織하고 近日에 重修■이더라¹¹⁾

위의 기사에 따르면 논개의 제사는 해마다 거행되었는데, 근년에 이르러 참배자가 거의 없어지고 나아가 제삿날까지 잊혀지면서 유야무야 없어지게 되었고, 사당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1년 여름부터 지역 유력자들이 예기조합을 알선하고 중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후 논개제가 다시 거행했는지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1927년 신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논개의 제사가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예기 권번 소속 기생들이 스스로 기본금을 마련하고 논개의 제사를 매해 거행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²⁾ 이때 기사에 따르면 제사에 참여한 권번 기생은 오옥엽(吳玉葉), 김봉란(金鳳蘭), 엄란심(嚴蘭心) 등 10여 명이었으며, 27일 밤 10시경부터 제단을 거행하였다.

과거 수백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된 <의암별제>와 비교했을 때 기생들이 해마다 자금을 모아 제한적으로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진주권번에는 약 100명 정도의 기생이 소속되어 있었고, 1930년대에는 약 90명의 기생이 소속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¹³⁾, 일부 기생들에 의해 조용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1920년대 후반까지는 논개 사당인 의기사와 논개제에 관해서는 지역



<그림 1> 논개제에 관중이 모여 인산인해하는 모습을 실은 신문기사(「龜石樓에 論介祭 觀衆이 人山人海[寫](晉州)」, 『동아일보』, 1938년 7월 31일자)

- 9) 과거 논개제에 관해서는 <의암별제> 연구에서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어 해방 후에 복원되었다고 언급되었다. 1927년의 신문 기사 「巡廻探訪(二百四十四), 十八郡排列하고 中央에雄據 錦繡江山의 晉州」(『동아일보』, 1927년 2월 22일)에도 일제에 의해 논개제가 금지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10) 고종 때 선상기로 뽑혀 올라가 궁중 연회에도 참석하였던 진주 기녀 崔順伊라는 인물에 의하면 고종 때까지도 의암별제를 지냈다고 한다(양지선·김미숙, 앞의 논문, 174쪽, 187쪽.)
- 11) 「義妓祠堂重修」, 『매일신보』, 1920년 12월 13일 기사.
- 12) 논개의 영혼을 위로키 위하여, 지금부터 삼백삼십오년 전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晉州)의 앞을 길이 변함없이 흐르는 남강(南江) 물에 그 고운 몸을 던져 나라를 위한 의기(義妓)로 천고에 그 이름이 날리는 논개(論介)의 제사는 지금부터 칠팔년을 내려오며 유야무야 중에 그만두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 당대 예기권번 기생들은 그 전 예기조합 당시에 분배된 이백여원의 기본금으로 매년 의기 논개의 제사를 거행키로 하고 지난 이십칠일 밤 열시 경부터 오옥엽(吳玉葉), 김봉란(金鳳蘭), 엄란심(嚴蘭心) 등이 십여 기생이 제단을 거행하였더라. 「晉州妓生들이 論介祭 舉行」, 『중외일보』, 1927년 8월 1일 기사.
- 13) 양지선·강인숙(2013)에 의하면 1910년대 진주권번에 100여 명의 기생이 소속하고 있었고, 1930년대 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약 90명의 기생이 진주권번에 소속되어 있었다.

의 일부 유력자들에 의해 중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역에서는 제사를 치르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논개제가 진행된 양상은 1930년대에 확인된다. 1931년 음력 6월 28일 진주에서는 임진왜란에서 진주성이 함락했을 당시 성을 지켰던 義士 三壯士(金千鎰, 崔慶會, 黃進)가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한 것을 추념하여 彰烈祠¹⁴⁾에서 제례를 지내고, 다음날 축석루에서 논개를 기리는 제사를 권번 기생들이 올렸는데 이때 축석루에 모인 관중이 수만 명이였다.¹⁵⁾ 다음 해인 1932년 제례에는 3만 명의 관중이 참여하였고, 1933년에도 우선 삼장사와 함께 논개제를 올리고 시민의 참배가 끝난 후에 권번 기생들이 총출동하여 검무를 추고 잡가를 부르는 일정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¹⁶⁾ 신문 기사에 해마다 거행되는 행사로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도, 논개제는 1930년대 삼장사의 제례에 이어 진행되는 일련의 제례의식으로 형태가 갖춰지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모 행사로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일부 기생들에 의해 밤중에 거행된 논개제는 1930년대 수만 명의 관중이 모이는 지역 행사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삼장사와 논개에 대한 제례가 정례화되어가고 있었던 1934년 논개의 비각과 의기사는 새롭게 중수되게 된다. 이때 소요된 비용은 진주권번과 晉陽女子爲親契가 중심이 되어 구극탈노름(인형극), 가무대회 등을 개최하여 비용을 마련하였다.¹⁷⁾ 수리가 완공한 후 진행된 낙성식에서는 위패봉안식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그림 2>는 의기사가 준공된 다음 해 신문에 실린 기사로, 「重修再建한 古蹟과 名勝-雨風半萬年 遺墟에서 새로운 舊容」이라는 제목으로 옛날 사당과 고적들이 보수되면서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단군릉, 수원성, 충무공의 현충사, 부벽루, 장충단과 함께 논개의 의기사 사진이 지면 가운데 실려있다. 1934년에 이루어진 의기사의 중수는 1920년대 한차례 제기된 중수와 달리 당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고적 발굴 및 보존 사업 등 여타 사회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같은 시기 남원에서는 <춘향전> 주인공 춘향을 모시는 사당이 건축된다. 소설 속 가



<그림 2> 사진 중앙에 중수한 고적으로 소개된 논개 의기사(「重修再建한 古蹟과 名勝-雨風半萬年 遺墟에서 새로운 舊容」, 1935년 1월 1일자)

14) 창렬사는 임진왜란 시 계사년에 전사한 경상 우병사 증 우참찬 최경회(崔慶會), 충청 병사(忠淸兵使) 증 좌찬성 황진(黃進), 창의사(倡義使) 증 좌찬성 김천일(金千鎰) 등 28인의 위패를 함께 제향하는 사당이다. 1686년 창렬사(彰烈祠)의 가까운 산기슭에 축석정충단비(矗石旌忠壇碑)를 세워 제향을 올렸다.

15) 「壬辰當時晉州大戰 三壯士와 義妓祭典, 수만명 시민이 엄숙히 열석해, 진주성이 함몰되는 음六月廿八일에, 晉州矗石樓에서 舉行」, 『동아일보』, 1931년 8월 15일 기사.

16) 「晉州라 矗石樓의 三壯士 義妓祭 壬辰故事에 慷慨한 三萬市民(晉州支局一記者)」, 『동아일보』, 1932년 8월 17일 기사; 「物換星移 三百餘年 죽지 않은 忠魂義魂, 陰六月廿八日 晉州서 舉行된 三壯士 金千鎰 崔慶會 黃進과 論介祭典[寫]」, 『동아일보』, 1933년 8월 25일 기사.

17) 「義妓祠堂修理 朝鮮歌舞大會 主催 晉陽樓 後援 晉州券番及 本報晉州支局」, 『동아일보』, 1934년 2월 27일 기사; 「義妓論介碑閣 一新重修完了」, 『매일신보』, 1934년 7월 13일 기사. 1934년 비슷한 시기에 삼장사의 창렬사도 보수되었는데, 창렬사는 지역 유력자들이 비용을 마련한 한편으로, 의기사는 기생들이 스스로 공연을 개최하여 마련하게 하였다.

상인물에 대한 사당 건축은 과거에 유례 없는 일이었다. 춘향 사당의 건립은 1928년경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1931년에 남원권번 기생들의 발기로 시작하여 지역 유력자들의 후원으로 광한루 내에 건립되었다. 남원에서는 사당 건립 직후로부터 매해 음력 4월 8일에 춘향제를 열었는데 제1회 춘향제는 남원읍의 후원과 春香廟協贊會의 주최로 실시되었다. 춘향에 대한 제례의식은 기생들이 담당하였는데 제사는 각종 여흥을 비롯하여 수일간 거행되었다. 첫해에는 3천여 명이 참여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성대히 진행되었다. 1939년 제9회 때에 이르러서는 춘향초상을 봉안하는 입혼식(春香入魂式)까지 거행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 식산은행 취두(取頭)였던 일본인 하야시 시게쿠라(林繁藏)의 요청으로 화가 김은호(金殷鎬)가 그린 춘향의 초상이 봉안되었다. 행사에서는 당시 고소설의 대표적 연구자인 김태준이 축사를 맡았고 3만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각종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¹⁸⁾

이처럼 1930년대 초반 진주 축석루에서 열린 논개제와 남원의 춘향 사당에서 열린 춘향제는 제례의식과 더불어 각종 여흥 행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지역 내외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축제로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기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당의 건립과 재건, 그리고 해마다 성대히 개최되는 제사가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지녔는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기녀 관련 사당과 제례의 역할과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개와 춘향이라는 기녀 관련 사당과 이들을 기리는 제례는 1930년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의 중심 되었다. 조선시대 유교적 ‘충’의 정신이 사라진 식민지 사회에서 논개와 춘향이라는 역사적·문화적 인물에 대한 제례의 재현을 단순히 전통의 계승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대 사회와의 관계성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전통적 풍속의례가 지역 축제로 변화한 사례는 세시풍속인 단오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일병합 이후 경성에서는 단오절의 세시 의례가 축소되는 반면에 그네뛰기와 씨름대회를 중심으로 한 행사가 개최되면서 지역축제의 성격이 강해졌고, 1920년대에 들어서서는 각종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 지역대회로 활성화되었다. 예컨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걸쳐 매일신보사는 단오절에 ‘시민 위안 단오놀이’를 주최하였는데, 장충단이나 경무대에서 시내 다섯 권번 소속 기생을 불러 흥을 돋우고, 그 외에도 시내 일주마라톤, 부인네의 보물찾기, 소년소녀 그네뛰기, 씨름, 현상미인 찾기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단오절의 민속놀이대회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절정을 이루었다고 한다.¹⁹⁾ 전통적 민속놀이인 그네뛰기와 씨름은 당시 현상금이 걸린 스포츠대회로 개최되고, 여흥 행사는 권번 기생들이 담당하였다. 근대 세시 풍속의 변화는 경성, 평양 등의 대도시에서 주로 발견되었는데, 근대도시에서는 세시 풍속이 오락적 요소를 포함한 축제 문화로 변모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식민지 관리체계는 3.1운동 이후 1920년을 기점으로 문화적으로 동

18) 졸고, 「일제강기 안내서로 보는 명승고의 재편과 명소의 창출 -남원 지역을 사례로」, 『열상고전연구』 71, 열상고전연구회, 2020, 201쪽.

19) 안주영, 「일제강점기 지역축제로서의 단오(端午)의 지속과 변화 -서울(京城)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20, 동아시아고대학회, 273-274쪽.

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경성에서는 서구의 모던한 도시 경관을 추종하고 백화점과 호텔과 같은 근대적 공간이 관광 명소가 되었고, 극장과 같은 새로운 문화시설은 대중문화와 여가를 주도하는 소비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전국적으로는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각종 전람회, 박람회와 같은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적 통치 권력이 펼쳐지게 되었다.²⁰⁾ 예컨대 1927년 경상남도 鎭海에서도 共進會가 개최되었다. 여타 공진회처럼 수많은 각종 여흥이 펼쳐진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종목은 진주기생예기회, 활동사진대회, 연극장, 곡마단 등으로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²¹⁾ 진주기생은 조선시대로부터 남도 기생이라고 하면 진주기생을 일컬었을 정도로 그 수가 많기로 유명하였는데, 1910년에는 진주 기생 8명이 일본 오사카의 지방 연극장에 1개월 기한으로 고용되어 건너갈 정도로 진주기생의 기예는 일찍이 일본에까지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근대 기생들은 박람회, 전람회, 공진회 등 각종 행사에서 공연을 펼치는 일들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다음 인용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관례화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社會的 原動力의 浪費者로서 이 制度를 排斥한다. 外交的 宴會는 반다시 기생을 부르고 亂舞徹夜치 아니하면 안 될 理由는 없다. 朝鮮이 外來文化와 接觸하여 얻은 것 중에 가장 악한 물건인 하나가 이 기생 부르는 宴會制度다. 商去來를 하라고 해도 기생, 學校 入學運動을 하려고 해도 기생, 利權運動, 就職運動에도 기생. 學生의 送別會도 기생, 新年에 기생, 꽃 피었다고 기생, 배노리에 기생, 약수터에 기생, 달구경하자고 기생, 妄年하자고 기생, 四時長철 기생이니 이르고도 이 社會가 시들어 빠지지 않을 수가 잇을까. 늙은이도 기생, 젊은이도 기생, 敎員도 기생, 生徒도 기생, 失業家도 기생, 實業家도 기생, 이르고도 어찌 國民의 元氣가 磨盡되지 아니할까.²³⁾

위의 글은 1931년 『동광』 제28호에 실린 「妓生撤廢論」이라는 논설의 일부이다. 저자는 기생의 철폐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세 번째로 기생의 연회제도를 뽑고 있다. 그는 이를 ‘조선이 외래문화와 접촉하여 얻은 것 중에 가장 악한 물건인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사적인 모임에서 공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유행처럼 기생을 부르지 않는 행사가 없었다. 일제강점기 권변 소속 기생들은 조직적으로 조선인 학교에 대한 지원금, 수혜 지역을 위한 의연금 등 지역 사회를 위해 각종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을 펼치기도 하였고, 풍류문화를 전승하는 예인집단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도 근대 여가 문화 속에서는 시대적 명물에 지나지 않았다.

고종 때까지도 <의암벌제>를 재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논개제가 1930년대 권변기생들이 총동원되고 검무를 춤추고 시조나 잡가를 부르는 공연 형태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도, 義妓 논개를 기리는 제향은 논개를 위한 것보다는 제례에 참여하는 일반 참가자들을 위한 축제로 그 역할이 전환되었다.

남원 춘향제의 경우 근대 지역 축제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36년에 개최된 춘향제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생들의 제례의식에 이어 이어지는 공연과 더불어 시내에서는 漢詩대회, 弓衛대회 角力대회 名唱대회 등이 5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20) 이인열, 「여가와 관광개념 형성에 투영된 모더니티와 오리엔탈리즘의 변증법 : 일제강점기 사례 연구」, 『관광학연구』 36(6), 한국관광학회, 2012, 23쪽.

21) 「大盛況의 共進會 觀光客日復日輻輳」, 『중외일보』 1927년 4월 15일 기사.

22) 양지선·강인숙, 「문헌자료를 통해 본 진주기생의 활동양상」,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2013, 60쪽.

23) 韓靑山, 「妓生撤廢論」, 『동광』 제28호, 1931년 12월 1일.

모인 사람들로 읍내가 번잡할 지경이었다. 각지에서 남원으로 통하는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 찼고, 걸어서 오는 사람들의 줄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남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밤에 잘 곳이 없었고, 읍내 음식점은 1년 별이에 임시로 여러 명의 사람을 고용할 정도였다.²⁴⁾

논개제에 관해서는 의기로서의 행적과 논개제의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춘향제보다는 정신적으로 전통적 제례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예상되지만, 권번 기생을 동원한 행사 진행과 행사에 모인 관중의 숫자로 봤을 때 논개제나 춘향제 모두 지역 축제라는 근대 자본에 의한 여가 문화의 형태를 보여준다. 두 제례 행사 모두 1930년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기녀를 기리는 제례가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였을까.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1930년대 일본어로 간행된 안내서 『晋州概史及名勝古蹟』과 진주군에서 발간한 『郡勢一斑』에 의암이 명승고적으로 논개 이야기와 함께 소개된다. 진주에서 논개는 義妓로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왔으며 의암은 그의 전설과 함께 고적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외부 진입자인 일본인들에게 논개 이야기는 기생이라는 신분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림 3> 일제강점기 조선명소 엽서에 실린 義岩(출처: 國際日本文化研究センター 朝鮮写真絵はがきデータベース, 8-晋-1)



<그림 4> 일제강점기 사진엽서에 실린 “朝鮮名勝 晉州의 妓生”(출처: 「진주기생 산흥 정부포상 추진」, 『경남일보』 2016년 6월 1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그림 3>과 <그림 4>는 일제강점기 간행된 사진엽서로, <그림 3>의 의암 절벽 사진에는 ‘일군 게타니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介)가 기생 논개와 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림 4>를 보면 진주 명물로서 기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일제의 문화 통치 속에서 논개제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제례의식이 성대하게 거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생이라는 화제성과 임진왜란 시의 의기라는 일본과의 관계성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²⁵⁾ 이는 아무리 주취가 지역유지의 조선인과 기생이라고 하여도 세시 풍속을 비롯해 전통적 의례가 식민지기 문화통치 아래 진행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제는 문화, 언론, 예술적 자율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이를 통한 계몽적이고 우회적인 문화통치를 고착시켰다.²⁶⁾ 조선 후기 논개가 상징하였던 충의 모델은 그대

24) 「주야 차이없이 들끓는 남원 고려 조선 시대를 방불하는 유서있는 춘향제 봄벼」, 『부산일보』 1936년 5월 5일 기사.

25) 일제강점기 고적 발굴 및 보전 사업에서의 선택된 기준이 일본과 관계성이 중요시되었다. 당시 고적을 관광지화하면서 일본 역사와 연관시키는 관례는 조선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에게 하여금 조선과의 친연성을 강조하고 위한 것이었다.

26) 이일열, 앞의 글, 19쪽.

로 근대 국가주의 애국의 모델로 전이되었다.

실질적으로 1920년대 10여 명의 권번 기생들에 의해 간간이 거행된 제례가 삼장사와 함께 진행된 대규모 의식으로 변이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중요한 부분이지만,²⁷⁾ 남원 춘향제의 경우에는 소설 속 가상의 인물인 춘향의 영혼을 모시는 사당이 갑자기 만들어진 데에는 사회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춘향 사당의 건립에 관해서는 과거 남원 지역의 특권 세력이었던 양로당 회원과 권번 조합장, 권번 기생 및 퇴거들이 관여하여 고적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행되었다고 언급되지만²⁸⁾ 사당 건립은 춘향을 통해 사회적으로 교화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貞女라는 상징이 바로 그것이다. 애국 논개와 정녀 춘향의 이와 같은 상징성은 일제강점기 기생을 둘러싼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昔日의 妓生과 今日의 妓生

年年歲歲 花相似하되 歲歲年年 人不同이라는 古人の 詩句는 이 妓生界을 대하여 말하여야도 適宜하다. 妓生界야말로 참 변천이 많다. 年年이 인물도 변하고 풍속도 변하고 사치품도 변하고 伎藝도 변한다. 昔日의 기생은 귀족적이나 今日의 기생은 평민적이다. 昔日의 기생은 비록 賤業을 할지라도 예의와 염치를 尙하더니 今日의 기생은 但히 금전을 숭배한다. 금전만 주는 以上에는 예의도 염치도 다 不顧한다. 所謂 賣唱不賣淫이라는 傳來의 語는 名詞까지 업서지게 되었다. 純然히 商品化하였다. 鄙劣한 愁心歌 難逢歌는 잘 할지언정 高尚한 詩時調歌詞는 별로 알지 못하고 長鼓통 팽가리 채는 잘 만질지언정 검은고 가야금은 줄도 고를 줄 아는 者가 적다. 鴨綠江부시 이소부시 등의 반병어리 日本노래는 드를 수 잇서도 昔日 成川의 芙蓉 開城의 黃眞 平壤의 蘆花와 가튼 이의 詩를 볼 수 업다. 康明花李花蓮은 연애를 위하여 泉臺의 不歸魂이 되고 姜香蘭丁琴竹은 一時的 호기심으로 斷髮美人의 칭호를 어긋지만은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身을 희생에 供하던 晋州의 論介와 平壤의 桂月과(俗稱 月仙)가튼 여장부를 다시 볼 수 업다. 南原의 春香(事實有無는 別問題) 春川의 桂心이 가튼 貞節도 볼 수 업다. 前日의 所謂 妓生宰相이라던 評은 변하여 妓生砒霜 妓生苦生이 되게 되었다. 이것은 시대의 관계도 물론 잇지만은 엇지 기생의 타락이라 云치 안이할가.²⁹⁾(밑줄은 저자가 표시)

위 인용은 1924년 『개벽』 제48호에 <昔日의 妓生과 今日의 妓生>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설이다. 앞서 「妓生撤廢論」이라는 논설의 일부를 인용으로 살펴보았는데, 1930년대 기생은 사회의 악으로 기생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설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귀족적인 옛 기생과 평민적인 현 기생, 천업이지만 예의와 염치를 갖추고 있었던 옛 기생과 상품화되어 금전을 쫓는 현 기생으로, 옛 기생과 현 기생을 대조적으로 언급하면서 옛 기생을 미화시킨다. 이

27)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조사 보완하도록 한다. 19세기말 정현석이 기생들을 총집합하여 <의암별제>를 진행하기 이전까지 논개의 제사는 나라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때 제향에 기녀가 참여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기생이 논개제의 주최가 된 것은 192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에서는 사당의 보수비를 권번기생과 진주여성위친계에 총당시키는 등 논개와 관련된 모든 일을 기생(여성)에게 넘겼다.

28) 남원에서 춘향 사당의 설립과 명소화에 대해서는 졸고(2020)에서 지역 명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춘향전>은 1910년대 『옥중화』가 출판된 이후 수십 종의 활판본이 출판되었고,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1920년대에는 조선 최초의 상업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 내용의 통속성으로 인기를 끌었던 <춘향전>이었는데, 1920년대 유통된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외설적인 장면이 모두 삭제되어 주인공 춘향을 이상화하고 열녀로서의 면모가 강조되었고 이후 춘향은 貞女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된다.

29) 「京城의 花柳界」, 『개벽』 제48호, 1924년 06월 01일.

어서 오늘날에 볼 수 없는 기생으로 진주의 논개와 평양의 개월향, 남원의 춘향, 춘천의 계심을 상징적으로 언급된다. 이때 논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한 여장부로, 춘향은 정절의 상징으로 언급된다. 이러한 논개와 춘향의 애국과 정절의 상징은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기사 하나를 보도록 한다.

진주라도 축석루 논개라는 기생은 왜장 키요마사 목을 안고 진주 남강에 떨어져... 취한 콧노래라도 이런 노래를 들을 때에 우리들은 반드시 옷깃을 여미고 무엇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아! 진주 남강의 물은 마를 때가 있을 지라도 푸른 물결 위에 이슬같이 사라진 한 떨기 꽃향기는 사라질 때가 없을 것이다. 필자보다도 더 기생을 찬미한 문인이 있으니 그것은 무명의 위대한 소설가인 옥중화(춘향전)의 작자이다. 그는 춘향이라는 기생을 통하여 조선 여성의 정조관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러나 필자는 현재 기생의 완전한 상품화 인육화 퇴폐타락한 참상 앞에 시선을 돌릴 때, 耳朶를 기울일 때, 신화 같은 옛 이야기를 들어 기생을 찬미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달을 때 붓끝이 어지럽다. 요즘의 기생을 보고서야 卍言寸舌의 참사가 나올가보나? 그저 욕이다 욕!³⁰⁾(밑줄은 저자가 표시)

위 인용은 1927년 『신민』 제30호에 실린 논설 중 일부로, 직업으로서 기생을 소개한 내용이다. 저자는 이 글 모두에서 기생에 대해 ‘이번에 나오는 직업이야말로 몹시 냄새나는 직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선찬후욕(先讚後辱)으로 우선 옛 기생에 대한 예찬을 먼저 시작한다. 이 글에서도 확인되듯이 논개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으며, 춘향은 조선 여성의 정조관을 보여준 인물로 언급된다. 일제강점기 점차 일본식 매춘문화가 사회에 구조화되면서 사회의 악으로 천시되는 기생들에 대한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논개와 춘향은 개성의 황진이, 평양의 노화와 계월향과 함께 옛 기생의 이상적 모델이자 나아가 조선의 이상적 여성으로 자리매김 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논개와 춘향이라는 고전적 상징이 효과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발휘 수 있었다는 점이다.³¹⁾ 기녀 관련 고적과 이를 둘러싼 행사는 일제강점기 지역민에게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고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이루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애국과 도덕을 상징하는 논개, 고결과 정절을 상징하는 춘향은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능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기녀의 신분과 스토리의 친근함은 하필이면 기녀가 아닌 조선시대 기녀이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중들에 받아들여졌다.

한편으로 19세기부터 <의암별제>를 거행하고 기일에 맞춰 제례를 지내온 진주 기생에게 논개라는 존재는 일제강점기 기생에 대한 멸시가 표면화되는 시기에 진주기생이라는 자존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1920년대 진주에서는 논개제를 전후하여 기생 노릇에 세상을 비판한 기생 여럿이 때를 지어 의암에서 뛰어 내려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건을 봤을 때 진주기생들에게 논개는 특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0) 「職業巡禮(9): 기생」, 『신민』 제30호, 1927년 10월 1일.

31) 조지 모스는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에서 근대 서구에서 그리스의 고전적 상징이 유지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 국가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불변적 힘을 형성화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성의 편린’을 부가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리스 고전은 이런 필요성에 부합했다고 하였다.(조지모스 저,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04, 32쪽)

4. 나가면서

본 발표에서는 일제의 탄압으로 단절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논개를 기리는 <의암별제>가 일제강점기에도 과거와 다른 형태로 지속적으로 거행되어 왔던 과정을 밝히고, 1930년대 증건된 춘향 사당과 더불어 당시 기녀 관련 사당과 제례의식이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우선, 1930년대 거행된 논개제와 춘향제는 권번 기생을 대거 동원한 진행과 수만 명의 관중과 함께 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과거 제례의식과 달리 자본에 의한 여가 문화인 지역 축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 진행된 논개 사당의 보수 및 춘향 사당의 신축 또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고적발굴보존사업과 고적을 관광지화하려는 지역 활동의 양상과 흐름을 같이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녀 관련 사당은 지역 사회에서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기생 관련 고적과 제례 행사가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과 의미를 봤을 때, 기녀 관련 고적과 이를 둘러싼 행사는 지역민에게는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고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애국과 도덕을 상징하는 논개, 고결과 정녀를 상징하는 춘향은 일제의 문화통치 아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능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시대 기녀가 일제강점기 재구성되고 문화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논개와 춘향에 대한 ‘집단 기억’이 일제강점기에 단절된 것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며, 일제강점기 여가 문화의 한 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발표문에서는 근대 국가주의, 민족주의, 여성상 등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전개되었고, 식민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보완하면서 논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晋州概史及名勝古蹟』, 晋州郡觀光協會, 1937.
『郡勢一斑』, 慶尙南道 晉州郡, 1937.
『南原案内』(南原邑, 南原商工會議所, 연도미상)
노성환, 「논개와 로쿠스케 - 후쿠오카의 보수원을 중심으로 -」, 『일본언어문화』 14,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09, 339-360.
문순희, 「일제강기 안내서로 보는 명승고의 재편과 명소의 창출 -남원 지역을 사례로」, 『열상고전연구』 71, 열상고전연구회, 2020, 173-208.
박노자, 「의기(義妓) 논개 전승 - 전쟁, 도덕, 여성」,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229-254.
성계옥 편저, 『의암별제지』, 보고서, 2006(초판 1986.)
손중흠·박경우·유춘동, 『근대 기생의 문화와 예술: 자료편 2』, 보고서, 2009.
안주영, 「일제강점기 지역축제로서의 단오(端午)의 지속과 변화 -서울[京城]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20, 동아시아고대학회, 255-297.
- 양지선·강인숙, 「문헌자료를 통해 본 진주기생의 활동양상」,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2013, 41-65.
- 양지선·김미숙, 「의암별제의 특성 연구」, 『한국무용연구』 28(20), 한국무용연구학회, 2010, 169-192.
-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 이인열, 「여가와 관광개념 형성에 투영된 모더니티와 오리엔탈리즘의 변증법 : 일제강점기 사례 연구」, 『관광학연구』 36(6), 한국관광학회, 2012, 11-35.
- 이화영, 『논개 담론의 전승과 재현 양상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 정지영, 「논개와 계월향의 죽음을 다시 기억하기:조선시대‘의기(義妓)의 탄생과 배제된 기억들」, 『한국여성학』 23(3), 한국여성학회, 2007, 155-187.
- 岩谷めぐみ, 「韓国における論介と春香の受容」, 『大衆文化』 1, 立教大学, 2009, 63-73.

<일제강점기 기녀 관련 사당의 역할과 의미 : 義妓 論介와 貞女 春香을 중심으로> 토론문

김지혜(한성대)

문순희 선생님의 발표문을 매우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대표적 기녀인 논개와 춘향을 기리는 제례와 사당의 재건이 일제강점기 새롭게 이루어졌으며 그 원인과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논개와 춘향에 대한 제례의 역사를 잘 정리하여 밝히고 일제강점기의 사회 상황에서 제례의 역할과 성격이 달라진 점을 밝힌 것은 이 논문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문의 논의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해당 내용의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지 못하여 본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궁금증으로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림3>의 의암 절벽 사진에 ‘일군 게타니무라 코우스케가 기생 논개와 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 엽서의 구매 대상자는 주로 누구였을까요? 일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인 기녀에 의해 일본 군사가 죽은 장소’일 텐데 그럼에도 관광지로 소개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당시 일본인에게 ‘게타니무라 코우스케’가 어떤 인물로 소개 혹은 평가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덧붙여 일본인이 이곳을 관광하는 것은 ‘논개’가 아니라 ‘게타니무라 코우스케’를 기리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둘째, 과연 논개가 일제강점기 동안 모두에게 ‘애국의 모델’로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선 후기 논개가 상징하였던 충의 모델은 그대로 근대 국가주의 애국의 모델로 전이 되었다.’ 7~8쪽) 발표문을 보면 논개의 제례나 사당의 재건 등은 당시 권변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제례는 실상 제례보다는 지역축제로서 더 기능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논개가 ‘애국의 모델’로 사용되었다기 보다 ‘관광자원’의 하나로서 소비된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셋째, 논개와 춘향과 같은 기녀를 통해 옛 기생을 높임으로서 과거의 기생을 기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현 기생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것’이 당시 어떤 의미와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1930년대 권변에서 주도한 것은 ‘옛 기생을 기리는 것’보다 제례의 공연을 통해 수익을 얻기위해 옛 기녀를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결과로 현 기생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것은 아닐까요?

넷째, 진주 권변의 기생들에게 ‘논개’가 가지는 의미가 남달랐다는 점(‘1920년대 진주에서는 논개제를 전후하여 기생 노릇에 세상을 비관한 기생 여럿이 때를 지어 의암에서 뛰어 내려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건을 봤을 때 진주 기생들에게 논개를 특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쪽)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논개’의 이미지, 상징과 관련짓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발표문을 오독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너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우치전> 속 ‘구원받는 약자’ 형상이 지닌 결함과 그 의미

송미경(한국항공대학교)

【차례】

1. 머리말
 2. <전우치전>에 나타난 도술 행사와 백성 구원의 서사
 3. <전우치전> 속 ‘구원받는 약자’ 형상이 지닌 결함과 그 의미
 4. 맺음말
-

1. 머리말

<전우치전>은 조선 중종 무렵에 실존했던 인물 ‘전우치’에 관한 여러 설화 혹은 기록에 근거하여 소설화된 작품으로, 소설 속 주인공 ‘전우치’가 지니는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바로 ‘도술’을 부리는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¹⁾ 영화 <전우치>가 탄생시킨 ‘새로운 판타지 영웅 캐릭터’²⁾ 역시 전우치의 이러한 면모를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우치는 어떤 목적과 의도로 도술을 부렸던 것일까. 강경화는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도술 행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장생불사(長生不死)의 소망을 이루고 국가의 환란을 평정하며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등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도술로 구현해 이상세계를 구상하고자 한 ‘이상현실(理想現實)’, 둘째, 도술을 행사하는 인물의 과인성(過人性)을 나타냄으로써 그 인물을 미화하는 ‘미화표현(美化表現)’, 셋째, 도술을 가진 상대가 서로의 도술을 겨룸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환술로 못 사람들을 현혹하는 ‘호기심유발(好奇心誘發)’, 넷째, 도술로 미래를 예견하거나 희망을 암시하는 ‘미래희망유발(未來希望誘發)’, 다섯째, 도술 행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을 대신 해결해 주는 ‘신원대행(伸冤代行)’, 여섯째, 권선(勸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도술 행위로 사람들의 선행을 유도하는 ‘선행유도(善行誘導)’, 일곱째, 용궁이나 지하세계와 같은 미지 세계에서 의 어려움을 도술로 극복하거나 요괴를 퇴치하는 ‘미지세계극복(未知世界克服)’, 여덟째, 도술 행사의 상대가 미움의 대상인 경우로 도술로 그를 처치하는 ‘미움의 대상 처치’, 아홉째, 정상적인 가치관이 전도되는 혼란 속에서 도술 행사를 통해 정신적인 승리를 표현하는 ‘정신적 승리(精神的勝利)’, 열째, 도술을 행사해 현실을 도피하거나 은둔해 신선의 세계로 돌아가는 ‘현실도피(現實逃避)’, 열한째, 도술 행사가 부정한 행동에 대한 징계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징계 징벌(懲戒懲罰)’³⁾가 그것이다.³⁾ 의미 범주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이로부터

1) <전우치전>은 주인공의 이러한 성격상 특징에 따라 ‘도술소설’, ‘도술계 소설’로 명명되기도 했다.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선명문화사, 1973, 200쪽; 최삼룡, 「도술계 소설의 형성문제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1983, 312~316쪽.

2) 정제호, 「미디어서사로의 전이 과정에 나타난 전우치 전승의 굴절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436쪽.

3) 강경화, 「古小説에 나타난 道術行事 研究」, 『겨레어문학』 19.20,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5~52쪽.

<전우치전>의 주인공 전우치가 행사하는 도술의 목적과 의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우치의 도술은 위의 의미 대부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억울한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대행(伸冤代行)’, 거만하거나 무능력한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징벌(懲戒懲罰)’이 특히 반복·강조되며, 여기에는 ‘이상현실(理想現實)’, ‘미화표현(美化表現)’, ‘호기심유발(好奇心誘發)’, ‘미움의 대상 처치’의 의미도 부수적으로 따른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신원대행’이다. 살인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한 백발노인의 아들이 전우치의 도술로 억울함을 벗는 내용의 삽화도 여기 해당하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이 삽화에서 <전우치전> 이본 간 차이를 읽어내기도 했다.

㉠ 일일은 훈 곳의 이른즉 빅발노인이 슬피 울거늘, 운치 나아가 연고를 무른다, 노인 왈, “니 칠십의 훈낫 조식 잇더니 이미히 살인죄쉬 되엿기로 설워호노라,” 운치 그 이미호를 조시 무른다, 노인 왈, “우리 동니의 왕가란 스람이 이스되 그 계집의 인물이 고오미 니 자식이 스통호여 왕니호더니, 그 계집이 음난호여 또 조가와 통간호다가 왕가의게 들키어 두 놈이 뽉화 서로 구타홀시, 니 조식이 맞춤 갖다가 뽉흠을 말녀 조가를 보니엿더니, 왕 개 죽시 죽오미 그 스촌이 관가의 고히여 살인을 이루니, 조가는 양문기의 문직이라 결련 이 이셔 버셔나고, 내 조식이 살인호므로 문서를 만드러 죄쉬 되엿스미 이갓치 설워호노라.”⁴⁾

㉡ 이때에 우치 구름을 타고 스쳐로 돈니며 더욱 어진 일을 흥호더니, 훈 곳에 니르러 보니, 빅발 로옹이 슬피 울거늘, 우치 구름에 느려 그 우는 연고를 무르니, 그 로옹이 울음을 쓰치고 답왈, “내 나이 칠십삼세에 다만 훈낫 조식이 잇더니, 이미훈 일로 살인죄שו로 잡혀 죽게 되엿슴으로 설워 우노라.” 우치 왈, “무슴 이미훈 일이 잇노뇨?” 로옹 왈, “왕가라 호는 사름이 잇는디, 조식이 친호여 돈니더니, 그 계집의 인물이 아름다오나 음란호여 쇼가라 호는 사름을 통간호여 돈니다가, 왕가에게 들니여, 량인이 싸와 량자이 구타호더니, 조식이 맞춤 갖다가 그 거동을 보고 말니여 쇼가를 데 집으로 보낸 후 도라왔더니, 왕가 | 인호야 죽오미, 그 외스촌이 잇셔 고히호여 취옥흠에, 조가는 형조판셔 양문덕의 문직이라 알음이 잇셔 빠져 나오고, 내 조식은 살인 정범으로 문서를 문들어 옥중에 가두니, 이러흠으로 설어 우노라.”⁵⁾

㉠은 경판 37장본, ㉡은 신문관본의 해당 부분이다. 백발노인이 전우치에게 털어놓은 사연은 거의 유사하나, 인물 관계의 설정에 차이가 있다. 경판 37장본에서는 백발노인의 아들이 왕가의 부인과 사통하는 사이라고 하였으나, 신문관본에서는 백발노인의 아들이 왕가와 친하게 지냈을 뿐 부인과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것으로 바꾸었다.⁶⁾ 선행 연구에서는 밑줄 그은 부분을 전우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개작이라고 해석했다. 유부녀와 사통하는 죄까지 저지른 사람을 과연 전우치가 구제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장면에서 ‘사통’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앴기 때문이다.⁷⁾ 조가에 대한 전우치의 징치 행위에 타당성을 부여했다는 데서 개작의 취지를 찾는 견해도 있다.⁸⁾ 물론 사건의 행위 주체가 주

4) 김현양 옮김, 위의 책, 226~227쪽.
 5) 김일렬 역주, 『홍길동전·전우치전·서화담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296쪽.
 6) 신문관본은 아현 세책본을 대본으로 하여 나온 활자본인데, 위의 부분은 경판 37장본과 아현 세책본의 내용이 같다. 아현 세책본의 경우, 원전 확인이 어려워 경판 37장본을 인용하였다.
 7) 전상욱, 「세책 <전우치전>의 위상과 의미 - 신문관 육전소설 및 경판 37장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59, 열상고전연구학회, 2017, 330쪽.

인공인 전우치이고, 문제 해결 역시 그의 도술에 힘입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공 전우치와 그의 행위이며, 최남선의 개작이 전우치의 행동에 정당성, 타당성을 부여했다는 기존의 해석도 설득적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관점을 개작 대상이 된 ‘백발노인의 아들’로 옮기는 방식으로 논의의 방향을 달리하여 보고자 한다. 이가(李哥) 즉 백발노인의 아들이라는 인물의 성격에 집중해 보면, 경판 37장본의 이가가 유부녀와 사통하였다는 ‘결함’이 있는 인물인 데 반해, 신문관본의 이가는 기델 곳 없이 무력하여 누명을 쓴 인물일 뿐이다. 신문관본의 이가에게는 어떠한 도덕적 혹은 법적 ‘결함’도 없다.

<전우치전>에는 이가 외에도 전우치의 도술로 구제되는 여러 고달픈 백성이 등장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무력한 약자의 한가운데에 있는 백성의 존재가 전우치의 여러 행동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 선행 연구도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삽화에 드러난 전우치의 행동도 ‘악한 권력’으로부터 ‘선한 백성’을 구해내는 사회적 행위이다.⁹⁾ 그러나 경판 37장본에 등장하는 이가는 억울한 백성일지언정, 선한 백성은 아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살인죄로 죄수가 된 것은 분명 원통한 일이고 이러한 일을 당한 것도 그가 사회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약자이기 때문이지만, 유부녀와 사통한 죄가 있는 만큼 그를 그저 선량하고 유순한 백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가만이 아니다. <전우치전>에서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함’ 있는 인물들이 고난을 겪다가 전우치의 도술로 구제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관심을 두고, 작품 속 ‘구원받는 약자’ 형상이 지닌 결함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구원받는 약자’ 형상에 관한 분석은 해당 인물군은 물론 주인공 전우치의 성격, 나아가 소설 <전우치전>의 향유 문제에 관한 논의로도 확장될 수 있다.

<전우치전> 이본은 필사본 14종, 경판본 3종, 활자본 10종, 그리고 최근 보고된 세책본 1종을 포함해 총 28종에 달한다.¹⁰⁾ 여기서는 앞서 보았듯, 이가의 결함을 가감 없이 노출한 경판 37장본 『뉘운치전 권지단』(1847)을 주요 텍스트로 선정해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이가의 결함 부분을 삭제한 신문관본과의 비교를 일부 수행하고자 한다. 경판 37장본은 1847년 음력 2월 유곡(由谷)에서 간행된 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이본이자, 계열 내 다른 이본의 형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¹¹⁾ 무엇보다 전우치의 도술 행각이 가장 확장되

8) 최지선, 「<전우치전>의 욕망 구현 방식과 서사적 의미」, 『돈암어문학』 28, 돈암어문학회, 2015, 251쪽.

9) 신문관본을 주요 분석 텍스트로 선정하여 논의한 결과이다. 권경화, 「田禹治傳의 人物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8~51쪽.

10) <전우치전> 이본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이본들이 발굴됨에 따라 진전되어 왔다. 임철호가 경판 22장본이 경판 17장본의 전사본임을 밝힌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비교 이본의 수를 확충하면서 필사본, 경판본, 활자본 계열의 변이와 개작 양상을 살폈다. 경판 37장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그와 흡사한 내용의 일사본을 판본 계열로 분류하는 시각이 있기도 했으나, 이본의 발견 이후에는 필사본 계열에 넣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A본’, ‘국립중앙도서관 B본’의 경우, 민간의 설화를 도술담 중심으로 간략히 기록한 것이어서 소설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와 전기 소설 또는 단편소설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에 이본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따른다. 한편 전상욱이 최근 보고한 교토대 가와이 문고 소장 <전우치전>은 세책본 계열로 분류되는데, 이로부터 신문관 육전소설 <전우치전>이 기존의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경판 37장본을 대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책 <전우치전>을 대본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목을 요한다. 윤재근, 「전우치전설과 전우치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방대수, 「전우치전 이본군의 작품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박일용, 「전우치전과 전우치 설화」,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1984; 변우복, 위의 책; 안창수, 「<전우치전>으로 살펴 본 영웅소설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59, 한국문학회, 2011; 서혜은, 「전우치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어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2012; 전상욱, 「세책 <전우치전>의 위상과 의미 -신문관 육전소설 및 경판 37장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9, 열상고전연구회, 2017.

어 나타나는 이본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대상 텍스트로 적합하다.

11) <전우치전>의 이본은 그 내용에 따라, 『홍길동전』의 ‘홍길동’과 같은 영웅적 인물을 ‘전우치’로 대체해 중국 황제와 전우치의 대결을 비중 있게 그려내면서 중국과의 대결 의식을 드러낸 계열, 서사구조 면에서 ‘일대기 구조’를 벗어나 전우치의 다종다양한 도술 행적을 ‘병렬적 삽화 편집 구조’로 엮어내고 활동공간을 국내로 한정된 계열의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본고에서 다룬 경판 37장본은 이중 후자를 대표하는 이본이다. 아래의 이본 현황 정리는 주로 변우복, 전상욱, 서혜은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변우복, 『전우치전 연구』, 보고서, 1998, 19~62쪽; 전상욱, 위의 논문, 314~316쪽; 서혜은, 「<전우치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어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2012, 198쪽.

구분	이본명	비고	영향	
필사본	한문	국립중앙도서관 A본	이덕형, 『죽장한화(竹泉閑話)』 소재(후대에 재편)	
		국립중앙도서관 B본	미상, 『잡기유초(雜記類抄)』 소재	
	한글	김동욱 소장본	『전우치전 권지단』(31장, 1883년 필사 추정)	
		박순호 소장본	『전우치전 권지단이라』(63장, 1918년 필사)	
		사재동 소장본	『전우치전』(39장, 1919년 필사)	
		일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년운치전 권지단』(41장, 1892년 필사 추정)	경판 37장본 계열
		정명기 소장본	29장	경판 37장본 계열
		정명기 소장본		
		정명기 소장본		
		정명기 소장본		
		전욱치전	조선문학창작사 고전연구실, 『고전소설 해제(영인본)』에 소개	
		일치전	조선문학창작사 고전연구실, 『고전소설 해제(영인본)』에 소개	
		단국대 소장본	『전우치전 권지단』(96장, 기축년 필사)	
판본(경판본)	경판 37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년운치전 권지단』(1847년 간행 추정)		
	경판 22장본	파리동양어학교 소장/ 『년운치전 권지단』	경판 37장본 축약	
	경판 17장본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 『년운치전 권지단』	”	
활자본	신문관본	1914년 초판	신문관본 계열(←아현 세책본, 경판 37장본)	
	영창서관본	1917년 초판(1917.6)	”	
	유일서관본	1917년 초판(1917.9)	”	
	박문서관본	1925년 간행	”	
	동양서원본	1929년 간행	”	
	광동서관본	박순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간행 연대 미상	”	
	세창서관 A본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간행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권31 소재	”	
	세창서관 B본	국회도서관 소장(1951년 간행)	”	
	회동서관본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현재 소재 미상/ 1926년 간행	해동서관본 계열(←경판 17장본)	
해동서관본	1918년 간행	”		
세책본	아현 세책본	교토대 가와이 문고 소장/1899년 아현 필사		

2. <전우치전>에 나타난 도술 행사와 백성 구원의 서사

2장에서는 앞서 살핀 백발노인의 아들 삽화를 포함해, <전우치전>에서 전우치에 의한 도술의 행사가 어떻게 백성 구원의 서사로 구현되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경판 37장본의 주요 서사 단락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A. 전운치의 출생과 도술 습득

1. 전운치는 고려 말 남서부 땅 전숙의 아들로 태어난다.
2. 전운치가 10살 되던 해 부친이 죽어 삼년상을 치른다.
3. 전운치는 아버지 친구인 윤공에게 수학한다.
4. 전운치는 여우로부터 호정을 빼앗아 삼키고 도술력을 얻는다.
5. 전운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 상권을 빼앗아 배우고 도술력을 얻는다.

B. 전운치의 도술 행적

6. 전운치가 선관으로 변신하여 임금에게 황금 대들보를 얻고, 일부러 잡혔다가 도술을 사용해 달아난다.
7. 왕가의 부인과 사통하다 살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백발노인의 아들을 전운치가 도술로 구해준다.
8. 백성이 먼저 값을 치른 돼지머리를 빼앗아가려는 관리를 전운치가 도술로 징치한다.
9. 전운치가 연회에 참석하여 교만한 선비와 기생들을 도술로 징치한다.
10. 장부 정리를 잘못된 죄로 처형될 위기에 처한 고직이 장계창 부부를 전운치가 도술로 구해준다.
- 11-1. 전운치가 가난한 한재경을 불쌍히 여겨 돈이 나오는 족자를 주어 모친을 봉양하게 한다.
- 11-2. 한재경이 욕심을 부리다 관가에 잡히자, 전우치가 창고의 물건을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고 변하게 한다.
- 11-3. 한재경이 처형되기 직전에 전운치가 도술로 그를 구해준다.
- 12-1. 임금이 전운치를 회유하여 선전관 벼슬을 제수한다.
- 12-2. 전운치가 아랫사람을 심하게 괴롭히는 선전관들을 도술로 징치한다.
- 12-3. 전운치가 백사장에서 허참례를 열고 도술을 사용해 선전관의 부인들을 기생으로 데려와 수청들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징치한다.
13. 도적 염준이 난을 일으키자 전운치가 도술로 다스리고 그 무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14. 전운치가 거만하게 구는 선전관들의 꿈에 나타나 도술로 그들을 징치한다.
(11-4. 전운치가 창고의 물건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다.)
15. 전운치가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도술을 사용해 달아난다.
- 16-1. 전운치가 수절과부를 훼손한 중을 도술을 사용해 자신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곤경에 빠뜨린다.
17. 왕연희가 자신을 모함했음을 안 전운치가 도술을 사용해 자신은 왕연희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왕연희는 구미호로 변하게 하여 징치한다.

(16-2. 전운치가 자신의 모습으로 변하게 했던 중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다.)

18. 전운치가 오생의 부인 민씨를 구령이로 변하게 하여 그 투기심을 꾸짖고 징치한다.

19-1. 전운치가 과부 정씨를 사모해 상사병에 걸린 친구 양봉안을 살리기 위해 도술을 사용해 정씨를 데려오다가 강림도령에게 제지 당한다.

19-2. 전운치가 강림도령의 지시에 따라 도술을 사용해 친구 양봉안을 다른 정씨 처녀와 결혼하게 한다.

C. 전운치의 도술 경쟁과 입산

20. 전운치가 용담과의 도술 경쟁에서 이긴다.

21. 전운치가 화담과의 도술 경쟁에서 패한다.

22. 전운치가 모친의 삼년상을 치른 뒤 화담이 찾아와 구미호를 잡아 죽이도록 한다.

23. 전운치가 화담을 모시고 영주산으로 들어간다.

위의 밑줄 그은 7, 8, 10, 11단락에 본고에서 주목하는 ‘구원받는 약자’로서의 백성이 등장한다. 7단락의 앞서 살펴본 ‘이가(李哥)’, 8단락의 ‘일인(一人)’, 10단락의 ‘장계창(장 고직, 張 庫直)’, 11단락의 ‘한지경’이 바로 그들이다.¹²⁾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백성을 ‘1.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2. 예전에,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을 이르는 말.’¹³⁾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논의에 부합하는 것은 2의 뜻이다. 최기숙이 주목한 한글소설의 ‘익명적/집단적 인물군’도 ‘구원받는 약자’로서의 백성과 계층의 성격상 통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전우치전>의 ‘이가(李哥)’, ‘장계창(장 고직, 張 庫直)’, ‘한지경’은 인물 형상이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익명적/집단적 인물군’은 주인공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름 모를 이웃, 익명의 행인, 무성(genderless)의 구경꾼 등 집단적 인물군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름, 성별, 연령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으며, 전체 서사의 지극히 미미한 분량을 차지한다.¹⁴⁾ 그에 반해 <전우치전>의 ‘이가(李哥)’, ‘장계창(장 고직, 張 庫直)’, ‘한지경’은 성 또는 성과 이름이 분명히 제시되며, 해당 삽화 내에서는 분량도 적지 않다. 8단락의 ‘일인(一人)’이 조금 예외적인 편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서사 내 개인 인물로 그 역할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익명적/집단적 인물군’과는 다르다.¹⁵⁾ 한편 권경화의 논의를 통해

12) 16단락의 ‘고은 계집’(기녀, 其女)은 ‘약자’에 해당하지만, 전우치가 도술을 사용하는 목적은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겁탈한 중을 징치하기 위해서였다. 목을 맨 여인을 구출하는 데는 도술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19단락의 ‘양봉안’은 그 계층적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전우치와 ‘동학(同學)하던’ 사이라는 데서 적어도 ‘약자’에 해당하는 사회 계층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전우치가 도술을 발휘하는 것도 양봉안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해, 그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함이다.

13)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어 ‘백성’,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e2a6ea6dd9244e6a21409e2f4651a17>, 접속일: 2020.8.15.

14) 그들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소유하거나 발언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사태와 정황을 지켜보는 응시자의 사회적 힘과 존재감을 환기함으로써, 대중의 힘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소설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최기숙, 「지속 가능한 ‘감성-성찰’ 자원 구축을 위한 한국 ‘고전/전통’ 자원의 재맥락화」, 『동방학지』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43~48쪽.

15) <전우치전>에서도 이러한 ‘익명적/집단적 인물군’의 등장울 볼 수 있다. 아래 장면에서, ‘슈삼인(數三人)’, ‘기인(其人)’은 장계창의 억울함에 동조하는 한편, 그의 사연을 전우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운치 구름을 타고 동 디호로 가다가 보니, 혼 곳의셔 슈삼인이 의논 왈, “장 고직은 착하고 효형이 잇는 스람이라. 만일 이미히 죽으면 앓갑고 참혹다”하며 초탄허거늘, 운치 내려와 무른다. 기인이 디 왈, “호도 고직이 장계창이란 스람은 어질고 효형 잇고 스름 구제허기를 조하허더니, 제 문서 잘못헌

‘전우치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로 <전우치전> 속 ‘백성’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시각이나 이해가 ‘가난하고 힘없는 무력한 약자’, ‘가난하여 굶어 죽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백성’, ‘백성으로 대표되는 약자’, ‘양순하고 충실한 백성’, ‘미약하고 불쌍한 백성’¹⁶⁾ 정도에 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결함’에 관한 언급은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7단락의 ‘이가’는 사건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며, 인물들의 대화 및 서술자의 서술에서만 언급되는 인물이다. 슬피 우는 백발노인의 사연을 직접 들은 전우치는 “진실노 그러홀진디 니 맞당이 무스하게 흐리라”라고 말하는 동시에,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가 처음 부린 도술은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양문기의 집으로 들어가 죽은 왕가(王哥)로 변신한 것이다.

㉠ “나는 금번 조가 손의 죽은 왕싱이라. 상세 그릇 알고 이미흔 니가를 가도고 조가를 노흐니, 이제 만일 조가 원슈를 아니 갑하쥬면 니 그저 잇지 아니흐리라” 하고 문득 간디업거늘¹⁷⁾

㉡ “이 불측흔 조가놈아! 무슴 일노 나의 안히를 겁탈하고 쏘 날를 죽이니 이는 나의 곱흔 원슈여늘, 네 엿지 이미흔 니가의게 죄를 도라보닌다?” 하고, 문득 간디업는지라.¹⁸⁾

㉠은 전우치가 왕가의 모습을 하고 양문기 앞에 나타나 그를 꾸짖는 말, ㉡은 양문기가 조가를 잡아 엄문(嚴問)하는 중에 다시 전우치가 들어와 조가를 꾸짖는 말이다. 전우치는 이처럼 변신술을 발휘해 이미 죽어버린 왕가의 모습을 하고 사건의 관련자 앞에 나타나 위와 같이 말하고 자취를 감추어버린다. 이러한 변신술의 발휘를 통해 양문기로 하여금 조가를 엄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실을 모두 털어놓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 것이다. 그 결과 이가는 방송(放送)된다. 즉 억울하게 처형당할 뻔했던 처지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가에게는 유부녀와 사통하였다는 죄목이 있었으나 소설에서는 이가의 방송과 함께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다.

8단락은 단락의 분량이 매우 짧은 편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일인(一人)’ 역시 성도 이름도 없다.

운치 니가를 구흔 후의 구름을 타고 가다가 구버보니 저지 거리의셔 냥인이 제두를 붓들고 닳토거늘, 운치 내려와 연고를 무른즉, 일인이 디 왈, “제두를 찢디 이셔 몬져 갑슬 정흐엿더니, 저 스람이 관니 쥬세하고 아스가려 흐기로 닳토노라.” 운치 관니를 속이려 흐여 진언을 념흐니 그 제뒤 다 입을 버리고 관니를 문녀 흐거늘, 관니 놀나 다라나더라.

여기서 전우치가 부린 도술의 방식은 진언을 외워 사물로서의 삶은 돼지머리를 살아 움직이게 한 것이었다. 도술을 발휘해 ‘삶은 돼지머리’가 관리에게 달려들게 함으로써, 삶은 돼지머리가 제 주인인 ‘일인(一人)’에게 귀속되도록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한편, 관리에게 두려움을

타스로 제 쓰지 아니흔 은쥬 이천냥을 무변지미 그 죄로 횡형훈다 흐기로 차탄흐노라.” (김현양 옮김, 위의 책, 232쪽.)

16) 권경화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신문관본을 대상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1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문관본에는 ‘이가’의 사통 사실을 삭제하는 등의 개작이 있었다. 이로부터 권경화, 위의 논문, 48~52쪽.

17) 김현양, 위의 책, 227쪽.

18) 위의 책, 같은 곳.

안겨 그 자신이 관리의 위세를 내세워 ‘일인(一人)’의 물건을 먼저 취하려 했던 일의 부당함을 깨닫도록 하였다. 물론 후자의 부분은 소설에 나타나지 않으나, 정황상 관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타인 혹은 다른 사물을 변화시키는 도술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징계나 자기 과시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¹⁹⁾ 다만 여기서 발휘된 도술은 관리를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은 돼지머리가 본래의 주인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한 양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사회적 계층으로 볼 때 관리보다 아래에 있는 약자, ‘일인(一人)’의 입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바, 넓게 보면 이 역시 백성 구원의 서사에 포함된다.

10단락에 이르러 성과 이름이 명확하고 직업까지 구체적인 백성이 등장한다. ‘장계창’ 또는 ‘장 고직(張 庫直)’이라고 불리는 이로, 그의 직업은 삽화의 사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운치 구름을 타고 동 디흐로 가다가 보니, 혼 곳의서 슈삼인이 의논 왈, “장 고직은 착하고 효행이 있는 스람이라. 만일 이미히 죽으면 맛값고 참혹다” 하며 초탄호거늘, 운치 나려와 무른다, 기인이 디 왈, “호도 고직이 장계창이란 스람은 어질고 효행 잇고 스름 구제하기를 조하호더니, 제 문서 잘못된 탓스로 제 쓰지 아니호 은즈 이천냥을 무변지미 그 죄로 흥행호다 호기로 차탄호노라” 하니 운치 불상이 녀겨 다시 구름을 타고 흥행호는 곳의 가 기다리더니, 과연 혼 쇼년이 술위의 달녀 오고 그 뒤히 저른 계집이 울며 짜르논지라. 운치 중언더러 무른즉 과연 장계창이여늘, 동정을 슯피더니 옥졸이 죄인을 나리와노코 씨를 웨논지라. 운치 바람이 되여 장계창의 부처를 거두어가지고 하늘노 올라가니 감형관이 디 경호여 이디로 상달호디 상이 놀나시고 도정이 의혹호더라.²⁰⁾



활자본 <전우치전> 표지

전우치는 여기서 구름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바람이 되어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 높이 올라가기도 한다. 본고에서 분석하는 경판 37장본의 표제는 『년운치전 권지단』으로,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소설에서 그의 이름은 ‘운치’로 명명된다. 그 이름의 유래는 운치의 어머니인 부인 최씨가 “툰승으로 조차 혼 쎄구름이 나려오며 구름 속으로서 정의동지 벽년화를 쥐고 나와” 자신이 영주산(瀛洲山)에서 채약(採藥)하던 선동으로 천상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말하는 꿈을 꾸었고, 아버지 전숙이 “이 아희 꿈의 뵈던 동지니 일흠을 운치라”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소설 속에서도 전우치는 주로 구름을 타고 다니며 지상의 일들을 살핀다. 구름을 타고 형장으로 가는 도술은 이처럼 그의 출신, 이름과도 연관되는,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과도 같은 것이다. 활자본 <전우치전>의

표지에서도 전우치는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다. 그렇게 구름을 타고 형장으로 한 데에는, 다음의 계획이 있었다. 바로 바람으로 변신해 장계창과 그의 부인을 거두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장계창은 억울한 죽음으로서의 처형을 면하게 된다. 장계창은 관아의 창고를 지키는 일을 맡은 관리였으나, 직위상 하급관리에 속했다. 또 은자 이천 냥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서류 작성상 실수를 한 것임에도 처형되는 벌을 받게 된 데서 그의 ‘약자’적 처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19) 강경화, 「고소설의 도술 모티프 연구」, 『겨레어문학』 15,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185쪽.

20) 김현양 옮김, 위의 책, 232~233쪽.

마지막 11단락에는 ‘한지경’이 등장하는데, 그와 관련된 서사는 <전우치전>에서 비교적 길게 부연된 편이다. 이 가운데 전우치가 도술을 발휘해 ‘한지경’을 구원하는 단락은 11-1, 11-3이다. 창고의 물건을 변화시켰다가(11-2),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놓는(11-4) 데도 도술이 사용되지만, 이는 임금이 “운치의 요술노 작변흐를 짐작”하였듯²¹⁾ 요술 즉 남의 눈을 속이는 환술(幻術) 정도로, 그 목적도 ‘한지경’의 구원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뚜렷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과시를 위한 도술에 가까운 면도 있다.

㉠ “나는 한지경이려니 부상을 당하여 장수할 수 업고 칠십 노모를 봉양할 길 업서 설워호노라” 하니, 운치 긍축히 너겨 쇼미로서 혼 족조를 니여주며 왈, “이 족조를 집의 걸고 고직아 불너 디답호는 지 잇거든 은조 빅냥을 니라 하면 줄 거시니, 그 은조로 장수 지니고 또 미일 혼 낭식만 달나 하여 노친을 봉양호되, 만일 더 니라 하면 큰일이 날 거시니 부디 조심하라” 한다, 기인이 반신반의하며 운치의 거유 성명을 못고 집의 도라와 족조를 퍼본즉 아모것도 업고 큰 집 하나를 그리고 그 집 압히 동조를 그려 열쇠를 치왔거늘, 기인이 시험하여 고직아 부른즉 과연 그림 속의셔 디답호고 나오는지라.²²⁾

㉡ 호판이 쥬호되, “가둔 도적이 쏘호던 던운치 동뉴니 급히 죽여지이다” 호거늘, 상이 의운호스 한지경을 흥흥호려 흘시, 문득 광풍이 디작호며 지경이 간디업스니, 이는 운치 구호미러라²³⁾

11단락에 등장하는 ‘한지경’은 금전적 빈곤을 겪는 결손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당장 장사지낼 돈도 없는 것은 물론, 칠십 노모를 부양할 형편도 되지 않는다. 절대 빈곤의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에서 전우치의 도술은, ‘한지경’을 그가 당면한 빈곤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전우치가 준 족자를 통해 아버지를 장사지낼 수 있는 비용인 은자 백 냥을 받았고, 어머니를 봉양할 비용인 은자 한 냥도 매일 받게 되었다. 말 그대로 ‘요술 족자’였으나, 그는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가 결국 관아로 끌려가게 된다. 사실 그 족자 안의 창고는 나라의 창고와 연결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에서 전우치는 ‘한지경’을 구하기 위해 한번 더 도술을 사용한다. ‘한지경’은 결과적으로 나라의 재물을 도적하는 죄를 짓게 되었지만, 그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도적의 죄보다는 전우치와 ‘동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에 전우치는 앞의 10단락에서 장계창 부부를 살려냈던 것처럼, 처형되기 직전의 ‘한지경’을 광풍(狂風)으로 구해낸다. ‘한지경’의 처형을 역올한 죽음으로 본 것이다. 다만 전우치 자신이 바람이 되어 ‘한지경’을 구해낸 것인지, 도사로서 바람을 부린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다.

3. <전우치전> 속 ‘구원받는 약자’ 형상이 지닌 결함과 그 의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7단락에는 ‘이가(李哥)’, 8단락에는 ‘일인(一人)’, 10단락에는 ‘장계창(장 고직, 張 庫直)’, 11단락에는 ‘한지경’이 ‘구원받는 약자’로 등장한다. 다만 이 가운데 8단락에 나오는 ‘일인(一人)’의 경우, ‘구원받는 약자’ 형상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에게는 어떠한 결함도 없다. 부연된 분량이 짧아 인물 형상이 구체화될 여지가 없었던 데 기인하는 것일

21) 김현양 옮김, 위의 책, 253쪽.

22) 위의 책, 233쪽.

23) 위의 책, 236쪽.

수도 있으나, 경판 37장본 이외의 다른 이본에서도 ‘일인(一人)’은 결함이 없는, 그리고 그 성격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익명의 인물일 뿐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8단락의 ‘일인(一人)’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7단락에 등장하는 ‘이가(李哥)’의 ‘결함’에 대해서는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는 왕가의 부인 즉 유부녀와 사통하는 죄를 저지른 인물이었다, 그 죄가 곧 그의 ‘결함’이었다.

다음 10단락에 등장하는 ‘장계창’의 ‘결함’은 ‘익명적/집단적 인물군’으로서의 ‘기인(其人)’의 말을 통해 설명된다. 바로 “제 문서 잘못된 탓으로 제 쓰지 아니한 은주 이천냥을 무변지미” 그 역시 직업이 고지기였던 ‘장계창’에게는 직무상 실수도 분명한 ‘죄’이고 흠이었다. 주변의 평에 따르면, 그는 “착하고 효행이 있는 스람”, “어질고 효행 잇고 스름 구제하기를 조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연은 구름을 타고 지나가던 전우치에게 까지 전해질 수 있었고, ‘장계창’은 그의 도술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11단락에 등장하는 ‘한지경’의 ‘결함’은 지나친 욕심이었다. “만일 더 나라 하면 큰일이 날 거시니 부디 조심하라”라는 전우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한지경’은 어느 날 ‘은주 빅냥을 꾸어 쓰면 무슨 관계 이스리오?’하는 생각을 품게 된다. 고직이는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고, 참고문이 달린 뒤 아무 대답이 없자 ‘지경’은 “디로하여 발노 문을 박”차기도 한다. 관아의 하인들이 달려와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는지 묻자, 그는 당당하게 대답한다. “너의는 엇던 스람이완디 남의 고 중의 드러와 이렇듯 하노뇨?” 전우치에게 얻은 족자 속 고직이로부터 매일 한 냥씩 받아오던 ‘한지경’의 마음에는 점차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말경에는 족자 안의 참고까지 자신의 것으로 여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우치전>의 이 삽화는 이른바 ‘재화 획득형’의 족자획득 설화를 배경 설화로 한다. 그림 속의 존재가 가난한 사람에게 쌀이나 돈을 준다는 줄거리로 구성된 이 설화는 의식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민중의 갈망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쌀바위 전설과 함께 이야기되기도 한다.²⁴⁾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그 그림이 본연의神通한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결말도 비슷하다. <전우치전>의 ‘한지경’ 역시 지나친 욕심이라는 ‘결함’이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전우치전> 속 ‘구원받는 약자’들은 그저 선하고 흠결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통(私通), 실수, 욕심 등 그들에게는 이러저러한 ‘결함’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들은 전우치의 도술로 구원되어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그 ‘결함’은 그대로 남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가’는 왕가를 죽였다는 누명을 벗었지만, 왕가의 부인과 사통한 죄는 그대로 그의 죄였다. ‘장계창’은 그의 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 할 수 있는 처형은 면했지만, 문서를 잘못 작성함으로써 무려 은자 이천 냥의 부족을 초래한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지경’은 그가 전우치와 한패라는 관리들의 판단에 따라 처형될 뻔하였다가 전우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매일 한 냥씩’이라는 규칙을 어기고 과한 욕심을 부린 일은 비록 죄에는 들지 않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의 흠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 혹은 흠에 대해서는 어떠한 후일담도 없다. 전우치가 그들의 죄나 흠을 문제 삼는 일도 없고, 누군가 다시 꺼내어 묻는 일도 없었으며, 당사자의 반성 역시 없다. ‘이가’·‘장계창’·‘한지경’이 처한 죽을 위기의 부당함, 신비하고 추월적인 도술이 동반되는 전우치의 구원 행위에만 서사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그들의 죄 혹은 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제 <전우치전> 속 ‘구원받는 약자’ 형상이 지니는 결함의 의미를 해석해 볼 차례이다. 필자는 여기서 <전우치전>의 독자라는 존재를 상정하여 보고자 한다. <전우치전>의 경판본과 활자본은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하며 대중적으로 향유된 소설이다. 경판본의 경우 1847년에 37

24) 변우복, 『전우치전 연구』, 보고서, 1998, 176~177쪽.

장본이 간행된 이래 장수를 줄여가며 22장본, 17장본이 지속해서 출간되었고, 활자본도 1914년 신문관에서 출간된 이래 회동서관, 영창서관 등을 비롯, 세창서관에서는 1962년까지 발행되었다. 특히 영창서관본은 3판까지 간행되기도 한바, 이는 대중독자층의 수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현상이다.²⁵⁾ 경판본이나 활자본의 형태로 간행된 한글소설 <전우치전>을 향유한 독자들은 대체로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소설을 구성하는 삽화의 내용이나 구원/징치의 목적을 지니는 도술이 발휘되는 대상의 성격 등으로 볼 때, 중간 계층을 넘어서는 이들이 <전우치전>을 즐겨 읽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독자들이 <전우치전>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물도 주인공 전우치, 그리고 전우치의 도술에 힘입어 구원되는 여러 백성들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우치가 그저 선하고 흠결 없는 영웅이 아니듯, 그로부터 구원되는 약자로서의 인물들 역시 그러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제각기 얼마만큼의 '결함'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통한다.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범인(凡人) 가운데 제 스스로 '결함'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는 약자'들의 죄 혹은 흠에 대해 아무런 후일담도 남기지 않은 단락 매듭의 방식 역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허용적 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생략)

※참고문헌

- 김일렬 역주, 『홍길동전.전우치전.서화담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김현양 옮김, 『홍길동전.전우치전』, 문학동네, 2010.
- 강경화, 「고소설의 도술 모티프 연구」, 『겨레어문학』 15,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1.
 강경화, 「古小說에 나타난 道術行事 研究」, 『겨레어문학』 19.20,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 권경화, 「田禹治傳의 人物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기동, 『이조시대 소설론』, 선명문화사, 1973.
- 박일용, 「전우치전과 전우치 설화」, 『국어국문학』 92, 국어국문학회, 1984.
- 방대수, 「전우치전 이본군의 작품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변우복, 『전우치전 연구』, 보고서, 1998.
- 서혜은, 「<전우치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어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2012.
- 안창수, 「<전우치전>으로 살펴 본 영웅소설의 변화」, 『한국문학논총』 59, 한국문학회, 2011.
- 윤재근, 「전우치전설과 전우치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 전상욱, 「세책 <전우치전>의 위상과 의미 - 신문관 육전소설 및 경판 37장본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59, 열상고전연구학회, 2017.

25) 서혜은, 위의 논문, 196쪽.

- 정제호, 「미디어서사로의 전이 과정에 나타난 전우치 전승의 굴절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 최기숙, 「지속 가능한 ‘감성-성찰’ 자원 구축을 위한 한국 ‘고전/전통’ 자원의 재맥락화」, 『동방학지』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 최삼룡, 「도술계 소설의 형성문제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90, 국어국문학회, 1983.
- 최지선, 「<전우치전>의 욕망 구현 방식과 서사적 의미」, 『돈암어문학』 28, 돈암어문학회, 2015.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어 ‘백성’,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e2a6ea6dd9244e6a21409e2f4651a17>,

접속일: 2020.8.15.

<<전우치전> 속 ‘구원받는 약자’ 형상이 지닌 결함과 그 의미> 토론문

김선현(숙명여대)

이 논문은 경판37장본 <전우치전>에 그려진 구원받는 약자들이 결함을 지닌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우치의 구원을 받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까닭과 의미를 살핀 글입니다. ‘전우치’라는 중심 인물에 치중되어 왔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탈피해 주변 인물인 구원 대상들과 그들의 ‘결함’에 주목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송미경 선생님께서는 그간 판소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판소리 속에 사회적 약자들, 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선생님께서 <전우치전>이라는 영웅소설에서 ‘영웅’이 아닌 구원받는 ‘약자’들에 주목하신 것은 기존의 연구를 확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관점과 논의에 수공을 하며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구원 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선생님께서서는 전체 서사 중 왕가의 부인과 사통하여 왕내하던 중 살인 누명을 쓴 이가(李哥)의 삽화, 제두를 관리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한 일인(一人)의 삽화, 문서를 잘못 써서 사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장계창의 삽화, 가난으로 전우치의 도움을 받지만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죽을 위험에 처한 한재경의 삽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삽화 속에서 전우치에게 구원받는 약자들이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셨습니다. 이가는 사통을 한 인물이고, 장계창은 문서를 잘못 쓴 실수를 범한 인물이며, 한재경은 욕심을 부리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가와 한재경의 결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공이 갑니다. 사통과 욕심은 당대의 윤리적 질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계창은 이들과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그는 주변인들에게 어질고, 효행있는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어떠한 윤리적 결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문서 기록의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실수를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장계창은 앞서 소개된 제두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관리(혹은 국가)의 과도한 처벌이나 강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2. 개인적 결함 / 관리·국가의 횡포와 처벌의 문제

위의 질문의 연장선에서 구원 대상 인물들의 개인적 결함의 문제보다는 관리 혹은 국가의 횡포, 과도한 처벌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가(李哥)의 삽화에서는 왕가 부인과의 사통이라는 개인적 문제보다는 조씨와 관리 양문기의

결탁으로 빚어진 살인 누명이, 한재경 삽화에서는 한재경 개인의 욕심보다는 전우치와 동류라는 이유로 죽이려는 국가의 과도한 처벌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일인과 장계창의 삽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보다 정치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인물들과 관련된 삽화뿐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는 소생과 설생의 신당을 없애는 등의 정치 삽화, 전우치의 인물 형상과 관련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3. 구원 대상들의 결함과 그 의미- 독자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선생님께서서는 3장에서 구원 대상들의 결함과 그 의미를 고찰하시면서 독자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논리적 설득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겨져 있는 <전우치전>의 경판 이본들 즉 경판37장본 22장본, 17장본 간의 관련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37장본이 대중성을 획득한 후 이를 선본(先本)으로 22장본과 17장본이 인행된 것으로 보이며,²⁶⁾ 세 종의 간행 시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경판본이라는 점에서 독자층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 이본의 서사 및 서술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분석함으로써 대중 독자들의 관심, 흥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자들의 관심과 구원 대상들의 결함과의 관련성도 찾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것으로 범박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치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송미경 선생님과 학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6) 이창헌, 『경판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303쪽.

재지사족 所作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의 표현 양상과 그 의미

조은별(한성대)

1. 서론
2. 재지사족 所作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의 표현 양상
3. 재지사족 所作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의 의미: 결론을 대신하여

본고는 사족들에 의해 지어진 국문시가 작품 중 임병양란을 소재로 한 국문시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표현 양상과 그 의미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 역사에서 임병양란이라는 미증유의 두 전쟁이 한반도에 가져온 충격은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만큼)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그리고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 두 전쟁이 조선인들에게 남긴 상처는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결코 작지 않았다.

한편 이 두 차례의 전쟁이 발발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는 국문시가에 있어서도 주목할만한 변화가 발견되는데, 작자층의 확대, 작품의 양적/질적 확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지사족이라는 국문시가의 새로운 작가들은 많은 수의 시조, 가사들을 창작하는 한편 그 전까지는 국문시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재들, 즉 임병양란을 비롯한 당대의 정치적 사건들부터 생애에 대한 회고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의 소재들을 국문시가의 소재로 선택하였다.

본고에서 살필 작품은 이들의 작품 중 특히 임병양란을 소재로 하는 것들로, 본고에서 이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작품들은 특정 소재가 특정한 신분적 자질을 공유한 이들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작가의 계층적 특질과 문학 작품이 긴밀하게 연동됨을 보여주는 적실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는 해당 작품들의 표현 양상을 통해 특정 소재를 다루기 위해 국문시가라는 문학적 형식이 선택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해당 작품들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기존 연구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연구 동향은 소재적 차원에서 작품에 접근한 것들이다. 먼저 양순필¹⁾과 정재호²⁾는 각각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시조 작품과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가사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작품의 대개를 확인하였다. 한편 유인희³⁾와 이재준⁴⁾의 논의는 양란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한 자리에서 모두 살핀 것으로, 전자의 경우 시조, 가사 작품 모두를, 후자의 경우 특히 가사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 이동근⁵⁾은 전쟁문학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임진왜란 소재 국문시가 작품들을 서사 작품들과 함께 확인하였다.

상기의 논의 모두 임진왜란 또는 병자호란을 소재로 하는 여러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그 대개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두 전쟁에 대한 당대인들의 태도를 확인한 것들이다. 산재한 작

1) 양순필, 「병자란을 제재로 한 시조고」,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2) 정재호, 「임진왜란과 가사」, 『한국 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3) 유인희, 「임·병 양란기 전쟁시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 이재준, 「전란가사에 나타난 두 가지 세계인식」, 『온지논총』 44, 온지학회, 2015.
5) 이동근, 「壬亂 戰爭文學 研究 : 文學에 反映된 應戰意識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소재적 차원에서 주목하고 그 특질을 추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해당 논의들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지만, 개별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병양란을 소재로 한 국문시가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 동향은 작가론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박요순⁶⁾, 강전섭⁷⁾ 등 초기의 논의들이 서지학적 측면에서 당시까지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재지사족 작가와 작품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데에 주력했다면, 좀 더 본격적인 논의는 90년대에 들어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창훈⁸⁾, 이상원⁹⁾, 권순희¹⁰⁾ 등의 논의가 바로 그것으로, 이들 논의는 마르크스 식의 경제결정론을 기반으로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재지사족이라는 작가의 신분에 접근해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를 비롯해 이들이 창작한 국문시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도출하였다.

상기의 논의들은 자료적 기반의 검토에서부터 개별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논의의 결들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의 논의들이 공유한 전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임병양란 발발 이전의 시기를 성리학적 세계 질서가 지배적이었던 시기로 상정하고, 임병양란을 계기로 이 같은 규범적 질서들이 균열 또는 해체되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작품 전반의 주제와 문면에 드러난 작가의 태도에 특히 주목했으며, 작품에서 일차적으로 확인되는 정보들에 집중된 작품 해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문시가는 형식과 개별 작품들의 전송 과정 등에 대한 정보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하여 명(明)의 열세를 비롯한 국내외 정세에 대한 분석적 태도 같은 것들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한편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 작품 내에서 오랑캐로 상정되는 왜와 청에 대한 적대적 시선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작품의 '시대적 한계'로 설명해 왔던 것이다.

'조선 시대=성리학'이라는 전제의 타당성 여부¹¹⁾는 차치하고서라도, 이처럼 작품을 특정한 기준에 의거해 판단하는 식의 독법은 개별 작품들을 그 기준에 봉사하는 도구로만 배치한다는 점에서 작가와 작품의 개별적 의미를 간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근대 문학이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크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특히 노래로 불렸던 고전시가는 형식은 작품의 향유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각자 작품의 의미를 증폭해나갔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작가 개인의 삶을 포함한) 작품 그 자체의 창작 맥락과 문면에서 확인되는 작품의 내적 의미에 더해 작품들의 향유 양상 역시 고려하여 작품을 읽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17세기 재지사족들이 창작한 국문시가 작품들이 표현에 있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을 미리 정리하여 말하자면, 특정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는 것, 더불어 구체적으로 언급된 특정 사건에 대한 작가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는 것, 작품의 주제적 지향을 국문시가의 제목으로 명시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표현상의 특징들은 기존에 제출된 논의들에서도 어느 정도 지적된 것들이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재지사족 작가들이 창작한 국문시가가 작가와 비슷한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간과한 채 개별 작품들을 온전한 작가 개인의 산

6) 박요순, 「정훈과 그의 시가고」, 『송전어문학』 2, 송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3.

7) 강전섭, 「〈청계가사〉 중의 단가 86수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학연구』, 대왕사, 1986; 강전섭, 「철실 이덕일의 <우국가첩>에 대하여」, 위의 책.

8) 한창훈, 「박인로-정훈 시가의 현실 인식과 지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9) 이상원, 「17세기 시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0) 권순희, 「17세기 남원지방 재지사족의 동향과 정훈의 시가」, 『어문논집』 39, 안암어문학회, 1999.

11) 조선시대를 성리학으로 설명하려는 연구 경향에 대해서는 허태용, 「성리학으로 조선시대를 설명하는 연구 경향의 비판적 고찰」, 『역사비평』 127, 역사비평사, 2019.

물로 해석해온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재지사족 작가인 박인로의 경우, 당대에 ‘선가자(善歌者)’로 이미 이름이 높았으며 그 작품 역시 다른 이들의 뜻을 대신해서 읊어낸 것이 적지 않았다.¹²⁾ 지금의 우리가 독서물로 접하는 국문시가를 당대인들은 ‘시가(詩歌)’로 향유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재지사족 작가들이 창작한 국문시가 작품들이 (박인로의 경우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작가 개개인의 속내를 읊은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작가는 작가 자신과 주변인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있음이 전제되는 소재들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정서를 읊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를 전제로 재지사족 작가들이 창작한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들의 표현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재지사족 소작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의 표현 양상

<1>

이 몸 저머신 제 더 되놈 나고라자
崑崙山 므니 불아 씨 업시 버힐 거술
一長劔 곶아 진 ㅁ음이 가고 아니 오노왜라.
- 정훈, <歎江都陷沒大駕出城歌>

<2>

애고 애고 이니 슬픔 엇지 하면 좋을고
南漢中 갖치신 고은 님 엇지 엇지 하시니고
晝夜의 慟哭 悲歌를 알 리 업서 ㅎ노라.
- 강복중, <淸溪慟哭六條曲> 3

먼저 살필 것은 정훈(鄭勳, 1563~1640)과 강복중(姜復中, 1563~1639)의 작품으로, <1>은 정훈, <2>는 강복중의 시조 작품이다. 이 중 정훈의 작품인 <1>은 <歎江都陷沒大駕出城歌>라는 제목이 붙은 것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강화도가 함락되고 이어 인조가 남한 산성에서 출성해 청 태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탄식하며 지은 것이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무력감과 그 무력감에서 오는 분탄이 ‘자신이 젊었으면’이라는 가정적 언술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문제적 사태를 암시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정제하지 않은 채로 분출하는 것은 해당 작품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과 그 비판의 내용이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공유되고 있음을 전제한다.

한편 <2>는 <淸溪慟哭六條曲>이라는 제목으로 묶인 6수의 시조 중 하나이다. <淸溪慟哭六條曲> 6수는 광해군의 폐모살제(廢母殺弟), 무리한 은 수취를 통한 경복궁 중건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비판부터 산송(山訟), 독자(獨子)의 죽음, 남아있는 아홉 손자에 대한 책임 등

12) 박인로의 ‘선가자’로서의 면모에 대해서는 최현재, 「노계 박인로의 선가자로서의 면모와 그 의미」,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2002 참조.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토로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곡’이라는 감정적 분출을 명시하는 말로 묶어낸 것이다. 직설적인 비유들로 점철된 그의 속내는 너무나 직설적이기에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2>는 그 중 세 번째 작품인데, 그 중 인조가 청 태조에 의해 남한산성에 포위된 것을 듣고 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작가가 느끼는 ‘슬픔’이라는 감정은 ‘엇지’라는 부사의 반복을 통해 강조되는데, 이 같은 발화 방식은 매우 거친 종류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

奴僮는 自滅하고 國家는 太平하니
天下 蒼民이 樂有餘 뿐이로다
淸溪 八十 衰翁도 興을 계워 ㅎ노라.
- 강복중, <戊寅元朝歌>

한편, <戊寅元朝歌>이라는 題下의 <3>은 무인년, 즉 1638년 설에 읊은 노래로, 바로 전 해에 있었던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때에 불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奴僮라 일컬은 청 태조 누르하치는 멀하고, 국가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초장은 강복중이 당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임금이 항복을 고하고, 세자와 대군이 피로(被虜)된 지 그다지 오래 지나지 않은 당시의 정황을 염두에 두면 <3>에서 작가가 읊는 태평성대는 어색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강복중과 같은 촌로에게 이미 국가적 위기에 대한 명확한 사태 파악은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저 새해의 첫날, 자신의 유유한 삶에 대한 자족을 읊기 위해 이 노래를 부른 것이라면 그에게 국가적 위기의 진위 여부는 이미 긴지 않은 문제였던 것이다. 국가적 사건을 이처럼 왜곡하여 소환한 것은 작가와 작가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는 자신과 심리적 거리가 먼 정치적 사건의 향방보다 그 사건을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는 병자호란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보다 ‘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3>과 비슷한 양상을 아래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學文을 후리티오 文武을 ㅎ온 뜻은
三尺劍 돌너 메오 盡心報國 호러터니
흔 일도 ㅎ음이 업스니 눈물 계워 ㅎ노라
- 이덕일, <憂國歌> 1

壬辰年 淸和月의 大駕 西巡 ㅎ실 날의
郭子儀 李光弼 되오려 盟誓러니
이 몸이 不才론들노 알 니 업서 ㅎ노라
- 이덕일, <憂國歌> 2

나라히 못 니줄 거슨 네 밧긔 뇌여 업다
衣冠 文物을 이대도록 더러인고
이 怨讐 못내 갑풀가 칼만 곁고 잇노라
- 이덕일, <憂國歌> 3

城 잇사 되 막으랴 네 와도 흘 일 업다
三百 二十州의 엇디 엇디 덕킬 게오
아모리 蠱臣 精卒인들 의거 업시 어이 흐리
- 이덕일, <憂國歌> 4

盜賊 오다 뉘 막으리 아니 와서 알니로다
三百 二十州의 누고 누고 힘써 흘고
아모리 애고 애고 혼들 이 人心을 어히흐리
- 이덕일, <憂國歌> 5

어와 설운디오 칭각거든 설운디오
國家 艱危를 알 니 업서 설운디오
아모나 이 艱危 알아 九重天의 슬오쇼셔.
- 이덕일, <憂國歌> 6

痛哭 關山月과 傷心 鴨水風을
先王이 쓰실 적의 누고 누고 보온 게오
들 불고 바람 불 적이면 눈의 삼삼 흐여라.
- 이덕일, <憂國歌> 7

<4>는 이덕일(李德一, 1561~1622)의 연시조 <우국가(憂國歌)> 28수 중 일부이다. ‘우국가’라는 제목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이덕일의 시조 작품들은 우국의 심정을 노래한 것들이다. 다만 앞서 확인한 정훈과 강복중의 작품이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것이라면, 이덕일의 시조 작품은 작가 이덕일이 광해군 때에 몰한 인물이니만큼 주로 임진왜란과 선조 당시의 당쟁을 소재로 한 것들이며, 특히 위의 시조 7수는 임진왜란에 대해 읊어내었다. 얼핏 보기에 이들 작품은 선조가 몽진까지 떠나게 된 긴박한 상황에 대해 통탄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이에 더해 왜적을 물리칠 날을 고대하고 있는 심정을 노래한 것인 듯하다.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난 <우국가>라는 제목부터, 반복되는 직설적 표현들까지 이덕일의 <우국가>는 앞서 확인한 정훈, 강복중의 시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의 문면에서 확인되는 내용에 더해 이덕일의 <우국가>를 좀 더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임란 당시 선조가 읊은 것으로 전하는 어제시(御製詩) 한 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5>

나라의 사태가 황급한 날에 / 國事蒼黃日
 누가 곽자의(郭子儀)와 이광필(李光弼)처럼 충성하라 / 誰能郭李忠
 빈(邠)을 떠남¹³⁾은 큰 계책 때문이고 / 去邠存大計
 회복은 공들에게 의지하네 / 恢復仗諸公
 관산의 달을 보며 통곡하고 / 慟哭關山月
 압록강 바람 피며 상심하네 / 傷心鴨水風
 조정의 신하들은 오늘 이후에도 / 朝臣今日後
 또 다시 동인 서인 따질 것인가 / 尚可更西東
 - 선조, <용만(龍灣)에서 심사를 적다(龍灣書事)>¹⁴⁾

주지하듯 용만은 의주(義州)의 옛 이름으로, 임란 당시 선조가 몽진 끝에 다다랐던 곳이다.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왜군의 기세로 한양을 버린 선조가 의주에 도착해 읊은 것으로 전하는 이 어제시는 안녹산의 난을 평정한 두 명장 곽자의와 이광필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자신을 구제할 명장을 찾는 데서 시작해 동과 서로 나뉘어 정치적 논쟁만을 일삼는 관료들에 대한 비난으로 끝난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어제시는 전세의 급박함과 선조의 처참한 심정, 이에 더해 극심했던 당쟁에 대한 선조의 속내에 대한 증좌로 인구에 적잖이 회자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런데 선조의 어제시와 앞서 적은 이덕일의 <우국가>를 나란히 두고 보자면 비슷한 표현이 눈에 띈다. 먼저 <우국가>의 두 번째 작품은 어제시의 두 번째 구절을 모티프로 하고 있으며, 일곱 번째 작품은 어제시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절을 그대로 절취하여 초장에 삽입하고 있다. 어제시를 보고 이덕일의 시조를 다시 보자면, 이처럼 눈에 띄는 부분들 외에도 각 시조 작품의 내용 역시 선조 어제시의 구절구절이 담은 의미를 확대한 것이 확인된다.

<우국가>의 첫 번째 작품부터 세 번째 작품까지 세 수의 작품이 어제시의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을 임금이 아닌 신하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읊은 것이라면, <우국가>의 네 번째 작품과 다섯 번째 작품은 어제시의 세 번째 구절과 네 번째 구절의 내용, 즉 선조가 한양성을 떠나 몽진하게 된 정황과 그에 대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우국가>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작품은 각각 ‘애고 애고’, ‘설운디오’ 등의 반복된 표현으로 국난에 대한 통분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감탄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이 작품들은 시조가 갖는 일반적인 미감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는 이 시조 작품들이 시조 작품으로서의 미감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로 사건에 대한 감정 그 자체를 표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일상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언어로 적힌 이 두 작품은 이런 식으로 어제시의 다섯 번째 구절 즉 ‘관산의 달을 보며 통곡하고’와 상응하는 정서를 확대하여

13) 빈(邠)을 떠나는 것은 임금이 난을 피하여 도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이르는 말로, 『맹자』 양혜왕(梁惠王) 하(下)의 고사, 즉 주(周)나라 태왕(太王) 고공단보(古公亶父)가 빈(邠)에 있을 때 적인(狄人)이 쳐들어오자 백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빈을 버리고 기산(岐山) 아래로 옮겨 갔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14) 『열성어제(列聖御製)』 卷7.

15) “옛날 임진년 종묘의 예모(禮貌)가 전도(顛倒)되고 승여(乘輿)가 파천(播遷)하였을 때에 선묘(宣廟)께서 시를 지으시기를 ...(중략)... 지극한 가르침이 간곡하였지만, 환도(還都)하신 뒤로는 당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君德의 수양, 人才의 收用, 立志, 紀綱의 확립, 朋黨의 혁파, 大同의 실시, 暗行御史의 파견, 臣下의 引接, 兵農의 구분, 諫言의 수용 등에 대해 진달하는 崔有淵의 상소>.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무인, 3월 9일.

표출하고 있다. 위에 적지 않은 <우국가>의 여덟 번째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21수의 시조 작품은 당쟁에 대한 우려의 뜻을 담아낸 것으로, 이 역시 어제시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구절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어제시의 내용을 확장하여 ‘우국’이라는 제하의 연시조를 창작한 이유를 단순히 선조에 대한 충심 때문인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집구시는 집구시의 수신자인 독자가 집구된 시구들의 원시 내용을 증폭시켜 가는 식으로 읽힌다는 점¹⁶⁾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덕일의 시조를 집구시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덕일과 함께 이덕일의 시조를 향유했을 이들이 이미 선조의 어제시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전제한다면 이들은 <우국가> 전반의 정서와 표현을 지배하고 있는 선조의 어제시를 자신들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서 임란에 대한 자신들의 정서 역시 증폭시켰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우국가>라는 작품의 실제적 내용보다는 선조의 어제시를 바탕으로 해 임진왜란에 대해 무언가라도 읊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행위였을 것이다.

한편, <우국가>와 같이 국가적 사안에 대한 여러 편의 시조가 같은 제목으로 묶인 것으로 이정환(李正煥, ?~?)의 <국치비가(國恥悲歌)>를 들 수 있다.

<6>

반 밤중 혼자 이러 못노라 이니 쏘아
萬里 遼陽을 어니 듯 다녀 온고
반갑다 鶴駕 仙客을 친히 뵈 듯 하여라.
- 이정환, <국치비가> 1

풍설 석거 친 날에 못노라 北來 使者
小海 容顏이 언매나 치오신고
故國의 못 죽는 孤臣이 눈물계워 흐노라.
- 이정환, <국치비가> 2

후싱 득은 후에 향왕을 뉘 달래리
楚軍 三年에 艱苦도 그지 업다
어느제 漢日이 밝아 太公 오게 홀고.
- 이정환, <국치비가> 3

朴堤上 득은 후에 님의 실람 알 이 업다
異域 春宮을 뉘랴서 모셔 오리
至今에 鵝述嶺 歸魂을 못니 슬허 흐노라.
- 이정환, <국치비가> 4

旄丘를 돌아보니 衛 사람 예엿브다
歲月이 자로 가니 침줄이 길엿세라

16) 집구시의 향유 방식에 대해서는 신은경, 「尹善道 集句詩 연구 -로트만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론을 토대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참조.

이 몸의 헤어진 갓옷을 기워 줄 이 업서라.

- 이정환, <국치비가> 5

九重 달 발근 밤의 聖慮 일정 만흐려니

異域 風霜에 鶴駕인들 이즐소나

이 박에 억만 창생을 못내 분별 흐시는다.

- 이정환, <국치비가> 7

<국치비가> 역시 다른 재지사족들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제목에서부터 작품의 주제적 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우국가>가 임란만을 소재로 삼고 있다면,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국치비가>는 특히 병란을 소재로 삼은 것으로, 위에 적은 작품들은 <국치비가> 10수 중 특히 소현세자가 피로된 정황에 대한 울분을 읊고 있다. 앞서 확인한 시조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정제된 표현으로 작가의 심사를 드러낸 이 작품은 왕족의 피로와 관련된 고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피로된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인신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조 작품은 각각 항우(項羽)가 유방(劉邦)의 아버지인 태공(太公)을 포로로 잡은 고사, 왜에 포로로 잡혀간 왕의 동생들을 탈출시키고 죽은 신라 박제상의 고사, 『시경(詩經)』 패풍(邶風) 모구장(旄丘章)과 관련된 고사, 즉 여(黎)의 임금이 나라를 잃고 위국(衛國)에서 포로 생활을 한 고사 등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처럼 작품의 주제적 지향을 위해 관련 고사를 작품의 주요 모티프로 삼는 양상은 <국치비가>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국치비가>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살핀 이덕일의 <우국가>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현전하는 10수의 시조 작품이 모두 <국치비가>라는 제목으로 묶여 병자호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지사족 작가들이 특히 국문시가라는 형식을 통해 임병양란에 대한 심사를 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단서를 아래의 작품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7>

이 몸이 장성 되야 萬里 邊塞 칼을 뵈고 누어스니

鳳凰城 山海關은 말밭의 썩글리요 十萬 胡兵馬는 칼 쫓히 풀넙피라 大丈夫 千秋 事業을 일은 씨에 못 일우고 그 언제 일워 보랴

진실로 皇天이 니 뜻 알으시면 우리 聖上 근심 풀가 흐노라.

- 김충선, <仍防詩>

위의 시조는 임란 때의 항왜(降倭)로 잘 알려진 김충선(金忠善, 1571~?)의 시조 작품으로, 김충선이 1603년부터 10년간 변경에서 잉방(仍防)한 때에 지은 것으로 전한다. 사설시조와 같이 중장이 확장된 위의 작품은 ‘十萬 胡兵馬’로 지칭되는 중원의 새로운 적조차 가벼이 여기는 무인의 기개와 아마도 광해군일 것으로 보이는 임금에 대한 충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언뜻 심상해 보이는 작품의 주제적 지향과 달리 사설시조처럼 중장과 종장이 확장된 작품의 형식이 눈길을 끈다. 중장은 그 내용으로 보아 크게 ‘鳳凰城’부터 ‘풀넙피라’까지, 그리고 ‘大丈

夫'부터 '일위 보라'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부분이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뒷부분은 이 같은 국가적 위기에서의 활약을 '大丈夫 千秋 事業'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종장에서는 '大丈夫 千秋 事業'을 '우리 聖上 근심 풀' 일로 그 의미를 확대해나간다. 개인의 행위를 국가적 사안으로 확장 시켜가는 다소 급박한 시적 전개 속에서 평시조의 엄격한 형식은 고려되지 않는다.

평시조의 형식을 파괴한 김충선의 시조 작품은 김충선이 국문시가를 지어 자신의 충심을 읊은 것이 단순히 혼자 곱씹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암시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김충선은 위의 시조 작품뿐만 아니라 항왜로서 조선에 귀화해 살아야 했던 자신의 굴곡진 삶에 대해 회고하는 가사 작품 <모하당술회>도 남겼다. 김충선이 구태여 노래라는 형식으로, 심지어 장르의 형식조차 무시하면서 자신의 충심을 읊고 자신의 삶을 술회한 이유는 항왜라는 김충선의 불안정한 신분적 처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명을 좇아 조선에 귀화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항왜 출신으로서 김충선은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자신에게 놓인 혐의들을 벗기 위해 조선에 대한 충심은 여러 차례 공표되어야 했다. 노래인 국문시가는 이 같은 공표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형식이었을 것이다. 앞서 살핀 재지사족 작가들과 항왜였던 김충선의 상황을 동궐에 두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역시 김충선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임병양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태도의 내용과는 별개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로써 사족이라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다.¹⁷⁾

3. 재지사족 所作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의 의미: 결론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앞서 살핀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를 비롯한 재지사족 작가의 국문시가 작품들은 전승 양상에 있어서도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보장된 연행 공간에서 소용된 가집이 아니라 영성한 가첩이나 문집 또는 세보(世譜)의 부록에 산재한 이들의 국문시가들은 대체로 한시문보다 적게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문시가들을 엮어낸 (또는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후손들은 얼마 없는 이들 작가들의 국문시가들, 특히 임병양란에 대해 남긴 국문시가 작품들을 부각하려 노력했다. 이들 재지사족 작가들의 행장에서는 하나 같이 이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항시 걱정하며 이를 노래로 읊었다는 점이 언급되며, 일부 작품은 한역된 것들이 병기되어 있기도 하다.

국문시가를 창작하는 일이 당시에 얼마나 대중적인 일이었는지, 특히 임병양란을 소재로 해 국문시가를 창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흔한 또는 그렇지 않은 일이었는지 지금의 우리로서는 확언하기 어렵다. 다만 재지사족 작가들이 임병양란에 대한 자신들의 심사를 국문시가로 읊은 것이 향유 당시에는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표하는 행위였다면, 이후에는 후손들에게도 역시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상이 국가적 위기에 전면으로 나서 대응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들 작가들의 후손들

17) 이 발표문에서는 살피지 못했지만, 사실 임란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가사 작품이라고 했을 때 쉽게 떠올리는 작품은 박인로의 가사 작품 <선상탄>과 <태평사>이다. 앞서 확인한 작품들이 대체로 비분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에 비해 이 두 가사는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그리 무겁지 않다. 왜적이 침입한 원인을 과거로 소급해 찾는 <선상탄>의 일부 구절은 지나치게 결여된 현실성으로 인해 일견 희화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는 본 발표문에서 앞서 확인한 다른 작품들과 달리, <태평사>와 <선상탄>은 하급 무관이었던 박인로가 대작 등의 형식으로 전장에서 창작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은 자신을 사족으로 규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논증하기 위해서는 현전하는 재지사족 국문시가 작품들의 수록 문헌들의 서지적 사항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이들 문헌의 사회사적 의미를 더불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재지사족 所作 임병양란 소재 국문시가의 표현 양상과 그 의미> 토론문

윤지아(안동대)

조은별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은 재지사족이라는 일련의 작가들이 창작한 국문시가 중 특히 임병양란을 소재로 한 국문시가를 대상으로 그 표현 양상을 확인하고 의미를 밝힌 것입니다. 임병양란은 문학사를 구획하는 분기점으로서, 특히 근대성 논의의 자장 안에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시기에 산출된 시가 작품들은 대개 이와 같은 문학사적 구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아 왔기에, 향유 양상을 통해 작품 본래의 의미 맥락을 재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식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범주에 드는 여러 작가 및 작품 중에는 그 동안 학계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들 또한 상당 수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착상은 향후 진전된 연구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여겨집니다.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든 몇 가지 의문을 아래에 적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재지사족 국문시가와 관련해 제출된 논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논의들이 조선시대를 성리학으로 설명하려는 전제 하에 각 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논의 역시 재지사족이라는 특정한 신분 계층으로 작가군을 묶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작가들과 여러 작품들의 ‘개별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요? 제가 발표문을 오독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발표문 역시 ‘작가와 작품의 개별적 의미’에 주목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 발표문의 2장에서 재지사족들의 국문시가가 재지사족 작가와 그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을 거라 전제하고 작품의 표현 양상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제가 작품의 표현 양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바, 재지사족 국문시가에 주로 나타나는 구체적 사건의 명시, 이에 대한 직설적 감정 토로 등과 같은 표현 양상과, 작품의 향유 양상 사이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을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박인로가 선가자라는 자료 외에) 지금으로서는 재지사족들의 국문시가 향유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많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발표자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임병양란과 같은 국가적 사건을 주제로 삼아 ‘말하는 것’에 의도를 두고, 즉 모종의 정치적 제스처로서 자신이 속한 재지사족 집단 내지 향촌 공동체에 향유할 목적(정체성을 표방할 목적)으로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주장을 향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지요.

4. 이덕일의 <우국가>를 선조 어제시와 관련해 읽은 점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시를 절취해 시조를 창작하는 방식은 시조에서 다소 일반적인 표현 기법으로 읽힐 수 있을 듯합니다. 칠실 이덕일이라는 인물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 그가 어제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현실적 상황을 풍부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해석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5. 강복중의 시조에 대해

강복중의 작품 중 당대 현실 상황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시조 <戊寅元朝歌>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작품을 읽어보니 과연 작중 의미와 당대 상황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해서, ‘혹시 고도의 반어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해당 작품 이외에도 이처럼 실제 상황보다는 국가의 중대사를 ‘말하는 것’에 의미를 둔 작품들이 더 있는지요?

공정성 평가에 따른 고전 해석의 확장 가능성 연구

김세림(한양대)

<목차>

- I. 문제제기
- II. 기존 설화 해석의 논리 점검
- III. 공정성 평가에 따른 해석 확장 가능성
- IV. 예상 결론

I. 문제제기

고전문학에 대한 교육은 자칫 고정적인 해석, 절대적인 해석이 교본이 되어 답습하듯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고전문학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일상에서 고전문학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바르고 정확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그 해석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당 내용의 상대성이나 시대별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차이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오히려 학습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건만, 이를 교육 현장에서 쉽게 놓치고 있음이 아쉬울 따름이다.

‘고전문학(古典文學)’을 예부터 내려오는 가치 있고 훌륭한 문학으로 규정한다면 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충족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가치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개념들 중에는 선악(善惡)도 포함된다. 과거에는 선인 혹은 악인으로 평가받았던 인물들이 훗날 재평가 되는 것을 보아도 인간사회에서 드러나는 선과 악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보인다.

고전문학 작품에서는 선인과 악인의 대립적인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편이다. 이 선명함은 어린이들이 접하는 동화에서 고전문학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우는 시기에 모호함보다는 분명함이 학습에 더 도움이 되므로, 어린 독자들은 선악 대립이 분명한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재미를 찾고 교훈을 얻게 된다.

학습자들은 이렇게 문학 작품 안에서 선악 구별 짓기를 연습해오는데, 문제는 그 구별 짓기가 자칫 동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절대적인 구분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구별을 통해 인물을 절대선이나 절대악으로 치부하는 것은 동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학습자들은 동화를 통해 들어본 작품이거나 아는 작품인 경우 어릴 때 들었던 그 해석을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면서, 날것 그대로의 선악 구분을 성인이 되어서 까지 지니게 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고전문학 작품 속 인물들을 재평가해보는 방식이 성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학습자들의 무의식적인 절대적 구별을 현재의 사회와 시대상에 맞게 재단해보면서 그 상대적 가치에 대해 접근하려고 한 것이다. 이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거니와,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바른 해석을 스스로 판단하며 확인해간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방식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 교육방법에 대한 연장선이자 여러 고전문학 작품들의 해석이 갖는 상대성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우선 ‘공정(公正)’ 혹은 ‘정당(正當)’의 개념을 확인하고 해당 가치가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선악 평가는 사건 행위에 대한 정당함 혹은 부당함에 대한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인물이 선인으로 평가된다면 그가 가담한 사건은 선하고 공정한 것이 되고, 인물이 악인으로 평가된다면 반대로 악하고 부당한 일이 된다는 의미이다.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 사건은 심청의 효심(孝心)이 드러난 정당한 사건이며, 홍길동의 도적질은 굶주린 백성들을 돕기 위한 의협심(義俠心)으로 포장되는 것과 같다.

우선 공정함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공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과 이치에 맞는 것이 유사하게 처리되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공정 (公正) 「명사」 : 공평하고 올바름.
- 정당 (正當-) 「형용사」 :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
- 부정 (不正) 「명사」 :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 부당 (不當-) 「형용사」 :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한국의 학계에서 ‘공정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용어는 fairness, equity, justice 등이 있다. 이 중 fairness는 공정성 또는 공평으로, equity는 공평 또는 공정성으로, justice는 정의 또는 공정성으로 사용되고 있다. 철학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 예에 따라 “공정성(fairness)을 정의(justice)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Broome, 1990: 96) 경향과 Rawls(1958)6)의 주장에 따라 정의와 공정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공존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공정성’에 해당하는 단어로 equity와 fairness를 주로 사용하고, ‘공정성’ 보다는 ‘공평’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현진권, 2010: 1). 교육학 분야에서도 경제학과 성격이 가까운 교육행정학 연구자들은 ‘공정성’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equity를 사용하고, 번역어로 ‘공평’과 ‘공정성’을 혼용하였다(cf. 윤정일, 2003: 82). 심리학 분야에서는 연구 초기에는 공평(equity)을 정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 조직심리학자들에 의해 공정성(fairness)과 정의(justice)를 병용하기 시작하였다(김명언, 1997: 274).¹⁾

즉 공정하고 정당한 인물로 평가받는 선인이 수행한 사건은 사회적 정의까지 담보할

1) 김희용,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교육사상연구』 25,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1, 25면.

수 있는 가능성이 개념 정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전술한바 사회적 가치는 상대적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점검하고 상대적 평가에 따른 고전해석의 확장 가능성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II. 기존 설화 해석의 논리 점검

우리 설화 가운데에는 주체와 주체²⁾끼리 벌이는 힘의 대결 도중에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진 이야기들이 많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에서 어머니가 그러했고,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어머니나 장수가 외부의 힘으로써 작용했다.³⁾ 이 외부의 힘은 설화의 전개뿐만 아니라 해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입되지 않았어야 할 힘이 개입되었다고 해석함으로써, 텍스트의 결말을 비극과 연결 짓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힘에 대한 설화 연구들은 외부의 힘을 부당하다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해왔다. 힘이 더 센 누이가 대결에서 이겼어야 한다고 믿거나, 아기장수가 다른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성공하여 민중들의 길잡이가 되었어야 한다고 믿는 식이다.

설화들 중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극성을 강하게 지녀 그 속성으로 보아 평민계층이 향유했던 전설⁴⁾로 볼 수 있다. 향유자들 탓에 이 텍스트는 민중과 사회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오누이가 힘을 겨루는 사건에 개입된 어떤 힘의 성격을 ‘부당함’으로 보는 것은 실패한 이물의 입장에서 평가된 서술이다. 부당함이 당연한 평가라면 당연함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그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보고, 같은 분석 방법으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은 별도로 고민해보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설화를 접하는 학습자들은 어머니를 ‘부당하다고’고 보는 입장이 많다. 이 역시 서사에서 실패한 인물에 해석의 초점을 대입한 결과일 것이다. 현재의 시점으로는 어머니를 부당하고 부정적인 역할로 볼 수 있으나, 당대 사회에서 어머니가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따라 아들을 도운 것이 과연 부당한 일이었는지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설화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향유하고 전승했던 사람들은 이 설화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므로 전달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여러 변이형들이 있어 각 편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

2) 인물이나 주인공 대신 ‘서사의 주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야기의 서사와 그 해석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서사의 주체는 등장인물의 수만큼 다채롭고, 주인공이 아니었던 다른 인물의 편에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 준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와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41면.

3) 천혜숙은 아기장수 전설의 유형을 둘로 나누어 정리했다.

· 제 1 유형 : 날개달린 아기장수와 용마

· 제 2 유형 : 어머니의 잘못으로 실패한 아기장수

제 1 유형에서는 태어난 아이의 비범함을 두려워했던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제 2 유형에서는 적대자가 어머니의 잘못을 통해 기회를 얻어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매듭지어진다.

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形成과 意味」, 『한국학논집』 1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6.

4) 현길언, 「힘내기형전설의 구조와 그 의미」, 『연암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연암 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0, 651면.

종미(1999)⁵⁾는 이 변이형들을 인물, 내용, 결과에 따라 나누어 정리해두었다. 힘내기를 벌이는 주체는 오누이, 부부, 과부와 홀아비이기도 하고 그 내용은 서울 다녀오기, 나무 심기, 성 쌓기 등으로 다양하다. 결과 또한 누이가 죽을 때, 아들이 죽을 때, 둘 다 죽을 때 등으로 나뉜다. 변함없는 사실은 누이가 오라비보다 힘이 더 센 장수였고 개입한 힘이 없었다면 승리했어야 할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여러 변이형들을 살펴도 누이의 과업이 점차 여성성을 강조하는 옷 짓기, 밥 짓기, 물 나르기 등으로 변할 뿐 출발점에서 딸이 우월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민중들과 전승자들은 이 부당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들의 승리도 퇴색시키는 변이형을 양산해냈다. 누이의 죽음이 온전히 자신의 승리 탓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이 뒤늦게 자살을 하거나, 두 자식의 죽음을 목도하고 어머니마저 죽게 된다는 식의 변이형들이 그것이다.⁶⁾ 여러 각 편들 중 빈도수가 가장 높고 원형이라 할 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서사를 단락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 어느 곳에 홀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다.
- ㉡ 남매는 모두 힘이 장사였고 그중 누이의 힘이 더 월등했다.
- ㉢ 力士가 둘 일수는 없다고 여긴 어머니는 힘내기 대결을 제안했다.
- ㉣ 제한된 시간 안에 아들은 서울을 다녀와야 했고, 누이는 성을 쌓기로 했다.
- ㉤ 딸이 성을 먼저 쌓아가 내기에서 이길 것 같아서, 어머니는 뜨거운 팔죽을 쑤어 딸을 먹게 했다.
- ㉥ 딸이 팔죽을 먹는 사이에 아들이 먼저 도착하여, 딸은 죽음을 당했다.

힘내기를 하는 주체는 오누이이고 외부에서 대결에 개입하는 힘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팔죽⁷⁾으로 상징되는 개입을 통해 딸을 패배하도록 이끈다. 어머니에게 있어 선이

5) 이종미, 「오누힘내기傳說研究」,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II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서사를 정리하였다.
 6) 이종미는 오누힘내기 설화의 결말부분을 정리하여 비극의 강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이 일곱 가지의 변이결과는 딸의 죽음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아들의 승리도 온전한 것이 아니므로 아들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애초에 힘내기를 말리지 못한 어미의 무능과 아들 편을 드는 편애 때문에, 홀어미도 두 자식을 잃고 살 수 없으니 마저 죽게 했다고 여겨진다. 또 죽음은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이므로 내기는 하되 죽이지 말고 패배하거나 웃음거리 정도로만 완화 해두자는 전설 향유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종미, 앞의 논문, 14면.

	구분	빈도수	비극의 강도
1	홀어미·아들·딸 모두 죽음	6편	14
2	아들·딸 죽음	3편	8
3	딸 죽음	75편	5
4	딸 패배	6편	3
5	아들 패배	15편	2
6	무승부	2편	1
7	生死不明	13편	0

7) 무속신앙 중에는 팔의 붉은 색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는 미신이 있다. 팔의 붉은 색이 피와 같은 색이므로, 생명을 상징한다고 보고 신성시하며 숭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주술신앙에서는 동물의 피로 귀신을 쫓곤 하는데, 이때 피 대신 팔을 이용하기도 한다. 喪家에서 팔죽을 주거나 이사할 때 팔떡을 이웃에게 돌리는 행동,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물에 팔을 넣는 행동 등이 모두 팔죽을 주술의 도구로 여겼기 때문이다. 선녀와 나무꾼 설화에서도 나무꾼은 팔죽을 먹는다. 승천 직

란 男尊女卑적 사회질서에 따라 아들이 승리하는 결말이었다. 애초에 대결이 발생한 원인은 두 장수가 한 집에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어머니가 두 장수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은 선택한 쪽이 살아남는 것이 더 선하다고 믿었던 탓이다. 위의 요약문형에서는 내기를 유도한 주체도 어머니로 표현된다. 여러 변이형에 따라 아들이 힘내기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어머니가 힘내기에 개입되므로 본 논의에서는 생략했다. ㉔에서 딸은 팔죽, 짓가락 등으로 표현되는 어머니의 의도적 개입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고, 끝내 모르는 채 내기에서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누이는 어머니가 개입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승부를 포기하며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⁸⁾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어머니’나 ‘팔죽’ 등이 상징하는 외부 힘들의 개입이다. 전승자 혹은 연구자들은 그 힘의 개입이 부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당연히 힘이 더 세었던 누이가 내기에서 승리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야기를 구술해왔던 연행자들이 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아들과 어머니를 함께 죽이는 등의 변이형을 양산해낸 것도, 결국 내기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진다.

강현모⁹⁾는 이 설화가 실패하였거나 불우한 인물에 결구되는 양상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 어머니의 부당한 개입으로 누이에게 주어진 승리의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역할은 누이와 동생을 화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서 끝나는데, 이는 민중의식의 반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길언¹⁰⁾은 이 이야기가 비범한 오누이를 자식으로 가진 홀어머니가 두 오누이의 대립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아들 편을 드는 부당한 관여로 말미암아 세 사람의 인간관계와 그 관계의 파탄을 맞이했다고 보았다. 오누이의 싸움은 그들의 능력에 의한 정당한 대결에 의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비극성이 심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오누이의 대결은 오누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부당한 개입에 의한 정상적인 승부의 파탄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개입이 사회적 통념에 의한 것이라 밝히며 누이의 패배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소재영¹¹⁾ 역시 제주지역 설화 문학을 살피면서 <오누이 힘내기> 설화를 소개했다. 그는 대결의 문제가 승부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작하려는 제 3자인 어머니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제 3자에 의해 조종 받은 약자의 반성으로 승부가 뒤바뀌면서 비극적 파국이 초래된다고 보았다. 제주 지역의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내기의 승리가 비겁

전에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팔죽을 먹다가 말 등에 죽을 엮질러 금기를 어기고 실패하는 유형으로 전승되고 있다. 성서에서 야곱이 허기진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도구도 죽인데, 한국에서는 이 콩죽을 ‘팔죽’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김용목, 「처용달 벽사색 연구」, 『한국무용사학』 10, 한국무용사학회, 2009. 박현숙, 「<선녀와 나무꾼> 전래동화의 설화 수용양상과 문제점」,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8) 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188면.

9) 강현모, 「이몽학의 오누이힘내기 전설고」, 『한국언어문화』 6, 한국언어문화학회, 1988, 84면.

10) 현길언, 「제주도의 오누이 장사전설 : 본토와의 대비를 통한 제주 인물전설의 의미」, 『탐라문화』 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30-32면.

11) 소재영, 「濟州地域 說話 文學의 比較 研究」, 『崇實語文』 11, 崇實語文學會, 1994, 22면.

했음을 알게 된 아들이 자살을 하거나, 아들과 함께 어머니도 자살하는 이본으로 발전하므로 그 비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소개영의 해석은 비록 제주지역의 변이형 설화 <오찰방 설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짧게 소개되는 것에 그쳤지만, 누이의 죽음은 부당하고 어머니의 죽음은 자책적이라고 보면서 해석자의 소견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기존의 <오누이 힘내기>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지면에 신지 못한 여러 이본 연구들과 유사한 설화 연구들을 통해서도, 외부에서 개입된 힘은 보통 전승자와 해석자들에게 ‘부당’하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극히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평가는 구술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승부를 권선징악의 결말로 이끌면서 흥미를 유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서사주체를 누이에서 어머니로, 혹은 아들로 변경해보면 이 부당함의 논리는 힘을 잃고 만다.¹²⁾ 남성중심사회나 권력중심사회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입장에서 누이의 힘은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사의 주체를 옮겨 서사를 재구성하고 다양하게 해석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자면 그 ‘부당한 힘’이 오히려 ‘온당한 힘’일 수도 있음에도 우리는 편향된 해석으로 텍스트를 틀 안에 가두었다고 보인다.

텍스트 해석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자는 이 원인을 수용의 다양성 부족으로 생각해보려 한다. 텍스트를 수용하는 경향이 일 방향으로 굳어졌고, 편향된 해석과 당연시된 전제가 해석의 특수성으로 귀결되었다는 논리이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전승집단의 특정한 문화와 논리를 담고 전해졌으며, 전승자들은 그 의미를 변별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태도는 설화가 민중들에 의해 향유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자연스럽게 ‘부당함’에 소급될 것이다. 설화가 공동체의 의사소통 통로로서 하나로 귀결된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 해석자들은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는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당한 힘을 뒤집어 힘의 색을 뒤바꾸어 본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육의 지평에서도 텍스트의 새로운 해석은 의미를 지닌다. 다양한 해석은 학습자들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적어도 문학 교실에서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12) 텍스트의 장르는 다르나 소설 해석의 방법을 정리한 김성진의 연구를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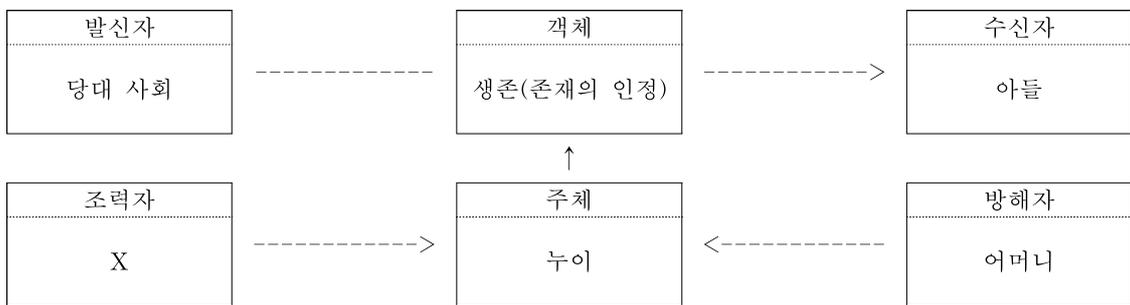
첫째, 텍스트의 해석은 텍스트에 내재한 객관적 의미의 발견이 아니라 해석 주체의 주관성을 투사하여 해석 주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 작품의 의미는 텍스트와 독자의 대화 속에서 실현되며 그것을 위해 다양한 해석이 장려되어야 한다. 둘째, 해석 주체의 주관성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텍스트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 해석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해석은 독백이 아니라 텍스트와의 대화이며 그런 점에서 상호주관성의 범주를 포괄한다. 셋째, 해석 주체와 텍스트가 놓인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해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해석 주체를 고립된 한 개인으로 파악하지 않기 위해서 독자의 경험, 세계관이나 문학관 그리고 해석 공동체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해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성진, 「소설교육에서 해석의 다양성 문제 재론」, 『우리말 글』 42, 우리말글학회, 2008, 163-164면.

III. 공정성 평가에 따른 해석 확장 가능성

Greimas는 행위소 모델¹³⁾을 통해 서사 구조를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비판의 여지가 많기는 하나, 서사를 한 눈에 보여주고 객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를 이 행위소 모델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텍스트 해석에서는 서사의 주체를 ‘누이’에 두고 적용한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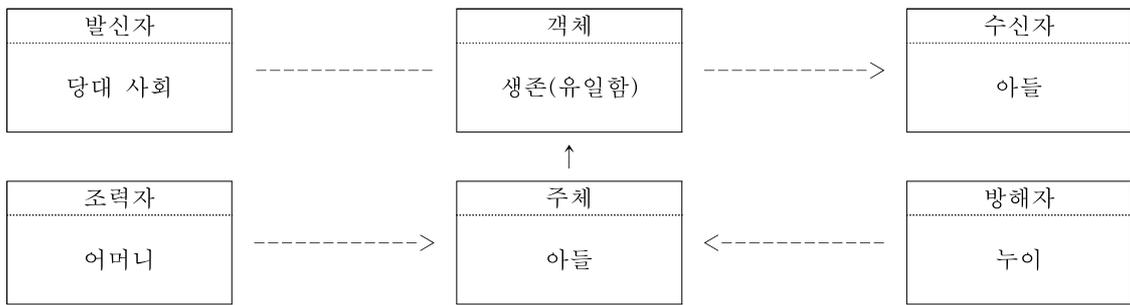
주체인 누이는 객체를 욕망하는 주인공이다. 누이의 욕망은 곧 생존으로 표상되는 유일함의 인정이다. 내기를 제안한 사람이 아들이거나 어머니였다는 점은 한 집안에 두 장수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누이에게 강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기에서 질 것 같아도 누이가 어머니의 개입을 받아들였다는 점, 변이형에 따라 스스로 내기를 포기한다는 점 등을 본다면 누이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유일함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가치인정에 대한 욕구였음을 알 수 있다. 조력자의 부재는 당대 사회에서의 고립을 뜻하고 생존을 요구하며 누이를 내기로 몰아낸 어머니를 포함한다. 결국 주체인 누이는 모든 서사에서 압력을 받아낼 수밖에 없다. 이를 행위소 모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체가 누이일 경우의 행위소 모델

한편 서사주체를 아들로 옮겨볼 경우의 행위소 모델은 다음의 표와 같다. 아들은 유일한 생존을 갈구하고 결국 내기에서 승리한다. 아들의 입장에서 누이는 방해자가 되지만 결국 내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들이므로 주체의 수행 결과가 전달되는 대상 또한 아들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서사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발신자와 객체, 수신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행 대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달의 축은 흔들리지 않고, 객체와 주체를 잇는 욕망의 변화를 압도하고 있다. 조력자는 발신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의도는 당대 사회의 의도를 대변한다. [표 1] 과는 달리 주체가 아들일 경우에는 행위소 모델만으로도 힘내기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기까지 한다. 주체와 발신자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내기 개입은 온당하게 보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13) 최현무, 『한국문학과 기호학』, 문학과 비평사, 1988을 참고로 Greimas, A. J. 의 모델을 정리하였다.



[표 2] 주체가 아들일 경우의 행위소 모델

[표 1] 과 [표 2] 에서 주체의 변화는 수신자의 변화를 가져온다. 주체와 수신자가 같지 않음은 이야기에서 상과 별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진짜 주인공과 가짜 주인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 설화에서처럼 죽음과 생존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발신자인 당대 사회는 가치 체계의 관리자로 정의되어 수신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수신자가 누이에서 아들로 변하여 나타나는 [표 1] 은 누이를 가짜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이는 누이가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주어진 계약을 위반했음¹⁴⁾을 뜻한다. 이 계약은 발신자인 당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며 결국 주체와 수신자가 동일하여 아들을 승리자로 표현한 [표 2] 가 현재 대부분의 해석들이 지향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내기에 개입하는 이야기는 비단 우리만의 화소가 아니다. 다수의 옛이야기들이 범국가적으로 상통하고 동일한 화소를 공유한다.¹⁵⁾ <오누이 힘내기> 설화 역시 유사한 화소와 흐름의 이야기들이 여럿 존재하고 있다. 종래의 해석은 민중들의 바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유의 공간을 넓혀본다면 이는 우리만의 특수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오누이 설화의 서사를 다시 살펴보면 서사의 공간이 집 안→집 밖→세계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공간적 확대는 텍스트 해석의 보편성 확대의 필요성과 맥을 같이함에도, 해석의 편향성을 강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게 한다.

설화에서 '부당한 힘'에 대한 해석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 담론이 이미 고정화되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누이의 패배는 발신자인 당대 사회가 '아들'인 수신자를 원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앞서 [표 2] 에서 전달축의 고정으로 확인한 바 있다. 우리가 넘겨짚고 가야 할 부분은 양 방향의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으로 고정된 해석의 연구사들이다.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누이 힘내기> 설화에 접근하기 위하여 서사주체의 자리이동과 공동선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해보았다. 일부 논리의 비약이 따를 수도 있으나 눈여겨볼만한 문제점들과 논의할만한 내용들도 함께 보인다.

14) 김태환,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수용의 문제점 : 발신자/수신자 개념을 중심으로」, 『독일어 문화권 연구』 10,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115면.

15) 어머니가 대결에 개입하는 이야기는 성경에까지 등장한다. 구약성경에는 '야곱'과 '에서'라는 형제의 장자권 다툼에 대한 일화가 남아있다. 장자 중심, 신 중심 사회를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에서 동생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처음부터 탐내고 결국 빼앗는다. 재미있는 점은 이 이야기에 대한 종교적 해석은 일반적인 평가와 다르다는 것이다. 힘이 덜 센 야곱의 승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개입은 진리를 알아보는 혜안으로 평가받기까지 했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와 구약성서의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똑같은 조건의 서사인데도 해석자들의 판단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고난 조건이 우월했던 것은 누이와 에서지만, 경쟁에서 승리하고 욕망을 쟁취하는 것은 아들과 야곱이다. 아들과 야곱을 도와 결말을 바꿔준 힘의 존재 역시 두 서사에서 유사하게 작용함에도 한쪽에서는 그 힘을 부당하다고 보고 한 쪽에서는 온당하다고 보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설화 해석들이 편향적 해석을 해왔다는 반증이자, 양가적 해석의 중요성을 일부분 보여주는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학문의 보편성과 특수성¹⁶⁾이 모두 주목받는 시점에서서는 더욱 그렇다.

외부 힘의 개입과 그에 대한 전승자의 판단은 당대의 전통적 상상력과 한국적 정신속에서 획득되고 확보된 합리성¹⁷⁾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설화에 개입된 힘에 대한 윤리적 판단 이전에 그것이 세계관과 사고관이 반영된 집단의 판단임을 상기하고, 부당함과 온당함 모두를 해석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IV. 예상 결론

문학텍스트는 수용자를 향해 의사소통의 순간을 제공하는 매개체이다. 수용자가 참여하여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성근 구조물 사이의 수많은 공간을 채워 넣을 때 드디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 그 완성은 그러나 순간일 뿐 다른 수용자에 의해 다시 채워질 빈 여백으로 돌아간다. 그리하여 하나의 문학 텍스트는 수천수만의 시공을 초월한 순간적인 완성점을 기다리며 열려 있다. 이렇게 텍스트 도처에 독자의 능동적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야 할 빈 여백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수용미학에서는 텍스트의 불확정성(Unbestimmtheit)이라고 칭한다.¹⁸⁾ 설화는 이 불확정성이 두드러지는 텍스트로 연행자들의 수많은 음성과 생각이 채워져 있다. 그 텍스트의 해석이 오직 하나라고 믿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으므로, 해석의 지평 확장을 위한 설화 교육은 여기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는 신화가 민중들의 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묘사하기 위해 브리콜라주(Bricolage) 개념을 도입했다.¹⁹⁾ 민중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요소들을 조합하여 현상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문화연구의 맥락에서 브리콜라주는 문화 소비자를 주류문화의 수동적 수용자로 보지 않고 그것의 체계모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

16) 고전문학교육학계에서는 세계의 고전문학교육과 비교하여 우리의 고전문학교육의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점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고전문학교육을 보다 심화되면서도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고전문학교육을 살펴봄에 우리 고전문학교육이 갖는 특수성에만 함몰하지 않고 보편성을 지향하고자 했고, 이는 설화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전문학교육의 통시성과 공시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공간적 시야를 넓혀 깊은 성찰을 시도해야 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성룡, 「한국 고전문학교육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13면에서 재인용.

17)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인식』, 지식산업사, 1992, 40면.

18) 이상란, 「희곡의 연극성」, 『희곡과 연극의 담론』, 연극과인간, 2003, 11면.

19) Claude Lévi-Strauss, 『야생의 사고(La Pensée Sauvage)』, 안정남 역, 한길사, 1996.

라 독자적인 저항문화를 형성하는 주체로 파악하려는 의도²⁰⁾에서 쓰이고 있다. 설화 교육에서 학습자들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성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브리콜라주적 텍스트 생산은 학습자의 능동적 태도를 강조하고 독특한 개성과 자발적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문화 텍스트를 지향함에 목적을 둔다. 원래의 텍스트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무엇이든 시도해보려 한다는 점에서, 설화 해석의 유연성을 시도하는데 참고할만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또한 언어를 사용하여 세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이나 사유 방식에 맞게 재창조해낸다.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였고, 그 상호작용 방식들 중의 하나가 설화라고 본다면 우리는 설화를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역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민중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혹은 일부분으로서 텍스트를 생산했다면, 이 텍스트에는 집단의 의식이 투영되어있다고 믿을 수 있다. 브리콜라주적 텍스트로서의 설화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가치를 판단하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태도와 연결되는 지점은 여기에 있다.

사실 공정함과 부당함의 기준 역시 태도와 맞물린다. 공정성을 뜻하는 영단어 fairness는 한국 사회에서 공평과 공정으로 나뉘어 이해된다.²¹⁾ 공평(公平)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이며, 공정(公正)은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이다. 즉, 사전적 정의로는 ‘공정’이 ‘공평’을 포괄한다.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공평의 개념에 윤리적 판단을 덧붙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시켰다. 최근 ‘공정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데,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정함이란 윤리성까지 겸비해야 하는 수준임을 이 단어의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사회의 판단기준은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학문의 분야마다 다르게 변화해왔고²²⁾, 이를 바탕으로 결국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공정성을 다르게 인식해왔으며 ‘공정’함이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해석과 평가의 상대성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결국 공정성 개념에 부과된 평가의 측면에 초점을 둔다면 학습자의 태도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자가 사용되기 전부터 인간은 설화와 함께 존재해왔고, 삶의 오랜 체험에서 얻어진 다양한 인식 내용을 일정한 구조 속에 형상화한 인간 정신의 소산인 설화는, 향유하는 이들의 삶의 양식이자 실체이다.²³⁾ 민중들은 이야기를 만들고 전승하며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갔다. 민중들의 입맛에 맞게 재창조되기도 하고 믿음의 반영 정도에 따라 존재 유무가 결정되기도 하면서²⁴⁾, 설화는 집단의 이야기를 만들며 동시에 집단의 의식

20) 안인기, 「시각문화의 브리콜라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재고」, 『미술교육논총』 25, 한국미술교육학회, 2011, 9면.

21) 이승은, 「공정성 논의에 기초한 경제적 평등론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6면.

22)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인간 영혼의 상태를 완전하게 하는 도덕적 삶의 근본에 기반을 둔다고 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덕이라 말하고 있다. 플라톤은 정의가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인 삶 안에서 각자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상의 인간다움’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제레미 벤담은 각 개인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공리(共利)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얻는 수단임을 밝혔고, 그의 제자 존 스튜어트 밀은 스승의 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로까지 발전시켰다. 최근에는 마이클 샌델이 정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의에 윤리성을 더한 데까지 논의를 이끌어 냈다.

23)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311면.

24) 이야기꾼과 수용자를 전승자로 묶어 전승자의 의식에 따라 설화의 유형을 구별 짓는다면 다음과 같

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높은 연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화를 담론 혹은 사회의 맥락만을 중심으로 너무 고정적으로 해석해 온 것은 아닌가 반성해본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설화 교육의 화석화를 조장하여 결국에는 해묵은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든 것이라 비판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의 개입은 남성중심주의 사회 하에서 공동선에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부당하지 '얇은' 힘의 제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방향의 평가 없이 부당하다고만 교육함으로써, 편향적인 해석으로 수용의 다양성을 차단했다고 본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반성적 의미로 설화의 새로운 해석을 선보였고, 이는 설화 교육의 화석화에서 살아있는 현재로 맥락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설화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해석의 평가, 즉 부당한가 온당한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에 대한 양가적인 해석이 수용자와 전승자, 그리고 학습자 모두에게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 본 논문은 기존 설화의 해석 논리를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탐구는 그동안 <오누이 힘내기> 설화 등의 고전문학 해석이 자칫 고정적인 해석의 범주 안에서만 서사를 평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다양한 해석의 확장이 필요함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또한 설화 서사의 보편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특수성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려고 했다. 서사에 개입된 외부 힘의 속성을 밝혀보려 한 것은 종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참신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설화의 전 텍스트를 실제 검토하지 못하고, 해당 연구들 사이에서 서사 단락을 추려 점검했다는 한계가 있다. 설화의 전승 양상을 고려하여 여러 변이형과 다양한 자료의 검토로 보다 완벽한 근거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제시하는 두 해석 방법에 적용되는 텍스트들의 미시적 점검과, 기초 자료 연구의 분석적 점검을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각주로 대신함.

은 갈래구분이 가능해진다.

설화의 유형	전승자의 의식	의식의 정도	설화의 존재양식
이야기의 내용	사실로 의식	믿음(belief)	신성시됨 → 신화
		여김(regard)	사실시됨 → 전설
	허구로 의식	믿음(belief)	무화됨 → 존재X
		여김(regard)	허구시됨 → 민담

임재해, 앞의 책, 38면에서 재인용.

<공정성 평가에 따른 고전 해석의 확장 가능성 연구> 토론문

김형석(수원대)

문학교육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주체적인 해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주체적인 감상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토론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성취기준이 국어교육 현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축에 속하는 성취기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습자의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해석과 근거들을 제공하다보면, 학습자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해석이 만들어지기보다 특정 관점으로 학습자들의 생각이 수렴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작품의 이해와 감상을 위한 아무런 도움이 제공되지 않으면 학습자들은 불친절하게 느낀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은 으레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불친절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학습자에게 작품 해석을 위한 보조적인 자료와 활동을 제시하면서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발표자 역시 이와 같은 문학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화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의 해석을 위하여 행위소 모델과 같은 구조적인 틀을 제공하고, 틀의 빈칸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 의식과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불친절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균형감 있는 문학교육’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본 토론자가 오랫동안 과제처럼 염두에 두고 있던 문제의식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반가웠다.

이 논문의 기저에 깔린 문제의식과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는 바이지만, 발표자의 의견을 더 듣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어 이를 정리하여 적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오누이 힘내기> 설화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이 오누이의 대결에 개입한 어머니의 행동을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이 ‘편향된 해석’과 ‘수용의 다양성 부족’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리고 ‘남성중심사회 속 기득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머니의 개입은 온당한 것일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어머니의 개입을 ‘온당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작품을 수용하는 관점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의 제시가 곧 타당한 해석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여러 연구자들이 어머니의 개입을 ‘부당한 힘’으로 보는 것은, ‘전승 집단의 특정한 문화와 논리’를 고려하지 않고 현대적 관점에서 설화작품을 이해하려 한 편향된 관점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이 작품의 구조상 타당한 해석이기 때문은 아닐까.

오누이의 경쟁은 ‘대결’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공정한 대결에는 대결에 임하는 양자의 실력만이 작용해야 한다. ‘어머니의 의도’ 자체가 전승 집단의 문화와 논리에 따라 옹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결’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행위이며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개입은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대결의 중요성’, ‘부당한 개입에 대한 경계’가 <오누이 힘내기> 설화의 기저에 깔려 있는 논리이며, 이는 인류의 보편

성에 가까운 관점이다.²⁵⁾

연구자가 검토한 바와 같이, <오누이 힘내기> 설화는 이본에 따라 결말의 비극성은 그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곤 한다. 이는 해당 설화의 수용자들이 ‘어머니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후 사건들의 비극성을 심화하거나 중화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수용·전승해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이본들도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개입’이 ‘어머니의 의도’와 무관하게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잘못된 방법’이었음을 전제한다.

다음으로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이 갖는 ‘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행위소 모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에서 해석을 다양하게 파생시키는 공정성 평가의 대상은 어머니이거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머니는 오누이의 대결에 개입한 바가 있으니 당연히 그 행위의 공정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아들의 경우는 이본에 따라 다르겠으나 공평하게 치러지지 않은 대결의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에 있어 그 공정성을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연구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행위소 모형을 공정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려면, 행위소 모형의 ‘주체’를 어떤 인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공정성 평가의 결과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행위소 모형의 주체를 ‘누이’로 설정한 [표 1]을 보면, 누이가 얼마나 불리하고 불합리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로부터 누이의 어떠한 행위가 갖는 ‘공정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표 2]의 경우도, 작품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표가 아들의 ‘공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에서 가장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인물은 어머니일 텐데,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행위소 모형의 적용이 궁극하다. [표 2]에서는 어머니를 아들의 조력자로, 또 당대 사회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오히려 자식들의 대결에 개입하게 된 어머니의 복합적인 동기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생존을 걸고 대결을 펼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행동 동기는 더 복잡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도 묻고 싶다.

문자로 기록된 여타의 서사 갈래들과 비교했을 때, 인물의 내면 심리와 행동 동기의 서술에 있어 설화가 훨씬 단순한 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화 속 인물들의 내면과 고뇌를 단순하게만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편향된 해석이며 설화에 대한 고정관념일 것이다. 작품의 표면에 인물의 내면 심리와 갈등이 명시적으로 서술되어있지 않다면, 수용자가 그 인물의 내면을 짐작해보도록 하는 것도 작품의 해석을 확장시키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작품 속 인물들의 다양하고 다층적이고 행위 동기와 욕망을 분석함에 있어, 연구자가 제시한 행위소 모형은 학습자들에게 보조 장치가 될 것이다. 연구자의 연구가 더욱 발전되어, 설화뿐만 아니라 서사 갈래 전반에 걸쳐 문학작품의 이해·감상·향유를 도와주는 도구가 마련되길 바란다.

25) 3장에서 연구자는 성경 속 야곱과 에서의 일화를 <오누이 힘내기> 설화와 비교하며 가치 판단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경쟁 양상은 <오누이 힘내기> 설화의 ‘대결’이라는 구도와 다르다. 야곱과 에서는 오직 양자의 실력만으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에서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를 가벼이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야곱은 피를 써서 그 권리를 얻어낸 것이다.

[한국어교육]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인식 조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과 전략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박사 유학생의 학술논문 수업 설계
한국문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고찰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인식 조사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이 종 현
(강원대학교)

【 목 차 】

- I. 서론
- II.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의
- III.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 인식 조사
 - 1. 연구 대상 및 방법
 - 2. 분석 도구 및 절차
- IV. 분석 결과
 - 1. 학습자의 경험을 묻는 문항별 분석 결과
 - 2.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 분석 결과
 - 3. 기타 문항
- V. 분석 결과 종합
 - 1. 학습자의 경험을 묻는 문항별 분석 결과 종합
 - 2.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 분석 결과 종합
- VI. 결론

I. 서론

본 연구는 유튜브를 통하여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학습자 즉,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유튜브에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유튜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동영상 플랫폼이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정보에 따르면, 현재 매달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1/3에 달하는 수이다. 이 사람들이 매일 10억 시간 이상 유튜브를 이용하는데 이는 매일 유튜브에서 수십억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한 동영상의 시간을 합친 수치이다. 또한, 유튜브는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총 80개의 언어로 사용자들에게 제공된다.¹⁾ 유튜브는 포털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1S+4C²⁾를 갖추어 현재 포털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구글

1) <https://www.youtube.com/intl/ko/about/press/>

2) Search, Communication, Community, Commerce, Contents

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검색 포털이기도 하다.³⁾ 특히,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원하는 내용만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튜브가 가지는 큰 장점이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채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채널들에서 영어로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었고, 학습자의 흥미를 위주로 구성된 콘텐츠들이 많았다. 어휘, 문법, 생활 회화, 문화를 주제로 하는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로 유학 온 유학생들의 실제 한국 생활 이야기를 하나의 콘텐츠로 구성하여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간접적으로 한국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다만, 초급 수준의 콘텐츠들이 대부분이었고 중급과 고급 수준의 콘텐츠들은 많지 않았다. 학습자들이 콘텐츠를 시청하며 공부하는 동안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와의 소통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곳도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유튜브에 한국어교육 채널을 만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영상의 길이, 자막의 필요성, 교사의 출현 여부, 학습자료/평가자료의 필요성, 학습자들이 유튜브에서 공부하고 싶은 한국어의 영역 등과 같은 콘텐츠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한국어교육 콘텐츠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의

이정희(2018)는 유튜브의 매체적 특성, 이용자의 이용 동기, 유튜브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교육/강좌 콘텐츠의 만족도와 지속적 이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콘텐츠의 소재와 채널이 다양할수록 유튜브의 교육/강좌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콘텐츠 내용과 진행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때 이용 동기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흥미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상호작용적 특성, 정보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튜브를 수업 자료로서 활용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연정(2016)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자료로서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튜브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료를 선별하여 듣기 수업의 실제 예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자료로서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실제성⁴⁾'에 주목했는데, 특히 자료의 실제성은 구어를 중심으로 하는 듣기 자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교재의 듣기 자료의 발화는 발화 속도가 일정하고, 휴지도 규칙적이며, 명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정제되어 있어서 구어라기보다는 문어에 가까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실제성이 떨어진다고도 하였다. 이하정(2020)은 유튜브를 활용한 실제 수업 사례를 들며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문화교육 수업은 주제 선정, 주제 관련 유튜브 시청, 주제 관련 직간접적인 체험 과제 수행, 체험 후의 소감 나누기, 수업 활동 내용에 대한 동영상 편집

3) 김경달·씨로켓리서치랩, 『유튜브 트렌드 2020』, 서울, 이은북, 2019, pp.20~54.

4) 실제성이란 목표어 원어민이 사용하는 '자연 그대로의 자료(raw data) 또는 '언어 형식'을 의미한다. (이연정, 2016, p.342, 재인용).

및 업로드의 다섯 단계로 진행하였다. 특히, 수업 후반부에 학습자들이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거나 학습자간 1:1 질의응답 형태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촬영하여 편집한 후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김민영(2018)은 유튜브 자막 번역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형태를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했는데, 그 결과 학습자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흥미성을 갖추고 교육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유튜브 영상을 번역한다는 데에 학습자들이 큰 흥미를 느끼고, 번역을 위한 반복 학습 과정이 좋은 효과를 내었다고 밝혔다. 김소정(2020)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광고, 예능, 드라마, '누리-세종학당' 등과 더불어 유튜브도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영상 매체로 제시하고 있다. 강명희(2010)는 독일 관련 유튜브 영상 자료를 수업에 적용시키는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튜브의 한국어교육 채널을 분석한 김민경(2019)은, 교육매체로서의 유튜브는 영상 자료실의 역할을 하고 수업 교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실재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교육 채널 중 일부를 선정하여 그 채널의 교육 내용과 교수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교육 채널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중심으로 콘텐츠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짧은 시간(5~15분) 동안 효과적으로 주요 내용을 교수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어휘나 표현을 교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송지훈(2018)에서는 유튜브에서 규모가 큰 한국어교육 채널 10개를 선정하여 '학습목적/목표제시/교수내용, 편의성/상호작용, 동기부여/능동성, 디자인/시청각 자료 활용, 학습자료/평가'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의 모든 한국어 교육 채널은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흥미 위주로 주제를 정하여 강의를 제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영상의 길이는 5~10분 정도였으며, 자막도 함께 보여주었다. 한편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채널은 교수 내용과 학습단계 구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상호작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채널도 10채널 중 4곳에 지나지 않았고 이마저도 일부 강의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 인식 조사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강원대학교 어학원⁵⁾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이곳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⁶⁾를 실시했다. 설문 대상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A. 유튜브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
- B. 유튜브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없는 학습자

5) 현재 강원대학교 언어연수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편의상 어학원이라 칭한다.

6)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총 5개의 언어로 제작하였다.

<표 1>은 설문 조사의 기본적인 개요이다.

<설문 조사 개요>	
- 설문 주제: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 인식 조사
- 조사 도구:	구글 온라인 설문지
- 조사 기간:	2020년 1월 28일 ~ 2020년 2월 5일 (총 9일)
- 조사 방법:	카카오톡, 이메일로 구글 설문지 링크 전달
- 응답 대상:	강원대학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거나 학습했던 외국인 학습자
- 응답자 수:	61명(A그룹 - 41명, B그룹 - 20명)

<표 30> 설문 조사 개요

문항의 수는 각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각 그룹별로 경험적 특성에 맞게 다른 질문 문항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공통 질문으로는 응답자의 인적 정보를 묻는 문항과 유튜브에서 한국어 채널을 만든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묻는 문항이 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문항은 콘텐츠 구성 측면과 콘텐츠 내용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룹	그룹별 문항 수(개)	공통 문항 수(개)	합계
A	6	15 ⁷⁾	21
B	3		18

<표 31> 그룹별 설문 문항 수

다음은 응답자 61명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다.

(n=61)

7) 본 논문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다/없다' 질문을 제외한 14개의 문항만 확인 할 수 있다.

구분	내용	n(명)	비율(%)
성별	남자	19	31.1
	여자	42	68.9
국적	독일, 미얀마, 나이지리아, 모로코, 알제리, 카메룬, 필리핀	7개국 각 1 (총 7)	각 1.6 (총 11.2)
	방글라데시, 폴란드, 미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6개국 각 2 (총 12)	각 3.3 (총 19.8)
	러시아	3	4.9
	몽골	4	6.6
	베트남	9	14.8
	일본	10	16.4
	중국	16	26.3
	나이	20세 미만	5
20~24세		37	60.7
25~29세		15	24.6
30~34세		1	1.6
35세 이상		3	4.9
어학원 급수	1급	6	9.8
	2급	6	9.8
	3급	13	21.3
	4급	13	21.3
	5급	12	19.7
	6급	11	18.0

<표 32> 응답자 61명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2. 분석 도구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 인식을 분석하는 도구로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학습자의 경험적 측면을 묻는 문항은 다중반응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응답자의 급수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은 신뢰도 검증 후 응답자 급수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U Test와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⁹⁾

IV. 분석 결과

1. 학습자의 경험을 묻는 문항별 분석 결과

아래 <표 4>는 유튜브를 통하여 한국어를 공부한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한 문항들이다. 각 문항이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했는지도 명확히 하기 위해 함께 명시하였다.

8) 초급(1, 2급), 중급(3, 4급), 고급(5, 6급)으로 재분류하였다.

9) 급수 변인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서 비모수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번호	내용	대상
(1)	일주일에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봅니까?	응답자 모두
(2)	어떤 종류의 유튜브 영상을 자주 봅니까?	응답자 모두
(3)	왜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공부했습니까?	A 그룹
(4)	일주일에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A 그룹
(5)	유튜브에서 한국어의 어떤 영역을 주로 공부합니까?	A 그룹
(6)	어떤 채널을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A 그룹
(7)	그 채널의 좋은/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A 그룹
(8)	그 채널의 아쉬운/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A 그룹
(9)	왜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B 그룹
(10)	그렇다면 혼자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B 그룹

<표 33> 학습자의 경험을 묻는 문항의 목록

(1) 일주일에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n=61(명)		
이용 시간	n(명)	퍼센트(%)
1시간 미만	12	19.7
1시간 ~ 3시간 미만	18	29.5
3시간 ~ 5시간 미만	7	11.5
5시간 ~ 7시간 미만	4	6.6
7시간 이상	19	31.1
안 본다.	1	1.6
전체	61	100.0

<표 34> 일주일에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

일주일에 유튜브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묻는 질문에 ‘7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가 19명(31.1%)로 가장 많았다. ‘1시간 ~ 3시간 미만’이 18명(29.5%), ‘1시간 미만’이 12명(19.7%), ‘3시간 ~ 5시간 미만’ 7명(11.5%), ‘5시간 ~ 7시간 미만’이 4명(6.6%)이 그 뒤를 이었다.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도 1명(1.6%) 존재했다.¹⁰⁾ 응답자 급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사이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한 값을 얻어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2) 어떤 종류의 유튜브 영상을 자주 봅니까?

n=175(회)			
자주 보는 영상	n	퍼센트(%)	케이스 중 %
음악	43	24.6	70.5
게임	9	5.1	14.8
어학	30	17.1	49.2
뷰티	25	14.3	41.0
동물	7	4.0	11.5
스포츠	17	9.7	27.9
드라마/영화	36	20.6	59.0
기타 ¹¹⁾	8	4.6	13.1
전체	175	100.0	286.9

<표 35>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영상

10) 중국인 응답자로, 중국에서는 vpn 우회 방식이 아니면 합법적으로 유튜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용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 존재한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냐는 질문에 61명의 응답자에게서 총 175회의 응답 결과를 얻었다.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영상은 ‘음악’ 영상으로 43회(24.6%)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드라마/영화’ 영상 36회(20.6%), ‘어학’ 영상 30회(17.1%), ‘뷰티’ 영상 25회(14.3%), ‘스포츠’ 영상 17회(9.7%), ‘게임’ 영상 9회(5.1%), ‘동물’ 영상 7회(4.0%)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영상은 8회(4.6%)로 나타났다. 급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사이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한 값을 얻어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음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3) 왜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 A 그룹

n=86(회)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n	퍼센트(%)	케이스 중 %
무료라서	22	25.6	55
콘텐츠가 다양하고, 재미있어서	17	19.8	42.5
내가 필요한 수준의 내용만 골라서 볼 수 있어서	23	26.7	57.5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어서	23	26.7	57.5
기타 ¹²⁾	1	1.2	2.5
전체	86	100.0	215.0

<표 36>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이 질문의 응답자는 A 그룹 41명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내가 필요한 수준의 내용만 골라서 볼 수 있어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어서’가 모두 각각 23회(26.7%)로 가장 많았고, ‘무료라서’가 22회(25.6%)로 바로 뒤를 이었다. ‘콘텐츠가 다양하고, 재미있어서’도 17회(19.8%)로 다른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기타는 1회(1.2%)로 나타났다. 급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급수와 ‘콘텐츠가 다양하고, 재미있어서’, ‘내가 필요한 수준의 내용만 골라서 볼 수 있어서’, ‘기타’와의 연관성이 각각 ($\chi^2=12.686$, $p=0.013$), ($\chi^2=10.325$, $p=0.035$), ($\chi^2=11.033$, $p=0.0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4) 일주일에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 A 그룹

n=41(명)		
일주일에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	n(명)	퍼센트(%)
1시간 미만	18	44.0
1시간 ~ 3시간 미만	12	29.2
3시간 ~ 5시간 미만	9	22.0
5시간 ~ 7시간 미만	0	0
7시간 이상	2	4.8
전체	41	100.0

<표 37> 일주일에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

11) self-improvement, vlog about daily activities, Educational, 자동차, 브이로그, vlog, 안 봅니다, 모두 보고 있다.

12) I study Korean language with another way.

일주일에 유튜브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1시간 미만' 공부한다는 응답자가 18명(44%)로 가장 많았고, '1시간 ~ 3시간 미만'이 12명(29.2%), '3시간 ~ 5시간 미만'은 9명(22%), '7시간 이상'은 2명(4.8%)로 나타났다. '5시간 ~ 7시간 미만'은 한 명도 없었다. 급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지만 모두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유튜브에서 한국어의 어떤 영역을 주로 공부합니까? - A 그룹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는 한국어 영역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어휘	.681	.767
문법	.385	.803
쓰기	.506	.789
듣기	.630	.774
읽기	.319	.813
발음	.608	.776
문화	.383	.804
생활회화	.534	.786
TOPIK	.528	.787

※Cronbach's $\alpha = 0.808$

<표 38>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는 한국어 영역 신뢰도 검토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으로,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는 한국어 영역 요인이 신뢰도를 갖는지 알아 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80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60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급수에 따른 각 영역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모수검정인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휘 영역($p=0.017$)과 읽기 영역(0.026)에서 $p < 0.05$ 를 만족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Kruskal-Wallis Test에는 사후검증 값이 없기 때문에 (초급-중급), (초급-고급), (중급-고급)으로 두 집단씩 짝을 지어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총 6번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휘 영역에서는 (초급-고급)에서 $p=0.012$, (중급-고급)에서 $p=0.01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읽기 영역에서는 (초급-중급)에서 $p=0.019$, (초급-고급)에서 $p=0.010$ 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N	1	2	3	4			5
어휘	41	3	4	13	16	5	3.39	1.070
문법	41	1	5	15	12	8	3.51	1.028
쓰기	41	6	10	16	6	3	2.76	1.113
듣기	41	2	1	8	17	13	3.93	1.034
읽기	41	5	7	15	9	5	3.05	1.182
발음	41	2	3	2	21	13	3.98	1.060
문화	41	4	2	10	19	6	3.51	1.121
생활 회화	41	2	4	7	20	8	3.68	1.059
TOPIK	41	8	9	13	4	7	2.83	1.340

<표 39>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는 한국어 영역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음과 듣기 영역을 공부하는 학습자의 평균이 각각 3.98, 3.93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회화(3.68) 영역과 문화, 문법(각 3.51) 영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TOPIK과 읽기, 쓰기 영역의 평균은 각각 2.83, 3.05, 2.76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이 문항과 관련하여 다른 기타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는 5명이 응답을 하였다.¹³⁾

(6) 어떤 채널을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까? - A 그룹

n=75(회)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	n	퍼센트(%)	케이스 중 %
Talk To Me In Korean	17	22.7	43.6
Korean Unnie	12	16.0	30.8
Learn Korean with KoreanClass101.com	12	16.0	30.8
Seemile	6	8.0	15.4
Learn Korean with GO! Billy Korean	2	2.7	5.1
Conversational Korean	3	4.0	7.7
Study Abroad in Korea	6	8.0	15.4
MasterTOPIK	6	8.0	15.4
기타	11	14.7	28.2
전체	75	100.0	192.3

<표 40>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

보기로 제시한 채널들은 설문 조사지 제작 당시 유튜브에서 'korean, korean language'로 검색했을 때 나온 채널 중에서 구독자¹⁴⁾가 많은 순서로 선정하였다.

응답자들이 유튜브로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채널은 'Talk To Me In Korean'으로 총 17회(22.7%)로 가장 많았다. 'Korean Unnie', 'Learn Korean with KoreanClass101.com'가 각각 모두 12회(16.0%)로 그 뒤를 이었고, 기타 채널이 11회

13) 말하기, Colors, Numbers, furniture, daily life in Korea or more about Korean food, culture and daily conversation, because as a foreigner it is very important to survive here in Korea.

14) 조사지 제작 당시 기준, Talk To Me In Korean부터 MasterTOPIK까지의 순서로, 82.1만 명, 77.1만 명, 74.5만 명, 70.7만 명, 23.5만 명, 16.9만 명, 13.9만 명, 11.8만 명이였다.

(14.7%)¹⁵⁾로 나타났다. 급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결과, 모든 변인사이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7) 그 채널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A 그룹

n=75(회)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의 좋은 점	n	퍼센트(%)	케이스 중 %
콘텐츠가 다양하다.	16	21.3	39.0
콘텐츠가 재미있다.	25	33.3	61.0
교사의 수업 방식이 재미있다.	10	13.3	24.4
교사의 설명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11	14.7	26.8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빨리, 잘 해준다.	4	5.3	9.8
초급, 중급, 고급 수준의 내용이 다양하게 있다.	7	9.3	17.1
기타 ¹⁶⁾	2	2.7	4.9
전체	75	100.0	182.9

<표 41>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의 좋은 점

응답자가 이용한 채널의 좋은 점은 ‘콘텐츠가 재미있다.’가 25회(3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콘텐츠가 다양하다.’가 16회(21.3%), ‘교사의 설명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쉽다.’가 11회(14.7%), ‘교사의 수업 방식이 재미있다.’가 10회(13.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콘텐츠의 흥미성과 다양성이 학습자들이 채널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수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변인 사이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8) 그 채널의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 A 그룹

n=52(회)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의 아쉬운 점	n	퍼센트(%)	케이스 중 %
콘텐츠의 수가 적다.	13	25.0	31.7
콘텐츠가 지루하다.	2	3.8	4.9
교사의 수업 방식이 지루하다.	5	9.6	12.2
교사의 설명이 전문적이지 못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3	5.8	7.3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늦게 해 주거나, 대답해 주지 않는다.	9	17.3	22.0
초급 수준의 내용이 많고, 중급, 고급 수준의 내용은 별로 없다.	15	28.8	36.6
기타 ¹⁷⁾	5	9.6	12.2
전체	52	100.0	126.8

<표 42>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의 아쉬운 점

15) 영국남자, EBS 다큐멘터리, Arirang 채널, 양평TV, Korean Culture Series & Quick Korean, Learn Korean for Kids, Hàn Quốc Sarang, Comedy, 딱히 본 채널이 없음, 내가 본 채널 이름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 같아요, I do not remember.

16) 한일커플이 나와서 이야기 하니까 자막도 일본어가 있어서 내용을 너무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니까, Fun and learning, 종합 교재와 같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17) 시간 짧았어요, Not easy at the beginning but fine with time, i cannot find the weakness, i choose because i think that is the best, 거의 없다, 없다, 비슷한 내용이 많다.

응답자가 이용한 채널의 아쉬운 점은 ‘초급 수준의 내용이 많고, 중급, 고급 수준의 내용은 별로 없다.’가 15회(2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콘텐츠의 수가 적다.’가 13회(25.0%)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유튜브의 한국어 교육 관련 채널들은 대부분 콘텐츠가 초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로 인해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중급,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 콘텐츠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번 문항에서도 콘텐츠 내용의 수준이 다양하지 못하고 초급에 몰려 있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급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른 변인 사이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9) 왜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 B 그룹

n=20(회)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이유	n	퍼센트(%)	케이스 중 %
관심이 없어서	7	35.0	35.0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	5.0	5.0
나의 공부 방식과 맞지 않아서	11	55.0	55.0
기타 ¹⁸⁾	1	5.0	5.0
전체	20	100.0	100.0

<표 43>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이유

B그룹 응답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나의 공부 방식과 맞지 않아서’로 총 11회(55.0%)의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관심이 없어서’가 7회(35.0%)로 그 뒤를 이었다. 급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른 변인 사이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10) 그렇다면 혼자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 B 그룹

n=33(회)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	n	퍼센트(%)	케이스 중 %
문제집	4	12.1	20.0
한국어교재	17	51.5	85.0
한국어 선생님과 전화/화상 통화	2	6.1	10.0
한국 문화콘텐츠 시청(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10	30.3	50.0
전체	33	100.0	100.0

<표 44>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

B그룹 응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한국어교재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17회(51.5%)로 가장 많았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시청하며 공부한다는 응답자가 10회(30.3%)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어 선생님과 전화나 화상 통화로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응답도 2회(6.1%) 있었는데, 흔하지 않은 한국어 공부 방법이라 눈길을 끌었다. 문항들과 급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지만, 변인 사이에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18)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2.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 분석 결과

<표 16>은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을 정리한 표이다. 응답자 모두가 응답한 문항들로, ‘적당한 영상의 길이’를 묻는 문항을 제외한 문항이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신뢰도 검증 후 비모수검정(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여 응답자 급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내에서 각 항목 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분류	번호	내용	대상
콘텐츠 구성	(1)	영상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응답자 모두
	(2)	자막이 필요합니까?	응답자 모두
	(3)	어떤 수업 방식을 선호합니까?	응답자 모두
	(4)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SNS가 필요합니까?	응답자 모두
콘텐츠 내용	(5)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한국어의 어떤 영역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응답자 모두
	(6)	각 영상마다 학습자료와 평가자료가 필요합니까?	응답자 모두
	(7)	콘텐츠 제작 시에 어떤 점을 더 고려해야 합니까?	응답자 모두

<표 45>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의 목록

(1) 영상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n=78(회)			
적절한 영상의 길이	n	퍼센트(%)	케이스 중 %
5분 미만	7	9.0	11.5
5분 ~ 10분 미만	19	24.4	31.1
10분 ~ 15분 미만	17	21.8	27.9
15분 ~ 20분 미만	17	21.8	27.9
20분 ~ 25분 미만	5	6.4	8.2
25분 ~ 30분 미만	6	7.7	9.8
30분 이상	7	9.0	11.5
전체	78	100.0	127.9

<표 46> 적절한 영상의 길이

한국어 교육 콘텐츠의 적절한 영상의 길이는 ‘5분 ~ 10분 미만’이 19회(24.4%)로 가장 많았다. ‘10분 ~ 15분 미만’, ‘15분 ~ 20분 미만’이 각각 17회(21.8%)로 그 뒤를 이었다. ‘30분 이상’, ‘5분 미만’은 각각 7회(9.0%), ‘25분 ~30분 미만’은 6회(7.7%), ‘20분 ~ 25분 미만’은 5회(6.4%)를 차지했다. 영상의 길이가 급수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모든 케이스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2) 자막이 필요합니까?

한국어/모국어 자막 유무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한국어 자막	.479	
모국어 자막	.479	

※Cronbach's α = 0.643

<표 47> 한국어/모국어 자막 유무 신뢰도 검토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어/모국어 자막 유무 요인이 신뢰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643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성별, 국적, 급수에 따른 차이는 모두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N	1	2	3	4			5
한국어 자막	61	3	0	8	30	20	4.05	0.956
모국어 자막	61	3	7	15	23	13	3.59	1.101

<표 48> 한국어/모국어 자막 유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막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자막의 경우 평균이 4.05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어 자막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자막의 필요성이 급수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케이스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3) 어떤 수업 방식을 선호합니까?

선호하는 수업 방식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교사 출현	.550	.484
PPT 사용	.486	.530
칠판 사용	.379	.604
애니메이션 사용	.297	.665

※Cronbach's α = 0.643

<표 49> 선호하는 수업 방식 문항의 신뢰도 검토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선호하는 수업 방식 요인이 신뢰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643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급수에 따른 차이는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N	1	2	3	4			5
교사 출현	61	2	3	25	20	11	3.57	.997
PPT 사용	61	1	5	26	17	12	3.56	.958
칠판 사용	61	4	10	27	16	4	3.10	.978
애니메이션 사용	61	3	3	20	21	14	3.66	1.047

<표 50> 선호하는 수업 방식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의 평균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을 기록해 4가지 모두 고려해야 할 가치가 보통 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칠판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방식을 다른 수업 방식보다는 다소 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호하는 수업 방식이 급수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케이스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4)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SNS가 필요합니까?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SNS의 필요성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Facebook	.530	.687
Instagram	.527	.690
Twitter	.630	.564

*Cronbach's $\alpha = 0.737$

<표 51>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SNS의 필요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토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SNS의 필요성 요인이 신뢰도를 갖는지 알아 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737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급수에 따른 차이는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N	1	2	3	4			5
Facebook	61	3	10	18	24	6	3.33	1.028
Instagram	61	3	8	22	19	9	3.38	1.051
Twitter	61	9	12	24	12	4	2.84	1.113

<표 52>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SNS의 필요성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빈도분석 결과, 'Facebook'과 'Instagram'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평균이 각각 '3.33, 3.38'로 보통 이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Twitter'는 평균 2.84로 보통 이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다른 SNS가 필요한지 질문한 주관식 문항에서는 34명의 응답자가 응답¹⁹⁾을 했다.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SNS의 필요성이 급수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

19) 이메일(3명), 카카오톡(5명), 필요하다(10명)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다(1명), 상관없다(4명), 필요없다(6명), facebook(2명), instagram(1명), live video(1명), WeChat(1명)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케이스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5)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다면, 한국어의 어떤 영역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유튜브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한국어 영역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어휘	.734	.892
문법	.750	.892
쓰기	.650	.899
듣기	.784	.889
읽기	.634	.901
발음	.699	.895
문화	.689	.896
생활회화	.756	.891
TOPIK	.509	.910

*Cronbach's $\alpha = 0.907$

<표 53> 유튜브에서 공부하고 싶은 한국어 영역 신뢰도 검토

유튜브에서 공부해 보고 싶은 한국어 영역 요인이 신뢰도를 갖는지 알아 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907로 나타나면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급수에 따른 각 영역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지만 급수에 따른 각 영역의 차이는 모두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N	1	2	3	4	5		
어휘	61	4	4	12	26	15	3.72	1.113
문법	61	3	1	17	25	15	3.79	1.002
쓰기	61	5	5	17	22	12	3.51	1.149
듣기	61	3	2	5	27	24	4.10	1.028
읽기	61	8	4	18	21	10	3.34	1.223
발음	61	3	1	8	27	22	4.05	1.007
문화	61	3	3	11	30	14	3.80	1.014
생활 회화	61	3	2	7	30	19	3.98	1.008
TOPIK	61	7	4	14	24	12	3.49	1.220

<표 54> 유튜브에서 더 공부하고 싶은 한국어 영역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듣기 영역과 발음 영역의 평균값이 4.10, 4.05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 회화 영역의 평균값이 3.98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영역들은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학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이면서,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기도 하다. 쓰기와 읽기 영역의 평균값은 3.51, 3.34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쓰기 영역의 경우에는 중급, 고급 수준의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역인데도 평균값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학습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느끼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과 관련하여 다른 기타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는 16명이 응답하였다.²⁰⁾

(6) 각 영상마다 학습자료와 평가자료가 필요합니까?

학습/평가 자료 유무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학습 자료	.807	
평가 자료	.807	

*Cronbach's α = 0.890

<표 55> 학습/평가 자료 유무 문항의 신뢰도 검토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학습/평가 자료 유무 요인이 신뢰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890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성별, 국적, 급수에 따른 차이는 모두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N	1	2	3	4			5
학습 자료	61	5	4	17	22	13	3.56	1.148
평가 자료	61	4	4	22	23	8	3.44	1.025

<표 56> 학습/평가 자료 유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 항목 모두에서 평균 3점 이상을 기록해 2가지 모두 고려해야 할 가치가 보통 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평가 자료의 필요성이 급수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케이스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7) 콘텐츠 제작 시에 어떤 점을 더 고려해야 합니까?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교사의 전문성	.568	.840
내용의 다양성	.776	.749
내용의 흥미성	.763	.756
교사와의 상호작용	.598	.828

*Cronbach's α = 0.837

<표 57> 콘텐츠 제작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 신뢰도 검토

20) 어휘, 읽기, 문법, 토픽, 듣기, 말하기, 발음, 생활회화, 논문 작성법, 석어 표현, 서울, 자연스러운 대화, 생활 대화, 생활, Food, culture, everyday conversation, Conversation and pronunciation, 없다.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 요인이 신뢰도를 갖는지 알아 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Crombach's α)가 0.837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성별, 국적, 급수에 따른 차이는 모두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N	1	2	3	4			5
교사의 전문성	61	0	1	14	25	21	4.08	.802
내용의 다양성	61	0	2	3	32	24	4.28	.710
내용의 흥미성	61	0	1	6	30	24	4.26	.705
교사와의 상호작용	61	0	2	23	23	13	3.77	.824

<표 58>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빈도분석 결과, 네 가지 항목 모두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특히 내용의 다양성과 흥미성, 교사의 전문성 항목의 평균은 각각 4.28, 4.26, 4.08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고, 4점과 5점의 비율이 높아 학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항목이 급수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케이스에서 $p < 0.05$ 를 만족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3. 기타 문항

- (1) 유튜브에 좋은 한국어 교육 채널이 생긴다면,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 B 그룹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N	1	2	3	4			5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의향	20	1	0	10	4	5	3.60	1.046

<표 59>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의향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유튜브로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으로, 총 응답 인원은 20명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문항으로 분석하기 전 신뢰도 측정을 해야 하지만 요인이 1개뿐이라 신뢰도 측정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급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산분석은 실시하지 않고 빈도분석만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값이 3.60으로, 유튜브에 양질의 한국어 교육 채널이 만들어진다면 학습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의향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지금까지의 질문 외에도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지금까지 분석한 문항 외에도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 마지막에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 각자가 편한 언어로 응답했기 때문에 오역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응답한 그대로 정리하였다.

번호	내용	응답자 정보
1	enable the comment box, so the students can ask ques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e videos and the teacher will answer it.	필리핀, 여자, 3급
2	Use of color to appeal to the learner. Helpful to have a native speaker or non native and also to hear different dialects of the language. Would help if celebrities are involved and memes relevant to a younger audience are involved	미국, 여자, 1급
3	I suggest there should be subtitles in English to help us understand what is been said in Korean.	카메룬, 여자, 2급
4	interesting method	인도네시아, 여자, 1급
5	No, there is nothing else thank you.	모로코, 남자, 3급
6	Priorities should be given ti communicative Language	방글라데시, 남자, 2급
7	the important think is make a interesting and engaging content video that can relate and make easy to foreigner understand about Korean language	인도네시아, 여자, 1급
8	The teaching method should be easy for the learner	알제리, 여자, 3급
9	비디오에는 외국학생들이 있어야 해지 않아요.	러시아, 여자, 3급
10	Facebook에서 fanpage/group도 만들면 인기를 끄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이다	베트남, 여자, 6급
11	재미있으면 좋아요	베트남, 5급, 여자
12	청소년의 연설방법을 설명해주면 좋겠음	베트남, 여자, 6급
13	자세히 해 주세요	몽골, 여자, 3급
14	수업시간에 재미있게 가르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 여자, 5급
15	좀 짧은 동영상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 여자, 4급
16	재미	일본, 여자, 4급
17	없음	일본, 여자, 4급
18	없어요	중국, 여자, 6급
19	没有(없다)	중국, 남자, 1급
20	无(없다)	중국, 여자, 3급
21	坚持做下去	중국, 남자, 1급
22	매일 출석 체크를 해요	중국, 여자, 4급

<표 60>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개방형 주관식 문항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응답도 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짧은 영상이 좋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었다. 매일 출석 체크를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었는데, 이는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의 자기주도적 학습 특성에

서 기인한 응답으로 보인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응답은, 청소년 연설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과 학습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색을 사용할 것, 원어민이나 비원어민이 나오거나 다양한 방언을 들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 젊은 청중과 관련된 밈²¹⁾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었다.

V. 분석 결과 종합

1. 학습자의 경험을 묻는 문항별 분석 결과 종합

A 그룹 응답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한 이유로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 콘텐츠 내용의 흥미성과 다양성,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는 한국어의 여러 영역 중에서 발음과 듣기, 그리고 생활 회화 영역을 공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에 따른 한국어의 영역들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PSS를 활용하여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급수에 따른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는 영역의 유의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초급-고급, 중급-고급 급수에 따른 어휘 영역의 차이와, 초급-중급, 초급-고급에 따른 읽기 영역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쓰기와 쓰기, 그리고 TOPIK을 공부한다는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장점으로 는 콘텐츠의 재미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뒤로 콘텐츠의 다양성을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는 초급 수준의 콘텐츠는 많은데 중급과 고급 수준의 콘텐츠는 별로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콘텐츠의 수가 적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B그룹의 응답자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이유로 본인의 공부 방식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후속 질문으로 그렇다면 혼자서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어교재를 통해 공부하거나 한국문화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공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급수에 따른 차이와 이들과 다른 변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상술한 급수에 따른 어휘, 읽기 영역의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했을 뿐, 다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2.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 분석 결과 종합

콘텐츠의 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적절한 영상의 길이는 대부분의 응답자들²²⁾이 30분 미만 이라고 선택한 것으로 보아 영상의 길이는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자막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어 자막과 모국어 자막이 모두 보통 이상의 필요성을 보였는데, 특히 한국어 자막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습자들이 많았다. 선호하는 수업 방식으로는, '교사의 출현 여부, PPT 사용 여부, 칠판 사용 여부, 애니메이션 효과 사용 여부' 모두에서 보통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다.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SNS로 'Facebook, Instagram'이 보통 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는데, '필요없다, 상관없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21) 밈(meme)은 모방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mimeme'를 유전자(gene)와 비슷한 발음의 단어로 만든 것인데, 하나의 완성된 정보(지식, 문화)를 모방하여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네이버 오픈사전)

22) 총 78회 중 71회 선택, 91%의 비율.

콘텐츠의 내용 측면에서는, 유튜브에서 공부하고 싶은 한국어의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자들은 한국어의 듣기, 발음, 생활 회화 영역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고급 수준에 가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기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쓰기와 읽기 영역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이 영역을 공부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려움 즉, 피드백의 어려움, 자칫 지루해질 가능성도 있는 영역이라 온라인에서 공부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마다 학습자료와 평가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모두 보통 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다. ‘교사의 전문성’, ‘내용의 다양성’, ‘내용의 흥미성’,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특히 내용의 다양성과 흥미성, 교사의 전문성 항목은 4점과 5점의 비율이 높아 학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급수에 따른 각 항목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했지만,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원대학교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공부했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인식과 향후 유튜브에서 한국어 교육 채널은 만든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의 유튜브를 통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유튜브에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응답자 즉, 실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튜브에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콘텐츠의 구성과 내용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콘텐츠의 구성 측면에서는, 영상의 길이는 30분 미만이 적당하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5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를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하려면 30분 내외의 시간으로 압축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수업 방식과 교안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의 출현, PPT 사용, 애니메이션 사용, 칠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칠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의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평균값을 보였지만 이 역시 보통 이상 수준의 평균값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과 함께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콘텐츠에 자막을 넣는 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어 자막과 학습 대상에 맞는 모국어 자막의 필요성을 실제 사용자들이 높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 시 넣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자막의 경우 평균값도 4.05로 높게 나타났고, 4점과 5점의 비율이 82%로 아주 높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학습자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항목의 평균값도 3.77로 4점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설문 응답자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Facebook, Instagram, 이메일, 카카오톡 등 SNS나 메신저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관리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 추가적으로 이 공간에서 학습자들이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고, 교사는 그들이 바른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면, 교사-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긍정정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의 내용 측면에서는, 콘텐츠 내용의 다양성과 흥미성,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항목들 모두 4점 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4점과 5점의 비율이 91.8%, 88.5%, 75.4%로 응답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콘텐츠마다 학습자료와 평가자료를 넣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현재 유튜브에 있는 한국어 교육 채널에서 학습자료와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이 보통 이상 수준의 필요성을 보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나의 공부 방식과 맞지 않아서’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후속 질문에서 이들이 혼자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국어교재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볼 수 있는 교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학습자료가 없어서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콘텐츠를 구성할 때 학습자료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평가자료를 함께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더 공부하고 싶은 한국어의 영역은 듣기(4.10)>발음(4.05)>생활 회화(3.98)>문화(3.80)>문법(3.79)>어휘(3.72)>쓰기(3.51)>TOPIK(3.49)>읽기(3.34)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준의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대다수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초급 수준 때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다가 그만두곤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유튜브에는 초급 수준의 콘텐츠만 있고 중급, 고급 수준의 콘텐츠는 많이 없어서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나 교수자의 입장이 아닌 유튜브를 통하여 한국어를 공부하는 실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과 유튜브에 한국어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설문 조사 응답 표본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만큼 여러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들을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SPSS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유튜브와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희(2010), 「독일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수업방안」, <독어교육>47-47, 한국독어독문
학교교육학회, pp. 7~35.
- 김경달·씨로켓리서치랩(2019), 『유튜브 트렌드 2020』, 이은복.
- 김민경(2019), 「유튜브(YouTube)의 한국어교육 채널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9-8,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941~964.
- 김민영(2018), 「유튜브 자막 번역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미국 Mississippi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8-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307~328.
- 김양순(2014), 「TV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 중상급 학습자를 대상
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준(2018), 「뉴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박성례(2017),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법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영란(2017), 「대학 수업에서의 유튜브 동영상 활용: 영어신문기사의 배경지식을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18-1, 영상영어교육학회, pp.207-231.
- 봉미선·이상호(2019), 「학교 밖 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 유튜브의 교육적 의의와 시사점」,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2019-1, 한국어교육학회, pp.451~461.
- 송지훈(2018), 「한국어교육을 위한 유튜브 채널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정(2016), 「학문목적 한국어 듣기의 학습 효과 제고 방안」, <어문논집>67, 중앙어문학회,
pp.333-371.
- 이은진·권연진(2020), 「한국어 학습자 변인에 따른 쓰기 전략 양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
육연구>20-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703-722.
- 이정희(2018), 「유튜브 교육,강좌 콘텐츠의 만족도와 지속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이용동기,
신뢰도, 매체 특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하정(2020),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언어문화 교육 방안: 현지 베트남 학습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병용(2014), 「프랑스어 수업에서 유튜브의 활용」, <프랑스문화연구>28, 한국프랑스문화학회,
pp.33-60.
- 정희연·윤지원(2020), 「한국어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연구」, <인문사회
21>11-3,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pp.1305~1318.
- 홍종명(2012),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어 학습전략 범주화 연구」, <새국어교육>0-92, 한국국어
교육학회, pp.557-584.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인식 조사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토론문

조운정(중앙대)

2020년 갑작스러운 COVID-19으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급변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인식에 대한 조사'는 시의적절한 연구로 보입니다. 이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향후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전부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매체나 온라인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연구에서 이제는 실제로 실천하고 활용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의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출발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기대하며 토론자의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서론에서 '향후 유튜브에서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 개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목표가 설정되었을 때 이에 적합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한국에 온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것인지, 교실 수업과는 상관없이 유튜브에서의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만을 위한 연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2장 선행 연구 마지막 단락 김민경(2019)에서 '한국어교육 채널 중 일부를 선정하여~'에서 이 '일부'는 어떤 종류이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한편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채널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송지훈(2018)의 인용 부분인지, 아니면 연구자의 의견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용이라면 연구자께서 분석한 유튜브 채널의 내용이나 교수 설계의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3. 교육 채널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문항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였고 문항을 만들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4. 결론 부분 중 콘텐츠의 내용 측면에서 '후속 질문에서 이들이 혼자 한국어를 공부할 때 ~ 학습자료가 없어서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평가자료를 함께 제공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자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방안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과 전략

신선혜(중앙대)

< 목차 >

1. 서론
2.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
3. 연구 방법
4.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 및 전략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대화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과 이 담화표지를 사용한 전략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대화는 말하기 교육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대화의 시작은 말하기 교육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¹⁾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가 대화 시작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청자가 적절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담화표지는 대화를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화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화자의 태도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전략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담화표지란 발화의 명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독립적 성분으로 모국어 화자의 경우 담화표지의 사용과 해석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을 통해 담화표지가 지닌 의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알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영(2002:66)은 한국어 교육의 화용 층위에 대한 교육 항목으로 담화표지의 교수를 제안하였다. 또한 담화표지의 사용은 말하기 평가에서 유창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²⁾

즉 한국어교육에 있어 담화표지는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며 화용 교육의 일환으로 담화표지의 담화 기능에 바탕을 둔 전략적 내용에 대한 교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향화(2001), 임규홍(2005), 안주호(2009), 강소영(2009), 남길임·차지현(2010)과 같은 연구에서도 담화표지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담화의 책략, 담화전략,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의 형식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담화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지닌 전략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표지 사용 양상과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담화표지는 대화의

1) 구어는 크게 독백과 대화로 구분되며 말하기 교육에서는 대화가 빈번히 활용된다.(김선정 외, 2010:20)

2) Luoma,2004(김지홍 역, 2013)

시작에 사용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발화개시 담화표지’라고 할 것이다.

발화개시 담화표지는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마디로 사용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작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화자의 태도와 발화 목적을 전달하는 전략을 지닌다. 안주호(1992)는 담화구조에 따른 담화표지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중 시발표지는 담화를 시작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와 화제부로 들어갈 때 쓰인다고 밝히며 그 형식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 해영(1994:137)은 발화의 개시는 담화표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김영철(2008:16)은 담화표지가 대화의 시작을 원만하게 한다고 해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기능을 파악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하나의 교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발화개시 담화표지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재 5종의 대화문³⁾에 나온 발화개시 담화표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⁴⁾

[표1] 한국어교재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

교재	사용양상
<서울한국어>	와 하늘의 별 좀 봐. 저기요 , 한옥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배우기 쉬운 한국어>	와 정말 푸짐하군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웬 슈퍼모델이 우리집에 와 있네. 어 , 저 사람들 좀 봐! 길거리에서 뽀뽀한다. 아 피곤하다. 어 , 장린, 오래간만이다. 어 , 준코씨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연세한국어>	아 , 민철씨 지금 출근하세요? 아니 웨이씨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요일 오전부터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자 슬슬 정리 하시지요. 저 죄송하지만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야 , 오래간만이다. 저 , 마리아씨 부탁이 좀 있는데요.
<이화한국어>	어! 이상하다. 지갑이 없어졌네! 저 실례합니다. 저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서점이 있습니까? 아니 사라씨. 뭐 하느라 인터넷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한국어>	와 물건이 아주 많네! 저 , 수고하십니다. 와 , 일주일 후에 방학이에요. 저 , 이번에 집 하나 마련했어요. 집들이에 오실거죠?

현행 한국어 통합 교재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제시된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수와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어 교재 5종의 대화문 총 480개 중 22개의 발화개시 담화표지가 사용되었으며 그 종류도 ‘아, 아니, 와, 어, 야, 자, 저, 저기요’로 8개에 불과하다.

3) 박석준(2005:234)는 교재에서의 대화문은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학습 대상이 되며 실제로 사용할 한국어 지식의 핵심이자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4) 개별 어휘가 아닌 하나의 전략적 요소로서의 담화표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담화표지가 포함된 전체 문장을 제시한다. 단 담화표지는 굵은 글씨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둘째는 발화개시 담화표지에 대한 명시적 설명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대화문에 발화개시 담화표지가 사용되었음에도 별도의 설명이나 과제가 없다. <연세한국어>는 교재 중 유일하게 담화표지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상황이 '부탁과 거절'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화한국어>는 담화표지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없으나 상황에 따른 담화표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1~2개의 담화표지를 제시해 실제 언어생활에 있어 담화표지의 사용을 교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교재의 기술은 한국어의 직관이 없는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의도와 효과를 익히기 어렵게 만들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습의 유무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담화표지가 한국어 교육에서 그것이 갖는 효과에 비해 주변적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표지 사용과 그 사용 전략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담화표지의 교수 실정을 파악하고 교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양상을 확인하고 이 담화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고려한 전략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또한 숙달도 및 거주기간과 개별 담화표지 사용의 관계 분석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발화개시 담화표지에 대한 교육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개시 담화표지를 사용할 때 고려한 전략의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전략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 쓰인 전략이란 Swain(1984:189)과 Yule, Tarone(1990:181)에 제시된 '전략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⁵⁾ Swain(1984:189)은 전략적 능력이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의사소통이 중단될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이라 하였고 Yule, Tarone(1990:181)은 화자가 의도했던 바를 청자가 식별하게 해주는 의사소통 행위의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였다. 전략적 능력은 청자에게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담화표지 사용 전략을 정의하면 담화표지의 담화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대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 양상을 정리하기 위해 전영옥(2002), 김향화(2001)가 제시한 담화표지의 담화 기능을 확인하고 이 중 대화의 시작과 관련이 있는 것을 수정 및 보완하여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 유형으로 정리하겠다.

전영옥(2002)은 담화표지의 기능을 크게 화제와 화제의 결속, 화자와 화제의 결속, 화자와 청자의 결속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하나의 형식이 다양한 기능을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화제와 화제의 결속은 화제 시작, 화제 진전, 화제 전환, 화제 연결, 화제 마무리로 그 기능이 세분화 되고 화자와 화제의 결속은 시간별기,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주장 강조하기, 주장 약화하기, 디딤말 기능, 수정하기, 부정적인 태도 표현하기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화자와 청자 결속(상호작용)은 주의 집중(관심끌기), 대화 진행 조정, 발언권 가져오기, 정중하게 말하기, 호응하기로 그 기능을 다시 분류하였다.

김향화(2001)은 화자의 발화 의도와 심적 태도를 기준으로 담화표지의 기능을 주의집중, 초

5) Brown, H. Douglas.(2007: 이흥수 외 역, 2015:235-236) 재인용.

점표시, 고집의 표시, 담화참여 유도, 놀람의 표시, 망설임의 표시, 부정의 표시로 나누고 각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사용되는 담화표지를 제시하였다.

이 두 연구에 제시된 담화표지의 기능 가운데 대화를 시작할 때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종합하고 보완해 아래와 같이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 유형을 정리하였다.

① 시간 벌기	② 의미 강화	③ 주의 집중
④ 정중하게 말하기	⑤ 기대 불일치	⑥ 끼어들기

각 사용 전략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시간 벌기’는 하고자 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고 ‘주의 집중’은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 청자를 자신의 말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의미 강화’는 전영옥(2002)의 ‘주장 강조하기’ 기능에 해당한다. ‘주장’이 자기의 의견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확고하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의미 강화’라고 하였다.

정중하게 말하기는 전영옥(2002)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이는 화자가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 망설이는 경우와 함께 조심스러운 태도를 포함한다. 이 전략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문지 [보기]에는 ‘정중하게 말하기(조심스럽게 말하기)’로 제시하였다.

‘기대 불일치’는 김향화(2001)의 ‘놀람의 표시’와 관련된 것이다.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대 불일치’라고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끼어들기’는 두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 전략은 청자의 일, 휴식, 대화 등을 방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세 사람 이상의 대화를 염두하고 설정해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과 함께 그 사용 전략 양상을 확인해 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와 중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어권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⁶⁾ 중급, 고급 학습자는 TOPIK⁷⁾ 급수 3~6급에 해당하거나 각 급수에 따른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가리킨다.

국내의 한국어 학습자는 서울 C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과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55명과 경기 C대학의 학부생 27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중국의 한국어 학습자는 흑룡강성의 M대학 학부생 32명, 장시성의 J대학 5명, N한국어 교육 기관 13, 산둥성의 C대학 8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⁸⁾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6) 총 152개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나 무응답과 같은 불성실한 응답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 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3급과 4급은 중급, 5급과 6급은 고급 수준에 해당한다.
8) 중국 내의 한국어 학습자의 설문조사는 중국의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인 원쥘엔씽(问卷星)을 통해 실시하였다.

[표2] 한국어학습자 연구 참여 분포(총 140명)

변인		인수(명)	비율(%)
성별	남	19	13.57
	여	121	86.43
나이	10대	16	11.43
	20대	118	84.29
	30대	6	4.29
숙달도	중급	62	44.29
	고급	78	55.71
한국 거주 기간	거주한 적 없음	32	22.86
	1개월 ~ 6개월	20	14.29
	6개월 ~ 1년	23	16.43
	1년 ~ 1년 6개월	24	17.14
	1년 6개월 ~ 2년	10	7.14
	2년 이상	31	22.14

본 연구의 목적은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 담화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고려한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2장에 설정한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의 대화 상황을 설정하여 대화 시작 발화를 제시하였다.

이때 발화개시 담화표지가 위치하는 발화의 첫 마디를 빈칸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담화표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담화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보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담화표지가 없는 경우를 고려해 '사용하지 않음'과 '기타' 항목 또한 제시하였다. 이어서 담화표지를 사용할 때 고려한 전략을 고르게 하였다. 동일한 담화 상황이라도 다양한 전략이 사용될 수 있음에 따라 중복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주어진 대화와 보기로 제시된 담화표지 외에 모든 문항과 보기는 중국어로 제작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상황> 시험을 보기 직전입니다. 친구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신은 연필을 안 갖고 온 것을 알았고 친구에게 연필을 빌립니다.
 ○ 당신: ----- 연필 좀 빌려줘.
 상대: 응, 잠깐만.
 ① 저 ② 있잖아 ③ 어 ④ 그런데(근데) ⑤ 사용하지 않음 ⑥ 기타-----
 2-1. 2번의 빈칸에 답한 말을 사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중복 응답 가능)
 ① 시간 벌기 ② 의미 강화 ③ 주의 집중 ④ 정중하게 말하기(조심스럽게 말하기)
 ⑤ 기대 불일치 ⑥ 끼어들기 ⑦ 특별한 목적이 없다.
 ⑧기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과 그 전략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설문지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설문지 구성

고려한 전략	제시 상황	[보기] 제시 담화표지
정중하게 말하기, 시간 벌기	시험 직전 시험공부 중인 친구에게 연필 빌리기	저, 있잖아(요), 어, 그런데(근데)
	기차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리 바꿔 줄 것을 부탁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이름 묻기	
주의 집중, 의미강화	차량 탑승 재촉	자, 그런데(근데), 저, 있잖아(요)
	식사하러 나갈 것을 제안	
기대 불일치, 의미 강화	갖고 있다고 생각한 핸드폰이 가방에 없어 당황하는 상황	아, 음, 어, 저
기대 불일치, 끼어들기	회식 중 동료 한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을 발견한 상황	참, 아니, 저, 그런데(근데)
	두 친구가 나누는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기	
	친척의 결혼식에서 우연히 회사 동료를 만남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기] 설정을 위해 전영옥(2009)⁹⁾의 감탄사 구어말
뭉치 실현 유형의 빈도수 20위 안에 있는 것과 21세기 세종계획 구어 말뭉치와 드라마 대본
을 분석하여¹⁰⁾ 도출한 담화표지 사용 전략에 따른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의 결과를 참
고하여¹¹⁾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과 숙달도 및 거주기간 사이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발화개시 담화표지를 나열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것을 고르도록 하였
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대화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과 전략을 고찰하고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SPSS분석을 통해 개별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과 숙달도 및 거주기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여 담화표지의 교육 실태를 확인할 것이다.

9) 전영옥(2009)은 품사론에 입각하여 담화표지의 용어 대신 감탄사로 제시하고 문어, 준구어, 구어 말뭉
치에서 감탄사의 실현유형과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것은 '구어' 부분이며 그 중
빈도수가 상위 20위에 드는 감탄사는 '어, 뭐, 아, 그, 음, 응, 예, 네, 아니, 그래, 예, 야, 인제, 자,
이제, 이, 저, 아이, 그쵸, 그치' 순이다.

10) 분석한 대본은 '청춘시대 시즌2 14부작', '김과장 20부작', '디어 마이 프렌즈 16부작', '이번 생은
처음이라 16부작'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스릴러, 판타지와 같은 특정 장르를 제외하고 한국어 학습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학 생활, 직장
생활, 연애와 결혼 등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선정해 분석하였다.

담화표지 사용 전략	담화표지
시간 벌기	그니까, 아, 음
의미 강화	아, 자
주의 집중	아, 자, 참
정중하게 말하기	근데요, 있잖아, 저, 저기
기대 불일치	근데, 아니
끼어들기	근데, 아니

11)

4.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 및 전략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대화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담화표지의 유형과 이 담화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고려한 전략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목록화한 개별 담화표지의 사용과 속달도 및 거주기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담화표지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할 것이다.

4.1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과 전략 분석

다양한 상황에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한 발화개시 담화표지와 그 전략을 분석한 결과의 특징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중하게 말하기 전략에 있어 담화표지 ‘저’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상황 ①, ②, ③은 부탁·요청하는 경우인데 3가지 상황 모두 담화표지 ‘저’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40~50%로 나타났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정중하게 말하기 전략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총 140명)

<상황 ①> 기차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자리 바꿔 줄 것을 부탁						
담화표지 유형	저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근데)	사용 안함	기타
응답 빈도 (비율)	58 (41.43%)	11 (7.86%)	12 (8.57%)	7 (5%)	9 (6.43%)	43 (30.71%)
<상황 ②> 시험 직전 시험공부 중인 친구에게 연필 빌리기						
담화표지 유형	저	있잖아	어	그런데 (근데)	사용 안함	기타
응답 빈도 (비율)	75 (53.57%)	10 (7.14%)	21 (15%)	6 (4.29%)	12 (8.57%)	16 (11.43%)
<상황 ③>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이름 묻기						
담화표지 유형	저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근데)	사용 안함	기타
응답 빈도 (비율)	60 (42.86%)	17 (12.14%)	15 (10.71%)	13 (9.29%)	15 (10.71%)	20 (14.29%)

여기서 담화표지 ‘저’에 대한 전략으로 대부분의 학습자는 정중하게 말하기 전략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2) 전영옥(2002)은 담화표지의 기능 중 화자와 청자의 결속 부분에 정중하게 말하기로 ‘저, 저기(요), 글썄’를 제시하였으며 김주미(2004)는 ‘있잖아’의 담화 시작 기능 중 화자의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태도로 상대방의 체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려는 ‘공손 기능’이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이효경(2014)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 화자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있잖아’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정중하게 말하기의 전략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의미강화와 기대 불일치 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 두 전략에 대한 인식을 확

12) 세 문항에 ‘저’를 사용한다고 밝힌 학습자 중 ‘친구에게 연필 빌리기’ 18.67%, ‘기차에서 자리 바꿔 줄 것을 부탁’ 6.9%, ‘모르는 사람에게 이름 묻기’ 13.33%만이 특별한 목적 없이 ‘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인하기 위해 차량 탑승을 재촉하는 상황 ④와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하러 나갈 것을 제안하는 상황⑤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표5] 주의집중, 의미강화 전략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총 140명)

<상황 ④> 차량 탑승 재촉						
담화표지 유형	자	그런데 (근데)	저	있잖아요	사용 안함	기타
응답 빈도 (비율)	64 (45.71%)	13 (9.29%)	20 (14.29%)	14 (10%)	9 (6.43%)	20 (14.29%)
<상황 ⑤> 식사하러 나갈 것을 제안						
담화표지 유형	자	그런데 (근데)	저	있잖아요	사용 안함	기타
응답 빈도 (비율)	60 (42.86%)	16 (11.43%)	20 (14.29%)	13 (9.29%)	11 (7.86%)	20 (14.29%)

상황④와 ⑤는 ‘자’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60여명으로 40%이상이며 이 중 40% 이상이 그 사용 전략으로 주의 집중, 15% 이상이 의미 강화라고 답하였다. 박성철(2004:527)은 완곡법 텍스트에서 ‘자’가 설득을 위해 사용된 전략으로 규정된다고 밝히며 의미 강화의 기능을 설명하였는데 반해 이 전략에 대해 인지하고 사용한 경우가 적은 편이었다.

상황⑥은 기대 불일치와 끼어들기 전략을 염두하고 만든 상황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발화상황을 확인한 결과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데(근데)’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표6] 기대 불일치 전략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총 140명)

<상황 ⑥> 회식 중 동료 한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을 발견함						
담화표지 유형	참	아니	저	그런데 (근데)	사용 안함	기타
응답 빈도 (비율)	26 (18.57%)	26 (18.57%)	12 (8.57)	63 (45%)	7 (5%)	6 (4.29%)

상황⑥에서 45%에 해당하는 63명이 ‘그런데(근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 사용 전략을 보면 정중하게 말하기 39.68%, 기대 불일치 12.8%, 끼어들기 전략은 17.46%로 나타났다. 이는 상황 ①, ②, ③의 정중하게 말하기 전략이 ‘저’로 집중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예상과 다른 상황을 인지한 것을 알리고자 했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 ‘그런데(근데)’를 사용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불일치 전략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중하게 말하기 전략에만 국한해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과 그 전략에 나타난 특징으로는 감탄사류의 담화표지 사용에 대한 전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상황⑦은 의미 강화와 기대 불일치 등의 전략을 고려한 것으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휴대폰이 가방에 없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발화개시 담화표지를 확인하였다. 그 사용 양상과 전략은 [표7]과 같다.

[표7] 감탄사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과 그 전략(총 140명)

감탄사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									
아		음		어		저		기타	
54(38.57%)		26(18.57%)		45(32.14%)		10(7.14%)		5(3.57)	
감탄사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전략									
시간 별기	의미 강화	주의 집중	정중하게 말하기	기대 불일치	끼어 들기	사용 목적 없음	기타		
7(5%)	36 (25.71%)	14(10%)	10(7.14%)	7(5%)	1(0.71%)	69(49.29%)	9(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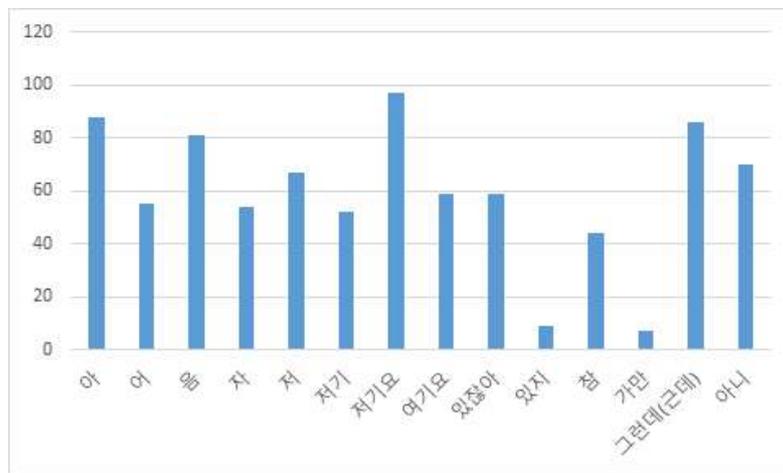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아, 어, 음’과 같은 감탄사류 발화개시 담화표지를 사용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총 125명인데 이 중 50%에 가까운 수인 69명이 담화표지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다른 유형의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목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18%인 것과 확연히 대비가 되는 결과이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대화 상황에서 ‘아, 어, 음’ 등의 감탄사류 담화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¹³⁾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 발화개시 담화표지를 통해 자신의 대화 시작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담화표지를 사용하고 인지하고 있는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전략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과 숙달도 및 거주기간

한국어교육에서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설문 문항의 보기에 쓰인 것, ‘기타’ 항목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개별 항목을 제시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개별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빈도



13) 안주호(2012)는 감탄사에서 유래된 ‘아, 어, 에, 음, 응’ 등은 감정 및 정보 표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각 개별 담화표지의 사용과 숙달도 및 거주기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개별 발화개시 담화표지에 한해서 숙달도 및 거주기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우선 숙달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그런데(근데)’로 상관계수 0.259**, ‘아니’는 0.205**이다.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는 편이다. 이와 같이 숙달도와 담화표지의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없다는 것은 한국어교육에서 담화표지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기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은 ‘저’이며 상관계수가 -0.221**로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음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저’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담화표지를 접하게 됨으로써 ‘저’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숙달도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담화표지가 주변적 요소로 처리되거나 효과적으로 교수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담화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를 담화의 전략적 요소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직관적 능력이 부족한 한국의 학습자의 경우 담화표지의 전략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학습할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첫 마디에 사용하는 담화표지를 ‘발화개시 담화표지’라고 정한 후 각 상황에 따른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과 그때 고려한 전략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대화의 시작에 소수의 담화표지를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지하고 있는 사용 전략 또한 매우 한정적이었다. 특히 정중하게 말하기 전략에 ‘저’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의미 강화와 기대 불일치 전략에 대한 인식 부족, 감탄사류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발화개시 담화표지와 숙달도 및 거주기간의 상관관계의 확인하였는데 일부 항목에서만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담화표지의 교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 발화개시 담화표지를 대화를 시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나 장치로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개별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듣기나 말하기 활동 시 꾸준히 노출하고 관련 과제 개발도 진행되어야 효과적으로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교수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화를 시작하는 기능 범주 안의 담화표지를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대화를 시작할 때 주로 어떤 담화표지를 선택해 사용하는지를 파악했다는 점과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에 관한 인식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화의 시작 양상을 지면으로 조사하였다는 점과 담화표지의 사용 전략으로 특별한

14) SPSS 사용, $p < 0.01$ 수준

목적이 없다고 밝힌 학습자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소영(2009), 「담화표지 '그러니까'의 사용에 내재한 화자의 담화전략 연구」, <어문연구> 60, 어문연구학회, pp.27-56
- 김선정, 김용경 외(2010), 『한국어 표현 교육론』, 형성출판사, p.20
- 김영철(2008), 「우리말 담화표지 '자' 고찰」, <국어문학> 45, 국어문학회, pp. 5-23
- 김주미(2004), 「담화표지 "있잖아"에 대하여」, <한말연구>14, 한말연구학회, pp.93-116
- 김향화(2001),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2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113-140
- 박성철(2004), 「텍스트언어학의 응용: 설득전략으로서의 텍스트문체 분석-표현영역(elocution)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1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527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17(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21-38
- _____ (2009),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표지 위계화 방안」, <한국어 교육>20(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35-159
- _____ (2012),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의 의미 기능 연구」, <언어과학연구>61, 언어과학회, pp.91-116
- 이효경(2014),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연구: '자', '참', '있잖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1994), 「담화표지 '글쎄'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논집>1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pp.129-150
- _____ (2002), 「이중언어교육과 문화교육: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21, 이중언어학회, p.66
- 임규홍(2005), 「국어 담화표지 '자'에 대한 연구」, <우리말 글>34, 우리말글학회, pp.111-112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4, 한국화법학회, pp.113-145
- _____ (2009),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감탄사 연구」, <한국텍스트언어학>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254-256
- 더글라스 브라운, 이흥수 외 역(2007), 『외국어 학습 교수 원리』,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싸뤼 루오마, 김지홍 역(2013), 『말하기 평가』, 글로벌콘텐츠

한국어 교재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5), 『서울대 한국어』 1~4, 문진미디어
- 성균관대학원(2006), 『말하기 쉬운 한국어』 1~6,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한국어』 1~6,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3), 『이화한국어』 1~5, Epress
-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8), 『알기 쉽고 재미있는 중앙한국어』 1~4, 중앙대학교

< 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과 전략 > 토론문

손진희(강원대)

위 논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화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담화표지를 사용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대화를 할 때 담화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이다. 중국어권 학습자들 중 한국에 거주하는 학습자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학습자 등 비교적 다양한 학습자들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을 배제하고 중국어권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다.

2. 한국어교재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

[표1]에서 한국어교재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80개의 대화문 중 발화개시 담화표지는 22개밖에 발견되지 않아 그 수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예문을 제시할 때 몇 급에서 나오는지 함께 제시해 주면 급별 차이도 알 수 있어 학습자의 상황을 추측해 보는데 도움이 될 듯하다.

이어서 발화개시 담화표지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담화표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 교재로 <연세한국어>와 <이화한국어>를 들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연세한국어>의 경우는 담화표지를 설명하면서 예문을 들었는데, 대화문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있잖아'가 제시되고 있어 흥미로웠다.

더불어 참고문헌을 보면 한국어 교재 중 6급까지 출판된 교재들 중에서, 6급까지 살펴본 경우도 있으나 4급이나 5급까지만 살펴본 경우도 있었다. 모두 살펴보았는데 그 급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제외를 한 것인지 제외된 이유가 궁금하다.

3. 담화표지 사용 전략

담화표지 사용 전략 유형을 6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각각의 유형별로 간단히 예를 들어주다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표3] 설문지 구성의 보기 제시담화표지로 선정한 과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 좋을 듯하다. 왜 '저'만 답항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저'의 경우 '저기' '저기요' 등을 대표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4. 발화개시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과 전략 분석

[표4-6]의 경우, [표7]에 있는 '목적'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타'를 선택한 경우

도 많았는데, 어떠한 예가 나오는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

4.2 그래프에서 '개별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 빈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따로 질문을 하여 자주 사용하는 담화표지를 고르라고 한 것인지, 혹 개별 문항에 있는 '기타'에 써 넣은 것인지 궁금하다. 이 그래프의 경우 담화표지를 순서대로 제시하거나 세로축이 명수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써 준다면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한국어에 대한 직관적 능력이 부족한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담화표지의 전략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학습할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설문지를 작성한 학습자들은 실제 '담화표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학습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학습하였는지, 없다면 어떻게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상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개시 담화표지 사용과 전략'에 대한 질문을 마친다. 토론문에서 논문을 곡해한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토론자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며, 앞으로도 선생님의 연구를 기대하겠다.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박사 유학생의 학술논문 수업 설계

- 협력 학습을 통한 사회 구성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

민정호(동국대)

차 례

1. 서론
2. 수업 설계를 위한 이론적 검토
3. 박사 유학생을 위한 학술논문 수업 설계
4. 결론

1. 서론

Norman & Spohrer(1996:25)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특정 주제에 몰두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skills)’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주제는 학습자에게 가장 ‘현실적’이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학습자의 ‘동기부여’가 가능한 문제들을 종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이렇게 정의하면, 결국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가 배우기 원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를 살피려면 다양한 ‘맥락(context)’을 고려해야 한다. Hymes(1968:105)은 ‘맥락(context)’이 언어의 ‘형식(form)’이 함의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제거(eliminate)’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즉 텍스트를 해석할 때, 맥락을 고려해야 해석의 명료함이 확보될 수 있다는 말이다. 비유적이지만 언어의 형식을 ‘학습자’로 치환할 경우, 맥락을 고려해야 그 학습자가 놓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를 근거로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가 처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방안의 목적이기 때문이고, 이게 곧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이다.

최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하 박사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¹⁾ 2019년에 박사 유학생은 10,782명이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2천 명이 증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박사 유학생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데, 그 이유는 늘어나는 박사 유학생의 상황 맥락을 고려한 교육 방안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박사 유학생의 다양한 맥락을 정리하면, 박사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고급 한국어 학습자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리터러시 경험을 전제하면 박사 유학생도 새로운 담화공동체에 편입된 ‘신입생’이다. 또한 박사 유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학술논문이나 학위 논문을 완성해야 한다. 석사과정은 졸업 시험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박사과정은 반드시 학술논문과 학위 논문을 완성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박사 유학생은 학술적 글쓰기를 완성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교육 방안은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1) 해당 자료는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근거하며, 해당 통계는 2019년 4월 1일에 집계된 것이다.

실제 박사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위논문을 장르 글쓰기로 전제하고, 학위논문 결론의 장르적 특징과 구조를 분석한 연구(손다정·정다운, 2017), 박사 유학생이 학술 담화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필자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방안을 모색한 연구(민정호, 2020), 박사 유학생의 학업 부적응 요인 양상을 분석하고, 학업 적응 방안을 모색한 연구(책리하·박창언·천단, 2018) 등이 있다. 박사까지 포함해서 대학원 유학생으로 총칭된 연구로는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업 수행 기술을 밝히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기영, 2019), 학위논문의 서론만을 중심으로 종결 표현 양상을 확인한 연구(김희진, 2019) 등이 있다. 박사 유학생을 학습자로 진행된 연구들의 주제는 주로 학위논문 분석, 학업 부적응 양상과 적응 방안, 학술적 글쓰기에서 필자 정체성 강화 방안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반적으로 ‘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 방안’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박사 유학생 대상 선행연구가 주로 ‘쓰기’로 진행되었지만, ‘장르’는 주로 ‘학위논문’이었고, 텍스트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 방안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지만, 필자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지, 실제 박사 유학생의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장르를 ‘학술논문’으로 선택하고,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사 유학생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책리하·박창언·천단(2018)의 지적처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박사 유학생도 존재하고, 모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유학을 와서 한국어로 석사학위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박사 유학생들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학습자 주변의 상황 맥락 등을 학습자 개별성이라고 할 때, 이를 고려해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박사 유학생을 대상으로 가깝게는 ‘학술논문’, 궁극적으로는 ‘학위논문’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적 글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특히 교육 방안을 마련할 때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해 보려고 한다. Dutson et al(1997:17)은 ‘캡스톤 디자인 강의(capstone design courses)’가 ‘이론(theory)’과 ‘수행(practice)’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밝혔고, 의학이나 법학처럼 다양한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도 인문사회계열 박사 유학생의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가장 시급한 장르 글쓰기를 ‘학술논문’으로 정하고, 학술적 글쓰기의 이론과 실습을 모두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안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다. 이때 캡스톤 디자인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한 Pimmel(2001)의 ‘협력 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려고 한다. Berkenkotter & Huckin(1993:477)은 장르를 사용 맥락에 따라 조작되는 ‘역동적 수사적 구조(dynamic rhetorical structures)’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 ‘협력 학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장르가 특정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 장르로 의사소통하는 학술 담화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협력적으로 글쓰기를 할 경우 그 특정 장르에 대한 학습과 장르 글쓰기의 질적 제고에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2. 수업 설계를 위한 이론적 검토

2.1. 박사 유학생의 상황과 학습자 개별성

이승철(2018:993)은 ‘개별 학습자’에 대한 고려, 즉 ‘학습자 개별성’이 교육학에서 당위의

명제로 다루어져 왔음을 지적했다. 교육학이라는 게 학습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필요한 핵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고 전제할 때 ‘학습자 개별성’의 고려는 당위의 명제가 된다. Halliday(1978:28-29)은 ‘상황 맥락(contexts of situation)’을 설명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유형(situation types)’이 곧 언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상황 맥락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반복’과 ‘상황 유형’이다. 본 연구의 전제처럼 박사 유학생에게 교육적 처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학습자 개별성이 존재한다면, Halliday(1978)의 지적처럼 ‘반복’되는 ‘상황 유형’을 통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건이 곧 학습자 개별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반복되는 상황 유형’을 분석할 때 본 연구는 ‘학업’과 ‘졸업’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박사과정이 ‘학업’이 중시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이라는 것 때문이고, 학습자 중심 교육의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1> 박사과정에서의 학업과 졸업

	학업		졸업	
	학점	전공 시험	학술논문	학위논문
A대학교	36학점(3.0이상)	필수	KCI 등재지 2편 이상	필수
B대학교	30학점(2.7이상)	필수	KCI 등재(후보)지 1편 이상	필수
C대학교	36학점(3.0이상)	필수	KCI 등재(후보)지 1편 이상	필수
D대학교	36학점(3.0이상)	필수	KCI 등재(후보)지 1편 이상	필수
E대학교	30학점	필수	KCI 등재(후보)지 1편 이상	필수

위 표는 학위과정 유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 소재 5개 대학교의 일반대학원의 학업, 졸업과 관련된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만 해당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인문사회계열에 박사 유학생이 가장 많기 때문이고,²⁾ 인문사회계열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의 졸업과 학업의 경우에도 요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점의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있고, 학업 이수를 위해서 요구하는 평균 성적도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평균 성적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출석, 과제, 시험 등으로 평가가 진행된다고 전제했을 때, 과제와 시험은 모두 ‘쓰기’에 해당한다. 특히 C, D대학교는 학위논문의 지도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에 반드시 수강해서 논문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이 강의의 내용이 곧 학위논문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과제와 시험 등은 박사 유학생이 계획하는 학위논문의 주제로 전이, 발전될 수 있는 학술 답론을 미리 접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할 것이다. 박사 유학생은 전공 분야별로 진행되는 전공 시험도 응시해야 하는데, 결국 이 전공 시험에서도 쓰기가 중요하다. 결국 학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박사 수료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쓰기’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쓰기’의 중요도는 ‘졸업’ 요건에서 보다 더 강력해진다. 우선 박사 유학생은 본인의 학위논문을 주제로 학술논문을 완성해서 KCI등재 학술지나 등재후보 학술지에 1개에서 2개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만 한다. 그리고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을 완성해야 하는데, 석사과정의 경우 유학생

2)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박사 유학생은 10,78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인문사회계열은 3,9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즉 국내 대학원의 40%는 인문사회계열이다.

에 한에서 학위논문을 졸업 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지만,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이 필수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학습자 개별성이 된다. 이처럼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은 전형적인 학술적 글쓰기의 세부 유형으로, 박사 유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 학술적 글쓰기 능력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결국 박사 유학생의 상황 맥락에서 반복되는 상황 유형은 ‘쓰기’와 관련된 ‘평가’ 상황이고, 이를 졸업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면 ‘학술적 글쓰기’를 완성해야 하는 ‘글쓰기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학습자 개별성의 차원에서 논의하자면 박사 유학생에 요구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졸업을 위해서 학술논문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이를 학위논문으로 전이해서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학술논문이 장르 글쓰기라는 점이다. Miller(1994:31)는 장르를 ‘반복되는 상황(recurrent situations)’을 통해 고정된 ‘전형적인 수사적 행위(typified rhetorical actions)’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Halliday(1978)이 언어의 해석에서 상황 맥락을 고려한 것과 연결되는데, Hyland(2002:1094)는 이 ‘전형적인 수사적 행위’를 학술 담화공동체에서 발전해 온 ‘특별한 장르적 특징(a particular genre)’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결국 학술논문은 특정 학술 담화공동체에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수사적 행위의 총칭을 의미하고, 이것이 곧 장르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장르적 특징을 고려한 장르 글쓰기는 해당 언어의 수준과 별개로 별도의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학술논문이라는 장르 글쓰기만의 담화 관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서 박사 유학생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이고, 석사학위논문을 완성한 경험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한국어 수준이 높은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도 낮은 장르 글쓰기에서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박사 유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완성한 경험이 있지만, 석사학위논문과 박사과정에서의 학술논문은 그 성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 민정호(2020:304-305)은 석사학위논문이 담화적 관행 등과 같은 형식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글쓰기라면, ‘박사학위논문’은 박사 유학생이 필자로서 분명한 ‘목소리(voice)’를 내는 것이 더 중요한 글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학술논문을 최초 쓸 때부터 자신만의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위논문으로 연결하도록 교육적 처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사 유학생에게 낮은 장르인 학술논문을 성공적으로 쓰고, 이를 학위논문으로 발전시켜서 필자로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민정호(2020)은 이를 위해서 박사과정에 박사 유학생이 학술논문을 쓰면서 학위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도 학습자 개별성을 고려한 학술논문 강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는데, 이 수업을 캡스톤 디자인을 중심으로 설계해 보려고 한다.³⁾

2.2. 학술논문의 장르 교육법

박사 유학생이 써야 하는 학술논문은 자신의 학위논문으로 심화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

3) 박사 ‘유학생’에게 학술논문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왜 ‘학습자 개별성’을 고려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최근처럼 박사과정에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면 한국인 대학원생이 많은 경우와 달리 유학생을 고려한 특별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 교육적 처치는 낮은 장르 글쓰기를 의무적으로 쓰고 이를 중심으로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학위논문으로 심화시켜야 하는 박사 유학생의 상황 맥락을 고려한 것이다.

다. 그래서 학술논문에서부터 자신만의 목소리로 심화·전이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적 방법의 출발점은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징부터 이해하는 것이다. 반드시 써야만 하는 장르 글쓰기의 특징을 알아야, 이를 기초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Williams et al(2011)은 교육학 분야의 논문 구조를 ‘서론(introduction)’, ‘연구 문제/문제에 대한 설명(research question/ statement of problem)’, ‘문헌 검토(literature review)’, ‘연구 방법(methodology)’, ‘연구 결과(results)’, ‘논의/함의(discussion/ implications)’, ‘결론(conclusion)’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혹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이룰 수도 있지만, Horn(2012)가 경영학 분야의 논문 구조를 ‘서론(introduction)’, ‘문헌 검토(literature review)’, ‘자세한 연구 방법(methodology: more detail)’,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 분석(analysis of data)’, ‘자료로부터의 결과(findings from data)’, ‘결론/결과(conclusion/ findings)’로 정리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하다. 이 논문의 구조들은 McNamara et al.(1996)이 밝힌 텍스트의 ‘전체적 구조(a global structure)’만을 살핀 것인데, 같은 ‘연구 방법’의 경우에도 교육학은 ‘methodology’이지만, 경영학은 ‘methodology: more detail’로 나타난다. 이는 각 계열이나 전공에 따라서 담화 관습적으로 누적된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징이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미국의 대학이나 학술지를 중심으로 종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한국의 학술 담화공동체의 경우에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박사 유학생에게 이와 같은 장르적 특징을 갖는 학술논문은 낯선 장르이다. 이는 Freedman(1987)의 논문 제목 ‘다시 배우는 글쓰기(Learning to Write Again)’와 같이, ‘다시 배워야 하는’ 새롭고 낯선 장르 글쓰기인 것이다.

Devitt(2004:197)는 장르에 대한 ‘메타 인식(meta-awareness)’을 강조한다. ‘meta’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결국 ‘장르 지식’을 통해서 ‘장르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앞서 제시한 ‘장르 지식’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장르 지식이고, 뒤에서 언급한 ‘장르 지식’은 새로 만난 낯선 장르를 말한다. 이처럼 ‘장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장르 글쓰기를 쓰게 하려면 장르에 대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비판하고 재인식하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낯선 장르를 익숙한 장르로 인식하고 장르 글쓰기를 하게 해야 한다. Devitt(2004:346)는 이와 같은 장르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가지 장르 교육법을 제안했는데, 비유적으로 ‘입자(particle)’, ‘파동(wave)’, ‘영역(field)’이라고 말한다. 입자는 곧 ‘장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는 장르를 미립자(微粒子), 즉 변하지 않는 최소 단위로 본 것으로 교육을 위한 장르란 최소한의 특징적 장르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입자는 비유적 표현으로 ‘파동’ 되는데, 이는 학습하는 장르가 ‘선행 장르(antecedent genres)’로써 마주하게 될 낯선 장르를 이해하는 ‘과정(process)’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영역은 맥락을 비유하는 것으로 입자가 파동되어 특정 영역으로 오면 마주한 장르를 맥락에 따라 해석하고 비판하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술논문을 입자로, 학위논문을 영역으로 전제하면, 박사 유학생은 학술논문에 대한 장르 글쓰기 교육을 통해 획득한 경험과 지식이 파동, 즉 특정 배경지식이 되어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장르, 즉 ‘학위논문’을 재인식하고,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Devitt(2009:349)는 ‘특정 장르 학습-장르 지식을 활용한 해석-새로운 장르 인식’을 ‘입자-파동-영역’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장르 교육법을 위한 7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표-2> 장르 교육을 위한 7가지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1	수사적인 분석을 위한 기술을 배우면서 교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친숙한 장르(everyday genre)' 분석해 보기.
프로젝트2	배경, 주제, 독자, 목적 등을 '주요한 이동(major shift)'을 통해서 친숙한 장르를 다른 식으로 써 보기.
프로젝트3	샘플들을 모아 분류하면서 장르를 분석하고 다른 문화나 시기에 등장한 장르를 분석해 보기,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관해 알기.
프로젝트4	수업에서 보편적 장르로 작업하면서 '잠재적인 선행 장르(a potential antecedent)'로서 선택된 '학술적 장르'를 분석해 보기.
프로젝트5	이 수업에서 '특정적 글쓰기 과제(a specific writing task)'로 학술적 장르를 써 보기.
프로젝트6	완성한 장르를 비판하고 각 학생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프로젝트7	개인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선택된 잠재적인 선행 장르를 분석하고 비판해서 유연하게 써 보기.

Devitt(2009)의 이 7가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친숙한 장르가 입자가 되어 새로운 장르를 만났을 때 파동을 일으키고, 이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서 낯선 장르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더 주목하는 부분은 이와 같은 장르 인식의 과정이 장르나 장르 분석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직접 실습해 보는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양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협력 행위가 강조된다는 점 또한 주목했다. 본 연구가 학술논문에 대한 장르 교육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캡스톤 디자인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Dutson et al(1997:17)은 '캡스톤 디자인 강의'의 장점이 '이론(theory)'과 '수행(practice)'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론과 수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 전공이나 계열을 벗어나 캡스톤 디자인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다. 글쓰기 분야로 한정하면, 김규훈·고희성(2019)가 있는데, 이 연구는 학습자를 공학 계열의 학습자로 전제하고, 공학적 설계와 작문 원리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글쓰기 수업 모형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론과 수행이라는 캡스톤 디자인의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공학 계열을 벗어나 '다른 계열'의 '유학생'을 위한 '장르 글쓰기 접근법'으로 활용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학습자 개별성을 고려한 학술논문 수업을 캡스톤 디자인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공학 계열을 벗어나서 인문사회계열의 교육학 논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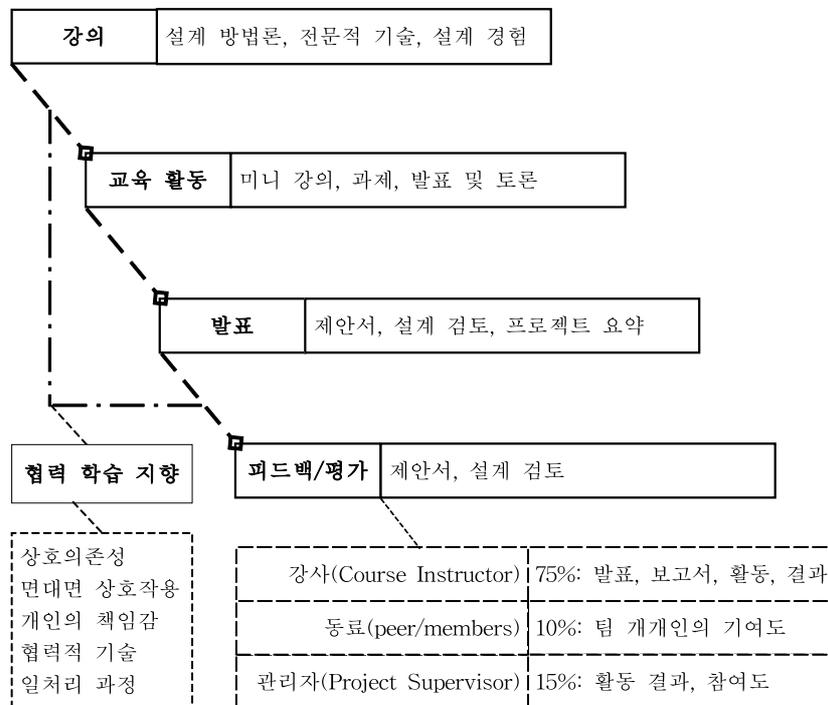
2.3. 협력 활동 중심의 캡스톤 디자인

산업자원부(2005: 김정연, 태진미)는 공학 계열의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획, 설계, 제작 등을 미리 실습해 보는 강의로 캡스톤 디자인을 설명했다. 인문사회계열의 박사 유학생이 박사과정을 졸업한 후에 실제 인문사회계열 분야로 취직을 했을 경우 학술논문을 쓸 기회는 없을 것이다. 물론 박사 학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취직을 한 후에도 학술적 활동을 하면서 학술 논문을 지속적

으로 쓰는 유학생도 있겠지만, 모국에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학술논문을 쓸 기회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실제 현장의 범위를 학위논문까지만으로 제한하고, 학술논문에 대한 장르 교육을 통해서 박사학위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박사학위논문도 성공적으로 완성하도록 하는 데에 유용한 강의를 설계하려고 한다.

Pimmel(2001)은 앨라배마 대학교의 전기·공학 전공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캡스톤 수업을 설계했는데, 이때 ‘협력 학습 접근법(cooperative learning approach)’을 적용했다. 이렇게 ‘협력 학습’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한 이유는 일반적인 캡스톤 강의로는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학습한 기술을 ‘내재화(internalize)’시키는 데도 실패해서 낮은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도약 출발(jump-start)’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Pimmel, 2001:413).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으로 수업을 설계하면서 보다 ‘협력 학습’이 강조되도록 수업을 구성한 것이다. Pimmel(2001)이 협력 학습을 중심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 설계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Pimmel(2001)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 설계 모형



이 수업 모형은 강의, 활동, 발표, 피드백으로 나뉜다. 강의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강의를 다룬다. 강의에는 2명의 강사가 필요한데, 한 명은 현 수업의 강사이고, 다른 한 명은 지난 학기 수업의 강사로 현 수업에서는 관리자로 참여한다. 2명의 강사는 유사한 주제의 강의가 서로 연달아 다뤄지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서 강의 내용을 정하고, 관리자는 강의 유경험자로서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도와 활동의 결과 등의 점검·확인한다. 특히 강의에는 전기·공학 전공에서의 ‘설계 방법론’, ‘전문적 기술’, ‘설계 경험’ 등과 관련된 전문적 강의들도 개설되는데, 이때 다양한 세부 전공 교수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은 비교적 간단한 주제를 중심으로 미니 강의를 들은 후에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니 강의를 들은 후에는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종합,

팀별 합의 등을 중심으로 실습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팀별로 완성된 제안서, 설계, 프로젝트 요약 등은 발표하는데, 이 발표는 팀원들의 참여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선택된다. 그리고 완성된 제안서, 설계, 요약문과 이와 같은 텍스트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동료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이 역시 협력 학습을 통해 텍스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Pimmel(2001:414)은 이와 같은 협력 학습이 ‘긍정적인 상호의존성(positive interdependence)’, ‘면대면 상호작용의 촉진(face to-face promotive interaction)’, ‘개인의 책임감(individual accountability/personal responsibility)’, ‘협업적 기술(collaborative skills)’, ‘조직의 업무 처리 과정(group processing)’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글쓰기에서도 협력 학습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Fung, 2006; Harmer, 2004). 그런데 이런 사고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글쓰기가 곧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행위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질적 제고에 결정적임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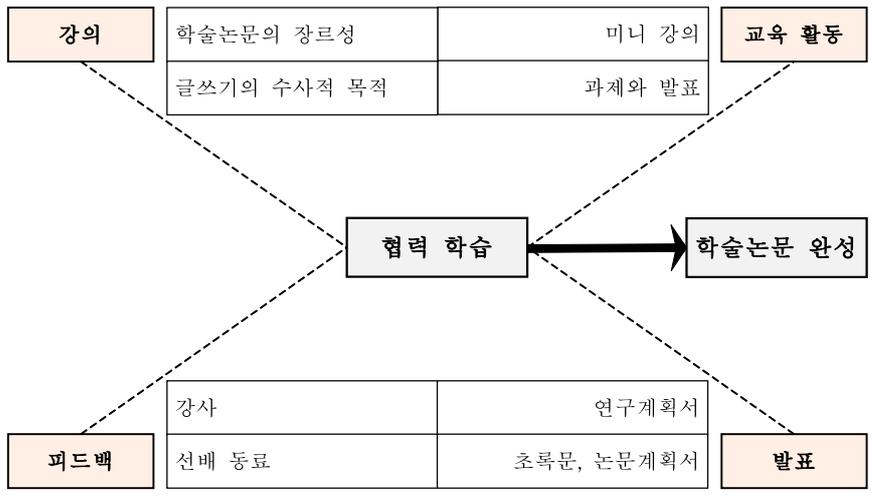
Hayes(1996:5)는 ‘사회적 행위(Social activity)’로 글쓰기를 개념화하면서 ‘협업자(Collaborators)’를 추가했고, 후에 Hayes(2012)에서는 비평가(Critics)와의 협업으로 글쓰기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학술적 에세이(school essay)’, ‘학술적 글(Articles)’와 같은 학술 담화공동체 내에서의 글쓰기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담화공동체의 관습과 독자로서의 구성원들을 고려하면서 쓰는 사회적 행위라는 접근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캡스톤 디자인에서의 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학술논문 교육법에 접근하는 이유는 바로 학술적 글쓰기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담화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행위, 즉 장르 글쓰기라는 특징 때문이다. 박사과정에 소속된 필자라면 학술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독자와 담화공동체를 고려하면서 학술논문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술논문이라는 장르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핵심 장르적 특징을 중심으로 강의를 설계하고, 이때 유사한 주제로 논문을 쓰는 유학생들을 팀으로 묶어서 학술논문의 장르 지식과 실습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모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관리자(Project Supervisor)와 강의를 담당할 다양한 세부 전공의 교수들의 초청과 관련된 것이다. 둘째는 강의로 다룬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징에 대한 핵심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는 협력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사용될 과제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특징에 관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먼저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학술논문 수업 설계 모형을 제시하고, 이 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지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3. 박사 유학생을 위한 학술논문 수업 설계

3.1. 수업 설계 모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학술논문 수업은 Pimmel(2001)의 모형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모형이 다른 캡스톤 디자인 수업 설계 모형과 다르게 ‘협력 학습’을 강조하고, 글쓰기를 사회적 행위로 보는 장르 글쓰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술논문 수업에서는 박사 유학생이 강의를 듣고 협력 학습을 통해서 관련 지식과 전략 등을 내재화하도록 했는데, 이때 2장에서 언급했듯이 상충하는 3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3장에서는 Pimmel(2001)의 모형을 수정해 가면서 수업을 설계하는데,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지 전개 방향을 설정한다.

<그림-2>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학술논문 수업 설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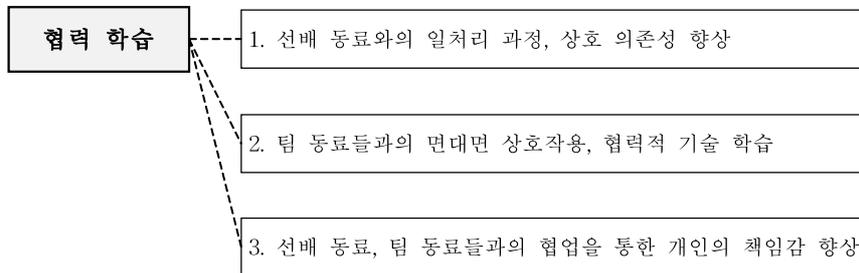
본격적인 협력 학습의 진행에 앞서 강의가 진행되는데, 강의는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뉜다. 앞서 Pimmel(2001)의 모형에서는 해당 전공이나 계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식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되었는데, 이 강의는 학술논문, 즉 글쓰기 강의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글쓰기에서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강의도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학술논문의 장르성에 대해서 다룬다. 학술논문의 장르성은 Williams et al(2011), Horn(2012), Murray(2011) 등에서 다루는 학술논문의 담화 구조, 그리고 계열별 학술논문의 담화 구조와 장르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또한 담화 구조를 박사 유학생에게 가르칠 때, 각 장에서 요구하는 ‘수사적 목적’과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학술논문 1장은 ‘서론’이라고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론에 ‘해당 분야의 연구 현황’, ‘문제점’,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방법과 범위 제한’, ‘연구의 목적과 의의’ 등과 같은 수사적 목적을 중심으로 담화들이 패러다임화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팀별로 나눈 후에는 쓰려고 하는 논문의 핵심 이론이나 해당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강의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Pimmel(2001)의 식이라면 이때 다양한 세부 전공의 교수들을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해당 계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선배 동료들을 초청해서 미니 강의를 담당하게 한다. Swales(1990)은 학술담화공동체의 담화 규약을 설명하면서 특정 주제를 특정 전공의 담화 관습에 따라서 완성한 선배들의 장르성을 지키며 완성하는 것이 곧 학술적 글쓰기라고 밝혔다. Pimmel(2001)의 지적처럼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적 기술자나 해당 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 장소, 비용 등과 같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성을 지켜 학술논문을 완성하고, 학업과 졸업을 위한 다양한 리더십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학위논문까지 쓴 졸업생 선배들을 초청해서 팀별 활동에서 미니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학술논문의 장르 교육을 유지하면서 미니 강의의 수준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조별로 진행되는 발표에서도 선배들이 적절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미니 강의를 들은 후에 브레인스토밍이나 아이디어 종합, 강의 요약과 같은 과제를 해결할 때도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발표는 기본적으로 연구계획서, 그리고 초록문, 논문계획서 등을 발표하게 한다. 연구계획서는 팀원 모두의 논문 내용이 요약된 것이기도 하지만, 팀원 각자의 연구계획서와 완성한 논문을 어떤 학술지에 게재할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모두 기록한 논문계획서까지 포함한다. 또한 초록문은 학기말에 완성한 학술논문을 요약한 것으로 이를 발표하고 선배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는다. 물론 선배 동료들을 수업에 초청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 제한적 방문에 분명한 목적을 두어서 선배 동료로부터 학술논문, 학위논문과 관련된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다만 선배 동료들의 미니 강의를 들은 후에 진행되는 발표에서는 강의를 듣고 든 생각이나 강의의 핵심 내용 등을 적게 하고 이를 팀별로 발표하게 한다. 이때는 협력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 쓴 내용과 비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연구를 보다 정밀하게 계획·수정하도록 유도한다.

<그림-2>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학술논문 수업 설계 모형



이렇게 학술논문 수업은 강의, 교육 활동, 발표, 피드백 등이 선배 동료와 팀 동료, 그리고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와의 협력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이를 통해서 박사 유학생 개인의 협력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향상되도록 설계된다. 특히 실제 유사한 과정으로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완성하고 동일 학계에서 활동하는 선배 동료와의 협업은 학술논문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해와 동료와의 의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팀 동료와의 과제, 활동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협력적 기술도 학습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학술논문이라는 장르 텍스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학술논문 주제를 학계의 경향과 연결시켜서 보다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수업이 종료된 후에도 학위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박사 유학생이 이 수업을 통해 내재화된 글쓰기 경험을 토대로 책임감을 갖고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학술 담화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진행되는 학술논문 수업이 구체적으로 15주차 수업에서 어떤 양상과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수업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과제의 내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실제 수업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유형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3.2. 수업의 내용과 활동

다음은 주차별 강의 내용이다. 이 강의는 1차시를 3시간을 기준으로 완성된 것으로 실제 박사 유학생의 수업 시간과 전공 강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표-3> 주차별 강의 내용

주	강의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징, 팀 구성
2	학술논문의 거시 구조와 특징 - 과제 - 발표
3	학술논문의 미시 구조와 수사적 목적 - 과제 - 발표
4	팀별 미니 강의(선배 동료) - 과제 - 발표 - 숙제(해당 분야 논문 찾기)
5	팀별 미니 강의(팀 동료) - 과제 - 발표
6	팀별 연구 계획서 완성하기 - 피드백(동료) - 숙제(연구계획서 수정하기)
7	완성된 연구 계획서 발표 - 피드백(강사)
8	팀별 논문 계획서 완성하기 - 발표 - 중간과제 제출(논문/연구 계획서)
9	학술논문의 1장 미니 강의(강사) - 팀별 학술논문 1장 완성하기
10	학술논문의 2장 미니 강의(강사) - 팀별 학술논문 2장 완성하기(선배 동료)
11	
12	학술논문의 3장 미니 강의(강사) - 팀별 학술논문 3장 완성하기(선배 동료)
13	학술논문의 4장 미니 강의(강사) - 팀별 학술논문 4장 완성하기
14	초록문의 특징 - 초록 완성 - 학술논문의 초록문 발표 - 피드백(강사)
15	학위논문의 특징 - 학술논문을 통한 학위논문 계획서 완성하기 - 발표

1주차에는 강의에 대한 소개와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징, 그리고 유사한 논문 주제별로 팀을 구성한다. 강의에 대한 소개에서는 ‘강의-과제-발표’와 같은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과 실제 K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는 강의 목표까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또한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징에서는 Murray(2011)의 학술논문의 일반적 구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박사 유학생의 계열이나 전공에서 주목할 만한 학회와 학술지 등을 소개한다. 팀 구성은 박사 유학생이 관심 있는 논문 주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강사가 팀을 조직해 준다.

Devitt(2009)는 맥락에 따라서 장르가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과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낯선 장르를 ‘인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강의 초반부 강의도 계열이나, 전공에 따라서 논문의 거시 구조가 달라지는 것을 박사 유학생이 인식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2주차와 3주차 강의에서는 계열과 전공별로 달라지는 학술논문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한다. 또한 강의를 들은 후에는 팀별로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배운 지식을 내재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제는 주로 배운 내용을 요약하거나, 이를 통해 알게 된 학술논문의 특징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한 후에 팀별로 발표하도록 하고, 강사는 무작위로 한 명씩 선택해서 전체 발표를 진행하는데, 이는 Pimmel(2001)이 학생들의 참여도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4주차에는 팀별로 선택한 관심 분야의 선배들을 초청해서 팀 별로 미니 강의를 진행한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선배 동료들은 해당 주제에서의 연구 동향과 해당 학계에서 시급하게

요청하는 논문 주제 등을 소개한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최근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연구 방법의 경향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 미니 강의를 통해서 박사 유학생은 구체적으로 학술논문으로 완성할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을 확정하는 과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선배 동료들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팀별로 발표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에 이를 구체화해서 모델링이 되는 해당 분야 논문을 찾아서 요약해 오는 숙제를 한다. 이 숙제는 5주차에서 팀별로 발표하고, 강사가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서 박사 유학생은 자신의 학술논문 제목을 확정하고, 자신의 학술논문에서 사용할 핵심 이론 등을 확정해서 이를 종합한다.

6주차에는 4주차와 5주차에서 진행된 강의와 과제 등을 바탕으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운진(2014:179)은 연구계획서가 ‘연구요약’, ‘연구개요’, ‘초록’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요’를 중심으로 ‘제목’, ‘연구의 핵심 이론’, ‘연구 방법’, ‘개요표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으로 정리한다. ‘연구개요’를 중심으로 연구계획서를 완성하면, 팀별로 발표를 진행하고, 강사로부터 피드백을 받도록 한다. 그리고 7주차에는 강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연구계획서를 수정하도록 하는데, 이때 강사의 피드백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구계획서를 확정한다. 그리고 완성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8주차에는 논문계획서를 쓰는데, 이 논문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논문이 갖는 학술적 ‘의의’를 밝히고, 투고할 ‘학술지’와 학술지 선택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 등을 명시한 일종의 논문 (투고) 계획서를 말한다.

강의 후반부인 9주차부터 본격적으로 협업으로서의 글쓰기가 진행되는데, 2, 3주차에 다양한 전공별로 학습했던 학술논문의 구조와 특징 중에서 박사 유학생의 전공과 계열을 중심으로 학술논문의 각 장의 특징을 중심으로 강사가 미니 강의를 진행한다. 9주차부터는 박사 유학생이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강의를 들은 후에 곧바로 연구계획서에 근거해서 학술논문을 쓰기 위함이다. 이처럼 강의를 들은 후에는 연구계획서를 참고해서 학술논문의 1장부터 4장까지 완성하게 된다. 다만 이론적 배경(검토)과 실험 방법이 들어가는 2장과 이론적 배경을 틀로 삼아 진행된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를 요약하는 3장은 기간을 1주 추가해서 3주 동안 학술논문을 완성하도록 한다. 이 기간에 팀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협력적으로 논문을 쓰도록 하고, 특히 논문의 2장과 3장을 쓸 때는 다시 한 주간 선배 동료들을 초청해서 팀별로 함께 논문을 완성하도록 한다.

14주차에는 초록문과 관련된 미니 강의를 강사가 진행한다. 초록문의 경우에는 14주차에 모두 완성해서 쓰도록 하고, 이를 팀별로 발표하고, 다시 전체 학생들 앞에서 팀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박사 유학생이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강사가 피드백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15주차에는 학위논문의 장르적 특징을 다루는 강의를 진행하고, 박사 유학생이 완성한 학술논문을 활용해서 학위논문으로 전이·심화시킬 수 있는 학위논문 계획서를 완성하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은 유사하지만 미세한 장르적 특징 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학위논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학위논문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고 수업을 마친다.

이 수업은 캡스톤 디자인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박사 유학생은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술논문 주제를 정하고 1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습’, ‘완성’하게 된다. 또한 실제 해당 분야의 선배들을 만나고, 논문 주제가 유사한 동료들과 협력적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학술논문을 쓰면서 마주하는 당면한 문제들을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완성된 학술논문을 수업의 강사에게 피드백까지 받고, 이를 학위는

문으로 전이시키는 계획서까지 완성하며, 무엇보다 실제 KCI 등재 학술지에 투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수업이 될 것이다.

<표-4> 주차별 과제 활동과 텍스트 유형

주	과제 활동	텍스트 유형
2	학술논문의 장르성 요약하기	
3	학술논문의 수사적 목적 요약하기	
4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소개하기	
5	해당 분야 저명 학술논문 소개하기	
6	학술논문 계획서 완성하기	연구계획서
7	학술논문 계획서 수정하기	
8	학술논문 제출 계획서 완성하기	논문계획서
9	학술논문 1장 완성하기	학술논문 1장
10	학술논문 2장 완성하기	학술논문 2장
11	학술논문 3장 완성하기	학술논문 3장
12		
13	학술논문 4장 완성하기	학술논문 4장
14	학술논문 초록문 완성하기	학술논문 초록문
15	학술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전이시키기	학위논문 계획서

본 연구는 협력 학습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제 활동을 수업 설계에 반영했다. 수업 초반부에는 학술논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요약’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완성하고 이를 팀원과 공유하도록 했다. 그리고 선배 동료들을 초청해서 해당 분야의 연구 주제와 방법에 대한 경향과 특징에 대한 미니 강의를 듣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등을 확정하도록 했다. 연구계획서와 논문계획서를 완성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은 팀 구성원과의 토의, 강사의 강의, 선배 동료의 의견 등이 종합되어 완성된다. 강의 후반부에는 실제로 본인의 학술논문을 쓰기 시작하는데, 학술논문의 주제가 같은 박사 유학생들이 팀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노트북을 가져와서 강의실에서 1장부터 쓰도록 했다. 이 강의에서는 초록문까지 완성하고 발표를 진행하는데, 마지막에 학위논문으로 어떻게 확장·전이시킬지까지 강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박사 유학생의 장르 인식이 학위논문으로까지 연결되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박사 유학생의 학습자 개별성을 분석하고, 졸업을 위해서 학술논문을 의무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이를 확장해서 학위논문을 완성해야 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한국어 수준이 높지만 학술적 리터러시는 낮아서 별도의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 등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박사 유학생을 위한 학술논문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고, 이를 위해서 실제로 학술논문을 수업 중에 완성하는 수업을 설계했다. 그리고 이때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징과 이를 고려한 학술논문 글쓰기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즉 이론과 실습이 융합된 캡스톤 디자인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했다. 다만 박사 유학생

의 낮은 학술적 리터러시 상황을 고려해서 강사, 같은 논문 주제의 동료, 같은 논문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선배 동료 등과 협력 학습이 발생하도록 학술논문 수업을 설계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박사 유학생은 학술논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실제 학술논문을 완성해 보는 경험이 누적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학위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며, 무엇보다 학술논문을 확장해서 학위논문을 쓰도록 했기 때문에 학위논문 글쓰기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실제 팀 구성원들이 학술논문을 쓸 때 어떤 전략으로 협력 학습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자세하게 반영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배 동료들을 초청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요건 등도 보다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업 설계는 높은 한국어 수준에도 불구하고 학술논문을 낯설어하는 박사 유학생의 학습자 개별성을 고려해서 이론과 실습이 종합된 캡스톤 디자인으로 수업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업 설계를 통해서 박사 유학생이 학술논문도 동료들과 함께 수월하게 완성하고, 이를 근거로 학위논문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규훈·고희성(2019), 학습 필자의 변인을 고려한 대학 작문의 교수-학습 모형: 공학적 설계와 작문 원리의 연계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41, 7-35.
- 김희진(2019),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논문 <서론>의 종결 표현 문형 연구, *한국어와 문화* 26, 167-207.
- 민정호(2020), 박사 유학생의 필자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제언: 학술적 글쓰기에서 담론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3, 298-321.
- 산업자원부(2005), 서울대 등 7개 대, '05년 창의적설계인력양성 사업신규참여 보도자료.
- 손다정·정다운(2017),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교육 박사 학위논문 서론 텍스트 구조 분석, *어문논집* 70, 445-480.
- 이기영(2019),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학업 수행 기술에 대한 고찰: 학습자, 교수자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6(3), 203-235.
- 이승철(2018), 동양사상에서 '학습자 개별성'의 이해에 관한 시론적 검토: 양명사상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8(8), 993-1009.
- 이윤진(2014),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계획서 쓰기 지도 방안, *리터러시연구* 8, 177-205.
- 책리하·박창언, 천단(2018), 한국어 실력이 왕초보인 박사과정 유학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6(3), 157-175.
- Berkenkotter, C. & Huckin, T. N.(1993), Rethinking genre from a sociocognitive perspective, *Written Communication* 10, 475-509.
- Devitt, A. J.(2004), *Writing Genre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Devitt, A. J.(2009), Teaching Critical Genre Awareness, In Bazerman, C., Bonini, A. & Figueiredo, D. (Eds.), *Genre in a Changing World*(342-355), Fort Collins, Colorado: The WAC Clearinghouse and Parlor Press.
- Dutson, A. J., Todd, R. H., Magleby, A. P. & Sorensen, C. D.(1997), A Review of Literature on Teaching Engineering Design Through Project Oriented Capstone Cours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86(1), 17-28.
- Freedman, A.(1987), Learning to Write Again: Discipline-Specific Writing at University, *Carleton Papers in Applied Language Studies* 4, 95 - 116.
- Halliday, M. A. K.(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 Harmer, J.(2004), *How to teach writing*, Harlow, Essex: Longman.
- Hayes, J. R.(1996), A new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gnition and affect in writing, In C. M. Levy & S. Ransdell (Eds.), *The science of writing : Theories, metho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applications*(1-27), Mahwah, NJ : Lawrence Erlbaum.
- Hayes, J. R.(2012), Modeling and Remodeling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29(3), 369-388.
- Horn, R.(2012), *Researching and writing dissertations: A complete guide for business and management students*,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 Hyland, K.(2002), Authority and invisibility: authorial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Journal of Pragmatics* 34(8), 1091-1112.
- Hymes, D.(1968), The ethnography of speaking, In Fishman, J. A.(Ed.), *Readings in the sociology of language*(99-138), The Hague: Mouton.
- McNamara, D. S., Kintsch, E., Songer, N. B., & Kintsch, W. (1996), Are Good Texts Always

Better? Interactions of Text Coherence, Background Knowledge, and Levels of Understanding in Learning From Text, *Cognition and Instruction* 14, 1-43.

Miller, C. R.(1984), Genre as Social Act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 70, 151-167.

Murray, R.(2011), *How to write a thesis*, Open university press.

Norman, D. A. & Spohrer, J. C.(1996), Learner-centered education, *Communications of the ACM* 39(4), 24-27.

Pimmel, R.(2001), cooperative learning instructional activities in a capstone design course,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90(3), 413-421.

Swales, J. M.(1990), *Genr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liams, K., Bethell, E., Lawton, J., Parfitt-Brown, Richardson, M. & Rowe, V.(2011), *Completing your PhD*, Red Globe Press.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박사 유학생의 학술논문 수업 설계> 토론문

이수미(성균관대)

이 연구는 박사 유학생의 학술논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적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서도 유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이들이 성공적으로 학술논문 더 나아가 학위논문을 쓰기 위한 교수요목이나 강의가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주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 연구를 읽으면서 든 몇 가지 생각을 연구자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요목의 핵심은 ‘협력 학습’이며 ‘선배 연구자의 미니 강의를 비롯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론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우선, ‘유사한 주제를 가진 박사 과정생들의 협력학습’이라고 했을 때 협력 학습의 가치, 효과 등을 인정하지만 ‘모둠(그룹)’ 학습의 어려움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박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한국어 언어 수준 차이는 물론이고 사고력, 학습력, 장르 지식에 대한 정도 등의 수준 차이가 날 것이고-그렇기 때문에 협력 학습이 좋을 수 있지만-그렇기 때문에 협력 학습을 위한 학습자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것에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유사한 주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유사한 주제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사 재학생 정도가 쓰는 게재 논문의 수준이라면 유사 주제라고 해도 연구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접근 방법 또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사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정도성을 어떤 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하여 몇 가지 예를 제시해 주시면 이해해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첫째에서 기술한 ‘선배 연구자의 미니 강의를 비롯한 도움’이라고 했을 때 연구자가 생각하는 ‘미니’라는 단어는 얼마 정도의 시간을 상정하신 것이고, 모둠(그룹)별로 각각 진행을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모둠별 미니 강의라면 장소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하였지만, ‘선배’를 찾는 것도 어렵겠지만 학생들 수업에 들어와서 강의도 하고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모둠별로 도움을 주는 정도, 학습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성이 부여되는 것인지 책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이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교수)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처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물론 무료로 도움을 주는 좋은 선배들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셋째, 이 연구는 교수요목의 제안인데 실제로 15주로 이런 수업이 현실화 되었을 때 수업을 듣는 사람 수, 유사 주제에 대해 이미 논문을 쓴 선배의 미니 강의를 있는 걸로 봐서 이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교수)는 어떤 전공을 한 누가 맡는 건지도 궁금했

습니다.

아마도 제가 캡스톤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드린 우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이라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 주셨음에도 독자로서 드린 질문에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수업이 실제로 열려, 많은 박사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고찰

외국의 문화교육과 비교하여 -

유현정(성균관대)

목 차

1. 서론 및 문제 제기
2. 문화교육의 흐름과 현황
3. 분석 및 제언
4. 결론
5. 참고문헌

1. 서론 및 문제 제기

최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실제 의사소통 능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를 언어교육의 도구적 요소나 부수적 장치로 활용하였던 언어중심적 교수에서 점차 문화중심적 교수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논의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¹⁾ 그러나 문화라는 개념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교육 현장에 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교육 내용으로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기에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문화교육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항목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목록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²⁾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문화교육 방안 및 문화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는 2010년부터 국립국어원이 추진해 온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³⁾ 개발 연구에서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교육에서 중점을 두었던 언어 지식 및 언어 기술 등과 함께 ‘문화’를 별도 영역으로 설정하여 문화교육의 중요

- 1) 배현숙(2000)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를 과소평가 한다고 지적한 이유는 모국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문화적 자존심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민현식, 1996)라든가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성기철, 2001),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장경은, 2001) 등 문화를 수단적 가치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가 흥미 유발의 정도만 필요하다면 그 존재가 너무 왜소하고 그렇다면 논의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하였다. 이후 박영순(2003), 김대행(2003), 조향록(2004) 등에서도 적극적인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2) 유현정(2016)에서는 문화 항목 범주화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크게 거시적·통합적 관점에서의 문화 항목 분류와 미시적·세부적 관점에서의 문화 항목 분류로 구분하고, 박경자(1997), 배현숙(2002), 박영순(2003) 등이 전자에 해당되며 조향록(2004), 임경순(2009), 박영순(2010) 등이 후자에 해당된다고 제시하였다.
- 3) 이하 ‘표준 교육과정’으로 약술.

성에 관한 인식을 반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1단계 연구 결과 발표 이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문화 영역의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의 구체적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교수자들과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가 주로 국어교육의 내용적 측면과 외국어교육의 방법적 측면을 기본적 토대로 삼아 구성되어 왔음을 볼 때, 문화교육 관련 연구 역시 외국어교육 분야의 문화교육 관련 이론 및 체계를 참고하여 한국어교육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준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외국어교육 분야의 등급 체계 및 교육 목표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을 미국, 유럽의 언어교육 지침과 비교하여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및 문화교육의 방향, 문화교육 내용 선정 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Tomalin & Stempleski(1994)에서 제시한 문화의 세 가지 요소인 산물(Products), 행위(Behaviors), 관념(Ideas)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문화를 단순히 단편적 지식과 현상 등의 산물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화권별로 조건화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른 행동양식을 익혀 주어진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관념적 배경 및 형성 맥락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광범위하게 교육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Moran(2004)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세 요소가 문화의 구성원인 개인 및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아 산물, 실행, 관점, 공동체, 개인을 '문화의 5차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⁴⁾ 이를 통해 학습자가 학교 교육을 통해 얻은 문화 지식을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활용함으로써 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문화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문화를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개인 차원도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화 항목을 선별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를 크게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구분하였던 Hammerly(1986)의 구분이 일반적이며,⁵⁾ 한국어교육 분야의 한국문화 항목 분류도 이 방식을 주로 채택해오고 있다.⁶⁾

-
- 4) · 산물 : 동식물과 같이 환경 안에 있는 것을 포함하며, 문화의 구성원에 의해서 생산되고 채택되는 모든 인공 산물이다.
 - 실행 : 문화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혹은 상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과 상호작용의 전체 범위를 말한다.
 - 관점 : 문화를 실행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문화 산물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인식, 신념, 가치, 태도를 나타낸다. 관점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함축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다.
 - 공동체 : 문화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속한 집단과 환경, 특정한 사회 상황을 포함한다.
 - 개인 : 문화나 공동체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구성원을 말한다. 개인은 공동체와 경험이 섞여지는 혼합체이며 다른 문화 구성원과 분리되고 동시에 연결되는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 5) · 정보문화(Information of factual culture) :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원어민이 그가 속한 문화권의 사회, 지리, 역사, 인물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나 사실과 관련된 문화.
 - 행동문화(Behavioral culture) : 일상생활의 총합에 관련된 것. 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물질적, 심리적 욕구와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 그리고 전통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한 사회를 규정짓는 유형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생활양식, 관습 등을 말한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형태로 외국어 학습에서 강조되어야 함.
 - 성취문화(Achievement or accomplishment culture) : 편지, 미술, 음악 등 한 사회의 예술적, 문화적 업적
 - 6) 문화 범주와 세부 영역의 구분에 관해 논의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박경자 외(1997) :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교육과 관련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위와 같은 외국어교육 분야의 문화 항목 분류 방식을 차용하여 광범위한 문화 항목 중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항목을 선별하고 문화 유형별, 학습자 수준별로 목록화 하여 제시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던 문화 항목 관련 연구는 국립국어원의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체계적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문화교육에서 나아가 문화 간 차이에 주목한 적극적인 문화교육을 통해 학습자에게 올바른 문화적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일찍부터 다중언어 사용 및 다문화 인식 관련 연구를 발전시켜 온 미국과 유럽의 언어교육 지침을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검토하여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에 관한 인식 및 구체적인 교육 방향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문화 교육의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교육방법론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문화교육의 흐름과 현황

2.1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내용

한국어교육의 '참조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내용 범주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단계별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요소를 독립 영역으로 설정하여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항목이 더 이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반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계별 연구에서 문화 영역의 설계 원리 및 교육 방향에 관한 기술이 다양한 방식을 차용하고 있어 이를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데 적용하기까지 다양한 논의와 해석이 뒤따랐다.

1단계 연구의 문화 분류 기준이었던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을 2단계 연구에서는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구분하였으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의 세분화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2단계 연구가 1단계 연구에서의 범주를 계승하여 상세화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라는 개념 구분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 범주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등급별 교육 내용의 수나 양이 고르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3단계에 해당하는 수정·보완 연구에서는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의 모듈을 다시 채택하고 최소한의 한국어 요구 수준(숙달도)만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배현숙(2002) 상징문화, (사회 제도를 포함한) 일상문화, 가치문화
 - 조항록(2004) : 언어문화, 일상생활 문화, 성취문화
 - 강현화(2011) :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언어문화, 일상문화, 가치문화) 등.

분류	내용
문화지식	· 한국문화에 대한 선언적 지식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삼음. ·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전달됨. · 교재의 문화란, 읽기·듣기 텍스트에 교육 내용으로 포함됨.
문화실행	· 한국문화에 대해 절차적 지식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삼음. · 한국어 교사나 문화 전문가(강사)가 주도하는 교실 밖 수업을 통해 전달됨. · 체험, 행사, 견학 등의 내용으로 포함됨.
문화관점	· 한국문화와 자국, 세계 문화를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교수·학습함. ·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전달됨. · 문화 비교에 대한 말하기, 쓰기 등의 기능 수업의 내용으로 포함됨.

<표 1> 표준 교육과정 수정·보완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의 특징

이 중 ‘문화실행’은 교육과정 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교육기관별 상황 및 교육 환경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에 ‘문화실행’은 교육과정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고, 표준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지식’과 ‘문화관점’만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된 배경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 지식 중심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표준 교육과정에서 방법적 지식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실행’ 영역을 배제시킨 것은 교육의 효율성에 치우쳐 자칫 교육의 질적인 면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이어진 4단계 연구에서는 문화의 세부 기술을 다시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으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위계화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 요구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최소한의 숙달도 요구 수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문화실행의 경우는 일부 범주(문학, 영화·드라마)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초급, 중급, 고급의 모든 단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학습자 유형별 요구 및 필요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이라는 한국어교육의 기본 목표 아래 문화교육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파악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이해 및 자국 문화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적응하는 데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⁷⁾

7) ‘한국교육 표준 교육과정’으로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 것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상호문화적 관점에 관한 논의가 자문화와 타문화를 동등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비교문화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어교육 분야의 문화교육은 여전히 한국문화 중심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본고의 논지임을 밝히고 논의를 이어

이를 서구의 외국어교육 분야와 비교해 보면, 서구의 문화교육의 목표는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학습자 모국 문화에 관한 이해를 통한 비판적 시각에서의 문화 수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문화교육의 목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외국어교육 분야의 문화교육의 목표
Vallette (19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 쌓기 · 목표 문화의 에티켓 익히기 ·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의 차이점 이해하기 · 목표 문화의 가치 이해하기
Hammerly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숙어 등 문화적으로 함축된 의미를 아는 것 · 일반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양식을 아는 것 · 제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 · 상호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 · 문화 속의 제도와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Robinson (19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외국 문화를 배운다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과 자국 문화와의 새로운 입력을 통해 외국 문화가 종합되는 과정을 문화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아야 함.
미국 ACTFL 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사실에 대한 학습 · 자신의 문화에 대한 지식 · 문화적 탐구와 분석 방법의 습득
유럽 공통 참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들은 서로 비교되고 대비되며, 더 풍부하고 통합된 다중문화 능력이 생성될 때 상호작용 함. ·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외국어교육의 중심 목적은 학습자에게 다른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을 풍부하게 경험하게 하여 긍정적인 인성과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

<표 2>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교육의 목표⁹⁾

본고에서는 이 중 문화교육의 목표 및 문화교육 내용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언어교육 지침을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문화교육의 방향 설정 및 교육 내용 구체화에 참고하고자 한다.

2.2 미국 국가 외국어학습 표준(NFSLL)

1990년대를 전후로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의사소통 교수법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나가고자 한다.

8)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9) 진환상(2013), 유소맹(2014)에서 관련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표 내용 중 Vallette(1977), Hammerly(1982), Robinson(1985)은 문화교육의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 결과이며, 미국 ACTFL과 유럽 공통 참조기준의 내용은 국가시험 기준으로 제시된 문화교육 목표이기에 내용 범주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문화교육의 목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다루었음을 밝힌다.

내에서도 문화교육을 위한 표준(standard) 제시 및 기술 활용 등에 관한 교육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Bryam(1989)에서는 문화 학습을 외국어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Kramsch(1993)에서도 문화를 단순히 언어교육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의 독립적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96년 미국외국어교사협회(ACTFL)가 주축이 되어 외국어교육 국가표준 프로젝트(NSFLL)¹⁰⁾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학습 표준'¹¹⁾을 제시하였다. 미국 국가 지침은 미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주요 외국어¹²⁾ 교육의 표준을 제시한 일종의 교육 지침서로서, 문화를 외국어교육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1) 언어교육의 포괄적 목표 제시
- 2) 외국어학습 표준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제시
- 3) 의사소통 양식 틀 제시

이에 따라 미국 국가 지침은 외국어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의 '5C'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5가지 외국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언어 체계, 문화, 의사소통 전략, 학습 전략, 비판적 사고력, 기술사용 능력 등을 탐구,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구체적인 문화적 내용은 일상생활, 사회제도/기구, 현재 및 역사적 이슈, 중요한 문학, 예술 작품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타 언어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해야 하며, 핵심적 문화 자질과 개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이것들을 선별, 종합, 해석해서 타 문화권 사람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을 학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C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의사소통(Communication) : 외국어로 의사소통하기.
 - 대인 상호간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 언어의 이해와 해석.
 - 말과 글을 사용하여 정보, 개념, 사고에 관해 발표하는 것.
- 2) 문화(Cultures) : 타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확보하기.
 - 문화는 산물(products), 관점(philosophical perspectives) 실행(behavioral practice)을 포함함.
 - 학습 목표문화의 실행과 관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 학습 목표문화의 산물과 관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10) 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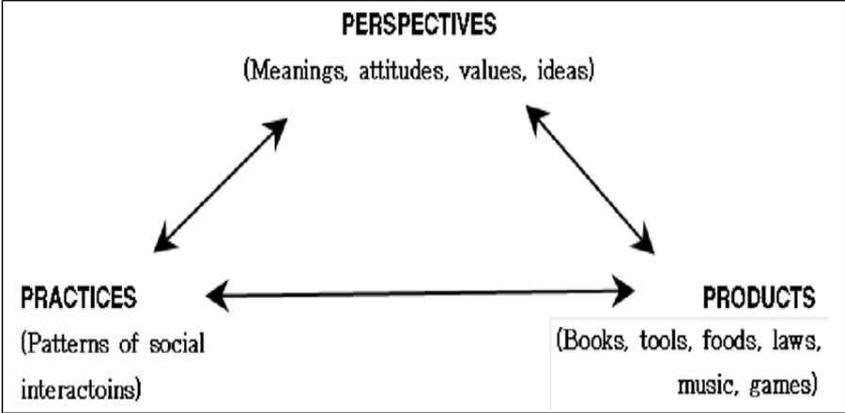
이하 '미국 국가 지침'으로 약술.

11)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 Century.

12)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라틴어 등.

- 3) 연계성(Connections) : 타 학문과 연계하고 정보 획득하기.
 - 외국어를 사용하여 타 학문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증진함.
 - 외국어와 해당 문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정보를 획득하고 특징적 관점을 인식함.
- 4) 비교(Comparisons) : 언어와 문화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 함양하기.
 - 학습 목표 언어와 자신의 모국어의 비교를 통한 언어의 본질 이해.
 - 학습 목표 문화와 자국 문화의 비교를 통한 문화의 개념 이해.
- 5) 공동체(Communities) : 국내외의 다중 언어 사용 공동체에 참여하기.
 - 학교 내외 상황에서 학습 외국어 사용.
 - 학습 목표 외국어를 개인적 행복과 풍요를 위해 사용하여 평생 학습자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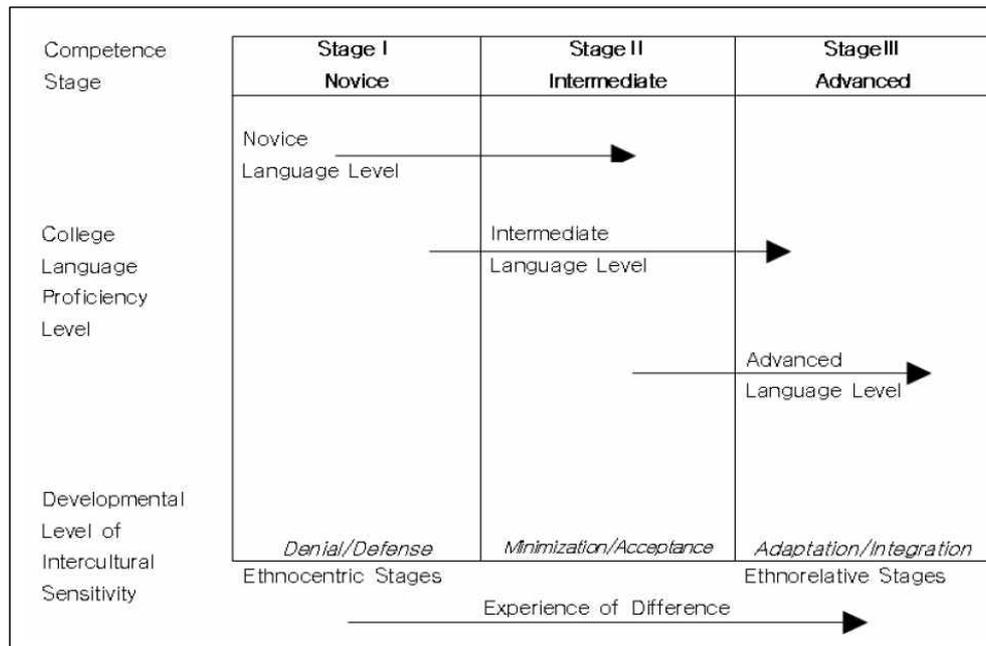
5C 중 특히 문화(Cultures)와 비교(Comparisons)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수용을 강조하였는데, 문화의 개념은 한 사회의 유형·무형의 철학적 관점(philosophical perspectives), 관행(behavioral practice), 산출물(products)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 중 관행과 산출물들은 철학적 관점에서 도출되고,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이라는 요소와 연결하여 볼 때 표준 교육과정에서 문화관점을 배제한 것은 문화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림 1> NSFL에서 제시한 관점, 관행, 산출물 간의 관계

또한 5C에 반영된 비교문화적 관점 혹은 상호문화적 관점은 미국에서 활발하게 수행되어 온 다문화 인식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들은 교육 과정의 학습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민족 중심주의적 태도(ethnocentricism)에서 벗어나 민족 상대주의적 태도(ethnorelativism)를 체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발달단계별 진행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

었다. 즉, 학생들이 문화 인지(cultural awareness) 차원에서 문화 간 이해 (cross-cultural/inter-cultural understanding)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2> Bennett & Allen(1993)에서 제시한 문화 간 감수성 발달 단계 모형

이와 관련하여 Moran(2004)에서는 학습자의 문화 경험은 서로 연관된 4개의 학습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을 아는 것 : 문화적인 정보(사실, 지식 등)를 얻고 수집하는 것
- 방법을 아는 것 : 태도, 행동, 말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적 문화 실행을 아는 것
- 이유를 아는 것 : 자신의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대상 문화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
- 자신을 아는 것 : 타문화 경험의 주체로서 자기의 의견, 문화적 가치기준 등을 아는 것

즉 학습자는 목표문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문화에 관해서도 충분한 지식과 의견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목표언어와 모어, 목표문화와 모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언어와 문화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의 문화교육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목표문화와 자국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문화적 입장에서 문화 현상을 수용하여 긍정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3 유럽 공통 참조 기준(CEFR)

유럽 내 다중언어사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1년에 간행된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¹³⁾에서는 언어 사용자 및 언어 학습자의 능력을 일반적 능력과 의사

13)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소통적 언어능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능력
 - 1) 선언적 지식 : 상식, 사회문화적 지식, 상호문화적 인식
 - 2) 기능과 노하우 : 실용적 기능, 상호문화적 기능
 - 3) 개성과 관련된 능력 : 태도, 동기, 가치관, 신념, 인지적 스타일, 성격적 요인
 - 4) 학습 능력 :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음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과 능력, 학습 기술, 발견 능력
2. 의사소통적 언어능력
 - 1) 언어적 능력 : 어휘 능력, 문법 능력, 의미론적 능력, 음운론적 능력, 정서법적 능력, 정음학적 능력
 - 2) 사회언어적 능력 : 사회적 관계의 언어적 표지, 예의 관습(공손법), 관용어·격언·인용문·속담, 언어사용역 차이, 언어의 변이형(사회적, 지역적, 민족적, 직업적)
 - 3) 화용적 능력 : 담화 능력, 기능적 능력

유럽 공통 기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언어교육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이란 학교를 떠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평생에 걸친 학습의 과정으로 계속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교육 과정은 학습자의 다중언어 능력과 다문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발전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즉, 가정 안에서의 경험과 학습, 역사와 세대 간의 접촉, 여행, 이주, 이민을 통해서,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다중언어적이고 다문화적인 환경에 소속됨으로써, 또는 어떤 주변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의 이동을 통해서나 독서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런 실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 교육과정은 광대한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며, 학교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학교 내부와 외부 및 특정한 생활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독서와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와 프로필을 작성하게 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능력과 기술이 발전한 배경이 된 상황과 경험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학생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특정한 언어를 학습하는 동안에 습득된 공식 증명서뿐 아니라 다른 언어와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해 생겨나는 비공식적인 경험도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 공통 기준의 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중언어 사용 및 상호문화적 인식 형성을 위한 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문화교육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이하 ‘유럽 공통 기준’으로 약술.

있었다. 한국어교육 분야가 주로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학습자의 학교 교육뿐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목표를 설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3. 분석 및 제언

위와 같이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을 미국과 유럽의 언어 교육 지침과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의미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현행 한국문화 교육 관련 전반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간략한 제언을 덧붙이는 것으로 논의의 마무리를 삼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문화교육의 방향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수행을 중요시하는 방법적 지식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볼 때, 표준 교육과정에서 ‘문화실행’ 범주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표준 교육과정 1단계 연구는 문화 영역을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반영하였다고 평가되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문화실행 범주가 주로 학교 교육과정 외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문화실행을 배제시켰다. 4단계 연구에서 다시 문화실행이 포함되었으나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 요구 수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 교실 내 활동과 교실 밖 활동에 관한 구분이 모호한 점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어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문화체험, 견학, 현장학습 등을 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교재 내용과 별도로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실 밖 수업을 교실 내 수업과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통제하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여 교육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언어 학습의 교육과정을 학교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외국어교육 분야의 관점과 배치된다. 또한 학습자가 교실 안에서 배운 문화지식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상황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문화교육의 기본 목표로 볼 때 문화실행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따라서 여전히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교육 방향은 문화실행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습자에게 정해진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학습자가 학교 밖 문화 공동체에 편입되었을 때에도 문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유럽 공통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별 프로필이나 포트폴리오 제작 방안을 참고하여 학습자의 개인별 의사소통 능력 및 문화적 소통 능력 향상을 기록하여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나 일지 작성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의 세 범주 중 문화관점 영역에서는 학습자가 목표 문화인 한국문화와 학습자 모문화의 비교를 통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 방향이 설정되어 왔는데, 문화지식 영역의 교수내용은 주로 한국문화에 관한 사실적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문화관점 영역의 교수내용은 ‘각 나라의 ~에 대한 비교·이해’ 또는 ‘세계의 ~에 대한 이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두 영역 간 교육

내용의 연계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교재의 내용 또한 한국문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텍스트를 제시하고 연습과 활용 단계에서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와 같은 단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한국문화 외의 타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학습자가 한국문화와 모문화, 그리고 다양한 타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상을 비교하여 표현할 수 있는 유도장치가 부족한 경우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도 문화 수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문화관점 범주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에는 한국문화와 학습자 모문화 및 타문화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하여 한국어를 사용한 표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교문화적 수업 활동에 적합한 문화 항목을 별도로 선별하고 전체적인 문화 항목 체계에 포함시킨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호문화적 관점의 차원에서 비교하였을 때 한국문화 교육은 목표문화인 한국문화의 이해, 수용, 적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교육 분야가 학습자의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개념이 상호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문화 이해 및 자유로운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문화지식의 일방적 수용 및 문화 현상의 단순 비교에서 나아가 학습자가 주체적인 시각에서 상호문화적 관점을 수용하고 비판적 문화 인식, 해석, 평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교육 방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상호문화적 관점을 갖춘 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도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최근 한국어교육 학습자의 양적 증가에 따른 질적 관리 문제와 더불어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언어중심 교수에서 문화가 언어교육의 부수적 요소로 치부되었다면 최근에 주목 받고 있는 문화중심 교수에서는 비교문화적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상호문화적 관점을 갖추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문화 교육의 목표 및 방향 설정,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 영역을 미국과 유럽의 언어 교육 지침과 비교하여 문화교육에 관한 인식 및 구체적인 교육 방향 및 교육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의 세 가지 범주 중 문화실행 영역이 배제되어 있었거나 구체화가 부족했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문화체험, 견학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수업 활동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지식과 문화관점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이 한국문화에 관한 사실적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 학습자 모문화 및 다양한 타문화에 관한 내용을 한국어로 표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시킬 것과, 비교문화적 수업 활동에 적합한 문화 항목을 선정하여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방향이 목표 문화(한국문화)의 이해, 수용, 적응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고, 학습자가 문화 현상의 단순 비교에서 나아가 상호문화적 관점을 통한 비판적 문화 인식, 해석, 평가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호문화적 관점을 갖춘 교사 양성 및 재교육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교육의 흐름이 여전히 언어 습득을 위한 문화지식의 이해와 수용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인식하고, 외국어교육 분야의 문화교육과 비교하여 학습자에게 상호문화적 관점을 통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문화교육의 목표 설정과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결과의 축적을 후행 과제로 기약하면서 본고의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5. 참고문헌

- 강현화(2011).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김대행(2003). “한국어교육과 언어 문화”,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중섭(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_____ (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_____ (2016).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 국립국어원.
- _____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박경자 외(1997). 『언어교수학』, 박영사.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 _____ (201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 박준연(2012). “외국어교육의 문화교육 - 미국의 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9(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배현숙(200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유럽평의회 편저, 김한란 외 번역(2010),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한국문화사.
- 유소맹(2014). “구성주의에 기반한 한국 문화 교재 개발 방안 : 중국 내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현정(2016). “중급 한국어 교재와 표준 모형의 문화 항목 비교 분석 및 개선 방향-중급 교재의 읽기, 듣기 텍스트와 ‘문화란’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3, 국어문화학회.
- 윤여탁(2013).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 임경순(2009).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조항록(2004). “한국 언어 문화와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진환상(2013). “한국어 정보문화 교육 항목 선정 및 교육 방안 : 중국 내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Moran, Patrick R. 저 정동빈 외 역(2004). 『문화교육』, 경문사.

- Bennett, J. M.(1993). Cultural marginality: Identity issues in intercultural training, In R. M. Paige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pp. 109-135.
- Bennett, J. M. Bennett, M. J. & Allen, W.(2003).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he language classroom. In Lange, D. L. & R. M. Paige eds. Culture as the Core: Perspectives on Culture in Second Language Learning, Greenwich, Connecticut: Information Age Publishing, pp. 237-270.
- Byram, M.(1989).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Hammerly, H.(1986). Synthesi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Blaine, Wash : Second Language Publications.
- Kramsch, C.(1993).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ern, H. H. (1992). *Issues and Option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Tomalin B. & Stempleski S.(1994). Cultural Awar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한국문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고찰> 토론문

박정은(경희대)

유현정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국가 외국어학습 표준(NFSSL)과 유럽 공통 참조 기준(CEFR)을 분석하여 한국어교육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 항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셨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문화교육이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상호문화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비교문화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은 한국문화를 이해, 수용, 적응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접근 방안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현정 선생님의 고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발표문에 언급된 학습자 대상이 궁금합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 한국어 교육을 받는 위치와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문화 교육도 학습자의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방향성을 제안하신 한국문화 교육이 어떠한 한국어 학습자에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한국문화 교육의 효율성 제고한 결과가 궁금합니다. 제목에서는 '한국문화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 고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방향성은 제안하셨지만 효율성 측면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방향성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미국 및 유럽의 문화교육 목표와 접근 방법을 한국문화 교육에도 적용해야 한다면, 학습자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국문화 교육도 '학습자의 학교 교육뿐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 특히 대학 부설 교육기관 학습자들은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목적 또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다문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학습자에게만 해당되는 요소나 항목을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표준'이라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표준 교육 과정에는 모든 특수 목적 학습자의 상황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닌, 목적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두루 통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미국 및 유럽에서는 '문화 실행'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0쪽에서 "학습자가 교실 안에서 배운 문화지식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상황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문화교육의 기본 목표로 볼 때 문화실행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라고 하셨는데, 문화 실행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프로필이나 포트폴리오 제작 방안을 참고하여 학습자의 개인별 의사소통 능력 및 문화적 소통 능력 향상을 기록하여 보여줄 수 있는 보고서나 일지 작성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하셨는데 한국어 교육에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신 후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항목을 제시해 주시면 한국어 교수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일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0쪽에서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와 같은 단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한국문화 외의 타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기하신 문제가 교육 내용의 순서인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 비교방안의 측면에서인지 궁금합니다. 문화 비교적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교재 질문 또는 내용의 예를 들어주시면 선생님의 고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적 관점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어교육 분야가 학습자의 원활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개념이 상호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문화 이해 및 자유로운 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문화지식의 일방적 수용 및 문화 현상의 단순 비교에서 나아가 학습자가 주체적인 시각에서 상호문화적 관점을 수용하고 비판적 문화 인식, 해석, 평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교육 방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논의는 중·고급 학습자에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상호문화적 관점의 반영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언어적 문제로 인해 중·고급 단계에서처럼 반영되는 것이 쉽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교육이 초급 단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초급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초급 단계의 문화 교육 과정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11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상을 비교하여 표현할 수 있는 유도장치가 부족한 경우 학습자뿐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도 문화 수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문화 관점 범주에 해당하는 문화 항목에는 한국문화와 학습자 모문화 및 타문화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항목을 추가하여 한국어를 사용한 표현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교문화적 수업 활동에 적합한 문화 항목을 별도로 선별하고 전체적인 문화 항목 체계에 포함시킨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한국문화 교육의 과정과 교수 방안이 보완된다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교수자들에게 실제적인 문화 교육 방향이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본 토론자가 선생님의 발표문을 잘못 이해하였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답변해 주시면 선생님의 발표문과 한국문화 교육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